보이차
www.hongdawon.com
紅茶園 02)744-3311

현대불교

붓다뉴스 동영상 제공 기사 ☎구독신청 02)2004-8211~2 buddhanews.com 불기 2550년 (서기 2006년) 6월 28일(음력 6월 3일) 수요일 (주간) 제 584 호

2006 FIFA 독일 월드컵 4강기원
아이 ♥ 딕 아드보카트
찬덕연등 031)792-6288/794-4055

아기 데리고 갈 절 어디?

영·유아 편의시설 없어 젊은 엄마들 '신행 포기'

저출산시대 포교 사각지대… 타종교 벤치마킹 필요

두살된 딸을 기르는 주부 은현정씨(29 · 서울 중구)는 불자다. 아기를 낳기 전에는 바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사찰에 가곤 했다.

그런데 아기를 낳으면서부터 사찰에 나가는 일을 포기했다. 이유는 단 하나, 법회를 보는동안 딸이 마음껏 놀 수 있는 시설이 사찰 안에 없어서다.

은씨와 같은 처지의 젊은 엄마 불자들이 많다. 도심 대형사찰과 포교당 대부분, 2~5세 유아를 맡기고 마음 편하게 신행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모처럼 법당을 찾아도, 행여 아이들이 보채거나 울까 염려돼 108배를 하거나 정근에 몰두할 수 없다. 잠이 든 아기를 좌복 위에 눕혀 놓고 조심스럽게 기도를 할 때면, 아이 때문에 남에게 방해가 되지 않을까 무척 신경이 쓰인다는 엄마들도 많다.

은현정씨 역시 그렇게 조바심치다가 개운치 않은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몇 번 반복한 끝에 차라리 신행생활을 한동안 쉬어야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은씨는 "짧은 시간만이라도 마음 편하게 신행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찰 한 구석에 탁아소나 놀이방이 마련돼 있으면 좋겠다"고 호소한다.

일산 신도시에 사는 새댁 김현자씨(32) 사정도 비슷하다. 김씨는



서울 강남 총지사는 성인들의 법회시간에 법당 옆에 마련된 자성학원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따로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다. 사진=고영배 기자

"요즘은 감자탕 집이나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도 아기를 맡길 수 있는 놀이방이 마련돼 있고,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도 아기 기저귀를 갈 수 있는 공간과 수유방이 따로 있지만 사찰에는 그런 시설이 없어 아기와 함께 사찰 가기가 몹시 불편하고 눈치도 보인다"며 "아이가 부처님 계신 곳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나도 신행생활을 통해 위안을 얻고 싶은데 그것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불교계가 최근 저출산 · 고령화 대책과 관련해 많은 공약들을 내놓고는 있지만, 정작 여성불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방안을 제시하는 경우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일선 사찰의 작은 관심과 배려가 부족해 포교는커녕 기존의 불자들조차 절에 가기를 꺼리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타종교계는 어떨까. 개신교계는 지난 1월부터 중 · 대형교회 중심으로 범기독교 차원의 '교회 울타리 낮추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 운동의 핵심은 바로 '젊은 엄마들 마음잡기.'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를 비롯해 전국의 150개 교회들은 교회 내 유휴공간을 이용해 영유아를 위한 보육시설을 개설하고 있다.

광화문 종교교회의 경우 인근에 보육시설을 마련하고 운영위원회를 두는 것은 물론, 영유아 자녀들을 교회에 맡기고 직장으로 출근하는 부모들을 위해 교회 주차장까지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6월 20일 '2010년까지 국공립 보육시설을 30%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영유아보육은 우리사회에서 더 이상 가정 내의 문제가 아니다. 타종교계 역시 저출산이 교회 성장의 정체와 사회적 선교역량 감소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인식하기에 앞장서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들을 내놓고 있다.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간마련에 염두에 두고 최근 방과후 교실을 사찰내 마련한 서울 금장사 주지 본각 스님은 "교회 내 영유아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은 자라면서 교회 부설 어린이집과 방과후 공부방으로 연결돼 자연스럽게 기독교인이 되기 때문에 이는 하나의 선교전략"이라며 "사찰에서도 하루 빨리 영유아 및 아동 보육시설을 마련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지종이 운영하는 자성학교는 불교계 보육시설 양성방안을 수립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사례다. 총지종은 강남 총지사를 비롯해 전국 34개 사찰 법당 옆에 '자성학교'라는 명칭의 놀이방을 운영하고 있다.

부모들이 일요법회에 참석하는 동안, 젖먹이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까지 다양한 연령대 아이들은 3평 남짓한 공간에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자유롭게 놀며 부모를 기다린다. 총지종의 자성학교는 일요법회가 열리는 시간 동안에만 잠시 운영되며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보육과 놀이가 가능한 공간을 마련하고 전담자를 따로 두어 호응을 얻고 있는 것.

젊은 엄마들을 위한 시설 서비스가 없이는 저출산 시대에 새싹 포교도 메마를 수밖에 없다. 하루 바삐 인식전환과 관련 종책의 수립으로 이어져야 할 때다.

이은비 기자 renvy@buddhapia.com

태고종, 비불교행위 뿌리뽑는다 8면

"저출산 · 고령화 해답 찾자"

종교 · 경제계 등 협약체결, 5대 실천운동 선포



종교 · 경제 · 노동계 등 사회단체 지도자들이 6월 20일 저출산 · 고령화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협약을 체결했다. 사진=남동우 기자

저출산 ·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불교계를 비롯한 종교계, 경제계, 노동계, 여성 · 시민사회단체 등 사회 각 분야가 팔을 걷어붙였다.

저출산 · 고령화대책 연석회의(공동의장 한명숙 국무총리 · 박영숙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 강신호 전경련 회장)는 6월 20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저출산 · 고령화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협약체결식'을 개최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 한명숙 국무총리 등이 참석한 체결식에서 불교계는 부문별 실천사항을 통해 △생명존중 공동체 운동 △아름다운 인연맺기 운동 △1사찰 1보육시설 건립 △능력개발 · 고용 확대 △효문화 정립 등 5가지 실천운동을 전개해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육아지원시설 확충 △아동양육 지원 강화 △출산과 아동양육에 따른 부담 공동 부담 △출산과 양육 장려 △여성과 고령자 능력개발 지원 강화 △여성과 고령자 고용 확대 △퇴직연금제도 활성화 △요양서비스 기반 구축 △노후생활 개선을 위한 환경 조성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사회협약을 실현하기 위해 각계에서 세부계획을 마련, 실행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5대 실천운동은 종단 또는 사찰 단위로 낙태 반대, 임신 · 출산 · 양육에 관한 강좌, 미혼모시설 확대, 입양장려, 가족 교육 프로그램 실시, 문화재 · 생태해설사 양성, 노인시설 확충 등 22대 과제별로 전개된다.

한편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6월 20일 대통령 간담회에 참석해 저출산 ·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불교계도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박봉영 · 남동우 기자



큰스님 편안하십니까 24~25면
혜향 스님 구미문수사 주지



시방세계 9면
'반갑다 연우야' 봉사현장



도반의 향기 17면
'스님자장면' 만드는 장기철씨

국제교류 물길 바뀐다 4면
'푼수엄마' 배우 김혜옥 28면

군법당 신축불사 동참 열기 '후끈 후끈'

본지 캠페인 '과훈단 호국응봉사' 소개… 두달새 5천만원 모금

어려운 군법당을 돕고자하는 불자들의 마음이 월드컵 열기만큼이나 뜨겁다.

본지가 4월 5일(572호) 24인용 천막을 법당으로 개조해 법회를 보며 신축 법당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과학화 훈련단 호국 응봉사의 사연을 소개하자 동참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불자는 1000만원을 쾌척했다. 30여명의 불자들도 1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의 금액을 희사했다. 이렇게 후원 통장에 입금된 보시금 외에도 호국응봉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담당 군법사를 통해 전달된 동참금도 2000만원에 이른다.

군법당 건립을 위해 두달 사이에 5000여만원이 모금된 것은 드문 일. 조계종 군종교구는 "군포교의 활성화를 위해 매진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사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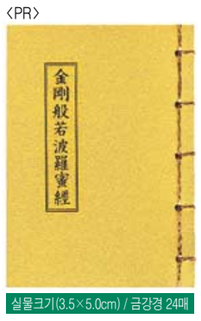
법당이 없어 법회조차 보기 힘들었던 과학화 훈련단 불자들에게는 '희망'이라는 등불이 켜진 셈이다. 편안하게 법회를 볼수 있다는 생각에 호국응봉사 불자 장병들도 들떠있기는 마찬가지다.

호국응봉사 조철호 군법사는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는 많은 불자들에게 고마울 따름"이라며 "올 가을 법당이 낙성되어 장병들이 편안하게 법회를 보며 군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동참한 불자들에게 보답하는 길일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8면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PR〉



실물크기(3.5×5.0cm) / 금강경 24매

불경금책 소장용으로 인기리에 보급중 !!!

금강불교예술원에서 금강경, 반야심경, 천수경 등의 불경을 금책으로 제작보급하여 화제다. 99.9% 금으로 제작한 불경금책은 크기가 3.5cm×5.0, 5×7cm으로 휴대가 용이하며,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맞춤식 주문제작도 가능하다고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722-1850
(용도 : 복장의식, 상량식, 영가천도, 불사)



달마의 氣

www.shmall.net
2006 베스트브랜드 인기상품!

名家인터내셔날

고객상담전화 1588-32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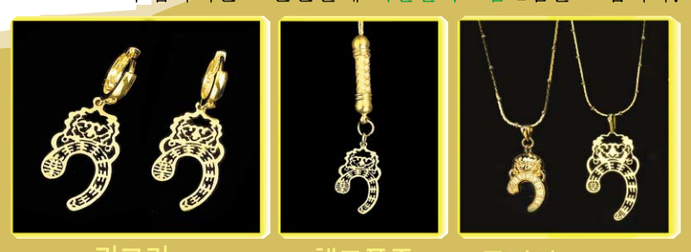
외출과 여행이 잦아지는 노출의 계절 여름!
그만큼 갖가지 나쁜 기운과 마주칠 기회가 많아집니다.
이제 달마의 기로 자칫 닥쳐올지 모를 나쁜 기운을 미리 예방하세요!

수험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선물!
행운충전



호국불교효예종 법진스님 외
여러종단 스님들께서 추천한 인기 상품!!

고객여러분의 성원에 감사하는 뜻으로 달마의 氣 14K를
구입하시는 모든분들께 백팔달마그림 1점을 드립니다.



귀고리 핸드폰줄 목걸이 (목걸이줄은 별매)

대리점 및 총판모집 1588-3278

무점포, 소자본으로 고소득 사업하실 분을 모습니다.

예부터 병귀(病鬼)와 사귀(邪鬼)를 물리치는 힘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 달마!
수맥을 차단하는 것은 물론 건강과 행복을 지켜주는 달마의 기를 직접 경험해보세요.
목걸이와 귀고리, 핸드폰 고리를 몸에 지니는 순간 행운이 찾아옵니다.

• 제조원 : 名家인터내셔날 • 판매원 : (주)S.H상사 (주)S.H상사 – 서울시 양천구 목5동 907-14 벽산미라지타워 410호

파라미타 회원 2% 감소
비구(니)↑ 사미(니)↓

조계종 '2005년 통계자료' 발표, 사찰 2368개
사설사암 1년새 156개 늘어…일부 데이터 오류

어린이 · 청소년 포교에 빨간불이 켜졌다. 조계종 총무원이 발표한 '2005년도 종단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5년 기준 파라미타청소년협회(이하 파라미타) 분회는 276개로, 2004년 306개 보다 30개(13.0%) 감소했다. 지회 또한 21개에서 17개로 4개(19.8%)가 줄어들었다.

특히 학생 회원이 1만4068명에서 1만3775명으로 293명(2.1%) 줄어들었다. 지도자 회원 또한 471명에서 431명으로 40명(8.5%) 감소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학생 회원이 1200명에서 360명으로 840명 감소했고, 분회도 17개에서 12개로 5개, 지도자 회원도 25명에서 19명으로 6명 줄어들었다.

부산광역시도 학생 회원이 2430명에서 2100명으로 330명 감소했고, 경상남도 또한 360명에서 212명으로 148명 줄어들었다. 이 같은 현상은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 분회가 각각 4개와 3개 감소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비해 경상북도는 450명에서 1365명으로 915명 증가했다. 경상북도는 1년 동안 지회가 3개 늘어났다.

이와 관련 파라미타는 "사찰분회와 고등학교 분회 감소에 따른 결과"라고 분석했다. 사찰분회 감소는 전국 사찰에서 청소년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고, 고등학교 분회 감소는 입시위주의 교육체계 속에서 고등학생들이 신행활동 및 청소년단체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통계자료에서는 또 조계종 소속 사찰과 스님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기준 조계종 전체사찰은 2368개로, 2004년보다 169개(7.7%) 증가했다. 증가분 중 공찰은 13개(1.5%), 사설사암은 156개(11.7%). 이에 따라 전체사찰 중 공찰은 883개, 사설사암은 1485개로 사설사암이 차지하는 비율은 1년 동안 2% 증가한 62%로 조사됐다.

조계종 스님은 1만3035명(비구 4953명, 비구니 4885명, 사미 1862명, 사미니 1335명)으로 1년 동안 361명(2.9%) 증가했다. 이중 비구와 비구니는 각각 222명(4.7%), 212명(4.5%) 증가했지만, 예비스님인 사미와 사미니는 10명(0.5%), 63명(4.5%) 감소했다.

그러나 이번 통계자료가 지난해와 조사하는 '시점'과 '기준'이 달라 자료의 '통일성'과 '연속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6월 21일 조계종 총무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파라미타 학생 회원은 1년 동안 1800여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파라미타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그 자료는 기준이 다른 데이터에 의한 비교"라며 데이터에 오류가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조계종 전체 사찰수도 21일 발표에서는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조계종 총무원은 21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2004년 전체 사찰 수에는 직할포교소, 대각회 · 선학원 소속사찰이 포함됐기 때문"이라며 이들을 제외한 수치를 다시 발표했다.

한편 조계종은 통계내용을 종단 홈페이지(www.buddhism.or.kr)에 공개하고 있다. 남동우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편집국장 : **위영란** 인쇄인 : **채수삼**

110-030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7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국회 17대 하반기 문광위 '불자 3명'

윤원호 이광재 이계진 의원, 16대땐 '전무'

하반기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하반기 원 구성에서 열린우리당 불자회 '이타회' 회장 윤원호 의원 등이 배정됐다.

이들은 앞으로 17대 하반기 국회에서 불교 등 종교관련 입법활동을 책임지게 된다. 국회는 6월 22일 17개 상임위와 5개의 (상임)특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문광위 위원장에 열린우리당 조배숙 의원을 선출했다.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조배숙 강혜숙 김재윤 김재홍 김희선 노웅래 우상호 윤원호 이광재 이광철 전병헌 정청래 의원 등 12명, 한나라당 소속으로 김충환 김학원 박찬숙 박형준 이계진 이재웅 장윤석 정병국 정종복 최구식 의원 등 10명, 비교섭단체로 민주당 손봉숙,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 2명이 포함돼, 정원 총 24명이 모두 배정됐다. 이에 따라 문광위 소속 불자의원은 윤원호 이광재 이계진 의원 등 3명. 지난 16대 하반기 문광위 상임위에는 불자 의원이 한명도 없었다.

이밖에 열린우리당 이용희(정각회 회장)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법제사법위에, 열린우리당 최재성 정봉주 의원 등은 교육위를 맡았다. 조용수 기자

"해외 포교 · 국제활동 날개 되자"

조계종 제3기 국제교류위원회 출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가운데) 스님이 위촉식 후 제3기 국제교류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왼쪽부터 이치란, 지원(위원장) 스님 조영록, 보광 스님, 이평래, 이동호 위원.

조계종 제3기 국제교류위원회(위원장 지원 · 사회부장)가 출범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6월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집무실에서 진월(한국종교연합선도기구 대표 · 미주 및 종교연대), 보광(동국대 불교대학원장 · 일본), 정범(조계종 총무국장 · 미주) 스님, 조영록(동국대 명예교수 · 중국), 이치란(세계불교문화원장 · 아시아), 이평래(국민대 한국학연구소 연구교수 · 몽고 및 중앙아시아), 이동호(발틱 연구소장 · 유럽)씨를 제3기 국제교류위원에 위촉했다. 포교부장 일관 스님은 당연직 위원.

이 자리에서 지관 스님은 "해외 각지에 연고가 깊은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해 종단으로서는 날개가 달린 격"이라며 "앞으로 해외포교에 큰 도움이 돼 줄 것"을 당부했다.

지관 스님은 또 "국제부 신설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 잘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1 · 2기 위원들은 2차례의 회의 거쳐 종단의 국제정책을 자문했으며, 2004년 12월 국제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다. 남동우 기자

고운사 주지 선출
7월 14일 산중총회

조계종 제16교구 본사인 의성 고운사 차기 주지 후보자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가 7월 14일 오후 1시 고운사 대웅전에서 개최된다.

승랍 25년 이상, 연령 45세 이상 70세 이하, 법계 대덕 이상 중 입후보를 원하는 스님은 7월 4일부터 6일까지 교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경호)로 접수하면 된다. 선거인명부열람은 7월 8일 오전 9시부터 10일 오후 5시까지 가능하다.

(054)833-2324 남동우 기자

불교문화사업단장
현고 스님 사퇴

조계종 총무원(원장 지관)은 6월 23일 오전 열린 종무회의에서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현고 스님의 사표를 수리했다.

현고 스님은 최근 불교문화사업단 운영과 관련한 잡음이 일면서 총무원장 지관 스님에게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조계종은 호법부장 도진 스님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조사단을 호법부 감사국 기획실 총무부 등과 합동으로 구성해 이날부터 불교문화사업단 운영 전반에 대한 진상조사에 돌입했다.

한편, 모 인터넷 언론이 하루 전인 22일 "현고 스님이 불교문화사업단의 템플스테이 예산 배정을 조건으로 금품을 받았다"며 금품수수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현고 스님은 "보도된 의혹들은 소설에 가깝다"며 보도내용을 부인했다. 현고 스님은 "할 말은 많지만 현재 종단이 정부에 불교문화 지원을 위한 대형사업을 요구해 놓은 민감한 상황이라,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지 않고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종단을 위해 바람직하는 생각에 사표를 냈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특별조사단 관계자는 "종단 내 감사기관이 조사국의 감사내용을 바탕으로 엄정한 조사를 벌일 것"이라며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종헌종법대로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용수 기자

김태호 경남도지사
지관 스님 예방



김태호 경남도지사 당선자가 6월 21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김태호 당선자는 "지난 선거에서 불교계에서 많은 도움을 줘 인사차 예방했다"며 "앞으로도 많은 심부름과 꾸짖음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지관 스님은 "워낙 일을 잘해 재임이 된 것"이라며 "도움 될 일이 있으면 적극 돕겠다"고 답했다.

이 자리에는 기획실장 동선, 재무부장 정만, 호법부장 도진, 사서실장 심경 스님 등이 배석했다. 남동우 기자

■세계종교지도자대회 무엇을 남겼나?

전문성 부재 짧은 준비기간
성과 불구 '구설수' 분분

2006 세계종교지도자대회가 6월 8일 개막해 일주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14일 폐막했다. 전 세계 18개국 8대 종교단체 35명의 지도자들과 국내 종교지도자들이 조계사 불국사 등 사찰과 천주교 원불교 등의 종교시설을 둘러보고 종교화합과 평화를 기원하는 '서울선언문'을 발표했다. 조만간 화보집도 나올 예정이다.

행사 후 준비위원장 연기영 교수(동국대 법대)는 "4차에 걸친 회의 후 격년으로 세계종교지도자대회를 열자는데 참가 지도자들이 합의했다"며 "앞으로 '서울포럼'이라는 이름으로 종교문화 예술을 아우르는 대표적인 대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세계종교지도자대회는 여러 문제점을 남겼다.

서툰 대회운영 '민망'
학술대회 홍보 부족
예산문제도 '뒷말' 많아

무엇보다 준비가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6월 처음 논의됐던 세계종교지도자대회는 같은 해 11월 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올해 2월 사무국이 꾸려져 실질적인 준비에 들어가는 등 촉박한 일정으로 진행됐다. 거기다 주최 측에 국내 종교들이 공동주최를 할 것인가의 문제를 놓고 시일을 끌다 5월 중순에서야 만해사상실천선양회 단독 주최로 결정됐다.

불교 천주교 등 각 종단 차원이 아닌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와 한국종교인평화회의 등이 후원 협찬한데 반해 대순진리회는 단독으로 후원 이름을 올려 논란이 되기도 했다.

행사 주관인 준비위원회를 비롯해 세계종교문화연구원, 아시아태평양교수불자연합회는 회장 및 대표가 모두 연기영 교수다. 독단적인 운영을 했다는 시선을 받는 이유다.

매끄럽지 못한 대회 운영도 지적대상. 외국 종교지도자들이 축하 메시지를 발표할 때 동시통역이 이루어지지 않은데다, 대형화면을 통해 동시자막을 하기로 했던 것도 불발되면서 참가자들은 이해하지 못할 말잔치 속에 방치됐다.

세계종교지도자대회의 주요 행사로 꼽히는 학술대회는 '졸속' 비난을 면키 어려웠다. 세계종교지도자대회에 참석하는 일부 지도자가 오전에는 학술대회로 오후에는 지도자대회로 오락가락 하면서 양분되는 통에 학술대회장은 발표자들만의 잔치에 그쳤다. 홍보부족으로 관람석도 텅 빈 채 진행됐다.

후원금으로 이뤄진 예산 규모에는 뒷말이 많았다. 검증이 더 필요한 특정종교로부터 대회 총 예산의 1/3을 지원받았다는 점 때문이다.

준비위원장 연기영 교수가 밝힌 총 예산은 9억원. 연교수는 20일 기자들에게 "서울시에서 5억원, 강원도 인제군에서 1억원, 대순진리회에서 3억원을 지원받았다"고 밝혔다.

당초 예산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던 만해사상실천선양회의 후원금 3억5천만 원은 "시드머니(seed money, 종자돈)여서 도로 돌려줘야 하는 돈"이라고 밝혀 제외됐다.

개 · 폐막식을 통해 3000여명의 신도를 동원하고, 3억원의 후원금을 내는 등 대순진리회의 자리가 컸던 것도 눈살을 찌푸리게 한 요인이다.

더구나 중곡동본부, 여주본부로 나뉘어 정통성을 두고 재판중인 대순진리회의 특정본부 쪽에서 후원금을 받아 내부싸움에 편들기가 됐다는 우려마저 제기됐다.

2006세계종교지도자대회는 뒷말을 무성하게 낳으며 마무리됐다. 앞으로 격년제 '서울포럼'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대회에서 불거진 여러 문제들이 해결돼야 할 것이다. 강지연 기자

奉

僧正 萬奉堂 致虎大宗師 四十九日 靈山大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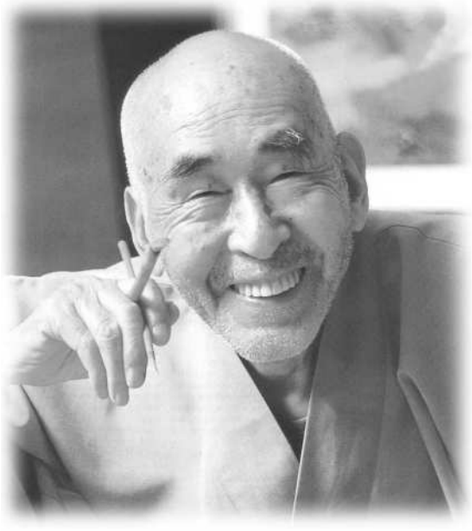
行

- 眞骨舍利 親見 및 遺作(佛畵 · 幀畵) 展示會 -

時下 初夏之際에 諸方의 高僧大德 스님의 法體淸安과 太古宗徒 및 佛子 여러분의 健勝하심을 三寶前에 기원드립니다.

韓國佛敎太古宗의 僧正이시며 大韓民國 重要無形文化財 第48號 丹靑 技能保有者이셨던 萬奉 큰스님께서 圓寂에 드신 지 四十九日이 되어 靈山齋保存道場인 奉元寺에서는 佛敎傳統儀式인 靈山齋로 다음과 같이 四十九日 靈山大齋를 奉行하며 萬奉 큰스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眞骨舍利 親見法會와 遺作(佛畵 · 幀畵) 展示會도 함께 奉行할 예정이오니 宗團 元老大德스님과 宗徒 四部大衆께서는 무루 참석해주시기를 仰望하나이다.

◉ 日 時 : 佛紀 2550年 7月 4日(陰 6月 9日) 火曜日 午前 10時 ~ 午後 7時
◉ 場 所 : 韓國佛敎太古宗 奉元寺 道場
(雨天時 靈山齋는 三千佛殿에서, 眞骨舍利 親見 및 遺作 展示會는 說法殿에서 奉行합니다.)
◉ 問 議 : 奉元寺 宗務所 (☎ 02-392-3007~8)



△ 만봉큰스님 생전 모습

佛紀 2550年 6月 日

韓國佛敎 太古宗 三角山 奉元寺 住持 曺幻宇 合掌

重要無形文化財 第50號 靈山齋保存會 總裁 金九海 · 萬奉佛畵傳承會長 崔福淑

복지시설 정부지원금 불교계 가장 적다

종단지원금도 가톨릭의 3분의 1 수준
시설규모별 지원금액 양극화 심각

불교계 사회복지시설이 정부로부터 가톨릭이나 개신교보다 적은 지원금을 받고 있으며, 종단 내부로부터도 가톨릭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지원금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6월 1일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연구보고서 '사회복지지출 추계를 위한 한국 종교계의 사회복지시설 지원금 실태조사(2001~2003년)'에 따르면 각 종교별 정부지원금 규모는 2003년 기준으로 가톨릭은 1천332억원, 개신교는 802억원을 받았지만 불교는 750억원원을 받았다.

종교별 지원금 규모도 불교가 가장 적었다. 2003년도의 경우 전체 590억원 가운데 가톨릭이 47.3%인 279억원, 개신교는 28.7%인 170억원, 불교는 16.5%인 97억원을 차지했다.

반면 시설 이용자 부담금은 2001년 274억원, 2002년 303억원, 2003년 314억원으로 종교계 지원금보다 190~217억원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불교계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총 세입은 상당부분이 정부 지원금으로 채워지고 있으며 교계의 지원은 시설 이용자 부담금보다도 적다는 뜻이다.

또 이번 조사 결과 불교계 사회복지시설의 운영형태별, 이용시설별 지원금 규모도 파악돼 불교계 사회복지의 강점과 약점이 한 눈에 드러났다. 2003년도 운영형태별 지원금 규모를 보면 가톨릭과 개신교는 직영시설 지원금이 위탁시설 지원금보다 각각 67억원, 85억원 더 많았지만 불교계는 오히려 직영시설보다 위탁시설에 54억원을 더 지원했다.

이는 개신교의 직영시설이 79.7%, 가톨릭 70.8%인 반면 불교계만은 자체 직영시설(36.3%)보다 정부 위탁시설(63.7%)이 두 배 가량 더 많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다.

정부 위탁시설은 3년마다 재심사를 거쳐 위탁기관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타종교시설은 직영시설 건립에 더 힘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시설분류를 통한 지원금규모(2003년 기준)를 살펴보면 가톨릭과 개신교는 노인복지에 약 40억원, 장애인 복지에는 각각 50억원과 21억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불교계는 노인복지에만 간신히 20억원을 지원하며 그 밖의 시설에는 10억원 이하의 지원금만을 분담하고 있다.

이용시설별로 살펴보면 여성복지와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복지 지원금은 아예 한 푼도 없어, 이 분야에 대한 불교계의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불교계의 지원금분포를 분석한 결과 상하위시설간 지원금액의 양극화현상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음이 발견됐다. 2003년 기준 종교계 지원금액의 경우 불교계는 500만원 미만을 지원받는 시설은 29%지만 5000만원 이상도 27%를 차지했다. 상하위 격차가 10배 이상 벌어지는 것으로, 사회복지시설 간 지원금액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난 것이다.

이번 조사는 우리나라 전체 복지시설 4천48개 중 종교계가 운영하는 1천891개를 대상으로 했으며 이중 불교계 복지시설은 402개(21.2%)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경환 연구원은 "종교계의 사회복지 참여정도를 분석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비 기자

2003년 종교별 사회복지시설의 총 세입규모

(자료=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단위:백만원)

구 분	개신교	가톨릭	불교
정부지원금	80230	133234	75087
종교계지원금	16955	27908	9707
이용자부담금	27865	20160	31382
기타	32461	37202	12892
계	157511	218504	129068

*정부지원금=중앙 및 지방정부지원금, 종교계지원금=종단본부, 교구, 종교계 법인 지원금 포함
이용자부담금=시설 이용자 부담금

종교별 자체 복지시설 지원금 규모

(자료=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단위:원,%)



도난당한 불화가 버젓이 박물관에?

백양사 아미타극락회상도, 불교미술박물관서 전시
반환요구에 "선의취득 · 공소시효 지나" 난색

1994년 도난당한 백양사 극락보전 '아미타극락회상도(1775년 作, 351.5×236cm)'가 2003년부터 한국불교미술박물관(관장 권대성 · 이하 박물관)에 버젓이 전시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백양사와 조계종 총무원 관계자들은 도난당한 아미타극락회상도를 반환받기 위해 올 4월부터 박물관 측과 수차례 협의를 시도했으나 결렬되고 말았다.

박물관 측이 '선의 취득'을 주장하며 백양사 측의 반환 요청을 완강히 거부했기 때문이다.

권대성 관장은 "1995년 한 고미술상으로부터 아미타극락회상도를 구입할 당시, 도난당한 것인지 백양사 소유의 것인지도 모르고 구입했기 때문에 반환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관장은 또 "구입 당시 문화재청 도난문화재과에 도난 문화재인지를 확인했고 조계종 총무원 <도난문화재백서>를 통해 도난여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권 관장은 특히 "<도난문화재백서>에는 사진이 첨부돼 있지 않았고 실물과도 가로 세로 10cm 이상 차이를 보였으며 결정적으로 종이에 채색한 불화라고 기록돼 있었지만 현재 박물관이 소장한 아미타극락회상도는 비단으로 된 불화다"며 "구입 당시 백양사 것임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백양사성보박물관 사무국장 법선 스님은 "12년 전 도난 직후 장성경찰서에 구비서류를 갖춰 도난신고를 마친 아미타극락회상도는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마땅하다"며 "선의의 취득을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하는 박물관 측의 태도는 억지다"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박물관에 전시된 아미타극락회상도가 백양사 극락보전의 아미타극락회상도였다는 증거는 뭘까.

백양사 측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자료로 남아 있는 사진들과 한국불교박물관에 전시 중인 아미타극락회상도의 내용과 구성이 일치한다는 점이다.

또 정상적인 불화의 형태와 달리 축봉이 없는 것으로 보아 도난 물품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백양사 극락보전 내에 봉안돼 있는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의 복장 기문(1775) 내용과 아미타극락회상도 화기 내용이 90% 이상 일치한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증거자료다.

이에 대해 법선 스님은 "아미타극락회상도를 반환받기 위해 행정 · 법적 절차를 밟아나가겠지만 이에 앞서 도난당한 성보문화재 환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전국 성보박물관과 연계해 다양한 환수 운동을 펼칠 예정이다"고 밝혔다.

노병철 기자

연꽃 향기 취해볼까? 연쌈밥에 반해볼까?

이달말부터 8월까지 연꽃축제 줄줄이 열려
김제 청운사, 태안 청산수목원, 강화 선원사 등

더러움 속에서도 물들지 않고(處染常淨 · 처염상정),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씨앗이 썩지 않고 싹을 틔우며(種子不失 · 종자불실), 꽃과 열매가 동시에 맺히고(花果同時 · 화과동시), 뿌리부터 줄기까지 텅 비어 있어(眞空妙有 · 진공묘유) 불교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연꽃. 연꽃이 만발하기 시작한 7월, 단순히 눈 즐김에 그치지 않고 내 마음을 연꽃에 비춰보기 위해 도심을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제1회 제부도 연꽃축제가 7월 29일~8월 6일 화성시 연꽃농장에서 열린다. 연꽃잎 천연염색, 연씨 비즈공예, 도자기 만들기, 불꽃놀이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돼 있다. 연국수 쌈밥 부침개 등 먹거리 행사와 연꽃 사진촬영대회도 개최된다.(제부도 연꽃영농조합:031-356-2943)

충남 태안 청산수목원(041-675-0656)에는 하얀 버드나무가 감싸고 있는 1만5000평 연못에 백력 홍련 노랑어리연 가시연 등 200여종의 연꽃이 자라고 있다. 청산수목원은 연꽃이 만개하는 7월 20일경부터 한 달간 '태안연꽃축제'를 연다. 연꽃 구경뿐 아니라 연잎차, 연 아이스크림, 연잎칼국수, 연전 등 다양한 먹을거리 시식코너도 마련한다.

2002년부터 시작된 '논두렁 연꽃축제(032-934-8484)'는 7월 30일~8월 4일 강화도 선원사 인근에서 펼쳐진다. 선원사가 주최하는 '논두렁 연꽃축제'는 강화도 선원면 지산리를 연꽃마을로 탈바꿈시켰다. 선원사가 1997년 연꽃 재배를 시작한 이래 연근차, 연냉면, 연칼국수, 연빵, 연소면 등 다양한 가공품을 즐즐이 만들어 낸 것이다.

'논두렁 연꽃축제'에서는 자연염색 승마 완초공예만들기 연화도자기 팔만대장경 판각체험 등이 벌어진다.

'서동 선화공주', 화관무, 전통 줄타기 시연, 평양민족예술단 공연 등 다채로운 공연도 마련된다.

무안 백련축제(061-450-5319)도 8월 11~17일 연꽃 그림그리기, 연향차 다도 체험, 연꽃길 탐사, 백련지 생태 공원, 프린지 페스티벌, 연월빙관, 꽃과 빛의 환타지 등의 프로그램으로 사람들을 유혹한다.

해마다 여름이면 하연연꽃 세상으로 변하는 김제 청운사(063-543-1248)는 6월 25일부터 8월 30일까지 '제5회 하소백련축제'를 개최한다. '백련, 부처를 만나다'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3만여평의 백련지 주변에서 청운스님 연꽃 그림전, 행천선생 고려불화전, 윤한수 돌조각전, 네팔 사진전, 초산 솟대 깃발전과 다례시연, 백련음식전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아산 인취사(041-542-6441) 백련축제는 7월 22~23일 열린다. 연잎차, 연국수 등 다양한 연음식을 체험할 수 있다. 연등 만들기와 목탑 탁본 체험도 마련된다.

홍천 거북이마을(041-632-7074)은 올해 처음으로 거북백련지를 공개한다. 홍보를 위해 6~8월 백련종근 무료 분양한다. 마을입구 5000여평 규모로 조성된 백련단지도 구경하고 백련종근도 얻을 수 있다. 연잎차, 연꽃차, 연근 장아찌 등 연근 요리와 사찰 음식 체험 코스도 개발할 예정이다.

백제 무왕과 선화 공주의 전설이 깃들어져있는 충남 부여 궁남지에서는 7월 20~24일 서동연꽃축전이 열린다. 궁남지에 화려한 자태를 드러낸 홍련 백련 노랑어리연 가시연 등 연꽃 20여종을 볼 수 있다. 이번 축전에서는 백제 제30대 무왕 행차와 서동-선화공주 포룡정 재회가 볼거리. 창극

이은비 · 강지연 기자

특정종교 색채 표출 우려
조계종, 방송위에 공문

경인지역 지상파 방송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조계종이 우려를 표명했다.

조계종은 6월 19일 방송위원회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방송위원회에서 지난 4월 28일 경인지역 지상파 방송사업자로 특정 종교 방송사가 포함된 컨소시엄을 선정 발표했다"며 "이는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위협할 수 있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조계종은 또 "지상파 방송은 국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조금이라도 특정종교의 매체로 전락되면 안 될 것"이라며 "특히 특정종교의 색채가 드러나지 않도록 방송위 차원에서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남동우 기자

울릉군 어린이집 위탁운영
진각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이사장 회정)은 6월 19일 울릉군 보육정책위원회로부터 울릉읍 도동리에 위치한 '꿈나무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7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건물연면적은 103평으로, 2층 건물이며 정원은 60명이다. 지원심인당으로 선정된 울릉군 여래심인당은 "보육교사를 6명 충원하고 3세 미만의 영아반을 특별 편성하는 등 영유아 교육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타 지역에서도 이용이 용이하도록 어린이집 차량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054)791-9191

이은비 기자

불교음악 페스티벌 운영위 제6회 창작 찬불가 공모

2006 불교음악페스티벌 운영위원회가 제6회 창작찬불가 공모 요강을 6월 22일 발표했다.

원서교부는 7월 4일~8월 25일까지, 8월 21~25일에는 작품접수를 받는다. 예심발표는 9월 6일이다. 본선에서 총 8작품을 시상한다. 상패와 상금은 총 660만원, 시상내역은 대상(1) 최우수상(1) 우수상(2) 아름다운노랫말상(1) 특별상(1) 장려상(2) 등이다.

본선 경연과 함께 시상식이 열리는 10월 25일에는 '불교전통음악과 오늘의 소리' 음악회를 통해 이전 수상곡을 다른 장르로 편곡한 작품과 창작퓨전 위촉곡 연주 등도 준비된다. (02)2011-1770

윤달에는 해운정사로 삼사순례를 다녀오세요!

삼사순례란 재액이 없는 윤달에 세 곳의 명산 대찰을 참배함으로써 부처님과의 인연을 두텁게 하고 모든 액을 소멸하여 복을 짓는 불가(佛家)의 전통의식입니다



해운대 해운정사는

- 경허 - 혜월 - 운봉 - 향곡선사로 전해 내려오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심인법(心印法)을 면면히 이으신 제 79대 법손(法孫) 진제대선사께서 창건하신 대가람!
- 전국에서 운집한 납자들과 재자가들 200여 명이 일년 내내 불철주야 참선정진에 몰두하고 있는 곳!
- 당대의 풍수가들이 '한 번 밟기만 해도 발복(發福)한다' 고 극찬한 명당의 절터!
- 33과의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관음보궁 3층사리탑!
- 세계 최대의 금동 천수천안관세음보살상을 모신 장엄한 108평 큰법당!
- 일만 옥돌 지장보살님과 만년위패를 모신 대불전!
- 웅장한 해탈문과 아름다운 구름다리!
- 20여 대의 관광버스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넓은 주차시설!

불, 법, 승 삼보가 이렇게 원만히 갖추어져 있는 도량은 없습니다. 이러한 훌륭한 도량에 한번 참배하는 인연공덕으로 무량업장이 소멸되고 각자 소원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거년에 개최된 해운대 동백섬 APEC 회의장 주변의 아름다운 경관도 오신 걸음에 한번 둘러보신다면 더욱 풍성한 순례길이 되실 것입니다.





◆오시는 길 : 해운대역 뒤편
문의전화 051)746-2256, 4812
팩스 051)741-8882
홈페이지 http://www.seon.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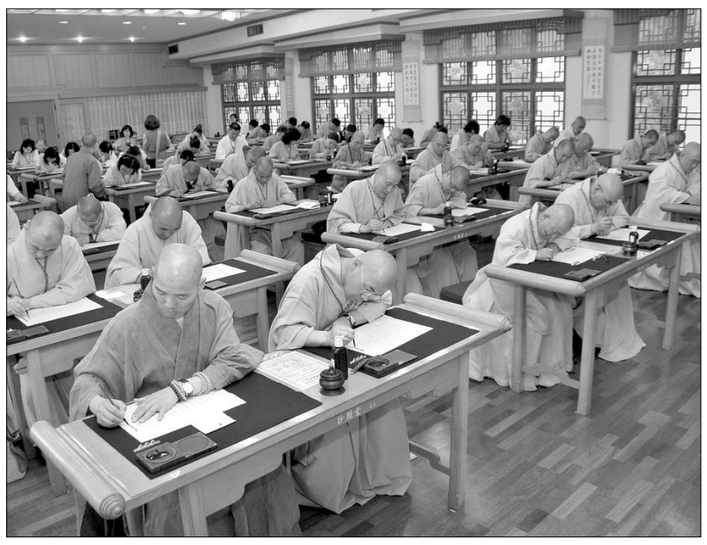
부산시 해운대구 우1동 401번지 대한불교조계종 해운대 해운정사 주지 지상 합장

가진 것 베풀고 부족한 점 채우는 상생 교류

국제 불교교류 물길 바뀐다

'지구촌시대' 로 통한 지 오래다. 지구가 하나의 마을로 표현될 만큼 이전보다 훨씬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공동의 공감대를 형성한다. 그 중심에 교류가 있다. 이같은 시대적 흐름에서 한국불교도 예외일 수는 없다. 한국불교는 세계화의 흐름을 타고 1950년대부터 종단을 중심으로 국제교류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최근 한국불교의 국제 교류는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인다. 외형과 선언적 의미가 강했던 예전의 교류와는 달리 실리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무게중심도 종단에서 단위사찰이나 불교단체로 이동하고, (우리가) 가진 것은 베풀고 (우리에게) 없는 것은 배워오는 형태로 진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5월 타이완 불광산사에서 사경을 직접 체험하고 있는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실무자들. 사진제공=한국불교문화사업단



JTS 봉사자들이 지난해 1월 쓰나미 피해를 입은 인도 타밀주에 긴급파견돼 구호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진제공=정토회 JTS

"하나라도 배워오겠다" 교류목적 뚜렷해져
일본 사찰경영 노하우 체험 … 만족도 높아
교류주체, 종단서 사찰 · 단체로 중심 이동

NGO, 불교권 개도국서 구호활동 적극 전개
교육 · 의료 지원사업 현지인들의 큰 호응 얻어
퍼주기식 지원 · 과열경쟁 등 일부 부작용도

◇'배우는 교류' 로 방향 전환

실천불교전국승가회(공동의장 성관 · 효림)는 5월 16일부터 20일까지 일본 사찰과 주요 시설을 견학했다. 혼보쿠지(本福寺), 카츠오지(勝尾寺), 나리타지(成田寺), 히가시혼간지(東本願寺), 신쇼지(新勝寺), 다마레이엔(多磨靈園), 신고베 허브가든 등을 둘러본 이 견학은 실천불교승가회가 올해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찰경영에 관한 연구' 의 해답을 얻기 위해서였다.

실천불교승가회는 일본 견학을 통해 사찰의 문화적 기능을 확대하고 신도중심의 공간운영,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이루는 불사 추진 등 일본 사찰의 특징을 배운 점을 성과로 꼽았다. 아울러 일본사찰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양측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공유하기로 했다.

실천불교승가회 견학단으로 참가했던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토진 스님(수국사 주지)에게 일본 견학은 갈증을 풀어준 경험이었다. 단순히 사찰과 성지를 순례한 이전의 외국행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뿌듯함이었다.

토진 스님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지 못한 것이 아쉬울 만큼 성공적이었다"며 "사찰을 운영해야 하는 스님으로서 해야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템플스테이를 주관하고 있는 한국불교문화사업단도 같은 기간 타이완 카오슝 불광산사를 방문했다. 지난해 일본사찰 템플스테이 체험에 이은 두 번째. 불광산사의 템플스테이를 직접 체험하고 운영과 관리 시스템을 배우기 위한 자리였다.

두 번의 체험에서 주목할 점은 참가자 수다. 일본사찰 체험 당시 참가자는 38명이었지만, 이번 타이완 불광산사 체험은 68명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 체험이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는데 큰 보탬이 됐다는 당시 참가자들의 입소문 때문이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무국장 성효 스님은 "우리나라 사찰들이 갖고 있는 템플스테이에 대한 노하우도 불광산사측에 전하기 위해 그들을 초청해 놓은 상태"라며 "서로에 대한 이해와 협력를 바탕으로 교류를 가진다면 상생의 교류가 될 것"이라고 조언한다.

◇형식보다 내용 중시

현재 한국불교의 국제교류는 변화의 중심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 한중일불교교류대회, 세계불교도우의회, 세계불교도연맹 등 그동안의 교류가 종단이 주도해 대규모로 대표단을 파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면, 이제는 사찰 또는 불교단체 단위의 교류가 주류를 이루고, 형식 보다는 내용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는 것. 이는 실용주의를 중시하는 세계화의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이와 함께 성과는 적으면서 지나치게 소모적인 교류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일고 있다. '작으면서도 효과 있는' 교류가 늘어나는 시대적 흐름에서 흘러나오는 자성론이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일문 스님(파주 보광사 주지)은 "그동안 한국불교는 국제교류에 있어서 지나치게 외형적이고 소모적인 경향이 강했다"며 "이제는 작은 것 하나라도 배우고 얻을 수 있는 교류가 되도록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한다.

작은 규모의 교류 중에서도 왜곡된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남방불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내 사찰들이 경쟁적으로 남방권 스님들을 초청해 법회를 여는 현상이 대표적이다.

그동안 접해보지 못한 불교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는 있어도 그 이상의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일부 사찰에서는 신도 늘리기 또는 수입 확대를 노리고 사찰의 특성과는 관계없이 국제교류를 오용하고 있다.

또한 국내 사찰과 불교권 개발도상국 사찰과의 교류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일부 사찰의 퍼주기식 지원과 국내 사찰끼리의 지나친 경쟁이 문제를 양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남이 하니까 나도 한다' 는 식이거나, 큰그림을 갖고 교류를 가지지 못한 탓이다. 이에따라 사찰간 교류를 위한 교육과 안내, 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교류센터' 를 종단내에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불교NGO 제3세계 구호 '모범'

제3세계에 대한 구호활동과 개발도상국 가운데 불교권국가에 대한 후원활동은 국제교류의 큰 줄기 가운데 하나다.

한국JTS가 인도에 개원한 초등학교 수자타아카데미를 시작으로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지구촌공생회, JGO,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등 불교단체들이 제3세계로 눈을 돌리면서, 구호활동은 이제 교류의 한 '트렌드' 로 자리 잡았다.

가장 먼저 해외로 진출한 JTS는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 재난지역에서 긴급구호활동을 펼치고 있고, JGO는 스리랑카와 네팔에 직업훈련센터와 유치원, 의료센터를 각각 운영하고 있다.

지구촌공생회도 라오스와 캄보디아, 미얀마, 베트남, 인도, 몽골 등지에 초등학교와 유치원, 직업훈련센터 등을 건립하거나 공동우물을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외에도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와 실천불교전국승가회는 네팔과 캄보디아에 각각 직업훈련센터 비하니바스티(아침을 여는 작은 마을)와 유치원, 초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단체의 활동은 해외 사찰과의 교류를 모색하고 있는 사찰들에게 본받아야 할 해외 진출 모델로 꼽힌다. 한국불교의 이미지를 선양하면서도 포교의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새로운 교류방식에 대한 힌트를 주고 있는 셈이다.

불모지와 다름없는 베트남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옥천 대성사(주지 혜철)의 교류방식은 눈여겨볼만하다. 베트남과의 교류가 양쪽에 이익을 주는 시도이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선남선녀 인연 맺어주기' 사업을 벌이고 있는 대성사는 베트남 분원 건립과 '선남선녀 만남' 을 확대해 한국 총각과 베트남 처녀를 맺어주는데 중점을 두고 진출계획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대성사는, 베트남 여성을 상품으로 취급하는 등의 부작용을 해결하는 NGO 활동으로 방향을 바꿨다. 베트남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매매가 아닌 올바른 결혼문화를 세우기로 한 것.

이에 따라 대성사는 지난 3월 베트남 현지에 여성상담소를 개설하고 2명의 직원을 채용했다.

여성상담소는 여성인권과 결혼, 신행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활동을 벌여 현지인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결국 대성사는 베트남과의 교류로 '선남선녀 인연 맺어주기' 사업에 탄력을 받고 있고, 베트남 현지에서는 여성인권 보호와 함께 한국불교를 알리는 포교성과를 거두는 일거삼득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셈이다.

수원포교당 주지 성관 스님은 "경제적으로 낙후된 불교권 국가들은 과거 우리나라가 그랬던 것처럼 빈민 구제와 교육을 앞세워 진출한 기독교국가들의 문화 말살에 무방비하게 노출돼 있다"며 "사찰간 왕래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 교류방식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해당국가에 직접 진출해 교육 · 육아사업을 벌이는 교류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충고한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한국 근본 불교 조계종
입종안내

귀의삼보 하옵고
최근 들어 제방 스님들께서 입종에 관한 문의가 많이 있어 다음과 같이 입종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입종자격	사찰을 운영하시는 주지스님, 사찰에서 수행 정진하시는 스님, 포교당을 개원했거나 개설 하실 분
구비서류	1. 주민등록 등본 1통 2. 이력서 3. 본 종단 입종 원서 4. 반명함판 사진 3매 (칼라). 사찰전경사진
문 의	☎ 031)285-5102

한국 근본 불교 조 계 종 총무원장 우 담 합 장

◆ 주소 : 총무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562-4번지

분한신고 공고

한국 근본 불교 조계종은 종단소속 각 사,암 승려 및 포교사에 대하여 분한 신고를 실시하고 있사오니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총무원에 신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 래

1. 신고기간 : 2006년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2. 신고서류 : 분한신고서, 반명함판 3매, 이력서, 사찰전경사진
3. 비 용 : 3만원 (승려증 갱신)
4. 신고방법 : 총무원 방문 접수 및 우편 접수
(공고에 있는 날짜에 방문하시기 바람)
5. 문 의 : ☎ 031)285-5102

(단, 협조 회신문을 보내 주신 스님은 별도의 분한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사진구매와 신고비 3만원만 보내 주시면 됩니다)

※ 분한신고 미등록시 (2006년 7월 30일까지) 자동 제적됨을 공고합니다.

불기 2550년 6월 28일

한국 근본 불교 조 계 종 총무원장 우 담 합 장

불자들과 24시간 함께 숨쉰다

부산 용두산 미타원 시민선방 · 법당 개방



참선 정진을 원하는 대중에게 24시간 개방되고 있는 미타선원 시민 선방 .

용두산 공원으로 오르는 길목에 위치한 미타선원(주지 하림)이 법당과 시민 선방을 24시간 개방하며 시민들을 위한 열린 수행도량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최근 20평 규모의 시민선방을 새롭게 단장하고 법당 주변에 조경 불사를 마무리한 미타선원은 6월 22일 백중기도 입재와 함께 법당과 시민선방을 철야로 개방키로 결정했다.

도심 한가운데 위치해 접근성이 좋은데다, 상가 밀집 지역이라는 특성상 주간에는 시간이 허락되지 않는 이들이 많다는 것에 착안해 주지 하림 스님이 결단을 내린 것이다.

도심 사찰 가운데 도량을 24시간 개방하는 곳은 흔치 않다. 새로운 시도에서 생길수도 있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수행분위기가 자리 잡히도록 하기 위해 21일 동안 매일 밤 9시부터 새벽 4시까지 주지 하림 스님이 직접 참선을 지도한다. 미타선원 법당은 염불, 절, 다라니기도 등의 기도 공간으로, 시민선방은 참선 정진의 공간으로 개방한다.

상가 밀집지역 주민 신행 기회 넓혀
매일 철야 참선 · 염불 · 절 수행 지도
골목음악회 · 강좌 등 프로그램 다양

미타선원 시민선방이 24시간 개방된다고 해서 아무나 입방할 수는 없다. 수행 대중의 공부 분위기를 거스르지 않아야 하므로 초심자의 경우 참선반 공부를 이수해야 하며, 수행경험자는 주지 스님 면담 후 입방이 허용된다. 입방증을 발급받은 후, 매시간 정각으로부터 10분 사이에만 출입할 수 있으며 50분 정진, 10분 포행을 원칙으로 한다. 30명에 한해 공부를 원하는 이들의 신청을 받는다.

이 밖에도 미타선원은 주변 상가 주민들과 시민들을 위해 여러 가지 변화를 시도하며 호응을 얻고 있다. 올 3월, 미타선원 앞 공간에 봉안된 용두불은 오가는 관광객의 기념촬영 장소가 되었고, 불자들의 귀의처로 자리 잡으며 사랑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용두불 앞 가설무대에서 매월 '용두불 골목 음악회'를 열어 청소년과 주민들의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미타선원이 운영하는 '아름다운 가게 수자타'에서는 바른 먹거리 문화 보급을 위해 감로수(야채스프)와 유기농 농산물을 보급하고 있다.

불자들을 위한 변화를 거듭해온 미타선원은 지역 주민들과의 교류와 화합에도 적극적이다.

최근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지역 발전을 고민하고 논의하기 위한 공간으로 사무실을 개소했다. 이곳에서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용두산 공원과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게 된다. 용두산 산사음악회, 영산재 등도 매년 연례화 할 방침이다.

또한 단 한사람이 오더라도 매주 월요일에는 경전 강의를, 수요일에는 참선 지도를 이어가며 수행의 향기가 묻어나는 도량으로 특화시켜나가고 있다. 10여명의 청년회원들이 뜻을 모아 청년회도 곧 발족한다. 7월 1일부터는 미타선원 불교대학 불교기본교육과정을 개설하는 한편, 7월 중에는 다도반, 들꽃 재배, 사찰음식, 문인화반 등 문화 강좌도 문을 연다.

주지 하림 스님은 "미타선원이 도심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 보니 일상에 쫓겨 낮에 시간을 낼 수 없는 분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다"며 "시민선방 24시간 개방을 시작으로 시민들과 불자들의 곁으로 한걸음 더 다가서는 도심 속의 생활선 도량이 되겠다"고 말했다. (051)253-8687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정보화대회 특별상·은상 수상
몰운대복지관 강환진·구영찬

몰운대복지관에 기쁜 소식이 겹쳤다.

몰운대복지관에서 실시하는 장애인 정보화 수강생인 강환진씨와 구영찬 씨가 2006년 장애인 정보화 한마당에 참가해 특별상과 은상을 수상한데 이어 형편이 어려워 치료에 어려움을 겪던 네살박이 민우(가명)가 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강환진씨와 구영찬씨는 6월 15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06년 장애인 정보화 한마당에서 이진우, 이근형 씨와 함께 참석해 '지체장애 정보검색부문'과 '시각장애 문서작성부문'에서 각각 특별상과 은상을 차지했다.

또한 뇌수종증으로 1급 장애 판정을 받고 엄마와 단 둘이 살고 있는 민우의 딱한 사정을 접한 몰운대복지관은 민우의 치료비 마련을 위해 한국복지재단에서 300만원의 치료비를 받아 언어치료와 통합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천미희 기자

제12회 동래차밭골 다신제
차와 문학의 만남 등 행사

(사)한국다도협회 동래지구(지구장 양은순)는 7월 3일 오후 2시 금정산 금어사 금강공원내에서 제12회 동래차밭골 다신제를 봉행한다.

동래차밭골 기념비 제막식 및 능소화 축제가 함께 열리는 차밭골 다신제는 1부 행사로 동래차밭골 다신제에 이어 다시, 축시 낭송, 축하 공연 등의 순서로 열린다.

이날 행사에는 금어사 주지 월강 스님, 한국다도협회 정영호 회장, 공동선 실천 부산종교지도자협의회 회장 정여 스님, 부산차인연합회 허충순 회장 등 스님들과 다인들이 참석한다.

이 밖에도 가회규수다례시연, 부산여류문인협회, 부산시인연합회, 부산불교문인협회의 회원들이 시낭송, 한울국악원 원장 조쵤현(중요 무형문화재 제45호 대금산조 전수 인간문화재)의 대금산조 등으로 다신제의 분위기를 더하게 된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한국다도협회 동래지구는 매년 동래차밭골 다신제를 열고 2005년부터는 '동래차밭골'이라는 동인지를 통해 차와 문학의 만남을 시도하고 있다. (051)555-6072

천미희 기자

경봉 스님 추모 법회 · 장학금 전달

통도사, 정도 · 정암 스님 등 총 42명에



통도사 극락암(도감 명정)은 6월 22일 호국극락선원 무량수전에서 경봉 스님 열반 24주기를 맞아 추모법회(사진)를 봉행하고 경봉장학회 장학금 전달식을 함께 가졌다.

권공, 청혼 의식에 이어 경봉 문도회의 성수, 명정, 송암 스님 등의 헌다에 이어 종단 원로를 대표해 초우 스님, 산림 대중을 대표해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 등의 헌향 의식이 이어졌다.

또한 선원대표, 비구니 스님 대표로 석남사, 내원사 스님들이 헌향했으며 신도 대표 이대원행, 안석태 변호사 등이 경봉 스님을 추모했다.

성수 스님은 인사말에서 "이렇게 비가 오는 와중에서 많은 이들이 함께 모여 경봉 스님을 추모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살펴보는 것이야말로 추모법회의 진정한 의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경봉장학회(이사장 원명 스님) 장학금 전달식에서는 정도, 정암 스님 등 박사과정 2명을 비롯 석사 2명, 학사 24명, 통도사 강원 8명, 극락선원, 보광선원, 서운암선원 등에 총 42명에게 2천5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경봉장학회는 1980년 경봉 스님 생전에 결성된 이후, 꾸준히 스님들의 교육을 후원해오다 1989년 재단법인으로 설립 인가를 받았으며 그동안 450여명에게 총 4억여원의 장학금을 지급해왔다.

천미희 기자

6 · 25 맞아 호국영령 합동 위령재

부산종교인평화회의



부산종교인평화회의(대표 정각)는 6월 23일 UN 기념공원 추모관에서 '6 · 25 56주년 기념 호국영령 합동 위령제(사진)를 봉행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전몰군경의 영혼을 위로하는 추모행사로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기독교, 불교, 유교, 원불교, 천도교, 천주교, 민족종교협의회 등의 종교지도자와 일반 신도가 대거 참석했다.

정각 스님(미룡사 주지)은 "이 나라를 위해 희생된 많은 분들의 넋을 기리는 일은 종교나 이념을 넘어 함께 마음을 모아야 하는 일이기에 종교인들이 앞장서게 됐다."라며 "부산종교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앞서 가신 분들의 뜻을 잇고 나라의 안녕과 평화를 위한 기원의 마음을 모아 나가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울산지사 : (052)272-0909

'안티 지율' 네티즌 60명 수사의뢰

지율 스님과 내원사가 환경 파괴에 앞장서고 있다는 루머가 지난해 5월부터 '안티지율' 카페를 중심으로 급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지율 스님은 목하 공사 중이었다'는 제목으로 10여장의 사진과 함께 편집된 이 글에는 "우연히 남자친구와 내원사에 갔다가 자연파괴 현장을 보았다"며 '지율 스님이 주차장을 넓히기 위해 나무를 베고, 자연을 훼손하면서까지 편리를 위해 교량을 짓는다'는 내용의 글을 적고 있다.

이 글과 사진들은 인터넷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했고, 네티즌들에 의해 재편집돼 지율 스님의 기사가 올려지는 사이트마다 이 같은 사진과 내용의 댓글이 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양산시 교량공사 장면
악의적 댓글로 유포

그러나 이 글과 사진은 모두 지율 스님이나 내원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양산시가 태풍피해를 줄이기 위해 교량 공사를 하는 장면이거나 소나무 재선충에 걸린 나무를 베어낸 흔적이어서 안티지율의 악의적인 댓글달기인 것으로 판명났다. 최근 대법원에서 도롱뇽 소송이 기각된 내용의 기사 밑에도 이 사진과 글이 댓글로 달렸고 이 댓글은 무려 3만 명이 검색했다.

이처럼 사실이 아닌 내용이 인터넷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자 지율 스님과 천성산대책위는 19일 부산지방경찰청에 악성 댓글을 달고 사실이 아닌 내용을 악의적으로 퍼뜨린 네티즌 60여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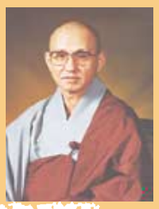
수사의뢰 요청서에는 수사요청 배경을 "한 개인이나 사찰의 피해에 그치지 않고 대한불교 조계종의 위상과 1000만 불자들의 신심을 크게 떨어뜨리는 일이며 더 나아가 시민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일이기에 수사의뢰를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지율 스님은 "악의적인 댓글이 달려도 문제 삼지 않았는데 사실이 아닌 내용이 진실인 듯 확산되는 것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곧바로 IP 추적 등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천미희 기자

前 조계종 총무원장 송월주 스님

인도성지순례기 출간



태공 송월주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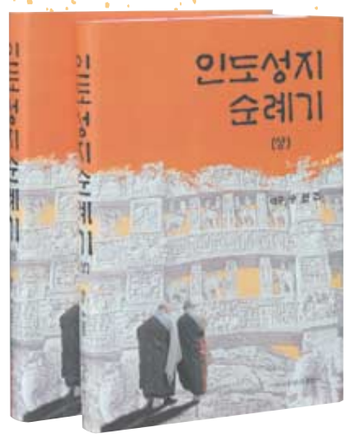
姓名 : 宋昡燮
法號 : 太空
法名 : 月珠
本寺 : 金山寺 (全北 金堤市 金山面 金山里)
1956년 화엄사에서 금오선사로부터 비구계 수지
1935. 4. 16 (음 2. 25)
전북 정주시 산외면 정양리 979에서 宋榮祚 公과 崔宗乙 女史의 5男 4女 中 5男으로 出生



종교 : 철학의 나라이며 세계 5대문명 발상지의 하나인 인도를 여행하고자 하는 것은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의 염원입니다.
2005년 1월 4일부터 31일까지 인도의 불교 8대 성지와 그 외 불교 유적지와 간디선생 기념유적지 등을 두루두루 순례하고 돌아 왔습니다. 필자는 이 순례기에 1985년 2월에 인도를 순례한 느낌도 아울러 적었습니다. 인도 문화유적지와 불교성지를 순례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듣고서 감동을 받았으며, 부처님의 심오하고 훌륭한 사상에 대하여 더욱 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2600년 전에 6년간 극심한 고행을 하신 후 수자타가 올린 유미죽을 드시고 원기를 회복하셨습니다. 고행과 육체적 안일함에 치우치지 않고 중도적인 방법으로 보리수 아래서 용맹정진하여 새벽별을 보는 순간에 그것이 당신 자신의 지각 (知覺)과 동시에 존재함을 깨달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마음 밖에서 부처를 구하거나 법을 구하면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정 (有情) · 무정 (無情)이 불성 (佛性)을 갖고 있다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모두가 동일 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평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인도 성지순례를 통하여 일찍이 부처님께서 깨달아 제시하신 공 · 해탈 · 연기 · 중도 · 지혜 · 자비 · 평등 · 상생 · 평화사상만이 인류를 정복 (淨福)의 길로 구제할 수 있는 최고의 진리라는 것에 대하여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여행은 불교 성지뿐만 아니라 간디성자의 유적지를 거의 답사하고 또 불교 유적지는 가는 곳마다 부처님 경전과 연관을 지어 상세하게 기록하였습니다. 천지가 나와 더불어 한 뿌리이며 모든 존재와 만물이 나와 더불어 한 몸이고 한 생명이라는 부처님의 동체대비사상에 입각하여 대승보살도의 정신으로 항상 내 마음을 비우고 자비희사 (慈悲喜捨) · 사무량심 (四無量心)과 육바라밀 (六婆羅密)을 실천하시기 바라며 마하트마 간디성자의 비폭력 평화사상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 머릿말 중에서



신국판 / 올칼라 / 328쪽(상) 344쪽(하) / 각권 값25,000원 (상 · 하 50,000원)

※ 전국 유명서점에서 절찬리에 판매중!!

㈜이화문화출판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자동 167-2 / Tel. 02-732-7096~7 / Fax. 02-738-9887

‘하늘법당’에 과일이 주렁주렁

영남불교대, 유치원 옥상에 생태공원 조성



대구 영남불교대학 관음사가 6월 19일 ‘참 좋은 유치원’ 옥상에 자연생태 공원 ‘하늘법당’을 개원했다. ‘하늘법당’은 내년에 문을 여는 ‘참 좋은 유치원’ 원아들이 유기농법을 배울 수 있는 생태체험의 장으로 활용된다.

“스님, 스님, 이건 뭐예요? 이게 감자예요? 우와 이건 딸기다.”

아이들의 눈망울이 초롱초롱 빛난다.

포도나무엔 작은 포도송이가 초롱조롱 매달려 있고, 딸기밭엔 딸기도 열렸다. 한 달 후엔 연못에서 홍련과 백련, 수련이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내며 활짝 피어날 것이다.

대구 영남불교대학 관음사(회주 우학)가 내년에 개원하는 ‘참 좋은 유치원’ 옥상에 약 300평 규모의 자연생태공원을 조성해 6월 19일 개장했다. 유치원과 나란히 있는 영남불교대학 관음사 옥상에는 약 200평 규모의 전통문화체험장도 마련했다. 또, 건물을 연결하는 작은 통로 위에는 2m 80Cm의 와불을 조성해 점안했다.

영남불교대학은 대구의 앞산과 팔공산이 한눈에 들어오고 영남불교대학 관음사 옥상에 봉안된 대형 옥외 부처님이 내려다보는 이곳을 ‘하늘법당’이라고 부른다.

전통문화체험장도 마련
옛 선조 생필품 전시 눈길
“아이들 정서에 도움될 것”

천상의 동자들이 풍요롭게 뛰어노는 탱화가 있고, 편히 쉴 수 있는 원두막도 있다. 원두막은 도솔천궁이라 이름 붙였다. 도솔천궁 옆에는 작은 연못도 있는데 물레방아가 쉼 없이 돌고, 다양한 연꽃과 물속식물들이 자란다. 그 외 채소단지, 곡물단지, 야생화단지, 화훼단지 등이 군락을 이뤄 조성돼 있고, 예쁜 동물원에는 토끼, 다람쥐, 모란앵무 등이 살고 있다.

이날 하늘법당을 찾은 300여명은 어느새 동심으로 돌아가 자연생태공원을 둘러보고, 전통문화체험을 즐겼다. 어린이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이곳저곳을 뛰어다녔고, 어른들은 어린시절 고향을 그리며 향수에 젖어들었다. 어느새 입가엔 미소가 피어오르고, 각박한 삶의 흔적이 사라졌다.

“어머! 이거 케일이잖아. 근데 벌레가 먹었네. 진짜 무공해야.”

전통문화체험장에서는 전통혼례복을 입은 어린이들이 가마를 타보기도 하고 굴렁쇠를 굴려보기도 했다. 굴렁쇠는 생각만큼 쉽게 굴려지지 않았는데, 우학 스님이 시범을 보이는 통에 신도들의 환호가 쏟아졌다. 또, 탁본체험도 재밌다. 그러나 뭐니뭐니해도 아이들은 투호놀이에 재미를 단단히 붙였다. 전통문화체험장 한 켠엔 옛 선조들의 생활을 그린 그림과 함께 지혜가 담긴 생필품들이 가득 전시되어 있다.

우학 스님은 “고구마, 감자가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자라는 아이들에게 자연의 소중함과 우리음식을 가르쳐주고, 옛 것을 드러내 보여주면서 고향을 느끼게 하기 위해 자연생태공원과 전통문화체험장을 조성했다”며 “전국 도심 아파트 옥상마다 이런 생태공원이 조성된다면 정서함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연생태공원은 유치원 어린이들이 유기농법으로 직접 가꿔갈 수 있도록 도와줄 예정이다. 또, 전통문화체험장 역시 단순 전시공간의 개념을 떠나 어린이들이 전통혼례복도 입어보고 도자기도 만들어 보고 전통놀이를 하면서 살아있는 체험공간으로 활용한다. (053)474-8228

글 · 사진=배지선 기자

지하철안전운행기원 법회
풍경소리 대구경북지구



‘법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임’ 풍경소리 대구경북지부(지부장 류병구)는 창립 3주년을 맞아 6월 17일 동화사 통일대불전에서 대구지하철안전운행기원법회를 열었다(사진).

대구지하철의 안전운행을 기원하는 온 국민의 염원을 담아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법회에는 동화사 주지 허운 스님과 대구경북풍경소리 지도위원장 동화사 강주 지운 스님, 대구불교신행단체연합회 하재웅 회장, 대구지하철공사 안전관리공단 나시경 단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1부 법회에 이어 동화사일주문 앞 분수대 야외무대에서 안전운행을 기원하는 퍼포먼스 마당놀이를 비롯한 대구경북풍경소리의 창립3주년을 축하하는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졌다. 특히 대구지하철공사 사장의 감사장이 풍경소리에 전달돼 눈길을 끌었다.

풍경소리 대표이사 혜자 스님은 이용성 사무총장이 대독한 격려사를 통해 “대구경북 풍경소리가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부처님가르침을 바탕으로 화합과 상생을 실현해 낼 수 있는 가교가 되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대구경북풍경소리 운영위원회 김길희 회장은 인사말에서 “포교단체 풍경소리는 현대인의 인간정서를 진실한 등불로 밝혀주는 지역포교의 선구자가 되길 서원한다”고 말했다.

배지선 기자

지역불교현장을 찾아서

‘1391’이 해결해 드려요

구미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아동의 발견 · 보호 · 치료와 예방사업 전개
방송 기업 연계 ‘행복한 가정만들기’ 캠페인도

“때르르릉”

구미 금오종합사회복지관 2층 구미아동보호전문기관(소장 법현)에 ‘1391’ 전화가 울렸다.

어린이 성학대 사건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는 이웃주민의 전화다. 30대 초반의 남자로부터 초등학교 어린이가 성학대를 당했는데 피해아동 아버지가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가해자는 피해아동의 아버지와 아는 사이, 하룻밤 집에 묵게 해 줬는데 일이 벌어졌다.



구미아동보호전문기관 소장 법현 스님은 상담원 4명과 사례회의를 열고 담당 상담원을 배치해 현장조사를 나가도록 조치했다. 다행히 피해아동이 가해자로부터 떨어져 있어 2차 가해의 위험이 없고,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위급한 상황은 아니지만 피해아동의 아버지가 가해자를 경찰에 고소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피해아동이 정신적 후유증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인성심리검사를 비롯한 소아정신과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아동복지법 24조에 의거해 설치된 구미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국 39개 기관중 유일하게 불교계가 운영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등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사랑받을 당연한 권리를 가지고 태어나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24시간 핫라인 전화 1391을 열어놓고 대기중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긴급한 경우는 12시간 내에 아니면 24시간 내에 현장을 확인하고 심의판정 후 경고, 격리, 고발조치하며, 아동심리검사와 치료, 가해자 심리검사와 치료 등을 통해 지속적인 도움을 준다.

2005년 1월에 개소한 구미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신고접수사례관리 외에 교육, 홍보, 아동보호체계구축 등의 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아동학대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아 부지불식간에 아동학대가 종종 일어나고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지난 3월부터는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고속도로 톨게이트와 휴게소에서 아동학대예방 연중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사진).

지난 5월에는 대구 MBC 라디오를 통한 캠페인을 펼쳤고, 구미시내에서 행복한 가족 사진을 찍어주며 홍보하는 행복한 가정만들기 프로젝트도 삼성전자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고 있다.

법현 스님은 “저출산고령화문제가 심각한 요즘 아동들을 무의식적인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말한다.

스님은 “아동학대에는 신체적 성적 학대도 있지만 감금하거나 언어적인 위협을 가하는 정서적 학대는 물론 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하는 유기와 방임도 포함된다”며, “미래의 인력을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더 큰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학대받는 아이를 목격했을 때는 신고전화1391을 잊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배지선 기자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영주지국 : (054)634-3429

영상 보며 들으니 더욱 재밌어요

신라문화원, ‘찾아가는 문화재학교’ 인기 만점



(사)신라문화원이 2인1조의 방문 교사단을 요청하는 학교에 파견해 어린이들에게 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방문학습을 하는 문화재학교(사진)를 열어 화제다. 5월 18일부터 시작된 문화재학교는 건국신화, 불국사, 문무왕과 감은사지, 능묘구조와 유물이야기, 신라의 화랑과 충신 이야기 등의 6가지 주제로 나눠 진행된다. 특히 초등학교마다 2, 4째주 토요휴교가 실시되고 재량학습, 체험학습이 강조됨에 따라 문화재가 많이 밀집돼 있는 지역의 특성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으로 각광받고 있다.

신라문화원 진병길 원장은 “방문학교가 늘고 반응도 좋은만큼 2학기에는 방문학교를 경주 전체 학교로 확대하고 방학기간에는 현장 답사까지 프로그램을 연계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054)774-1950

배지선 기자

직접 느껴봐야 잘 가르쳐요

템플스테이 운영실무자 교육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신규 실무자들을 위한 템플스테이가 김천 직지사에서 6월 20~21일 열렸다. 템플스테이 운영실무자들이 직접 템플스테이를 체험함으로써 사업의 이해도를 높이고 템플스테이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다.

2006년 신규템플스테이 지정사찰을 비롯한 14개 사찰에서 총 17명의 실무자들이 참가했다. 입재식 및 오리엔테이션, 참가자 상견례를 시작으로 발우공양과 예불, 산행, 차담 등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템플스테이 실무자들이 각 돌아가 프로그램에 응용할 수 있도록 황토염색체험시간(사진)을 마련했다.

템플스테이사무국측은 “같은 일을 하는 실무자들이 서로 얼굴을 익히고 정보를 교환하는 등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배지선 기자

표충사 2006년 여름 템플스테이

주제 : 물처럼 맑고 바람처럼 시원하게

차수	일 정	기 간	동 참 금
1차	7월 9일~10일	1박2일	30,000
2차	7월 15일~16일	1박2일	경남문인협 150명
3차	7월 22일~23일	1박2일	30,000
4차	7월 28일~30일	2박3일	60,000
5차	8월 5일~ 6일	1박2일	30,000
6차	8월 11일~13일	2박3일	60,000
7차	8월 19일~20일	1박2일	30,000
8차	8월 26일~27일	1박2일	30,000

●접수방법 : 표충사 홈페이지 템플스테이 접수처
●접 수 처 : 표충사 종무소
●문 의 : 전화 055-352-1070, 1150 / 팩스 055-352-1836
●홈페이지 : http://www.pyochungsa.or.kr
●입금방법 : 농협 811079-51-011960(예금주 : 표충사)
●준 비 물 : 세면도구, 운동화(간편한 복장), 우산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사명대사 호국성지 표충사

제19회 여름
전국 어린이 · 청소년 참선명상 수련대회

시원한 바닷가에서 참선과 수련을...



어린이 · 청소년 여러분! 신나고 즐거운 여름 방학입니다.
무더운 여름에 시원한 바다를 바라보며 바위에 앉아 파도치는 소리에 동화되어 참선명상을 하며 자연과 함께하는 세상.
참선명상으로 지혜를 증장시키고 심성개발을 하여 정신집중력을 기르며 풍부한 상상의 세계로 안내하며 동심을 키우고 꿈과 희망 속에서 참나를 찾고 나의 부처님을 만나요.
부처님의 거룩한 진리를 배우고 또 몸소 실천하는 생활은 소중하고 보람되며 아름다운 시간이 될 거예요.
어린이 · 청소년 포교의 20년 불교사회복지 까치마을에서는 바다와 함께하는 참선명상으로 알차고 보람있는 수련대회가 되도록 전국의 어린이 · 청소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방학동안 학원 보내고 과외를 시키고 하는 것이 최선이 아닙니다. 그런다고 성적이 오르지 않으며 집중력 또한 떨어집니다. 수련회는 산만한 어린이 · 청소년에게 집중력을 길러주며 성적향상과 성격개조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부모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언 제 : 불기 2550년 7월 27일 ~ 7월 31일(4박 5일)
◆장 소 : 강원도 강릉 등명해수욕장 수련원
◆대 상 : 어린이 · 청소년 ◆인 원 : 40명 ◆회 비 : 90,000원
◆준 비 물 : 필기도구, 세면도구, 수영복, 수경, 샌들, 물놀이기구, 구급약, 수건(여러장), 여벌옷(속옷포함), 양말(여러컬레), 쌀 1되, 등
◆접 수 : 7월 20일까지 마감
◆신 청 서 : www.dongsansa.org / www.ggachimaul.org
◆문 의 처 : ☎ 031)998-8700 / 011)763-1080
◆계좌번호 : 국민은행 812-01-0134-991 (까치마을)

※ 접수 후 입금을 하셔야 신청이 됩니다.(신청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 자녀들의 유의사항이나 특이체질 등은 미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27일 오전 8시에 지하철 2호선 사당역 1번 출구에서 출발합니다.

불교사회복지 까치마을 촌장 보휘 합장

순국선열 위한 천도재 잇따라

신광사 · 백련사, 보훈청과 6년째 법회

화엄사 · 한마음선원광주지원 · 전북불교법사회도

한국전쟁 56주년을 맞아 호남지역 사암에서 전쟁으로 희생된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천도재가 이어지고 있다.

광주 신광사(주지 경주)와 강진 백련사(주지 법상)는 지난 2001년 광주지방보훈청(청장 송계축)과 자매결연을 맺고 6년째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추모 천도재를 열고 있다. 신광사는 금년에도 6월 22일 보훈가족과 불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호국영령 340위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천도의식을 봉행했다.

이날 천도재에서 한탑 스님(정토사 회주)은 법어를 통해 "순국선열의 뜻을 이어 일체중생에 이익을 주는 보살이 되자"고 설했다.

송계축 광주 보훈청장도 인사말에서 "조국을 위해 하나뿐인 생명을 바친 순국 선열이 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다"며 "호국영령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시간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천도재에는 영산회 소속 스님들이 호국영령을 위한 신중작법과 천수바라 등 천도의식을 펼쳤다. 천도재에 참석한 전몰군경 미망인회 염연자 광주 지부장은 "나라를 위해 먼저가신 남편을 위해 매년 천도재를 마련해 주는 신광사 대중들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구례 화엄사(주지 종삼)는 6월 25일 대웅전에서 한국전쟁 당시 지리산에서 산화한 호국영령과 이념갈등으로 희생된 민간인을 위한 천도재를 가졌다. 이날 천도재에는 부산 법등회(회장 자명심) 회원 1200여명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한마음선원 광주지원(지원장 혜월)도 6월 25일 천도재를 갖고 호국영령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재가신행단체로는 전북불교전법사회 경전독송회(회장 태기준)가 6월 13일 지장재일을 맞아 전주 군경묘지에서 호국영령들을 위한 특별 독송법회를 봉행했다.

강진 백련사는 12일 광주지방 보훈청과 합동으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위한 천도재를 가졌다. 광주지방 보훈청과 지역사암이 마련한 천도재는 호국영령 104위로 시작해 현재 340위로 늘었다.

글 · 사진=이준엽 기자



광주 신광사와 강진 백련사는 광주지방보훈청과 함께 6년째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는 천도재를 봉행하고 있다. 사진은 6월 22일 신광사에서 열린 천도재 모습.



'진감국사 범패 맥 잇다'

일광사 범패작법 전북민속경연대회서 우수상

정읍 일광사(주지 승천)의 범패 작법이 6월 16일 전주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47회 전북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날 일광사 범패작법은 25명의 범패 이수자 스님과 신도들이 참가해 신중작법-천수바라-도량찬 등의 불교전통의식을 선보였다(사진).

일광사 작법을 지도한 승천 스님은 "정읍은 범패의 시조인 진감국사가 쌍계사에 주석하면서 고향인 금마에 오가는 길목으로 진감국사의 범패가 이어지고있다"며 "오랜역사의 불교전통의식이 이어지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심사위원들은 "일광사에서 처음 출전한 '범패작법'은 역사와 규모에 있어 불교계를 대표하는 작법이다"며 "일반인에게 불교의식을 보여줬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경연대회에서 익산 돌문화보존회는 원석을 채취-운반-가공해 탑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는 '돌다루기 놀이'를 재현했다. 이준엽 기자

"얘들아 나들이 가자"

옥천 청성초등생 80명 대전중앙과학관 견학

내륙의 오지 옥천군 청성면 청성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대전 나들이에 나선다.

청성초등학교 전교생 어린이 80여명은 7월 6일 국립 대전중앙과학관을 견학한다.

충북도청과 옥천군 자원봉사센터가 주최하고 본사 대전 · 충북지사가 주관하는 이번 견학은 옥천군 자원봉사센터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2006 종교단체 자원봉사 릴레이'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어린이들은 오전 9시 대형버스 2대를 이용해 옥천 대성사를 방문한 뒤, 대전중앙과학관으로 이동해 견학과 어린이영화를 상영하게 된다.

이번 행사를 위해 예산 일체를 후원하는 옥천 대성사 주지 혜철 스님은 "낙후된 지역에 사는 어린이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고 불교를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제주 경찰불자 연합법회

제주지방경찰청 불교회와 경승단 경승협의회는 6월 17일 제주 삼광사에서 첫 연합법회를 봉행했다.

경승 원조, 현명, 제용 스님을 비롯해 경찰청 불교회원 등 70여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 경승실장 도종 스님(월라사 주지)은 "급한 마음으로 수행하면 수행을 완성할 수 없다"면서 "기도나 참선, 경전 독송 등 하나라도 꾸준히 정진해 나가라"고 당부했다.

오영기 경찰청 불교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업을 핑계 삼아 정진을 게을리하지 않았나 돌아보게 된다"며 "앞으로 경찰불자들은 민생 현장 곳곳에서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경찰불교의 위상을 세워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준엽 기자

현대불교 지사안내
호남지사 : (062)375-9986
대전충북지사 : (043)732-5560

광주불교방송
BBS FM 89.7 MHz
www.kjbbs.co.kr

섬 속에 절이 있네

압해도 금산사



연륙교 완공을 앞두고 지역불교 활성화에 나서고 있는 압해도 금산사 .

수려한 경관 간직한 주민 쉼터

다도해 첫 가람… '향기나는 도량 가꾸기' 목표

신안군은 우리나라 섬의 1/4에 달하는 827개의 섬으로 이뤄졌다. 수많은 섬의 첫 관문은 목포앞 바다에 떠있는 압해도(押海島).

아직까지는 사면이 바다인 섬이지만 내년 완공 목표로 연륙교가 건설 중이어서 머지않아 육지의 꿈을 안고 있다. 더구나 신안군청이 들어서면 압해는 행정, 관광, 물류 중심 도시로 탈바꿈하게 될 희망의 섬이기도 하다.

불교도 예외는 아니어서 이미 1500여년 전에 사찰이 들어섰다. 가룡면에 자리한 금산사(金山寺, 전통사찰 50호)이다.

창건은 599년 백제 법왕의 자복사찰로 세워졌다고 하나 확실하지 않다. 임진왜란 이전의 기록이 모두 소실되고 옛 가람마저도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해오는 이야기와 <삼국유사><삼국사기>에 근거한 천년고찰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

창건 이후 금산사는 진표 율사가 762년부터 766년까지 4년에 걸쳐 중건했으며, 1069(문종 23) 혜덕 왕사가 남쪽에 광교원이라는 대사구를 증설하여 창건 이래 가장 큰 규모의 가람이 되었다.

오늘의 금산사는 1904년에 배화주 거사가 산수 좋고 경치 수려한 이곳에 왔다가 불심을 펴겠다는 발원과 함께 건립했다. 일주문을 거쳐 잘 닦여진 진입로를 따라 오르면 대웅전, 관음전, 산신각, 요사채 등의 전각을 만난다. 섬에 자리한 가람들이 대부분 사세가 약해 왜소하건만 금산사는 나름대로 사격을 갖추고 있다.

근래들어 금산사는 10여년 전, 주지 선지 스님이 주석하면서 역사가 바뀌고 있다. 스님은 단절된 지역민과의 교류를 위해 매년 봄, 가을 20여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때로는 물리치료사를 초빙해 지역 노인들의 건강을 살피곤 한다.

얼마전에는 압해도에 조계종에서 위탁운영하는 신안노인요양원이 들어서면서 지역불교 위상도 커지고 있다. 자원봉사차 요양원을 방문한 이들이 금산사를 참배하면서 '섬 속의 편안한 절'도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선지 스님은 "연륙교가 개통되면 금산사가 서해안 고속도로 끝자락이 될 것이다"며 새로운 시대에 맞는 포교와 가람을 구상하고 있다.

야생화와 허브를 재배해 국내 유일의 '향기나는 도량'을 건립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도량정비 계획에 따라 가람 재배치에 들어갔다. 첫 사업으로 대웅전 불사를 펼치고 있다. 혜덕 왕사 중창 이래 천년만에 압해도에서 대대적인 불사가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향기나는 템플스테이'가 서서히 현실화 되고 있다. 이준엽 기자

▲찾아가기:목포 북항에서 압해도행 철부선 이용(10분소요). 오전 6시20분부터 저녁 8시까지 수시운행.

금산사 : 주지 선지 스님 061-271-0087
전남 신안군 압해면 가룡리 산 22-2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 (2년과정) 8월 5일개강

2006년도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키 위해, 교계대덕스님 및 교수를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29기생을 모집함

1년 교과목	· 근본불교 · 대승불교 · 비교종교론 · 불교상담론 · 인도불교사 · 중국불교사 · 한국불교사 · 유식사상 · 정토사상	· 무진장스님(본대학학장) · 최봉수(동국대교수) · 주명철(동국대교수) · 최종석(금강대교수) · 박 종(동산불교대교수) · 김상현(동국대교수) · 묘주스님(동국대교수) · 차차석(동국대교수) · 김상영(승가대교수) · 정병조(동국대교수)
2년 교과목	· 법화사상 · 반야사상 · 화엄사상 · 불교사회복지론 · 불교학개론 · 선사상 · 불교미술 · 밀교사상 · 포교방법론	· 암도스님(전포교원장) · 박 종(동산불교대교수) · 정엄스님(승가대교수) · 보각스님(승가대교수) · 김형준교수 · 김호귀(동국대교수) · 최종석(금강대교수) · 윤열수(문화재전문위원) · 종석스님(승가대교수) · 활안스님(금강선원총재)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 · 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 고
· 불교학과(200명) (정규반 · 주간반 · 통신반) (100명) (50명) (50명) · 불교다도학과(30명) · 불교미술학과 (30명) · 불교한문학과 (50명) · 불교장례문화학과 (30명)	불교를 적극 신행하고자 하는 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사진 3매	[불교학과] 2006년 6월 15일~ 2006년 7월 31일 입학금 200,000원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 매주 토요일 오후 6시(정규반)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주간반)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다도학과)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미술학과)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한문학과) · 매주 화요일 오후 7시(장례문화학과)	통신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수강이 어려운 자

4. 입 학 일 시 불교학과 : 2006년 8월 5일 (토) 오후 5시 개강(동산불교회관)
불교한문학과 · 불교다도학과 · 불교미술학과 · 불교장례문화학과 : 2006년 9월 5, 6, 7일 개강

5. 원서교부처

본대학 사무국 Tel. 02) 732-1206~8 Fax. 732-1207 (우) 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http:// www.dongsanbud.net

· 서울 : 보련각 (조계사앞) 02) 733-0333 · 부산 : 부다가야서점 051) 865-4383 · 대구 : 삼영불교서림 053) 425-4097
· 대전 : 보문서점 042) 257-0161 · 광주 : 불일서점 062) 232-7542 · 제주 : 예전 수보리 쉼터 064) 743-4184

※ 특전사항 :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추천 · 상기 과정을 졸업한 자는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포교사 고시를 거쳐 연합회 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불교학과, 한문학과)

DONGSAN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 산 불 교 대 학

- 불교 여름 대 설법회 -

불교(佛敎)란 무엇인가?

(What is The Buddha Teaching?)

한국에 불교가 들어온 지 어언 1700여년의 세월이 흘러왔습니다.
이렇게 오랜 역사와 문화를 갖고도 정법불교, 생활불교로 자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오늘날 IT산업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컴퓨터 시대, 과학 시대의 최첨단의 생활문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많은 불교도들은 불교를 공부하면서도 불교의 진면목을 물으면 머뭇거립니다. 우리들 중생의 갖가지 고(苦)를 가장 적절히 그리고 근본적인 해결은 Buddha의 가르침(佛敎)에서 찾을 수 있으며 부처님은 이를 위해 우리들 앞에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붓다의 가르침을 통하여 오늘을 사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오늘날 현존하는 한국불교의 대포교사님들에게 불교에 대하여 여름 대설법을 들으시라



무진장큰스님 활안큰스님 박완일 교수

- 불교 여름 대 설법회 -

일 시	설 법 주 제	법 사	장 소
2006. 7. 1(토) 오후 6시	불교란 무엇인가? ① (불교의 생활화)	박완일 교수 (전 전국신도회장)	서울 동산 불교회관
7. 8(토) 오후 6시	불교란 무엇인가? ② (불교의 생활화)	〃	
7.15(토) 오후 6시	불교란 무엇인가? (불교의 정토화)	무진장 큰스님 (전 포교원장)	
7.22(토) 오후 6시	불교란 무엇인가? ① (불교의 대중화)	활안 큰스님 (금강선원 총재)	
7.29(토) 오후 6시	불교란 무엇인가? ② (불교의 대중화)	〃	

DONGSAN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산반야회 · 동산불교대학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Tel. 02) 732-1206~8

부적팔기 · 천도재 강요 · 취음난동 등

뿌리 뽑는다

태고종, 조사위 구성 · 특별종령도 마련

적발시 사찰등록 취소 · 승려자격 박탈

태고종(총무원장 운산)이 7월부터 소속 사찰의 운영 실태를 조사해 종단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찰과 승려를 발본색원하기로 하는 등 자정과 위상 정립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태고종은 6월 15일 서울 봉원사 설법전에서 총무원 및 전국 17개 각 시도 종무원장 연석회의를 열고 이달안으로 실태조사위원회(가칭)를 구성하고 특별종령을 제정키로 했다.

실태조사위원회는 부원장을 포함해 총무원 부장급 임원 4~5명과 17개 전국시도 종무원장 등 20여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비불교적 행위(혹세무민하는 무속, 부적판매, 천도재 강요, 점)를 하는 사찰 및 승려 △반사회적 행동(취음난동, 도박, 폭력 등)으로 승가와 종단의 명예를 훼손하고 불신을 조장하는 승려 △태고종에 재적하면서도 타종단 승려 행세를 하며 종단을 비방하는 승려 등이다. 특히 출가 5년차 미만 스님이 주지로 있는 사찰에 대해서 집중 조사를 펼친다.

조사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찰과 승려에 대해서는 이달 안으로 종회의 인준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특별종령'을 제정해 사찰등록 취소 및 승적 제적을 하기로 했다. 특히 지방교구에 등록하지 않은 채 사찰을 운영하거나 종단 해종자에 대해서도 강력 시정조치키로 했다.

조사방법은 우선 실태조사위원회에서 사찰 소재지, 창건역사와 과정, 인근 주민 및 신도들의 해당사찰 평가 의견서 등이 포함된 조사문안을 만들어 실태조사위원과 각 지방교구종무원 담당자들이 2~3인에 1조로 구성, 각 사찰을 방문해 직접 조사토록 할 계획이다. 이후 1차 현장 조사가 끝나면 조사된 서류를 중앙에 있는 실태조사위원회로 올려보내 실태조사위원들이 다시모여 종령에 마련된 심사기준과 징계기준안을 토대로 재심사 후 결과를 해당사찰에 통보한다.

실태조사 이외에도 태고종은 승려교육과 출가시 제출하는 구비서류도 한층 강화시킬 전망이다. 우선 1년에 두 번 3일에서 1주일 동안 진행하는 기존 승려에 대한 연수 교육을 10일에서 14일로 늘릴 방침이다.

또 행자 집체 교육도 기존 1개월에서 점차 늘리기로 했으며, 향후 문제 승려가 나올시에는 그의 은사도 연대책임을 함께 묻는 방안도 강구중이다.

승적에 입적할 때 제출하는 구비서류도 기존에는 이력서만 제출했으나 앞으로는 출생에서 현재에 이르는 자기소개서도 첨부토록 할 예정이다.

부원장 자월 스님은 "그동안 태고종이 사찰과 승려들의 질적 증가보다는 양적인 증가에 치중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연말까지 이뤄질 이번 조사를 계기로 태고종이 정통종단으로서의 위상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문제가 발생되면 누구라도 예외없이 종령에 의해서 처리할 것"이라고 강경 입장을 밝혔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천태종, 주한 인니대사관에 지진피해 성금 1만달러 전달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은 6월 20일 서울 여의도 소재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을 방문해 지난 5월27일 발생한 지진피해돕기 성금으로 써달라며 1만달러를 전달했다

정산 스님은 야콥 토빙(Jakob Tobing)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사진 왼쪽)를 만난 자리에서 "천태종 불자들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을 한 식구로 생각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달 지진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하루빨리 희망과 용기를 갖고 재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위로했다.

이에 야콥 토빙 대사는 "우방의 도움들이 큰 힘이 되고 있다. 천태종도들의 깊은 정성은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한편 정산 총무원장은 6월 21일 서울 관문사에서 대권 후보로 떠오르는 고건 前 국무총리의 예방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고 前 총리는 "늦었지만 총무원장 취임을 축하한다"며 "1970년대 산림녹화 10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 잣나무를 많이 심었던 구인사를 성공사례로 삼은바 있다"고 천태종과의 인연을 털어놨다.

김주일 기자

단청장 만봉 스님 49재 7월 4일 신촌 봉원사서

지난 5월 17일 입적한 단청장 만봉 대종사 열반 49일 기념 영산대재가 7월 4일 오전 10시 신촌 봉원사에서 봉행된다.

1부 추모 법회와 2부 영산대재로 나뉘어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펼쳐질 이번 행사에서는 법회가 진행되는 동안 만봉 스님 사리 친견 및 유작 전시회도 함께 열릴 예정이다,

법회준비위원장 인공스님(태고종 중앙종회 의장)은 "김구해 스님을 비롯한 봉원사 영산재보존회 소속 어산종장 스님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의식을 집전하도록 하는 등 의식절차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

총화종 호법체제 · 교육 강화

총화종(총무원장 남정)은 6월 19일, 최근 무속행위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일산 황룡사 사건을 계기로 총화종의 호법체제와 종도교육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총화종은 종도들을 대상으로 한 감찰 기능을 강화해 문제가 발견될 시에는 경고 내지는 사찰 등록을 취소함과 동시에 연세차례에 걸친 종도 교육도 더욱 내실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주일 기자

새터민 정착지원 일일찻집

천태종 인천 황룡사(주지 무원)는 6월 30일 인천 서구 심곡동 제스트 플라자 7층 피카소에서 자유와 희망을 찾아 온 새터민(탈북자)들의 정착지원을 위한 '성금마련 일일찻집'을 개최한다. 이번 일일찻집은 오전 10시부터 밤 12시까지 열린다.

행사를 주최한 무원 스님은 "새터민들은 정부에서 주는 정착금만으로는 자본주의 사회인 남한에서 생활하기가 쉽지 않다"며 "천태종은 앞으로도 새터민들의 정착지원을 위해 자선 행사를 많이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032)567-2533

김주일 기자

2006 군포교 합시다

조계종 군종교구-현대불교 공동캠페인

대원불교대학 - 호국 응봉사 결연

학생 40명 천막법당 참배

분기별 위문 · 정기후원 약속



공사가 한창 진행중인 호국응봉사 모습.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주지 일면)와 본사가 공동으로 '2006년 군포교 합시다'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대원불교대학(학장 허경구)이 과학화훈련단 호국 응봉사와 결연을 맺어 화제다.

대원불교대학 서울캠퍼스 학생 40여명은 6월 16일 강원도 인제에 위치한 과학화훈련단 호국응봉사 건립 현장을 방문해 결연을 맺고 불사 후원금을 전달했다. 이번 결연은 대원불교대학 학생들이 지난 4월 5일자 본지 572호에 소개된 호국응봉사의 어려운 사연을 접하고 학생회에서 회의를 거쳐 결정했다.

불사 현장에 도착한 학생들은 먼저 천막 법당을 참배하고 호국응봉사 신도회 간부 불자들과 함께 불사가 원만히 회향 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기도를 올렸다.

과학화훈련단은 군사 장비가 첨단화되면서 최근에 창설된 부대로 군법사가 파견된 부대 가운데 유일하게 법당이 없어 24인용 천막을 치고 법회를 보고 있다. 조철호 군법사와 신도회를 중심으로 지난 1월 7일 호국 응봉사 건립을 위한 100일 기도를 시작하며 법당 신축에 들어갔으며 8월 15일 낙성을 목표로 2차 백일 기도를 봉행 중이다.

호국 응봉사는 현재 건물 신축 공사를 마치고 기와 불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며 내부 마감 공사와 외부 조경 공사를 남겨두고 있다.

대원불교대학 김범준 법사는 "천막 법당에서 기도를 하며 응봉사 건립의 서원을 세운 장병들의 마음이 많은 불자들에게 펴져가고 있다"며 "신축 공사가 잘 마무리 되어 장병들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군생활을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원불교대학은 법당 낙성식 이전에 다시한번 위문을 오기로 했고 매 분기마다 1회 이상 성지순례 형식으로 위문을 하는 등 물심양면으로 지원키로 했다. 또한 내년에는 대원불교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병영 체험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결연 행사를 만들어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후원을 약속했다.

조철호 군법사는 "불사를 진행하다보니 예산보다 많은 돈이 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결연을 맺고 후원을 약속받으니 마음이 든든해진다"며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모든 불자님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법당 공사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두식 기자

누구나 동참할 수 있어요

■어떻게 진행되나

'2006 군포교 합시다' 캠페인은 '군법당-사찰-기업(학교 · 불교단체 포함)'을 하나로 연결,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군법당 후원체계를 갖춤으로써 군포교 활성화를 이끌어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군장병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등 미래불교의 씨앗을 심는 소중한 불사로 추진됩니다. 종단, 사찰, 기업, 단체, 학교, 개인 등 누구나 동참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동참하나

▷**결연** : 사찰-군법당-기업을 연결.
▷**군법회 위문** : 소외된 군법회를 위문.
▷**군법당 건립 후원** : 낡은 군법당 재건, 신축 지원.
▷**정기적 물품 전달** : 군법당, 군불자에 후원품 전달.
▷**법사 지원** : 법사 없이 진행되는 군법회를 지원.
▷**동참 및 문의** : 조계종 군종교구 (02)797-7266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02)2004-8291
▷**후원 계좌안내** :
006-25-0023-989 (국민은행,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477401-01-092896 (국민은행, 예금주 군종특별교구)

신설 군법당 부처님 무료로 모셔드립니다
불모 허길량씨 후원 석가모니불상(재료:銅) 문의:02-2004-8291

만 인 동 참
ARS : 060-700-0108 당신의 후원이 군불교를 살립니다

국군일동병원 '호국보훈사' 낙성

국군일동병원 호국 보훈사가 6월 20일 김용사 회주 자광스님을 증명법사로 낙성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낙성법회에는 함안 광명사 주지 지원 스님과 이종인 3군 사령부 군법사 및 예하 부대 군법사 30여명을 비롯해 간부, 장병 불자 300여명이 동참했다.

국군일동병원에는 원래 창고 건물을 개조해 만든 5평 남짓 법당으로 호국 관음사가 있었으나 보훈 스님이 법당 신축 기금을 보시해, 스님의 호국불교 정신을 잇고자 이번에 사명을 '호국 보훈사'로 변경했다.

한국불교호국조계종 순국선열 위령재

한국불교호국조계종(종정 혜륜)은 한국전쟁 당시 치열한 전투지로 유명한 경북 칠곡 다부동 전적비 기념관 앞 충혼탑에서 6월 24일 제 25회 순국선열 및 호국전몰군경 합동 위령재를 봉행했다.

종정 혜륜 스님은 "한국 전쟁을 직접 체험하지 못한 후손들에게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친 숭고한 선열들의 애국 정신을 심어주기 위해 지속적으로 위령재를 봉행하고 있다"며 "이번 위령재를 통해 아직도 구천을 떠도는 순국선열들의 영혼들이 극락 왕생하고 나아가 우리나라가 더욱 발전하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두식 기자

軍佛教 후원으로 한국불교의 미래를 심자!

군인은 국가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젊은이들이 조국통일의 염원을 안고 헌신, 봉사하는 나라의 간성입니다.
6.25 전쟁 때 목사, 신부는 군에 종군하여 선교활동하던것에 비해 불교는 뒤늦게 월남전이 한창이던 1968년에 최초로 5명의 군승이 임관한 이후 지금까지 37년 동안 포교활동을 하였습니다.
육해공군 397곳에 법당에서 136명의 현역 군승이 15만1천여 명의 장병불자와 함께 년간 1만 6천여회 법회를 실시하였으며 년간 200만 명이 법회에 참석하였습니다.
또한 년간 8만여명의 군장병에게 수계식을 거행하여 신심있고 굳건한 불자로 육성하여 부처님의 가피 속에 보람있는 군생활을 영위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 종교의 지원에 비해 군승이 불법을 홍포하기에는 너무나 힘에 부칩니다.

존경하는 대덕 스님과 불자님!
저희 군불교에 힘을 보태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한국불교으 미래를 짊어질 젊은 군불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군불교 후원으로 한국불교의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萬人同參 후원금은

- 군장병 포교를 위한 교재, 용품, 서적
- 군장병 불자 수계식 용품(염주, 호신불 등)
- 군장병 위문, 방문, 선도활동에 필요한 위문품의 구입과
- 군승 활동을 위한 지원금품
- 군장병 신행도량(법당) 건립
- 군장병 가족 교화를 위한 교육관 건립 등에 유용하게 쓰여집니다.

軍佛教를 후원하시려면

- 만인동참은 한사람 한사람이 한달에 일만원씩 후원하는 동참불사입니다.
- 더 많은 도움을 주신분은 설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단위사찰별로 년간 또는 월간 일정액을 후원할 수 있습니다.
- 신행단체나 사회단체도 년간 또는 월간으로 후원할 수 있습니다.
- ARS 한통화는 군장병에게 초코파이 한통을 보낼 수 있습니다. (ARS 060-700-0108)

※만인동참이나 후원을 해주실 분은 군종교구로 연락주십시오.
※후원금을 보내실 분들은 은행계좌를 이용해 주시고 보내신 후 전화 주십시오.

1인 1만원 만인동참 후원

제일은행 325-20-203673 조흥은행 377-01-058158
우리은행 1005-580-051116 우체국 010025-01-010767
농협 094-01-156954 국민은행 477401-01-092896
지로번호 7681972 예금주 : 군종특별교구

문의 :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원광사 內
조계종 군종교구 02)797-7266 / FAX 02)796-0221 / 軍 900-7751
홈페이지 : www.gunbulkyo.org

대한불교조계종 군 종 특 별 교 구

대구불교방송
문의) 053-427-5114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FM 105.5MHz
www.dgbbs.co.kr

BBS 춘천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이 버스 안에서 진료 받는 거예요?”

‘반갑다 연우야’ 김천 청암사 강원서 첫 의료봉사

‘한 인물입(閑人勿入)’. 선원이나 강원 앞에 걸린 팻말에서 볼 수 있는 문구다. 일 없는 사람은 들어오지 말라는 뜻이다. 볼 때마다 참 뜨끔한 말이 아닐 수 없다. 용맹정진의 길을 한 치도 막지 말라는 서릿발 같은 경고로 들린다. 그런데 평소에는 좀처럼 외부인의 출입을 허락지 않던 강원의 문이 활짝 열렸다. 그것도 사미니 승가대학으로 이름 높은 김천 청암사의 문이. 반가운 친구를 맞기 위해서다.



‘반갑다 연우야’ 의료지원버스 내부.

“자, 다 왔습니다. 이제 다리만 건너면 돼요.” “통과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큰 버스가 지나가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

경북 김천과 경남 거창의 경계에 자리 잡고 있는 불령산을 굽이굽이 올라온 대형버스가 마지막 관문인 청암사 다리를 간신히 건넜다. 꼭두새벽부터 서울을 출발해 청암사를 찾아온 이들은 조계종 중앙신도회(사)날마다좋은날과 동국대 일산불교병원이 의료협약을 맺고 발족한 ‘반갑다 연우야’ 의료지원단이다.

지난 4월 의료소외지역인 농어촌 지역과 일반 산업현장, 외국인 노동자, 전국 사찰과 신행단체에 무료진료봉사활동을 펼치기 위해 발족한 최초의 불교계 연합의료지원단인 ‘반갑다 연우야’가 첫 무료검진봉사활동을 펼치기 위해 6월 17일 청암사를 찾은 것이다.

이날 봉사에서는 지난해 중앙신도회가 2억여 원을 들여 구입한 대형의료검진차량도 첫 선을 보였다. ‘반갑다 연우야’ 의료진이 타고 온 이 차량은 45인승 버스를 개조한 것으로, 기초체력, 시력 · 청력, 혈압, 혈액, 심전도 검사 및 흉부 X-ray를 찍을 수 있는 각종 의료장비와 자가발전기를 갖추고 있다.



6월 17일 김천 청암사에서 제1회 무료검진봉사활동을 펼친 ‘반갑다 연우야’ 의료지원단과 자원봉사자들이 청암사 비구니스님들과 한마음이 됐다.

높은 혈당 수치에 깜짝…“주스만 마셨는데”

고봉탑 옆에 임시진료소가 세워지고 동국대 일산불교병원 불자회 ‘연우회’ 소속의 한의사와 의사, 간호사 2명과 채혈사 등으로 이루어진 의료지원단이 진료를 시작하자, 조용하기만 하던 도량에 순식간에 활기가 돌기 시작했다.

고참 학년 순서대로 대교과에서부터 사교, 사집, 치문 순서로 서 있던 학인들은 호기심을 참을 수 없는 듯 “이 버스 안에서 진료를 받는 거예요?” “내년에도 또 오나요?” “연우(蓮友)가 뭐예요?” 질문이 계속 이어진다.

한 학인은 혈당검사에서 너무 높은 수치가 나온 것을 보고 놀라는 의사에게 “검사 한 시간 전부터 음식 먹으면 안 된다고 해서 음식은 안 먹고 과일주스만 마셨다”고 답했다. “주스는 당도가 높기 때문에 혈당검사 전에 마셔서는 안된다”는 의사의 설명에, 그 학인은 재검사를 위해 한 시간 후에 다시 와야 했다.



진료를 기다리면서도 경전삼매에 빠진 학인들.



학인들이 질서정연하게 진료카드를 작성하고 있다.



비구니스님들의 편의를 고려해 대중방에서도 진료가 진행됐다.

중앙신도회서 2억들여 구입한
대형의료검진 차량 첫선
기초체력 측정 시작으로
혈액 · 혈압 · 심전도 · X-ray검사

1학년 치문반 학인들은
진료 기다리는 동안에도 경전 삼매
“공부하느라 시간없어 건강 못 챙겼는데
여기까지 와 주니 매우 감사”



단연 인기 있는 한방진료.

대교과 학인들은 여유로운 편이다. 따끔따끔한 채혈때 비명을 지르는 동료 학인들에게 “아프지도 않구만 엄살을 부려!”라고 호통을 치는가 하면, 처음부터 의료진에게 “난 요거 안하고 한방진료만 할 건데요”라고 당당하게 선언하기도 한다.

반면 승가대학 1학년 치문반 학인들은 진료를 기다리는 와중에도 경전을 외우느라 바쁘다. 손바닥만한 노트에 빼곡히 적힌 한자를 외우며 진료를 기다리던 선일 사미니는 “강원에 있으면 병원에 갈 시간이 없어 방학이 아니면 좀처럼 진료를 받을 일이 없었는데 이렇게 와 주시니 감사하다”고 말했다.

의료진 뒤에서는 ‘반갑다 연우야’ 소속 자원봉사자 5명이 의약품을 챙기고 의료진을 돕느라 바빴다. 황채운 자원봉사단장은 “(사)날마다좋은날에서 활동하던 자원봉사자 중 15명이 ‘반갑다 연우야’ 활동을 위해 따로 자원봉사단을 꾸렸다”며 “의료자원봉사를 펼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보훈병원에서 호스피스 교육도 따로 받는 등의 준비를 해왔다”고 밝혔다.

산간벽지 주민들도 찾아간다

오후 6시까지 계속된 의료봉사활동은 주지 상덕스님과 강주 지형 스님이 진료를 받고서야 끝이났다. ‘반갑다 연우야’ 김응중 단장(동국대 일산불교병원 흉부외과 교수)이 “전반적으로 스님들의 건강상태가 양호하다. 다만 장시간 수행에 몰두하다보니 위장계통이 약하고 관절염이 있는 스님들이 몇 분 계셨는데 꼭 동국대병원에 들려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하자 지형 스님은 “‘반갑다 연우야’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이 가장 큰 성과”라며 “이런 기회를 통해 수행에 매진하는 스님들이 자신의 몸에도 관심을 갖게 되고, 병원을 찾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덕 스님은 “앞으로 ‘반갑다 연우야’가 산간벽지의 사찰을 찾을 때 사찰지역주민들도 함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면 더욱 뜻 깊을 것”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진료를 마치고 석양을 받으며 다시 서울을 향해 출발하는 ‘반갑다 연우야’ 의료버스를 향해 청암사 스님들은 다리 너머까지 배웅을 나가며 오래도록 손을 흔들었다.

김천/글=이은비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열침의 효능 은행석 온열복대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식약청 의료용구 개인용 온열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전자기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전 인증서 : HH07236-5004A호
● 삼성화재 배상보험가입
● 특허청 실용실안출원
● 전자파 장애실험필
가격 245.000원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 하면 질병의 원인이 된다.
원적외선 “침”의 효능/신비로운 은행석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며 북한3대 특산품의 금강약돌이 주성분인 최고의 기능성 건강 치료기 은행석 온열복대는 34개의 금강약돌 볼이 70~80℃이상의 고열이 발생 화상 없이 뱃속 깊숙이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침투하여 원적외선“침”을 맞는 효능으로 쑥뜸보다 간편하며 효과적인 복대방식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복대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만 있어도 장속의 노폐물 배출. 하복부 지방분해,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변비, 생리통, 냉대하등을 자연 치유력 하며 당뇨 및 성기능개선 등에 효과가 있는 우수한 의료기기 입니다.
날씨가 더울수록 배(오장육부)는 차가워 집니다
식약청 의료기기 인증 은행석 온열복대의 효능
※ 오랫동안 참선기도 하시는 분 ※ 허약한 氣회복
※ 생리통 허리통증 완화 ※ 아랫배가 냉하신 분
※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 산후조리, 수술후 요양중인 분에게 적극권장
※ 의자에 앉아 장시간 업무를 보거나 공부하는 수험생의 디스크 허리교정
원적외선 “침”의 효능/가격은 최저 효능은 최고
오장 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은행석 온열복대는 고열의 원적외선 “침”이 뱃속 깊숙이 침투 뜨겁게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는 신비한 제품으로 허리, 발바닥온열 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안전하고 편리한 다용도의 은행석 온열복대는 꾸준히 사용하시면 건강도 지키며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고 장수합니다.
암을 예방하는 WBH 치료법을 응용한 온열복대
미국, 독일, 일본등에서 처음 시도되었던 FIRWBH(원적외선 전신온열)이 최근 한국 암재활 센터에서도 소개되고 있다. 환자의 전신을 42℃까지 가온시켜 1시간동안 유지하는 과정중에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여 치료하기도 하며 약물요법과 병합으로 암치료 효과를 높여주는 치료방법이다.
은행석 온열복대는 80℃의 고열이 발산 원적외선이 뱃속 깊숙히 침투하여 췌장까지 42℃의 열을 가온시는 의료기입니다.
문의전화 : 닥터금강 (02)3210-3178,9 www.dk21.net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청소년 포교자료로 활용하세요

문화콘텐츠닷컴, 디지털화된 다양한 불교소재 창작물 제공





문화콘텐츠닷컴에는 불교소재 창작물을 비롯해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9개 테마로 구성, 손쉬운 검색 특징
불화속 인물 캐릭터 등 게임으로
시스템 체계화로 저작권 보호 확실

우리 전통 문화에는 숨어있는 이야기 꺼리나 고유의 색채, 소리 등 많은 문화원형이 존재한다. 특히 한국 문화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불교문화는 문화원형의 보고나 다름없다. 이같은 문화원형을 되살려 애니메이션, 캐릭터, 게임, 영화, 출판, 만화 등 문화콘텐츠산업에 필요한 창작 소재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있어 주목을 끈다.

화제의 사이트는 바로 문화콘텐츠닷컴(http://www.culturecontent.com).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 2002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문화원형 디지털콘텐츠화 사업을 통해 선정된 작품 가운데 개발이 끝난 77개 공모 선정작이 소개되어 있다. 문화원형 디지털콘텐츠화 사업은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역사, 미술, 기술, 이야기 등을 바탕으로 현대 감각에 맞는 새로운 창작 콘텐츠로 만들어 산업적으로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

문화콘텐츠닷컴의 가장 큰 특징은 문화원형 창작콘텐츠를 쉽게 검색할 수 있다는 것. 문화원형 자료를 디자인, 멀티미디어, 오디오, 도큐멘트 소스로 구분해 놓아 사용자가 원하는 자료를 트리 구조로 찾을 수 있다. 또한 문화원형 과제를 의식주, 건축, 의례/신앙, 교통/통신, 군사/외교, 역사/민속, 예술, 과학/기술, 문학/문헌 등 9개의 테마 주제로 분류해 놓아 쉽게 자료를 검색할 수 있다.

현재 불교 소재만 해도 경전속에 나오는 설화나 다양한 이야기 꺼리는 물론 사찰의 건축, 예술, 복식 등 다양한 분야의 이미지, 캐릭터 등의 창작 콘텐츠들을 서비스하고 있다. 지금까지 만봉스님 단청문양, 한국불화에 등장하는 인물 캐릭터, 사찰건축 , 한국석탑의 문화원형, 한국 승려의 생활문화, 불교 설화 등 20여 불교 소재 작품들이 창작 콘텐츠를 개발되었고 게임, 애니메이션 소재로 활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문화콘텐츠닷컴에서는 문화원형 전문가 연감, 문화원형커뮤니티, 문화원형 공모전, 문화원형 백과사전, 문화원형 총람 등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어 문화원형을 이용해 웹페이지, 게임, 캐릭터, 애니메이션, 영상 등을 만들고자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실제로 학익진 전투 모형과 신여성의 교육 등의 창작 자료는 초중고등학교의 역사 교과서 합본 부록으로 소개되고 있고 불화속의 캐릭터가 게임의 캐릭터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공공기관의 지원으로 제작된 콘텐츠를 서비스 하는 문화콘텐츠닷컴의 특성상 제작자에 대한 저작권 보호도 잘되어 있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와 결연을 통해 국내 최초로 콘텐츠의 저작권 등록이 가능하고 저작권 관리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강력한 콘텐츠 관리(CMS) 및 다양한 표준 적용, 첨단 DRM 기술을 바탕으로 한 유통거래인증과 체계화된 과금 체계 등을 구축해 놓았기 때문이다.

문화콘텐츠산업 분야에 소재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문화콘텐츠닷컴의 창작콘텐츠 유통 시스템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자료를 구입할 수 있고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어 개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셈이다.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문화원형 구경본 과장은 "현재 문화원형 창작 콘텐츠는 에듀테인멘트 분야의 활용도가 높다"며 "불교계에서도 이미 개발된 불교 소재 콘텐츠를 포교 자료로 이용한다면 청소년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닷모비' 도메인 신청하세요

휴대폰 웹사이트 구축에 필수, 불교계 관심 필요

핸드폰에 적합한 웹사이트를 구축할 때 사용되는 닷모비(.mobi) 도메인의 등록을 받는 예약 서비스가 최근 개시됐다.

호스트웨이IDC(대표 김성민 www.hostway.co.kr)은 6월 7일부터 닷모비(.mobi) 도메인의 예약 등록 서비스를 실시한다.

닷모비(.mobi) 도메인은 .com, .net, .org와 같은 최상위도메인으로 휴대기기로를 통해 인터넷을 사용하는 소비자를 위해 최적화된 도메인이다.

지난 2004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노키아, 삼성 등 8개 글로벌 IT 기업이 공동 출자해 설립된 회사인 mTLD에 의해 추진되어 왔다.

이번 예약 등록에서는 상표권, 프리미엄, 일반 예약 등록으로 나누어 접수를 받고 있으며 실시간 일반 등록이 시작되는 9월 14일 우선 신청 된다.

휴대폰으로 방송을 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인터넷 사용 또한 급증할 것으로 보여 불교계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인터넷이 보급될 당시 도메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지금도 사찰 및 불교 관련 도메인이 상당수 불교와 무관한 사람들이 소유한 사례가 많은 실정이다.

호스트웨이 도메인은 "휴대기기를 이용한 인터넷 사용이 최근 폭증하고 있어 닷모비 도메인을 활용한 웹사이트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국내 기업이나 개인, 단체 등의 도메인을 외국에 선점 당하지 않기 위해 예약 등록 기간 동안 안전하게 도메인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김두식 기자



우리 가족 영상 만들기 9

위치 동작 시선 일치해야

촬영시 지켜야 할 삼일치

동영상은 일반 사진과 달리 컷과 컷을 연결하여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고 장소와 상황의 변화를 만들어 간다. 다시 말하면 현재 촬영하고 있는 장면은 엄밀히 보면 바로 전에 촬영한 장면과 다음 촬영을 통해 얻어지는 장면 사이에 존재하게 되는데 이를 '화면의 연속성'이라고 말한다.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른 곳에서 촬영한 장면을 삽입 할 수도 있지만 화면의 배경이나 장소, 분위기가 현재의 장면과 아주 다른 장면을 삽입해 이야기를 전개해 나갈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촬영을 했다고 가정할 때 처음 시작할 때의 아침 분위기와 끝날 때의 저녁 분위기는 전혀 다른 느낌을 주기 때문에 같은 연결 동작으로 사용하기에는 어색한 느낌을 준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장면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기 위해 촬영시 지켜야 할 화면의 삼일치라는 것이 있다. 우선 위치가 일치되어야 한다. 두 사람이 거리를 걷고 있는 장면을 촬영한다고 할때 먼저 두 사람이 걷고 있는 전체 모습을 촬영한 다음, 각각의 사람들의 얼굴을 클로즈업으로 촬영하고 다시 두 사람이 걷는 모습이 한 화면에 나오게 촬영했다고 하자. 이때 마지막 장면에서 좀 더 다양한 앵글로 촬영하게 위해 두 사람이 걷는 모습을 뒤에서 촬영했다고 하면 아마도 부자연스러움을 느낄 것이다. 이처럼 피사체의 위치를 서로 일치 시켜야 한다.

두 번째는 동작이 일치되어야 한다. 한 사람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촬영할 때 먼저 인물 전체가 보이는 장면을 촬영하고 얼굴을 클로즈업 한 장면, 다시 인물 전체를 촬영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러나 이때 인물의 왼쪽 모습을 보여주려고 카메라의 위치를 반대로 했을 경우 인물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느낌이 아니라 반대로 되돌아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즉 움직이는 위치에 혼란을 주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피사체의 동작이 일치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시선이 일치되어야 한다. 남녀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장면을 촬영한다고 하자 우선 두 사람이 테이블에 앉아 있는 모습을 촬영한 다음 남자가 여자를 쳐다보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다음 화면으로 여자가 남자의 말을 듣고 있는 모습이나 남자의 말을 받아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촬영해야 화면이 자연스럽다.

이때 남자의 시선과 그 다음 장면의 여자의 시선이 일치되어야 한다. 촬영을 잘못하면 남자는 여자를 쳐다보고 있는데 여자는 엉뚱한 방향을 쳐다보고 있는 황당한 장면이 연출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하나의 장면에서는 등장인물들의 시선들이 항상 같아야 한다.

이외에도 색상으로 감정 변화를 표현 할 수 있듯이 피사체의 이동에 따른 심리적 상태를 표현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화면의 오른쪽 하단에서 피사체가 왼쪽 상단으로 이동하면 쾌적한 느낌을, 오른쪽 상단에서 왼쪽 하단으로 이동하면 스피드감이나 박력 등을 느낄수 있다.

김두식 기자

클릭! 불교문화상품
불교문화상품전문몰 mahamall.co.kr
상품문의 : (02)732-1520



포대화상도 액자

청곡 이한동 화백 작품
그림 크기 : 34cm x 45cm
액자 크기 : 50cm x 60cm
재 질 : 화선지, 고급수지액자

중국에서는 미륵 부처님, 일본에서는 복 부처님으로 포대화상도를 집집마다 걸어두고 있을 정도로 포대화상은 가정의 화목과 복을 가져다 줍니다.

가격: 198,000원(고급액자 포함)



세로 88cm 가로 58cm

소재화 수월관음도
가정의 재난과 고통과 액운을 소멸

세함에 감탄을 한다. 험한 세상 자손대대로 안녕과 번영을 지키는 불자가정의 수호신인 수월관음도는 조계종 종정상과 대통령상, 한국불화대전 대상을 수상한 불화의 명장이신 法性 金義坤 화백께서 3년간 기도와 영험으로 그린 불화로 100% 천연코튼 린화지에 28도 린화와 베를린 왁시를 사용해 자자손손 후손에게 물려줘도 변색되지 않게 제작 했으며 최고급 2단 돌출표구로 거실 또는 사업장에 모시면 대단히 품위가 있는 세계가 격찬한 영험의 불화다.

불자가정의 3대 가보중 첫번째인 수월관음도는 뒷면에 카필라 불공사의 보증서와 자자손손 후손에게 물려줄수있는 소장인판이 있다. 염원이 나타난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카필라 불공사에는 가보로 구입하는 분과 아들딸 자녀에게 한점씩 주기도 하고, 새집이사 선물로 구입하기도 하는 등 지난번 KBS 역사 스페셜 수월관음도 방영 후 전화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특급택배로 보내주고 있으며 점안불공을 마친 수월관음도를 받으면 육육재개하고, 정한수놓고, 삼배하면서 갖가지 소원기도 한다음 거실또는 사업장에 걸면 영험이 시작된다. (가격 195,000원)

■ 문의전화 02-741-4488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http://club.cyworld.com/kapilla

용 어 해 설

● 수월관음도 (水月觀音圖)
관세음보살 부처님의 모습이 그윽한 연못위에 비치는 달처럼 무명의 어둠에 있는 중생들에게 자비로운 구제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불화다.

● 소재화 (消災畵)
불교에서 소재화란 모든재난과 고통 액운등을 소멸하고 예방한다는 불화 그림을 말한다.

불자가정의가보로 안녕과번영의수호신

무명의 어둠을 밝게 비춰주는 수월관음도는 세상 사는동안 모든 재난과 고통과 액운을 소멸하고 오는 생에 좋은과보와 무량대복을 주고자하는 자비로운 구제자의 영험을 보여주는 소재화다.

소재화인 수월관음도는 받아보는 순간 누구나 두번 감탄을 한다. 첫째는 처음 느끼는 영험에 감탄을 하고 둘째는 섬

평생 부자지갑
존경하는분께 사업 성공의 선물!
사랑하는 아내에게 평생 부자의 선물!

옴마니반메훔 평생福 지갑
놀라운 재물과 재운을 얻고 문제는 팔길상이 해결!



남성용중지갑 (검정,밤색)
여성용롱나노 장지갑(적색, 진보라색)

넣고 지갑내부에는 건강장수의 팔길상"반장"을 넣었으며, 풍수남북의 돈을 모으고 가지고 있는 돈이 헛되이 나가지않는 팔길상"보병"도 넣었다.

옴마니 반메훔지갑을 이성이 지닐때 가정이 번영하고 건강하며 금전적 어려움이 해결되어 항상 풍요롭게하고 음양의 조화로 부부관계가 놀랍게 회복되는 비방의 영험도 나타나게 했다.

"카필라"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탄생하시고 왕세자를 하신 고대국가 이름이며 전화로 신청할때에 지갑사용하실분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일 새벽 특별 축원불공을 해드린다.

고급케이스에 있어 선물로 품격이 있으며 여성용장지갑 95,000원 남성용중지갑65,000원 전화로 신청하면 보내준다.

■ 문의전화 02-741-4488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http://club.cyworld.com/kapilla

점안식과 축원불공 용어해설

점안식은 부처님의 불상, 진영, 법구등에 큰스님을 모셔 부처님의 영혼이 나타나게 하는 불교의식이며 축원불공은 부처님 법구가 들어있는 상품등을 사용하는 분의 소망과 소원을 이루게 하는 불교 의식이다.

점안식과 축원불공 마쳐 지니는 순간부터 영험의 신통력!

옴마니 반메훔, 육자대명왕진언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다림 신중에 계실 때 가난으로 헐벗고 고통속에 있는 중생과 병고로 시름하고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불광의 비방으로 옴마니반메훔 육자대명 왕진언을 설하셨다

그후 가난한 중생은 풍생부자로 공덕을 짓고 살았으며 병든자는 얼기 어려울정도로 건강을 회복하였다. 법경에 입각해 법구를 전문으로 제작하는 카필라 불공사에서 탄생 일어나라는 뜻에서 700일의 축원기도와 영험으로 제작된 옴마니반메훔 풍생 복지갑은 영험이 나타나게 점안식 까지 마쳐 출시 30일만에 영험을 받은 불자들로부터 입소문을 통해 구입문의가 쇄도하고 있으며 자녀들에게 하나씩 물려고 몇 개씩 구입하기도한다.

최고급 천연가죽에 은나노처리를 한 옴마니반메훔 풍생 복지갑은 일반지갑과는 비교될 수없게 제작했으며 지갑앞면에는 음양의 조화로 만사가 형통되는 "육자대명 왕진언"을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불자생활정보



▷ 광고문의 : TEL 02)2004-8213~6, 02) 732-1522
FAX 02) 737-0696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광고가격 : 1Box(4.4×4.4) 4만원

방편비법전수
침술한약 | 급소를 활용하라 ※ 치료, 처방, 진단에 통달할 분
사주역학 | 핵심 및 통변의 달인이 되라 ※ 배워도 배워도 답답하신분
영가빙의 | 전생을 보고 귀신을 부려라 ※ 천도방법과 치유능력을 원할분
※ 만성병 상담 및 출장교육가능함
011-1737-2882

사주주역강의
사주통달하게 찝어주는 책임지도
명리를 정확하게 풀어야만! 정말 사주쟁이
역학 연구원 금강원
H·P011-9769-8868

눈 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노환으로 작은글씨 안보이시는 분
눈흐림, 눈건조, 눈부심, 침침함, 눈뻐뻐함, 눈곱, 충혈, 시력강화, 렌즈착용 하신분
섭취하고, 반응 없을시 100% 환불
구입문의 (02)2631-2205,1305

경남 최고의 염불
천도재 | 예수재 | 정안식 | 바라춤 | 나비춤 | 태평소
수행과 보시로 접전대행
(밀양 강정사 음성공양회)
055)391-3274
011-869-8560

척추 허리,어깨,목,무릎
짝다리,탈골(만성고질통증),체형교정사주,작명,풍수지리
빙의 (산들림) 출장가능
활법,기공최면,전생,급방 천도 전문 해결사
02)835-2399
011-817-3387

역학개인지도
명리,성명,택일,풍수
쉽게 풀어보는 명리첩경
著者 반야선원 혜공 합장
02)421-8494
017-606-6628
(전화 상담도 함)

회심곡.천도재. 49재.바라.태평소
학인스님 행자모집
범음범패 교육도량 인간문화재 9호 이수자
마산 밤밭고개 세원암
016-428-6665
(055)222-9486 천우 합장

사찰의 각 행사 해드립니다
천도재, 49재, 점안식,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 회심곡, 호적
행사문의
010-4870-8359
범음범패 연수원장 덕산 합장

모든 불공의식을 저렴한 보시금으로 지극정성껏 해드립니다
천도재, 점안식, 바라무, 범음범패 성도합장
011-850-0176

유명 표구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종부 합장
▷전국 택배가능◁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6호선 새절역 1번출구)
02)374-9886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팔자를 알아야 성공한다
명리 6개월 무료강의
정락스님 직강
032)662-5701
010-3448-6612

범음범패 의식 해드립니다
점안식 | 천도재 49재 | 수륙재 | 예수재 | 바라나비춤 | 사물 | 각종의식
학 인 행 자 모 집
대광명사(동양불교대학)
02)939-3327
011-9923-3329

어렵게 사찰불사 창건 하시는 스님께 안내
후불목탱, 신중목탱, 칠성목탱을 스님 사정이 어려워 아직 준비가 안되신 스님은 답사하시어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반값도 안되는 가격에 인연 바람
목탱 평수는 대작임
010-3166-8483

氣수련을 하지 않고도 바로 氣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 수련을 하지 않고도 바로氣치료 원격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길은 전세계에서 레이키(Reiki. 靈氣) 밖에는 없습니다. 지난 10년동안 많은 스님 거사님 보살님들이 배웠습니다.
- 동서양식 레이키 : 개인교육 70만원, 단체교육 50만원 교육기간: 2~3일 ※교육1개월 후 무료 추가 보충교육있음
-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 / www.reiki.co.kr (한글검색어 : 레이키)

전 화: 02)720-5719, 720-5682
핸드폰: 010-8392-2557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자연환경 · 수련지도법이 탁월한
선관단식
◆수련원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홈페이지 : www.zenfast.com
◆안내 : 055)834-1115
016-849-3858

만다라 티벳 진품
130×130(표구되어있음)
인연되시는 분 급히 찾습니다
가격은 230만원
010-7157-0679

기도와 회향 보시와 불공은 중요합니다
가정방문 상담 및 기도
상담환영
꿈바위불교교육원
018-789-5008

천도재 점안식
1인스님 15만원
2인스님 25만원
3인스님 35만원
저렴한 보시금으로 해드립니다
부산경남지역만됨
010-7747-5222

부전스님 모십니다
(비구니 스님)
▷울산지역
052)243-3881

공양주보살님 및 처사님 모십니다
부부 함께 가능합니다
055)381-1199

공양주보살님 구합니다
▷충남서해안바닷가사찰
041)673-1888

불교에 식견이 있고 홈페이지 관리하실 분을 모십니다
▷숙식가능
033) 672-2029
011-368-0051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50~65세)
부부도 가능
011-270-2675
031)335-2576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울산시내
052)275-0829

출가사문 비구 도일스님께서 강화도 민가 토굴에서 수행정진 중 무릎과 허리를 응급수술 받았습니다. 2차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수술비가 부족합니다. 도와주실 불자분 연락주십시오
불자 관호 합장
010-9532-0334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행자모십니다
(50-60대)
011-483-5639

공양주보살님 사무직 여직원 구합니다
(경기 평택)
031)682-3169

경리구합니다
PC 가능한 분
▷경기도 의왕
▷천태종 대안사
031)459-3666

요양하실 분
공기좋고 산과 계곡이 아름다운 기도도량에서 요양하실 분을 모십니다
공양주 보살, 행자 구합니다
055)355-0027

신심있는 부전스님을 모십니다
▷경기 안산
011-324-5103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산사에 조계종 전통사찰
055) 335-6499

운명사주! 기도예불 등 책임있게 사찰운영 비구승. 사찰을 맡길분 연락바랍니다
016-9455-8985

사무실 여직원 구합니다
054)834-6934

부전스님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043)256-2655

공양주 구합니다
02)353-3004
02)359-7766

어려운 동진 연인을 맞이합니다
보호자가 없는 경우나 형편이 어려우신분
가정이 안정될때까지
비구니스님이 위탁해드립니다
초등학생(여)4,5학년 3명, 남중생 3명
조건 없음, 경북지역
016-9646-0578

산세수려한 청정도량에서 기도(부전)하고저 합니다
부전스님이 필요한 사찰은 전화주십시오
054) 433-6315
010-4811-6787

부전스님이 필요한 사찰은 연락주십시요
010-9848-7492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0세전후
삼천지장보궁 영명사
054)482-1390

고통에 시달린 몸과 마음을 삼보전에 맡기시고 남은 여생 기도하며 살아가실 비구 비구니 보살님 모십니다
동창금 2천만원
018-406-3073

사람을 찾습니다
충남 예산군 덕산면 관음포교원 전 수암스님 속가 근속과 상좌 만경스님을 찾음
신심골 토굴터 700평 양도
산골 토굴구함
055)573-9772

내집처럼 신심있게 자기기도 하면서 화주보살 하실분 모십니다
▷나이 40~55세
그리고 선달마 배우면서 스님 시봉하실 보살님 모십니다
▷나이 20~40세. 전남 화순
010-4604-9255

대한불교 전통조계종
- 사암 등록 환영합니다
- 종무원 개설 원하시는 사찰 환영합니다
- 스님이 되시고자 하는 분 적극 환영합니다

경북 칠곡군 지천면 황학리 448번지 황룡사
행정실 054)972-4737
문 의 010-7302-0077

28숙 특별지도
- 풍수와 28숙을 정확하게 보는 방법을 1:1로 빠른시일내에 쉽게 알려드리며 승려에 한합니다
- 위치 : 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 3번출구
- 지도스님 : 대주 합장

☎ 02)926-1259 / 011-741-0867

누구나, 재식, 염불을 쉽게 배울수있는 각단불공책
상단불공 · 신장불공 · 지장불공 · 산신불공법
용왕불공 · 조상천도 · 칠성불공 · 불명짓는법
책마다 순서대로 불공을 쉽게 할수있는 각각단권으로 맞춤형식 제작판매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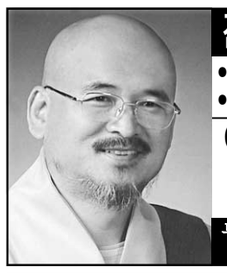


불공을 배우고자 하는분, 초보스님, 법사, 철학사, 보살님 기도하는 불자는 절대필요한 불공책 (역학.염불.배울학인모집)
대구시 중구 달성동 284-34 (농협) 743016-51-022866(정은정)
종단사찰등록 · 국제역술인협회 가입 환영 ☎ 053)561-4440

영남불교대학 신입생모집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동시강의
▸전국 제1의 불교대학 · 경전중심 · 체계적인 교육
- 목요일 오전반, 금요일 오전반, 화요일 저녁반 - 각요일 선택, 주1회
- 회주 우학스님(불교TV 및 불교라디오 법문) 직강
- 인터넷반, 통신반, 도서반, 탁아방, 컴퓨터실 등 첨단시설
- 조계종 인가 신도교육 전문기관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053)474-8228	053)811-0337	053)312-8221

▸행자모집
문의 : 011-9852-0075 (총무스님)
대한불교 조계종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 [대구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 사주, 작명, 궁합, 택일 - 기초부터 5개월
- 대상 : 누구나 가능 - 주4회, 1일 1시간씩

아기 이름을 예쁘게 작명해서 보내드립니다.
문의 051) 867-8438
부산 송광정사 附設 FAX 051)867-7438
부산시청(경찰청) 뒷편 삼화탕 앞

신비로운 학문 역학 강좌 안내

명쾌하고 알기 쉽고 부드럽고 시원한 교수님들의 강좌개설 안내

명리학 강좌 안내
◆강 사 : 김도형 교수
- 기초반 : 음양오행 - 사주구성까지 <목요일 10:30 ~ 13시>
- 중급반 : 간지 체성론
- 실전반 : 격국 및 통변 <토요일 14시 ~ 17시>

※ 7월 1일은 공개강의

육임학 강좌 안내
◆강 사 : 조태운 (대전숙)강주
- 강의내용 : 실전 육임과 육임 내정법
- 시 간 : 6월 30일 개강 <금요일 14시 ~ 17시>

※ 개강일은 공개강의

육효학 강좌 안내
◆강 사 : 최인영 교수
- 강의내용 : 육효의 이론과 실전풀이
- 시 간 : 7월 1일 개강 <토요일 11시 ~ 13시>

※ 개강 첫날 공개강의

관상학 강좌 안내
◆강 사 : 최인영 교수
- 강의내용 : 관상학의 고급이론의 실제 적용과 관리법
- 시 간: 7월 1일 개강 <토요일 18시 ~ 21시>

※ 개강 첫날 공개강의

주최 : 한국 전통과학 아카데미
위치 : 신설동 5번출구 30M 연락처 : 02)929-4646, 011-9902-4640

독일 월드컵 기간
대불정능엄신주 독송기도합니다
한국선수들의 승리를 위한 성원으로 대불정능엄신주를 독송기도하오니 열심히 기도하기 바랍니다. 동참하십시오.
대불정능엄신주 필요하신 분 연락바랍니다.

대구 팔공산갓바위 기도 가는 분
약사여래경을 열심히 독송하십시요. 소원성취도가 다릅니다

철 야 기 도
대불정능엄신주 · 우리말 천수경 · 지장경
효과적인 독송 기도방법 지도
대학입시 사법 행정고시 합격기도 책임지도
가정에서 전국 포교활동 하고 싶은 분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드리는 방법

경전독송기도특강 (3개월과정) 매주 화요일
- 기도와 회향
- 보시와 불공방법

①우리말 천수경 ②문수보살예찬문 ③보현행원품 ④관세음보살보문품 ⑤지장경 ⑥금강경 ⑦아미타경 ⑧약사여래경 ⑨능엄신주 ⑩신년법어 ⑪불탄법어(성철큰스님) ⑫영가천도 ⑬기 타

- 지방분 환영 - 전국 포교활동 하실 분 - 스님동참환영

★가정방문 상담과 기도해 드림
- 전국만행 - 맨발등산 하실 분 - 택시운전기사불자회
- 단계별 능력에 맞춰 체계있게 개인별 지도
- 노사갈등없는 회사운영 특강
- 사찰운영 및 신도들을 위한 특강 - 신행단체 특강
- 기도불공 한 후 노숙자에게 떡공양 하실분 환영

치매예방

조상영가천도, 각종 기도 불공, 생일불공
- 술, 변비로 고통받는 분, 불면증, 우울증, 비만, 스트레스, 성격변화, 디스크, 가족갈등
- 군부대 법당 - 경찰서 법당 - 교도소 - 병원법당 법보시 하실분 문의 상담
- 노후에 건강하게 오래살고 회향을 잘하고 복짓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며 밝은 사회 만들기

꿈바위불교교육원 018-789-5008
서울 광진구 중곡4동 79-9
부산 635-7008 대구 986-0338
서울 739-5008 마산 245-2662 안성 · 김해

사주운세 10초내 맞추면 통장입금
명리학[사주첩경통달](이석영)
명리학 질문 10초 내 답변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이름모를 질병, 재난, 부부갈등, 혼사지연, 학업성적부진, 가출, 부모와 자식간의 갈등, 빙의 등 명리학으로 원인을 찾아드리고 퇴마와 천도방법을 상담으로 방법을 찾아드립니다.

굿이나 부적 등 부담되는 일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전화 상담 경력 10년

02)826-5067

하나은행 361-810554-63707 김진동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전화 : 02) 2004-8213~6 / 02)732-1522 (直)
· 전송 : 02) 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사천
- 법당 : 20평
- 요사 : 80평
- 부지 : 650평
- 가액 : 3억5천

- 위치 : 경북
- 법당 : 15평
- 요사 : 30평
- 부지 : 130평
- 가액 : 1억3천 (즉시법회,도심속산사)

- 위치 : 부산
- 법당 : 18평
- 요사 : 25평
- 부지 : 195평
- 가액 : 4억9천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 부젼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미래공인중개소) 02)998-1994 011)713-5634

사찰안내

1.서울국유지무허가사찰多
2.서대문포교당45-월110
3.봉천동포교당40평-월85
4.강원사찰물많음-5억5천
5.강남GB 500평부지-14억
6.운영필요한사찰구함
•기도스님공양주신속연결

불교정보센터
현대불사 02)555-0575

사 찰 안 내

- 위치: 강원도 원주시 (원주 IC 10분거리)
- 법당1. 칠성각1. 산신각1. 요사채2 전 500평 포함
- 가액 : 2억5천(절충가능)

011-9029-7113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동김해 아파트 상가 밀집 최요지
- 평수 : 4층 45평
- 시설 : 집기완벽. 주차A급
- 즉시법회가능
- 가액:보증금2천만원/월50만원 시설비 : 답사 후 절충
- 명리,대체의학 최적합

055)332-6738
010-6840-8545

지리산 사찰안내

- 위치: 경남산청 (진주 1시간, 서울 3시간반)
- 임야15000여평, 부지1000여평
- 법당과 황토선방과 현대식 요사채4동, 전기 도로연결, 청정계곡과 소나무들이
- 선풍을드날리는 참선기도도량

가액 : 4억2천만원
010-3852-573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
- 부지 : 천평
- 법당 : 목조33평
- 요사 : 55평
- 가액 : 9억

- 위치 : 서울
- 부지 : 국유지240평
- 법당 : 목조 40평
- 요사 : 30평
- 가액 : 7억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양도 운영하실 분 상담환영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토 굴 안 내

- 위치 : 지리산 자락 하동 악양
- 가옥 신축 황토 기와집 33평, 부지 672평
- 가액:2억5천
- 특징 : 집 위 대숲, 집안 연못가 잔디밭

016-367-2112

포교선원 안내

- 위치: 부산 사하구
- 5층건물 시내 최고 조건
- 건평: 약 200평
- 가액: 6억 8천만원 (가격 조정可)

051)293-4569
011-889-1559

암 자 안 내

- 위치: 경남 밀양 얼음골 주위
- 임야 4500평 법당, 요사채, 산신각
- 가액: 4억5천만원
- 유명관광지 입구

010-4876-5535
010-4699-9387

사찰 최고 적지(서울)

- 위치: 종로구 평창동
- 평수 181평, 건평 170평
- 3층건물 엘레베이터 有 정자, 주차시설 가능

※현재까지 양로원으로 사용하였으나 확장이전 관계로 안내함

011-441-1966
02)3216-0572

위치	부지	가액
• 서울	80평	4억
• 경남	100평	3억2천
• 양평	약 2천평	13억
• 경기	약 2천평	18억
• 서울국립공원내	약 6백평	5억
• 부산구포	50평 3층 도심포교 최고임	3억2천

한 국 불 사 (한국 최고의 사찰 컨설팅)
연락처 : 02)6674-3535 / H.P 010-3154-3535
※전국 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상담 환영합니다.

사 찰 안 내

- 위치: 구미시 소재
- 부지: 100평(종교용지)
- 법당: 70평(3층)산신각: 70평 (2층)
- 종무소 : 70평 (1층) 공양간 30평(지하)
- 가액 : 4억5천만원
- 특징 : 도심인근 상가 밀집지역에 위치한 도심 사찰임

- 위치: 김해시
- 부지 : 약 300평
- 법당 : 30평
- 요사 : 2동 50평
- 가액 : 3억원
- 특징 : 주지스님이 신병 관계로 급히 양도 코저 함

좋은인연 됩시다 ※전국 소재 사찰양도 양수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동진불사 대구 018-689-0455/서울 018-536-4064

사찰안내

- 위치: 부산 강서구
- 대지 870평, 법당 25평, 용왕당 4평, 산신각 5평, 종각 3평, 요사채 방 7개, 주방시설 완비
- 주차시설 30대, 70년된 사찰 사용평수 2,000평
- 가액: 5억

010-4877-5900

사찰 및 명상센터 안내

- 위치: 광주광역시 동구
- 대지: 247평, 건평: 75평.
- 법당, 요사, 화장실, 창고, 기역자형
- 산좌수려, 아파트 개발 예정지 근교 현대식건물,기도터 및 명상센터, 버스 및 지하철 교통편리
- 가액: 2억 2천만원

011-606-1976

사찰안내

- 위치: 전남 화순군
- 연화 도수 형국, 최고의 명당터
- 법당을 중심으로 양쪽 계곡, 큰호수있음 1200평. 조립식 임법당, 요사채, 토목공사 완료 삼존불, 후불, 지장, 신중탱화 무료보시
- 가액:1억4천만원(가격절충가)

010-9405-928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인천 부평역 10분거리
- 평수: 35평, 4층건물중 3층
- 가액: 보증금1천만원 월25만원
- 시설비 2500만원
- 시설완비, 몸만오시면됨 즉시법회 가능

010-8676-6921

사 찰 (급) 안 내

- 위치 : 인천 계양 (상가 건물 2층)
- 총평 : 40평, 법당 : 20평
- 요사 : 20평
- 보증금 : 1천만원, 월60 (큰방,1개, 거실, 화장실 보일러) 10년전통

사찰,암자,포교당,운영, 각종행사 상담합니다

삼보불사 011-9769-8868

황금알땅 종교부지

- 5166평
- 최고명당, 화장터옆, 납골당터
- 민원없음 국유지, 몇백만평속 사유지, 한필지
- 형질변경 완료, 토목공사중

경기도 광주 사찰

- 대지 290평 총사용 400평
- 대웅전, 요사채 110평 새건물
- 투자하여 운영하실분

011-9109-3660/011-9228-2345

토 굴 안 내

- 위치: 경북 문경시 동로면 석향2리 소재
- 평수 : 35평, 대지 : 150평
- 방1개, 기름보일러, 창고1, 입식주방, 나무때는 방1, 주차가능
- 가액: 5백만원

054)552-6675

강원도 산수 좋은 곳

연락바랍니다

017-420-2200

조그만 암자나 시골집과 교환하고 싶습니다

(차가 없어 교통이 편리해야 합니다)

- 위치 : 부산시 서대신동
- 연립 3층, 방3개, 2층
- 가액 : 5천 5백만원 (웃돈 있습니다)

011-9529-7424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밀양시 초동면
- 대지 : 235평
- 법당 20평, 요사 18평
- 현대식건물 법당 동향, 요사채 남향 (요사채 가전제품 완비) 언제나 오셔서 법회 가능
- 가액: 1억 6천 5백만원

011-879-7551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대구 아파트 밀집지역 시장 사거리
- 평수 : 50평(3층 건물중 3층). 옥상 50평 사용 가능
- 큰방3개, 삼존불, 후불, 신중, 칠성, 산신탱화
- 법당 앰프시설, 법당 주지실, 에어컨 설치
- 가액: 보증금 1천만원에 월 40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1-9391-8117

사찰안내

- 위치 : 강원도 최고의 관광지 기도처
- 법당, 요사채 집기일체양도
- 가액 : 14억(절충가능)
- 기타 : 꼭 필요하시분만 연락바람

010-6248-7345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도 양평읍 5분거리
- 대지: 560평 법당 24평(목조), 산신각 5평(목조)
- 가액: 3억 3천만원 (절충가능)

031) 771-5780
019-592-0323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서울 서초구 최고의 위치
- 평수 : 50평, 방 2칸
- 시설: 최상의 시설 을함, 냉,난방완비 삼존불, 신중, 산신, 조왕 탱화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 100만원 시설비 3500만원

011-9269-8445

토굴 안내

- 위치: 경북 군위 으흥
- 평수 : 전 320평,건평 40평
- 흙집 소담집 벽 60cm이상 황토방 시설 주행 공부터로 적합
- 가액 : 3천 8백원 전세가능

011-9585-4908
054)383-8553

포 교 당 안 내

- 위치: 경기도 남양주 수락산
- 평수: 67평 6층건물에 3층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절충)

017-515-7527

토 굴 안 내

- 위치: 충남 홍성
- 대지: 200평 건평 50평 전 300평
- 가액: 1억9천7백만원

011-425-6054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진주 시내에서 10분거리
- 대지: 532평, 법당: 25평, 요사채: 55평 천불전: 38평, 고시원: 45평 주지실: 10평. 주차시설 완비 건물 일체 심야보일러 온수
- 건물: 5억3천만원 총공사비 10억 소요

010-9889-3188

사찰(급)안내

- 위치: 부산시 상업지역
- 1층 요사채 2층 법당
- 가액 : 답사 후 절충

010-7777-8575

사찰안내

- 위치: 부산시내 및 근교
- 2억, 3억, 5억, 10억, 25억 등
- 사찰 신축 부지 다량 보유

016-558-4909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시 영도
- 대지: 82평
- 1층 요사채 28평 2층 요사채 23평 3층 법당 23평
- 즉시법회가능, 주차 5대 이상
- 기타 : 꼭 하실분만연락바람
- 가액: 3억2천만원

016-637-6144

포교당(급)안내

- 위치: 부산 금정구 남산동
- 평수 50평, 신시설완비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8-543-0901

포교당 선원 안내

- 위치 : 청주 시내
- 평수 : 40평, 2층, 법당, 방2개, 욕실
- 가액 : 300백만원 월40만원(전세가능) 시설비 답사후절충

011-9393-4965

토굴(급)안내

- 위치 : 충북 단양 접성
- 대지: 100평, 건평 : 20평
- 조립식주택, 건축2년. 주변 자연석 많음 작은창고1, 조경, 도로접, 전기수도, 수세식
- 토지700평, 저렴하게 구입가능(관리지역)
- 해발약500m 금수산옆. 마항산 중턱, 앞이 확트임, 조용한 곳. 조용히 공부하실 분 최적합
- 가액 : 합 4,200만원

010-6460-1316

사찰터(급)안내

- 위치: 충북 제천시 청풍호 주변
- 부지 2필지 708평. 현재 하우스 전기전화 계곡 자연수 흐르는 기도처

- 위치: 충북 괴산 지방문화재
- 부지 1필지 233평 • 가액: 상담 후 결정

011-742-5925
043)644-1666

사찰(급) 구합니다

017-710-1775
017-236-1775

사 찰 안 내

- 위치: 광주시 광산구 월곡 2동
- 인법당
- 대지 66평 7홉
- 건평 35평
- 가액 : 2억

062)952-3033
011-637-3033

토 굴 이 나 별 장 안 내

- 위치: 경남 산천군
- 목재건물 2동

011-838-6568

사 찰 안 내

- 위치:전북 고창
- 산세수려한 기도 도량
- 법당, 요사, 창고, 서재(주지실) 편의시설 갖추어짐 모든 집기 시설 완비 심야전기 보일러 신설
- 가액: 1억 2천만원

010-7248-7355

포 교 당 안 내

- 위치:상계동 수락산전철역 아파트밀집지역
- 평수: 40평 4층건물에 3층
- 보증금 2천5백만원 월 80만원 시설비 3천만원

011-715-6333

암 자 안 내

- 위치: 부산 동래구 명륜동 부근
- 2층 : 대지73평 1층 법당 30평 2층 요사채 20평
- 삼존불, 산신각, 호신불108불
- 버스1분거리, 지하철5분거리
- 마당에 주차가능

051)555-8516
011-850-844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주시내에서 15분거리
- 대지120평. 2층 24평
- 슬라브 2층 24평 법당, 요사채1, 산신각
- 산세수려한 산자락아래 비구니기도터 적합
- 가액 : 9천만원

011-544-9777

사 찰 안 내

- 위치: 대구시 북구
- 대지 93평
- 건물 2채
- 법당 30평
- 가액: 2억

011-650-7729

포교원(급)안내

- 위치: 경북 구미시 원평동
- 법당 2층 건물 2층(90평)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1300만원(절충)

010-8646-4899

사 찰 안 내

- 위치: 중남 아산시 (아산 호서대학교 부근) 천안에서 20분 온양에서 20분
- 가액: 1억

010-2000-5809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어령군
- 대지 220평, 전 160평
- 법당 15평, 요사채 23평, 용왕당
- 가액: 7천 5백만원 산세수려 청정수월도량 인연있는분 연락바랍니다

011-837-4010
055) 574-4011

포교원(급)안내

- 위치: 부산해운대구 재송동 최고 요지
- 약 50평, 사무실, 법당, 공양간, 주지실
- 전세 3000만원 월 20만원
- 집기 비품 3500만원 몸만 오시면 됨

019-293-9369

포교당안내

- 위치: 마산시 산호시장앞
- 건물: 평수 30평
- 가액: 전세1천만원/월45만원 시설비 1000만원 (절충가능). 시설완비

※ 몸만오시면 즉시법회가능

055)243-3758
055)232-7151
011-599-8476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사하구 당리동 혜원사
- 평수 : 2층, 전체 170.80평방미터
- 방 4개, 공양실, 법당, 베란다 공간 넓음
- 삼존불과 산신, 용왕, 칠성, 탱화 봉안 되어 있음
- 보증금 4천만원 월 100만원 시설비 절충가능

051)203-7896
010-7375-7896

사찰 안내

- 위치: 경남 고성 시내에서 10분거리 (녹차 100평 10년 수명) 백두대간 남해바다에 맞닿은 300만평 숲속
- 내용: 종교부지 300평 (법당 30, 요사채 30평 기타 건평 8년) 그 외 1,000여평, 봉황이 알을 품은 정남향 명당) (자연경관 흐름따라 황토, 태백산 적송으로 지음, 조경 잘됨) (산책로, 1급 지하 샘물, 산수, 병풍같은 뒷산과 앞산거리 4km
- 바램: 禪院 및 기도처, 수양 요양처로 최적 (고도 250m 뒷산 450m, 앞산 100~600m)
- 가액 : 5억 (상황 따라 절충 가능)

055)674-2202
010-2245-4862

사 찰 안 내

- 위치: 충남 아산시 (아산 호서대학교 부근) 천안에서 20분 온양에서 20분
- 가액: 1억

010-2000-5809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어령군
- 대지 220평, 전 160평
- 법당 15평, 요사채 23평, 용왕당
- 가액: 7천 5백만원 산세수려 청정수월도량 인연있는분 연락바랍니다

011-837-4010
055) 574-4011

포교원(급)안내

- 위치: 부산해운대구 재송동 최고 요지
- 약 50평, 사무실, 법당, 공양간, 주지실
- 전세 3000만원 월 20만원
- 집기 비품 3500만원 몸만 오시면 됨

019-293-9369

포교당안내

- 위치: 마산시 산호시장앞
- 건물: 평수 30평
- 가액: 전세1천만원/월45만원 시설비 1000만원 (절충가능). 시설완비

※ 몸만오시면 즉시법회가능

055)243-3758
055)232-7151
011-599-8476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사하구 당리동 혜원사
- 평수 : 2층, 전체 170.80평방미터
- 방 4개, 공양실, 법당, 베란다 공간 넓음
- 삼존불과 산신, 용왕, 칠성, 탱화 봉안 되어 있음
- 보증금 4천만원 월 100만원 시설비 절충가능

051)203-7896
010-7375-7896

포교당 안내

스님 건강이 좋지 않아서 포교원을 운영하실 원력있는 스님을 찾습니다

- 위치: 서울 신림동 2층건물 중 2층
- 석가모니 관음지장 삼존불과 후불 및 신중탱화 봉안, 지장보살 원불 297분
- 법당외 방 1, 주방 1, 화장실, 약 30평
- 가액: 보증금, 시설비 5천만원 / 월 50만원
- 12년 포교하였고, 신도가 3백가구 넘으며 꼭 맡아서 포교하실 스님만 연락주세요

010-2304-2221

좋은 因緣을 찾습니다

- 위치: 경남 고성 시내에서 10분거리 (녹차 100평 10년 수명) 백두대간 남해바다에 맞닿은 300만평 숲속
- 내용: 종교부지 300평 (법당 30, 요사채 30평 기타 건평 8년) 그 외 1,000여평, 봉황이 알을 품은 정남향 명당) (자연경관 흐름따라 황토, 태백산 적송으로 지음, 조경 잘됨) (산책로, 1급 지하 샘물, 산수, 병풍같은 뒷산과 앞산거리 4km
- 바램: 禪院 및 기도처, 수양 요양처로 최적 (고도 250m 뒷산 450m, 앞산 100~600m)
- 가액 : 5억 (상황 따라 절충 가능)

055)674-2202
010-2245-4862

사찰 안내

- 위치: 전남 광주 생활권
- 면적: 500평(무상임대)
- 건물 : 법당 1동 20평 등기, 소가형 한옥요사 방3개
- 특징 : 대중포교수단으로 역학응용하실 분 최적지
- 연혁: 약 80여년된 아담한 산속의 고찰 토굴 차 진입 가능
- 가액: 9천5백만원

011-288-6668
※장난전화하지 맙시다

사찰 안내

- 위치: 충북 괴산(증평)
- 법당 30평 요사 35평, 20평 가건물 15평,텃밭 300평 대지 약 400평
- 특징: 심야보일러, 지방문화제 천년석조 약사여래불 깔끔한 사찰
- 가액: 상담후 결정

043)836-9149

포교당 안내

- 위치:울산시 북구 정자동 정자항입구
- 건물 65평, 법당 30평, 산신 용왕당 각 5평, 공양실 15평 ,소불 200불, 산신인등 100불
- 방 3개 주지실 , 공양간 별도, 신도 600명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50만원
- 시설비: 3천 300만원
- 시설완비 몸만 오시면 됩니다.
- 정자항이 한눈에 보이고 경관이 좋음 꼭하실분연락바랍니다.

*스님은 미국으로 포교활동 관계로

052) 293-7328
011-556-5507

사찰 안내

- 위치: 경기도 이천시 서울 50분거리 시내에서 버스 15분 거리, 자가용 10분거리
- 대지 200평, 조립식 법당 25평, 기와 요사채38평,
- 산신각, 법당집기, 주방기구 일체 양도
- 마을끝자락에 떨어져 있고 뒤는 야산, 별장식 담장, 정원수 다수, 절마당 까지 주차 가능
- 가액 : 2억2천/ 전세는 4천만원 (기간5년)

031)632-2138
018-309-1760

토굴(급)안내

- 위치 : 충북 단양 접성
- 대지: 100평, 건평 : 20평
- 조립식주택, 건축2년. 주변 자연석 많음 작은창고1, 조경, 도로접, 전기수도, 수세식
- 토지 700평. 저렴하게 구입가능(관리지역)
- 해발약500m 금수산옆. 마항산 중턱, 앞이 확트임, 조용한 곳. 조용히 공부하실 분 최적합
- 가액 : 합 4,200만원

010-6460-1316

현재에 충실할때 '생사불이'

철학연구회 '생사에 대한 철학적 성찰' 학술대회

"무릇 죽음이란 형상은 없어지되 정신만은 없어지지 않는다."<불설보요경>

"죽음은 모든 수고로부터 인간을 자유롭게 하며 주님의 품에서 안식케 한다."<신약성서 계시록>


안옥선 교수


배철현 교수

안옥선 교수 죽음, 새로운 생으로 이어지는 통로

배철현 교수 지혜로운 삶 살기위한 방편적 관문

인간은 번뇌와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찾기 위해 종교를 만들어 내고 의지해 왔다. 부처님의 출가동기도 '생사(生死)'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고자 함이었다. '삶과 죽음'. 이 영원한 화두를 풀기위해 철학연구회(회장 황경식)는 6월 17일 '생사에 대한 철학적 성찰'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날 대회에서 불교와 기독교의 생사에 대한 공통된 입장은 '최선을 다하는 현재의 삶'을 통한 '생사불이(生死不二)'였다.

순천대 안옥선 교수는 '불교에서 보는 삶과 죽음:생사윤회를 벗어난 삶의 추구'란 논문을 통해 △오온 △12입처 △'무상-고-무아' △윤회와 열반 등의 초기불교 경전 내용을 중심으로 불교의 생사관에 대해 분석적 접근을 시도했다.

안 교수는 우선 '생과 삶'을 '태어남'과 '살아감'으로 분리해 태어남은 '감각기능(육입)을 갖춘 오온의 나타남'을 의미하고 살아감은 '오온에 집착하는 방식으로 감각기관이 활동하는 과정'이며 죽음은 '수명, 온기, 의식이 사라져 감각기능이 멈추고 오온이 흩어지는 것'이라고 생사에 대한 정의를 내렸다.

안 교수는 "죽음 또한 태어남과 살아감의 연장선에 있으며 이 셋은 모두 윤회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부 현상일 뿐이다"며 "죽음은 새로운 생으로 이어져 고통을 연장시키는 통로인 반면 마음과 의식의 개발(수행)로 열반에 들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특히 안 교수는 "불교에서 말하는 생사는 삶을 부정하면서도 긍정하고 죽음을 회피하면서도 활용하는 윤회와 열반으로 귀결지을 수 있으며 이는 곧 현재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고 죽음을 삶의 일부분으로 이해하려는 생사불이로 표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죽는 것도 이득이다:바울의 죽음관'이란 주제로 기독교의 생사관을 설명한 서울대 배철현 교수는 구약성서와 유대교적 부활신앙 그리고 그리스도교 선교의 맥인 플라톤의 영혼불멸설을 중심으로 논리를 펼쳤다.

이것은 곧 고통, 걱정, 근심, 공포 등의 현실적 삶의 무게와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을 접목시킨 삶과 죽음에 대한 기독교의 신학적 논리에 근거한다.

"죽음이 이득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성서-빌립보서>의 행간의 의미를 하나님이 정한 죽음을 형벌로 이해하는 것이 아닌 자연의 필연 또는 노동과 불행으로부터의 영원한 안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배 교수는 "메소포타미아와 구약성서로 대표되는 헤브라이즘 전통에서 죽음은 숙명이지만 이것은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며 이성적이고도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한 방편적 관문인 동시에 '선교의 최고 선'이다"고 설명했다.

노병철 기자 sasiman@buddhapia.com

'법화경 현대적 고찰' 주제

천태불교문화硏 학술대회

천태불교문화연구원(원장 이재창)은 '법화경의 현대적 고찰'이란 주제로 '2006 법화경 연구 특집 춘계학술대회'를 6월 17일 서울 관문사에서 개최했다.

'<법화경>의 범어필사본과 현대 학계에서의 연구 동향'이란 주제로 논문을 발표한 우제선 교수는 '법화경 사본 연구의 필요성과 해외 불교학자들의 법화경 연구 현황'을 중심으로 논제를 이끌어 나갔다.

우 교수는 논문을 통해 "<법화경>사본들을 연구해 정확한 정판본을 만들고 이에 바탕을 둔 번역과 해석이 선행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발표한 동국대 지창규 교수는 '법화현의의 오중현의 연구'란 논문을 통해 "<법화경>의 바른 이해는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다는 것이며 이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마음의 관심수행을 이끌어 내기 위한 방편이다"고 설명했다.

지 교수는 또 "<법화경>의 근본사상은 제법실상"이라며 "이는 주체와 객체, 자신과 타인, 마음과 신체, 마음과 물질 등 일체의 차이와 차별을 초월한 영원한 생명의 세계를 말함이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중국 항주박물관 빠오쯔청 연구원의 '고려와 대각국사 의천' 동국대 오지연 강사의 '법화문구의 사종석고찰' 등의 논문도 눈길을 끌었다.

노병철 기자

불교학회 7월 14 · 15일 워크숍

한국불교학회(회장 이평래)는 7월 14~15일 하동 쌍계사에서 '2006 하계 워크숍'을 실시한다.

'불교와 대중문화'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워크숍에서는 운문사승가대학 명법스님의 '중국산수화에 끼친 선종의 영향' 원광대 윤양호 교수의 '불교와 미술' 한성대 이기향 교수의 '불교와 패션' 소설가 남지심씨의 '불교와 문학' 등 9편의 논문이 발표된다.

한국선학회, 선수련회

한국선학회(회장 현각)는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2006 하계 선수련회'를 백담사 만해마을에서 개최했다.

3일 간의 일정으로 열린 이번 선수련회는 학술발표회 및 좌선수련, 산행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수련회 둘째 날 열린 학술발표회에서는 동국대 선학과 강사 대원 스님의 '화엄경에 나타난 해인삼매 연구' 동국대 선학과 박사과정 세운 스님의 '상월조사의 생애에 관한 연구' 등의 논문이 발표됐다.

이날 학술발표회에서 대원 스님은 "<화엄경>에서 말하는 연화장의 세계는 중생의 아상과 분별심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아상을 뛰어넘은 세계' 즉 아상도 분별심도 없음을 깨닫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준 교수의 과학 기술과 불교 <54>

2020년

'2020 프로젝트'에 세계가 들떠 있다. '2020년'이라는 숫자가 주는 매력과 21세기를 맞은 후, 20년이 지나는 시점이여서 의미를 붙이는 모양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20년 또는 30년이 주는 의미는 크다. 우리나라의 산업화 과정만 살펴봐도 그렇다. 20년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눈부신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할 수 있었다.

때문에 다가올 2020년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낼 수도 있는 것이다.

이는 비단 국가적 차원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회사나 개인도 각자 나름대로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과학문명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급속 발전
공사상 바탕 인류 아름다운 진보 계속돼야

특히 지난 20년과는 다르게, 앞으로의 20년은 더욱 빠른 속도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과학 기술 분야의 새로운 발명이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데 걸리는 시간도 단축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인쇄술의 경우는 500년이 걸렸고 자동차의 경우 100년이, 라디오는 40년이 걸린데 비해 최근 발명된 무선 전화기와 인터넷은 겨우 6년 안팎에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매김했다. 미래 학자조차도 이러한 속도에 놀라고 있다. 컴퓨터가 발명되고 난 후, 컴퓨터 전문가는 당시 컴퓨터가 세계에 몇 개만 있으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이러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50년이 지난 현재 우리는 당시의 컴퓨터보다 수 만 배 우수한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미래에 대한 예측이 불투명할 정도로 과학문명은 빠르게 변화 · 발전하고 있다.

또한 인류는 진보된 과학기술로 자연이 수 억년 동안 만들어낸 '생명과 진화'의 영역에 도전하고 있다. 더 이상 자연이 만들어낸 진화의 속도에 만족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일련의 행위는 유전공학분야에서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토마토의 유전인자에 바이러스 유전자를 끼워 넣음으로써, 특정 병에 강한 품종을 만들기도 하고, 인간의 유전자 중 늙는데 기여하는 분자를 찾아내 젊은 세포를 만들어 내는 것 등이 그것.

이렇듯 '혼돈의 과학기술'은 인류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행복의 원리를 가르쳐 주고 떠난 부처님은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은 남겼는가.

혹자는 이야기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시대에 따라서 변화하지 않는 궁극의 원리라고.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말하는 것' 자체가 중생의 거짓 생각이라고.

신라의 고승 의상대사는 '이사명연무분별'이라고 말했다. '원리와 현상은 개별적 존재가 아니라 두 개 모두 진리의 모습'이라는 뜻이다. 이는 '공사상'이 우리의 일상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일깨워 준 위대한 실증적 가르침이라 생각한다.

얼마 남지 않은 2020년. 재가 불자뿐만 아니라 스님들도 과학기술의 변화를 이해하고 '공사상'을 바탕으로 한 인류의 '아름다운 진보'는 계속돼야 할 것이다. ■서울대 전기공학부



그림 : 문병성

'여말선초 불교사상 동향'

보조사상硏 학술대회

"만약 여말선초 시기에 불교계가 새로운 불교 사상과 지도 이념을 구축했다면 조선은 '억불숭유'정책이 아닌 불교 사상을 정치이념에 반영했을 것이다."

창원대 이덕진 교수는 동국대 다향관에서 6월 17일 열린 보조사상연구원 학술대회에서 고려 말 불교계의 사상적 동향과 폐단에 대해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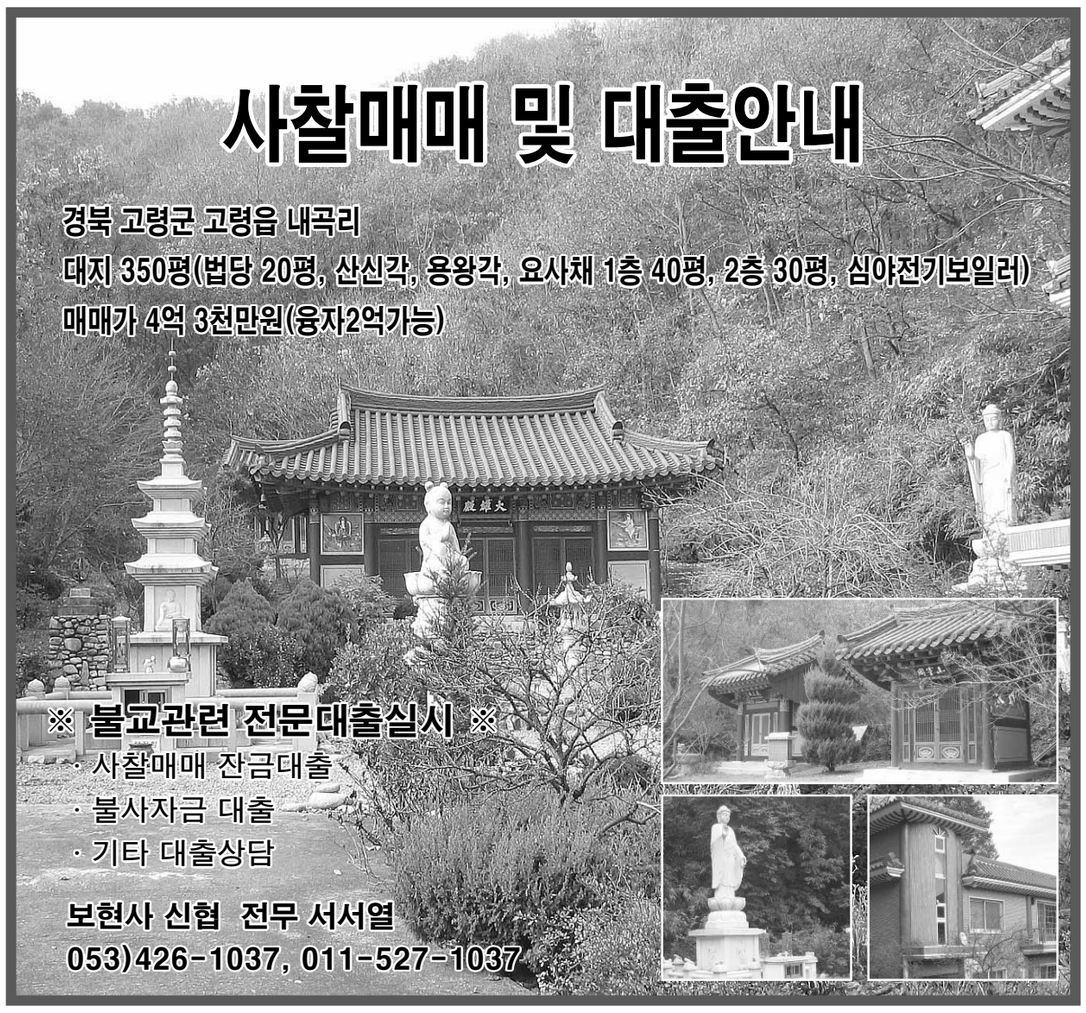
이 교수는 자신의 논문 '13~14세기 고려 불승들의 유교관에 대한 일고찰'에서 △고려 후기 대표 고승들의 유교관 △혜심의 간화선 부흥운동 △14세기 주자학의 수용 등 고려시대 유 · 불사상의 흐름을 구체적 예시와 설명을 통해 풀어나갔다.



이 교수는 또 "14세기 후반에 이르러 성리학은 불교의 사상적 측면은 물론 불교의 종교성과 정체성 마저 부인하기에 이른다"며 "이러한 결과는 새로운 불교 사상의 발전과 지도이념의 부재 그리고 불교 내부의 폐단에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목포대 최연식 교수는 "당시 고려의 불교계가 불교가 지켜야 할 '종교적 영역'을 방기하고 정치적 논리에 대해 '정신적 원리'로 대응한 것에 대한 해석적 비판은 타당하지만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스님들의 사상적 차이를 13세기와 14세기로 명확히 구분 지을 만한 논리적 논거가 약하다"고 지적했다.

노병철 기자





일주문



지관 스님 초청 특강
불교서울전문강당 운영위원장 청화 스님은 7월 7일 오후 4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초청 특강을 연다. (02)2011-1810



청소년 인권 캠프
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 진관 스님은 7월 29~31일 백담사 만해마을에서 중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인권 캠프를 마련한다. (02)734-6401



홍련암 복원불사 2차 천일기도
양양 낙산사 주지 정념 스님은 7월 7일 오전 10시 낙산사에서 '홍련암 복원불사 2차 천일기도 입재식'을 봉행한다. (033)672-2447~8



'천년의 만남' 템플스테이
고양 흥국사 주지 대오 스님은 7월 1~2일 경내에서 미혼 남녀들을 대상으로 '천년의 만남' 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02)381-7970



제12차 역사기행 떠나
좋은벗들 지도법사 법륜 스님은 8월 5~13일 고구려 유적지를 찾아 前 연변대 방학봉 교수와 제12차 역사기행을 떠난다. (02)587-8996



제6회 명사초청법회
광주 덕림사 주지 무이 스님은 7월 2일 덕림사 대웅전에서 '우리 몸을 살리는 건강한 먹을거리'를 주제로 제6회 명사초청법회를 연다. (062)362-2091



제5회 동식물 영혼천도재
강릉 현덕사 주지 현종 스님은 7월 8일 오전 10시 경내에서 前 조계종 교육원장 암도 스님을 초청해 제5회 동식물 영혼천도재를 봉행한다. (033)661-5878



참선명상 수련대회
김포 동산사 주지 법전 스님은 7월 27~31일 강릉 등명해수욕장 수련원에서 '어린이·청소년 참선명상 수련대회'를 개최한다. (031)998-8700



정각회 정기총회 및 조찬법회
국회 정각회 이용희 회장은 6월 30일 오전 7시 30분 조계사 대웅전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등을 초청해 정기총회 및 조찬법회를 봉행한다.



지방선거 당선자 초청 리셉션
부산불교신도회 공병수 회장은 6월 28일 오후 5시 부산 롯데호텔 3층 크리스탈볼룸에서 5·31 지방선거 당선자 초청 리셉션을 개최한다. (051)853-2021

동화사 제25대 주지 허운 스님 진산식 성료



대구 동화사 제25대 주지 허운 스님 진산식이 6월 17일 동화사 통일대불 앞에서 봉행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동화사 조실 진제 등 25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진산식에서 모아진 보시금과 공양미는 경주 동국대병원과 동화사 복지시설인 무료급식소 자비의 집에 전달됐다. 사진은 허운 스님(왼쪽)이 前 주지 지성 스님과 악수하고 있는 모습.

"조직 재정비로 '이름값' 할 터"

청와대불자회 새회장 서주석 통일외교안보수석



"30여 회원에 불과한 청와대불자회 조직을 재정비해 신행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단체로 만들겠습니다."

7월부터 청와대불자회의 새 선장으로 나서는 서주석 회장(49·대통령 통일외교안보정책수석비서관·사진)은 청와대불자회의 혁신을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름값'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전임 김병준 회장이 일을 매우 잘해 줘 부담스럽다"는 서 회장은 "정기법회나 성지순례 등의 기본 프로그램을 다시 가동하는 등 신행복원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서 회장은 "어머니와 장모님, 아내가 청와대불자회장 취임을 반겼다"며 "가족들의 든든한 후원을 바탕으로 회원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신행활동을 펼치고 싶다"고 작은 소망을 전했다.

"시간이 나는대로 서울 도선사와 흥국사, 포천 금강사 등 사찰순례를 하겠다"고 전한 서 회장은 "앞으로 큰스님들께 법명도 받고 싶다"고 말했다.

북한전문가인 서 회장은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현안연구팀장을 거쳐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기획실장(2003~2006년 2월)으로 재직하다 올 2월부터 통일외교안보수석을 맡고 있다.

유철주 기자 ycj@buddhapia.com

민추본 신임 본부장에 명진 스님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이하 민추본) 본부장에 명진 스님(사진)이 임명됐다.

신임본부장 명진 스님은 6월 27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신계사 복원을 원만히 마무리하는 한편, 종단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내고 민족공동체추진본부의 위상을 재정립하는데 진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조계종 내에서 북한통으로 통하는 명진 스님은 2000년 6월 민추본 창립 당시부터 요직을 맡으며 조계종의 대북교류에 힘을 실었다.

박봉영 기자

부처님 일에 한평생… "정년퇴임이 영광"

35년 조계종 종무원 생활 마감하는 방광일씨



"부처님 가피 덕분에 잘 있다가 잘 떠나는 것 같습니다."

6월 26일자로 35년간의 조계종 종무원 생활을 마감한 방광일 종무관(63·법명 보수·사진). 방 종무관은 정년퇴임했던 종무원이 별로 없었던 전례를 거론하며 "정년퇴임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영광"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고마워했다.

방 종무관은 1970년부터 종무원 생활을 시작했다. 당시 종무원이라고 해봤자 총 6~7명 정도. 열악한 조건에서도 종무행정 체계화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종단 사태 과정에서 회의한 적도 많았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방 종무관의 기억 속에 가장 강하게 남아있는 스님은 청담 스님과 월산 스님. 특히 청담 스님으로부터는 "출가하라"는 권유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방 종무관은 "장가는 가야겠다"며 당시 총무원장인 청담 스님의 권유를 뿌리쳤다. 그러나 "청담 스님의 권유가 여전히 가슴에 남아있다"며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방 종무관은 후배 종무원들에게 "정년퇴임하는 종무원이 많이 나왔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짤막한 인터뷰를 마친 방 종무관은 장갑을 끼고 근무처인 한국불교전통문화센터 주위의 풀을 뽑으러 총총걸음을 했다.

방 종무관의 퇴임식은 6월 30일 오전 9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린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조계종 호법부장 도진 스님 등 전방 위문



조계종은 국방부와 육군본부 초청으로 6월 21~22일 경기도 양주 모 부대에서 장병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번 행사에는 호법부장 도진 스님을 비롯 30여 조계종 교역직 스님들이 함께 했다. 도진 스님(사진 오른쪽)이 부대장에게 위로금을 전달하고 있다.

불교상담원 불교상담기법 수련회



불교상담원(원장 이원주)은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경기도 광주 관음사에서 불교상담기법 수련회를 개최했다. 수련회에서는 불성 개발 프로그램과 감수성 개발 프로그램 등이 진행됐다. 이원주 원장은 "참가자들의 관습적인 행동과 아상과 집착 등을 무너뜨리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삼전종합복지관 개관 15주년 기념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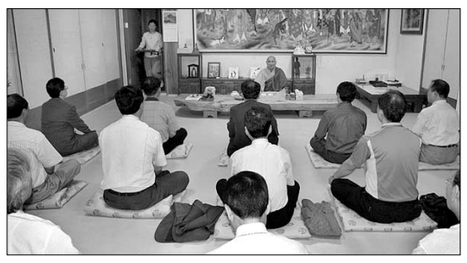
삼전종합사회복지관(관장 선재)은 6월 21일 15주년 기념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이사장 종범, 삼전종합사회복지관장 선재 스님 등과 송파구 지역주민 500여명이 참석했다. 삼전복지관은 1991년부터 승가원이 송파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해 왔다.

창작21작가회 나눔의집서 시낭송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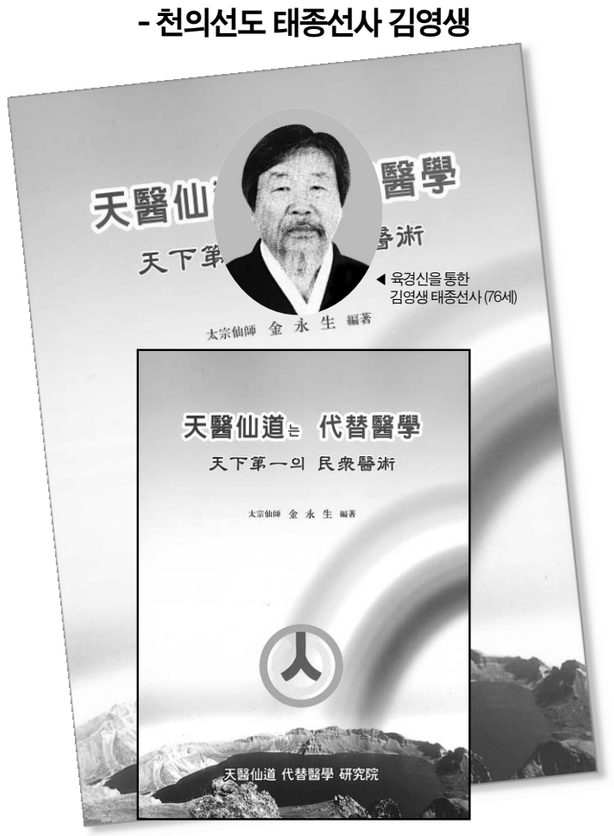
창작21작가회(대표 문창길)가 주최한 '나눔의 집 시낭송회'가 6월 17일 오후 3시부터 나눔의 집 야외광장에서 열렸다. 행사는 나눔의 집 김군자 할머니의 증언과 역사관 견학에 이어 민영 정대구 이승하 시인 등 20여 시인의 시 낭송으로 진행됐다. 가수 진우·진아씨의 음성공양도 곁들여졌다.

부산 울산 경남 불교언론인 한자리에



부산 울산 경남 불교언론인들의 모임인 부울경불교언론인협의회(회장 강호일)는 6월 16일 부산 범어사 주지실에서 모임을 열었다. 언론인협의회는 모임을 계기로 인터넷 카페(http://cafe.daum.net/bukbuddha)를 개설했다. 이날 부산불교방송, 현대불교 등 회원 30여 명이 참석했다.

〈화제의 신간 발간〉
- 천의선도 태종선사 김영생



천의선도는 대체의학 천하제일의 민중의술 출간

- 책값 50만원 / 157페이지 삽입

건강을 원하든지 행복을 원하거든 천문을 열어라!!
몸이 아파 몸부림 치는 분, 몸을 편히 해주고 마음이 아파 몸부림 치는 분 마음을 편히 해주는 천하제일의 민중 의술. 기적의 천의선도를 전수시켜 드립니다.

몸 디스크, 허리디스크, 위하수, 갑상선, 생리통, 요실금, 전립선 이상자 등 통증부위에 생명의 에너지를 주입시켜주면 즉석에서 시원해지며 전립선이 좋아진 분은 정력은 물론 조루증까지 없어지며 요실금이 좋아진 여자는 천하제일의 몸으로 변신되니 남편 바람날 염려가 없는 신화 같은 기적의 치료법을 공개했다. 맥박 경락의 이름도 모르는 사람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천의선도를 전수받고 몇 시간 실습 강의만 듣고 나면 천하제일의 명의가 될 수 있다. 정신분열증, 전간(간질병)도 정상으로 회복된다.

전 세계 의료인에게 이 책을 권유한다
이 책은 영문판, 일어판, 한문판으로 출간해서 전 인류 건강을 위하여 천하제일의 민중의술을 전수시키려 한다.
현대 의학계에서 포기한 암환자, 재생불능성 빈혈환자를 정상으로 회복시킨 체험 사례와 약 제조법을 공개했다.

※ 전 가족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선단제조법과 은 용해법을 공개했다.
※ 선단은 상기되는 열을 하단전에 모아주고 막힌 곳은 뚫어주고 몸속의 독성을 중화시켜 체외로 배출시켜주며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니 여자가 복용하면 순환제요, 남자가 복용하면 팔십 노인도 이십대로 회춘된다.
※ 은 용해수는 몸속의 세균 바이러스를 질식시켜주며 축농증, 알레르기 비염이 1개월 안에 정상으로 회복되고 아토피성 소양증, 무릎 관절염, 손마디 관절염이 3,4개월 내에 정상으로 회복된다.
※ 사상의학의 팔상 분류법과 체질에 이로운 식품, 해로운 식품, 성격, 적성, 체질따라 보사법을 수록해 놓았다.

이만하면 천하제일의 민중의술이라 하지 않겠는가?
※ 천하제일의 명의가 되는 과정
① 천문을 열고 하늘의 서기(생명의 에너지)가 당신 몸에 충만할 때 자연의 신비에 감탄하는 순간 빙의된 조상신이 떠나게 되니 몸이 거뜬해지고 집안이 편안해지며 하는 일이 서서히 잘풀린다.
② 환신을 받아 인당이 열려야 당신의 마음따라 생명의 에너지가 목적지에 발산한다.
③ 실습강의 1시간 듣고 나면 당신손으로 디스크 환자를 즉석에서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명의가 된다.

나는 정부당국에 묻고 싶다
현대의학계에서 포기한 환자를 민중의술인이 회복시켰다면 상을 줄 것인가? 벌을 줄것인가? 의료법은 국민건강을 위한 법인가? 의료인을 위한 법인가? 국민건강을 위한 법이라면 민중의술인에게 상은 주지 않더라도 활동 규제를 풀어 줄 수 있는 법적 대안을 마련해 주시라는 호소를 합니다. 이 호소를 묵과한다면 분명 국민을 위한 정부는 아닙니다. 나는 첨단과학의 의술앞에 공개 검증받고 싶습니다.

천의선도 대체의학 연구원 원장 **김영생**

■ 본원
● 주소 : 충남 논산시 연무읍 소룡리 489-1
● 전화 : 041)741-4600 / 011-9803-4600
■ 서울 수련원
●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 5동 483-39 삼용빌딩 403호
● 전화 : 02)2216-6278 / 011-9803-4600 / 010-3129-6278
■ 부산 수련원
● 주소 :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베르빌오피스텔 1821호
● 전화 : 051)803-5953 / 011-9803-4600

※ 계좌번호 : 하나은행 382-810082-33207 김영생



불자 세상보기

김 용 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北 미사일 '도발' 혹은 '카드'

먹구름이 한반도의 하늘을 배회하고 있다.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를 둘러싼 북미간 갈등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미사일 발사가 당분간 유예되거나 폐기될 것으로 보여 당장은 한 숨 돌리게 됐지만 후폭풍이 만만찮아 보인다. 이 시점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의 사태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도발'과 미국의 '압박'이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반복되면서 한반도의 불안정성이 언제까지 지속되어야 하는가이다.

우선 이번 미사일 사태를 개괄해 보자. 5월 초 일본 언론을 통해 미사일 시험 발사 움직임이 최초로 제기되고 미국 언론이 주요 기사로 다루면서 사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이어 미 · 일 정부가 사실 확인에 나서면서 미사일 발사는 기정사실화되었다. 동시에 시험 발사시 미국이 취할 모든 압박수단은 예고되었다.

발사를 막으려는 한 · 미 · 중 · 일의 공식, 비공식 압박과 설득도 급박하게 이뤄졌다. 이후 침묵을 지키던 북한이 지난 20일 한성렬 유엔주재 차석대사의 발언과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 보도를 통해 대화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최악의 상황은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사태를 반추해 볼 때 처음부터 북한이 장거리미사일 시험 발사를 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발사 의지를 내보이면서 외부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최종 단계에서는 대미협상에 나서겠다는 것이었다. 미국과의 정치적 거래를 염두에 둔 전형적인 '벼랑 끝의 협상' 전술이었다. 6자회담의 실종과 위폐문제, 인권문제 등 미국의 '외곽 때리기'에 대한 강력한 반발이자 양자 대화를 통해 이를 해소시키려는 의도였다.

애초부터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시험 발사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북한의 미사일게임에 가장 애달아하는 국가는 역설적이게도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다. 장거리미사일 발사는 궁극적으로 중국을 겨냥하는 미국의 미사일방어망(MD) 구축에 확실한 명분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시 미국이 설치한 덫에 꼼짝없이 갇히는 꼴이 될 사태 전개에 식은땀을 흘렸을 것이다. 북중관계에 심각한 균열을 가져올 수 있는 '도발'을 북한이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어렵다고 봐야 할 것이다.

발사 의도도 없었거니와 실제 가능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북한이 벌인 이번 미사일게임은 외부세계의 대북 불신을 가중시켰다는 점에서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당장 미국이 양자간 대화에 나서거나 대북관계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도 거의 없다. 물론 북핵문제가 지지부진한 속에서 미국의 대북 압박에 확실한 반격 카드가 있다는 점을 내외에 환기시켰다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시간과 국제여론이 북한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제 미국도 대북 압박정책을 수정해야 할 시점에 다다랐다. 퇴로를 봉쇄한 채 북한을 몰아붙이고 있다는 흔적이 여러 군데서 포착된다. 경위야 어쨌든 9 · 19공동성명 이후 6자회담의 실종, 경수로 발전소 건설의 종결, 위폐문제 제기를 통한 경제 제재, 북한인권법 발효 등 북한이 받아들이는 절망감을 상상하기는 어렵지 않다. 북한이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의사를 밝힌 만큼 대화를 통한 해법의 길을 열어야 할 것이다.

근본적으로 북핵문제 해결 방식에 대한 북미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거나 상호 불신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사태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여전히 6자회담 틀은 유의미하다. 6자회담이 미사일 발사와 대북제재라는 정면대결을 피하기 위한 명분과 장소로 활용될 여지는 여전히 있다. 9 · 19공동성명을 되살리고 6자회담을 통해 문제를 푸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저출산, 가족 지키기부터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1.08명)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깊다. 이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분석도 다양하다. 거의 난무(亂舞) 수준이다. 한국 사회의 모든 문제를 포괄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간단히 그 목록을 살펴보자.

양육 부담, 남녀 불평등, 만혼과 독신 증가, 높은 이혼율, 천문학적 과외비 지출, 부부 중심의 가족 문화 확산, 일자리 부족, 맞벌이,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 등 두서없이 늘어놔도 지면이 모자랄 정도다. 그런데 이들 대부분 원인들이 또한 결과다. 원인과 결과가 뫼비우스의 띠 같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박수를 쳐야 할 일이지 우려해야 할 현상은 아니다. 그러나 저출산의 한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도 부인하기 어렵다.

삼성경제연구소는 6월 14일 '저출산 대책, 무엇이 핵심인가'라는 보고서에서, 육아비용 경감, 보육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는 '새로마지 플랜 2010'을 비판하면서 '양성평등 환경 조성'을 대책으로 내 놓았다. 육아비를 지원하면 '애를 많이 낳을 것'이라는 정부의 목가적(?)인 대책보다는 진일보했지만, 그것으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6월 20일 종교계 · 노동계 · 시민단체들의 '저출산 ·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협약체결식' 결과는 선언적 수준 이상으로 보이지 않는다. "생명 존중, 공동체 운동 전개와 아울러 결혼 · 중신 · 국내입양 장려 및 행복한 가정 만들기 캠페인"을 벌인다고 한다. 구체적인 대안이 보이지 않아 아쉽다.

솔직해지자. 문제는 '돈'이다. 정부 대책은 '국가경쟁력' 약화와 노령사회에 따른 '세금부담'이 걱정이 우선이고, 기업대책은 '시장 축소'와 '인력 확보'에 대한 걱정이 우선이다. 모두들 자신의 이익에 기초한 분석과 전망이라는 얘기다.

우리 사회는 극단적인 이기심으로 치닫고 있으면서도 사회보장은 제로(0) 수준이다. 미래에 대한 최소한의 울타리도 없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무책임'이 저출산의 근본 원인이다. 이런 상황에서 불교계의 할 일은 '가족'의 가치를 일깨우는 것이다. 가정이야말로 한국의 유일한 '사회안전망'이다. 이를 위해서 '가족 법회'의 활성화는 물론, 보육시설 운영 등 종단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기대한다. ■윤제학(아동문학가)

이렇게 들었다 월드컵의 뒷면

"평화로울 때 위급할 때를 생각해 사람들이 함께 일을 도모한다면 그 나라는 반드시 흥하리라." 〈중아함 우바새경〉

60억 지구촌 축제 '월드컵'이 시작됐다. 인종과 이념 그리고 분쟁의 장벽을 뛰어넘은 월드컵은 이제 단순한 국제 축구대회가 아닌 인류의 거대한 '스포츠 이벤트'가 됐다. 4년 전 대한민국대표팀이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룩했을 때 온 국민이 '붉은 악마'가 되어 "대~한민국"을 외쳤던 감동과 희망의 전율은 아직도 생생하다.

하지만 매스미디어가 월드컵 열풍을 지나치게 호도하고 이와 맞물린 상업주의는 자칫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어선 안 된다.

지금 우리 앞에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정치 · 경제 · 군사 · 외교적 과제들이 산재해 있다. 스포츠로 하나 되는 전 국민의 축제에 찬물을 끼얹자는 얘기가 아니다. 다만 월드컵보다 더 중요한 정치적 이성을 냉정히 되찾아야 한다는 말이다.

언론의 무분별한 월드컵 방송으로 △평택 대추리 미군기지 이전문제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집단해고 등 국가적 안보와 중차대한 경제 사안들이 뉴스의 후순위로 밀려나거나 여론의 관심 밖으로 사라지고 있다.

'휴가증후군'이 있듯 월드컵이 막을 내리고 국민들이 '월드컵증후군'에 빠질 즈음 그동안 뒷전이었던 중차대한 사회 전반의 문제와 그 충격파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월드컵은 분명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심어줌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그것이 국가안보와 경제를 책임질 수는 없는 일이다. '월드컵 광풍'에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을 경계할 때다. ■노병철(취재부 기자)

독자의 소리-이렇게 생각한다

●독자여러분의 의견을 e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2)2004-8243
(담당: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조선왕조실록 원래 자리로

지난 583호 현대불교신문에 실렸던 '해외유출문화재 환수 대책 없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읽고 해외유출문화재와 관련된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었다. 기사에 따르면 현재까지 파악된 해외 유출 문화재는 약 7만 5천여 점이고, 이 중 불교 관련 문화재가 40%를 차지한다. 그러나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 환수건을 계기로 설립된 조선왕조실록환수위원회 외엔 아직까지 이렇다 할 해외 유출 문화재 환수 단체는 전무한 상태다.

따라서 해외 유출 문화재 환수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 및 방안은 정부가 앞장서서 마련하고, 반환 회수 운동은 정부와 민간이 다양하게 접근하는 방식이 마련돼야 한다. 또 반환 회수 운동은 민간이 전면에서 나서고 정부는 각종 제도를 통해 다각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이번 일을 계기로 서울대 규장각 '기증'된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을 원래 자리인 오대산 월정사로 '반환'하는 방안에 대해 불교계의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월정사는 오대산 사고의 수호를 책임지는 '수호총섭' 사찰로서 조선후기 300년 동안 오대산 사고를 지켜 왔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올해는 오대산 사고가 설치된 1606년으로부터 400주년이 되는 해로서 환수된 실록을 원상복귀 하는데 의의가 큰 시점이다.

김달재(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불교자원봉사 시스템 마련해야

지난주 현대불교신문을 통해 불자들 봉사활동이 타 종교에 비해 저조하다는 기사를 보면서 먼저 든 생각은 이제 불교계도 언제라도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한해동안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 봉사자 총 34만 5604명 가운데 개신교 신자가 2만 7650명, 가톨릭 신자가 1만 5775명 인데 반해 불자는 1만5528명으로 가장 낮게 조사됐다고 한다.

이는 타종교에 비해 불교복지시설이 지역사찰과 신도간의 연계된 지원체제가 합리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정말 그렇다. 나도 매일 주말이면 내가 다니는 사찰에서 군포교를 위해 장병불자들에게 수지침 봉사를 간다. 다행히 우리 사찰에서는 정기적으로 군부대와 자매결연 하여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내가 아는 한 불자는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도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는 지 잘 몰라 마음만 먹은 것으로 그치는 것을 종종 본다.

부처님께서는 이웃에 대한 보살행을 강조하셨다. 그러므로 우리 불자들은 항상 남을 비해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살아야 불제자로서 도리를 다하는 것이다. 이런점에서 불교계도 불자들이 언제라도 봉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불자들도 이번 조사 결과를 깊이 반성하고 타종교인들에 결코 뒤지지 않는 봉사정신으로 각종 복지시설이나 사찰에서 봉사하는일에 발벗고 나서야 할 것이다.

김문하(서울 종로구 낙원동)

조계종 가사불사 유감

조계종의 가사불사는 오해 없이 진행해야한다.

가사를 길거리에서 치수에 맞게 맞추어 입는 의복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가사는 분명 법의이다. 가사불사는 독점이라는 상업적 잣대로 규정해서는 안된다. 종단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가사라면 진작부터 시중에 유통되지 말아야했다.

그러나 이왕에 하는 불사라면 조계종 승적과 법계에 맞게 배포하면 그만이다. 그러나 현실은 비용을 받고 배포하기 위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분명 가사를 통일하고 체계를 확립하는 것에는 좋은 일이다. 더구나 종단의 주장처럼 승적관리나 법계관리를 위해서라면 오해의 소지를 없앨 수 있게 시일이 걸리고 비용이 들더라도 종단예산으로 배포해야 했다.

객관(붓다뉴스)

'현대' 만평 심 민 섭



예·효 실천을 위한 현대불교 윤년 특별 기획

장락수(長樂壽)는 장수(長壽)의 기원과 정성을 담은 불자수의입니다. 불자님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현대불교신문에서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는 소중한 효심을 담아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여 불자수의 '장락수(長樂壽)'를 지었습니다. 예로부터 윤년에 지은 '윤년수의'는 탈이 없고, 손이 없어 부모님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최상의 효행 선물이었습니다. 불자님들이 윤년윤달에 준비한 장락(長樂)과 장수(長壽)의 기쁨을 드릴 불자수의 장락수(長樂壽)는 부모님께 깊은 만족과 감동을 드릴 것입니다.

불자수의 長樂壽 장락수



장락수의 특징
- 원사직물시험연구원의 원사심사와 품질보증 Q마크를 획득한 믿을 수 있는 제품
- 30년 경력의 전문가가 면사실로 직접 제작
- 옷함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는 특별 주문 · 제작한 수의함

품명	재질	특징	판매가
珍品	대마 100%	최고급 원단 안동포로 제작한 한정된 물량의 최고급 불자수의	4,500,000
名品	대마 100%	최상의 중국산 흑대마, 안동포 전통가공법으로 제작 품격 유지	1,800,000
特品	대마 100%	중국산 사천대마, 남해포 전통가공법으로 제작 실용적 가격	1,450,000
上品	저마 100%	중국 현지에서 엄선된 고급 수직저마를 원단으로 제작한 수의	600,000

※ 멧베 추가 주문시 판매가의 10%가 추가됩니다.

제품구성
- 남성용(18종) : 도포 도포끈 두루마기 저고리 속저고리 겉바지 속바지 천금 지금 베개 면모 버선 오낭 허리띠 대님 장매 악수 고깔
- 여성용(17종) : 원삼 원삼끈 두루마기 저고리 속저고리 겉치마 겉바지 속바지 천금 지금 베개 면모 버선 오낭 장매 악수 고깔

현대불교신문사 기획사업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전화 02)737-0695(직), 2004-8219 / 팩스 02)737-0696
홈페이지 http://biz.buddhapia.com e-mail : onlymaum@buddhapia.com

혜자 스님, 캄보디아 정부 훈장 수훈

2003년부터 양국 불교교류 활성화에 노력 인정
국가공식 의전행사 마련 … 외국인스님으론 처음

도선사 주지 혜자 스님이 6월 20일 캄보디아 소칸 부총리로부터 외국인에게 주는 최고영예인 금장공로훈장을 수훈했다. 이는 2003년부터 한-캄 양국의 불교교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온 혜자 스님의 공로를 캄보디아 정부가 인정한 것이다.

푸놈펜의 캄보디아 정부청사 1층에서 열린 훈장 수여식에는 캄보디아 국무위원 등 50여명이 자리를 같이했으며, 정동수 도선사 총무국장, 장연수 총무원 문화사업단 팀장도 함께 은장공로훈장을 수훈했다. 캄보디아 정부가 외국인 스님인 혜자 스님에게 국가공식 의전행사를 통해 훈장을 전달한 것은 처음 있는 이례적인 일로 10여 곳의 현지 방송과 언론이 취재경쟁을 벌였다.

혜자 스님은 청사 2층 국무회의실에서 이어진 소칸 부총리와의 환담에서 "불교의 세계화를 주창했던 은사 청담 스님이 1961년 캄보디아에서 열린 제6회 세계불교지도자 대회에 참석한 사진 덕분에 부처님의 나라인 캄보디아와 본격적인 교류에 나서게 됐다"며 캄보디아와의 인연을 강조하고, "기쁨보다는 어떻게 양국의 불교문화 교류 활성화를 이룰지 큰 부담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지만,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도선사 주지 혜자스님은 6월 20일 캄보디아 소칸 부총회로부터 훈장을 수훈했다.


혜자 스님이 지원해 만들어진 왓라지보 사원의 '선묵컴퓨터랩' 에서 실습중인 스님들의 모습.

소칸 부총리는 "주한 캄보디아 대사를 통해 그동안 혜자 스님이 캄보디아 불교계를 위해 노력한 사실을 보고받아 잘 알고 있다"며 "도선사에서 공부하고 있는 4명의 유학승에 기대가 크다" 밝혔다. 특히 이번 행사를 위해 한국에서부터 동행한 림삼콜 주한대사에게 "대사가 한-캄의 문화교류를 확대하기위한 프로그램을 책임지고 처리하라"고 즉석에서 지시했다.

림삼콜 주한대사도 "올해는 한-캄 수교 10주년을 맞는 해"라며 "지금까지는 정치 경제적 교류에 집중해왔지만, 앞으로 10년은 양국이 가진 우수한 불교문화를 자산으로 사회문화적 교류 활성화 방안을 적극 찾아 나서겠다"고 밝혔다.

혜자 스님은 2003년 앙코르 와트 유적지 복원에 동참한 것이 KBS방송을 통해 소개된 것을 시작으로, 스님이 직접 체험한 캄보디아의 문화와 유적을 소개한 <캄보디아(정문사 刊)>를 출간 했다. 앙코르 와트가 있는 시엠 립 최대 사원인 '왓 라지보' 사원에는 최신 기종의 컴퓨터 25대를 기증, '선묵컴퓨터랩'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또 도선사 차원에서도 인근 지뢰마을 빈민들을 위한 구호사업을 펼치는 한편, 지난해부터는 연등축제 기간동안 주한 캄보디아 대사관과 함께 캄보디아 불교체험관 등을 운영 했다.

글 · 사진/프놈펜=조용수 기자

캄보디아 불교의 오늘

앙코르와트로 유명한 캄보디아는 국민의 95%가 불교를 믿는 부처님의 나라다.

캄보디아의 불교는 국민과 국가의 정체성을 대변한다. 캄보디아인들은 태어나면 제일 먼저 절에서 스님의 축복을 받는 것으로 인생을 시작한다. 대부분 사원은 종교시설이면서 교육시설을 겸하고 있어 유아기를 지나면 사찰 내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공부한다.

특히 남자들은 남방불교국가들이 대부분 그렇듯 일정기간동안 출가수행을 거친다. 결혼식에도 스님들을 초청해 공양하고 늙으면 절에서 생활한다. 사후에는 절 마당의 유골탑에 안장된다. 캄보디아인들은 삶의 시작부터 마지막을 모두 불교라는 울타리에서 함께한다.

7~8세기 스리랑카에서 유입된 캄보디아의 불교는 소승불교적 성격을 띠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12세기 크메르제국을 자야바르만 7세가 대승불교를 국가통치의 이념으로 도입하면서 캄보디아의 불교를 크게 꽃피웠다. 그러나 1295년 인드라바르만 3세가 집권하면서 테라바다 불교가 캄보디아 불교의 주류를 이룬다. 1975~1979년 크메르루주 정권이 모든 사찰을 해체하고 수많은 스님들을 탄압했다. 이 시기 살아남은 스님은 겨우 2000명 남짓이었다.

잦은 내전으로 정치적 혼란을 거듭하면서도 90년대 이후 UN의 감독아래 훈센 정부는 경제 성장과 정치안정을 위해 힘쓰고 있다. 풍부한 지하자원과 젊은 국가 재건 분위기가 살아나면서 2006년 현재 수많은 사원이 복구되고 과거 절대적이었던 불교의 사회적 지위도 회복되고 있다. 현재 6만6000명의 스님이 전국사찰에서 수행하고 있다.

끊이지 않은 분쟁으로 경제적 기반이 거의 사라진 캄보디아는 전 세계 NGO들의 도움에 큰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러나 UN의 보호아래 활동하고 있는 NGO 가운데는 기독교 선교를 목적으로 진출한 사례가 많아 우려를 낳고 있다. 현재 캄보디아 한국 교민 약 800여명이 진출해 있으며 이 가운데 1/3이 선교사일 정도. 이들은 불교국가인 캄보디아 내 기독교 교세확장에 사활을 걸고 있다.

특히 인도차이나 반도 국가 가운데 종교의 자유가 비교적 보장되는 캄보디아를 동남아시아 선교의 전진기지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전 세계의 원조를 받고 있는 캄보디아 정부나 불교계는 이들을 통제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국민 95% 불자
최근 한국기독교 침투 교세확장에 혈안

"경제적 어려움 아직 많아" 도움 요청

interview 캄보디아 승왕 텝봉 스님

"캄보디아와 한국의 불교계가 더 많은 교류를 펼치고 양국의 불교발전을 위해 내가 나서서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돕겠습니다."

캄보디아 승왕(僧王) 텝봉 스님(사진)은 6월 20일 도선사 주지 혜자 스님의 예방을 받고 양국 불교계의 교류 협력 활성화를 제안했다. 프놈펜 오나롬 사원에 주석하고 있는 텝봉 스님은 캄보디아 각 불교종단의 종정 가운데서도 가장 어른으로 테라바다 불교의 'King'으로 불린다.

최근 텝봉 스님은 월드컵을 맞아 '젊은 스님들이 축구에 열광해 큰 소리를 지르거나 흥분하지 말라'는 교시를 내려 해외 토픽을 통해 널리 알려졌다. 비록 자국이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지는 못했지만 캄보디아 국민들의 축구에 대한 열정은 대단하다.

깡마른 체구지만 인자한 미소를 머금은 텝봉 스님은 한국에서 온 혜자 스님 일행을 접견실 입구부터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영접했다. 혜자 스님도 캄보디아 불교계를 대표하는 텝봉 스님의 환대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텝봉 스님은 "크메르루주 정권이 끝난 1979년 이후 불교중흥을 위해 노력하고는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캄보디아 불교계의 현실을 비교적 솔직하게 설명하고 "세계각국의 도움이 잇따르고 있지만 아직도 캄보디아에는 불우한 이들이 많다"며 한국불교계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병두와 함께 읽는 오늘의 세계불교



말레이시아, 사이비 승려 단속

말레이시아를 자주 방문하면서 그곳의 변화를 느끼게 된다. 그곳에 2년 가까이 근무하던 1980년대 초반과 1990년대 초반, 그리고 최근 몇 년 사이의 달라진 모습을 눈여겨보게 된다.

특히, 말레이시아 불교계를 이끌고 있는 담마난다 스님의 저서 두 권을 번역, 출판한 인연이 있으니 여행 틈틈이 그곳 불교의 흐름에 더욱 관심을 갖고 주목하게 된다.

지난 3월, 이 난을 통하여 간단하게 소개하기도 하였지만 말레이시아에도 '새로운 불교 바람'이 불고 있다. 식자층에서 불교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무슬림을 비롯한 타 종교인들 사이에서도 '새로운 눈'으로 불교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늘어간다. '나무아미타불'을 새긴 스티커를 앞뒤 창문에 붙인 승용차가 많아진 것도 최근 몇 년 사이의 변화이다. 불자의 눈에는 이 모든 것이 긍정적 변화로 들어온다.

삭발하고 승복 입은채 도시 곳곳서 구걸
정부 협조 요청에 불교계 자율규제 노력

그런데 세상만사가 그러하듯이, '밝음 뒤에는 어두움'이 그리고 '긍정 뒤에는 부정'이 뒤따르게 되는 모양이다. 삭발하고 승복을 입은 채 구걸을 하는 중국계 사이비 승려들을 도시 곳곳에서 자주 만나게 되는 것도 최근에 일어나는 변화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길가는 사람들에게 '관세음보살'님이나 '아미타불' 상을 인쇄하여 코팅한 명함 정도 크기의 물건을 건네며 보시를 요구하지만, 아무리 좋게 보아주려고 해도 이들에게서 '승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없다.

지난 두 달 동안은 이들이 서울의 조계사 근처에도 나타나 똑 같은 구걸 행각을 벌이는 것을 본 적도 있다. 하긴 이들에게 한국보다 더 좋은 사업 조건(?)을 갖춘 나라는 없을지도 모른다.

이들이 단순하게 보시를 요구하거나 구걸 행각으로만 끝을 냈으면 큰 문제가 생겨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말레이시아의 일간지 '베르나마(Bernama)' 6월 18일자 보도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내무부 차관인 탄차이호(Tan Chai Ho)가 직접 나서, "외국에서 와서 불법적으로 보시를 요구하고 불교의 이미지를 퇴색시키는 사이비 승려들을 강력 단속하여 구금, 추방하라"는 지시를 전국 경찰과 이민국에 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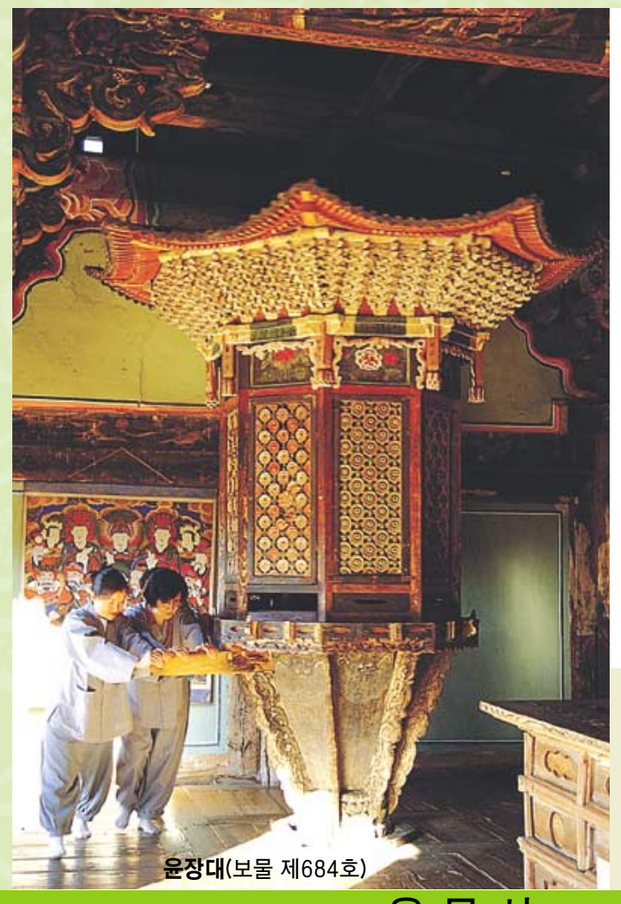
이 신문 기사에 따르면, 사이비 승려들은 사람들의 운수를 점쳐주고, 복권 번호를 예측해주거나 심지어 지방 신문에 광고까지 낼 정도로 대담해졌고,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언론에 대하여도 이들 사이비 승려들에게 광고지면을 할애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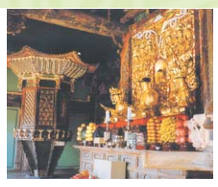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사이비 승려를 단속, 추방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당연한 조치이다. 그곳에서 이런 조치가 가능한 것은, '사이비 승려(似僧)'와 '진짜 스님(眞僧)'을 구별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스님들이 평소 수행자의 위의(威儀)를 갖추어 불자들뿐만 아니라 타 종교 신도에게서까지 존경을 받는 곳에서는 '사이비 승려'를 쉽게 알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불교계에서도 정부의 협조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자율 규제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배경도 한 몫 작용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문제가 간단하지 않다. '진승'과 '가짜, 사이비 승려'를 구별하기가 어렵다. 신심 깊은 신도들은 "부처님께 보시를 올리는 것이지, 스님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다"며, '사이비 승려'임이 분명해 보이는 이들에게도 '도움'을 준다. 이 신도들은 '복을 짓는다'고 여기지만 실은 '부처님 가르침을 퇴색시키는 반-불교적 행위'일 뿐이다.

각 종단에서도 최소한의 자격도 갖추지 못한 이들의 출가를 받아들이고 '계율 위반자'들에 대한 징계가 없다 보니, "누가 진짜이고 누가 가짜인지" 구별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인데, 정부에서 나서서 이들을 단속할 생각인들 낼 수 있겠는가. '사이비 승려' 단속에 나서는 말레이시아 정부와 불교계에 거는 기대가 큰 것도, 우리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이 함께 하기 때문이다.

용문사 윤장대 윤전으로 모든 액을 소멸하자!


윤장대(보물 제684호)

용문사 전경 
용문사 윤장대(보물 제684호) 
용문사 교지(보물 제729호) 
용문사 천불전 
목각좌상 및 목각탱(보물 제989호) 
용문사 만등불사 
영산회 괘불탱(보물 제1445호) 

삼사순례와 방생법회는 윤장대가 있는 용문사에서!

윤장대를 돌려 업장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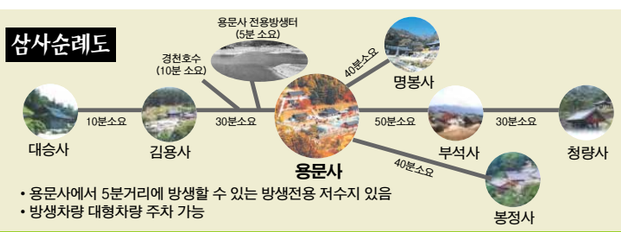
소백산 용문사는 신라시대에 창건된 천년고찰로서 한국불교 중흥과 호국에 앞장서온 대표적인 사찰입니다.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용문사에는 우리나라 유일의 회전식 장경각인 윤장대 및 대장전, 목각탱 · 목각 삼존불, 세조의 교지, 괘불탱, 팔상탱 등 약 315점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특히 호국을 기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윤장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 배우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던 이 땅의 수많은 중생들에게 복덕과 지혜의 길을 열어 주시는 자비롭고 영험하신 부처님 말씀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심각한 경제난과 사회 불안으로 점점 살기가 힘듭니다.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 건강을 기원하시는 분, 그리고 집안에 수험생이 있는 분, 새로 이사하는 분들 모두 윤장대를 돌리시어 업장소멸 하시고 사업성취, 병자쾌차, 학업성취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용문사에서는 5분거리에 방생할 수 있는 전용 저수지가 있으며, 삼사순례를 할 수 있는 대승사, 김용사, 부석사, 청량사, 봉정사, 명봉사 등 전통있는 사찰들이 1시간 이내의 거리에 있습니다.
방생과 삼사순례로 한량없는 공덕 쌓으시고, 윤장대를 돌리시어 각자 지은 업장을 소멸하고 바라는 바 모든소원을 성취하시길 다시한번 기원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용문사 주지 벽담 청안 합장

용문사 오시는 길
버 스 : 동서울터미널 출발(06:10~6:30, 30분 간격) 3시간 소요 ⇒ 예천 하차 ⇒ 택시(용문사)20분
승용차(서울) : ① 중부고속도로 ⇒ 영동고속도로 ⇒ 중앙고속도로 ⇒ 예천IC
② 영동고속도로 ⇒ 여주JC ⇒ 중부내륙고속도로(충주김천방향) ⇒ 점촌 · 함창IC
승용차(부산) : 경부고속도로 ⇒ 중앙고속도로 ⇒ 예천IC
승용차(대구) : 중앙고속도로 ⇒ 안동 ⇒ 예천IC



삼사순례도



• 용문사에서 5분거리에 방생할 수 있는 방생전용 저수지 있음
• 방생차량 대형차량 주차 가능

대한불교조계종 천년고찰 소백산 용 문 사 경북 예천군 용문면 내지2리 391 (우)757-800 / 전화 : 054)655-1011, 011-336-4665 / 전송 : 054)655-8405 / www.yongmoonsa.com

현대불교 buddhanews.com 17
서기 2006년 6월 28일 수요일 (주간) 제 584 호



15년째 '스님자장면'을 만들고 있는 장기철씨. 수행자들에게 공양 올리는 지극한 마음으로 만들기에 스님들 사이에서 유명한 '자장면'이 됐다.

'스님자장면' 만드는 장기철씨

맛의 비결? "공경심과 정성이죠"

스님 한분과 재가자 둘이 중화요리 집에 들어갔다.

자장면 세 그릇을 주문했다.

종업원이 주방을 향해 소리친다.

"자장면 셋이요, 하나는 고기 빼고~."

우리가 흔히 들었던 이 유머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한 부부가 있다. 일명 '스님자장면'을 만드는 장기철(48) 신순식(45)씨 부부다.

대구에서 경산 자인을 지나 69번 지방도로를 타고 청도 금천면 방면으로 가다보면 동곡리라는 작은 마을 입구에서 용천휴게소를 만나게 된다.

다소 외지다는 흠이 있지만 맑은 개울을 건너 푸른 자연 속에 위치한 이곳에 그들의 보금자리 '강남반점'이 있다.

그들이 만드는 자장면은 어떤 것이기에 이름이 '스님자장면'일까?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스님들이 부담없이 먹을 수 있도록 재료와 맛에 신경을 써서 만들기 때문이다. '스님자장면'은 돼지고기 대신 표고, 목이, 양송이, 새송이, 팽이버섯 등 다섯 가지 버섯을 넣어 자장을 만들고, 파 마늘 등 자극성 있는 오신채는 사용하지 않는다. 기름도 올리브유나 콩기름 등 식물성만 쓴다.

"비록 잘 살지는 못하지만 마음만큼은 부자"라는 장씨 부부. 6월 13일, 인근 사찰 비구니스님들이 자장면을 먹으러 온다는 기별을 받고 공양 준비에 한창이다.

오후 4시, 20명의 스님들이 들어서자 장씨 부부의 움직임은 더욱 빨라졌다. 면을 빠르게 삶아 자장과 같이 내고 김치와 풋고추 된장을 곁들였다.

가격은? 스님자장면 한 그릇에 보통 4500원. 남다른 재료를 쓰지만 시중의 가격과 차이가 없다. 그런데 수행하는 스님께 다 받을 수가 없어 오늘은 파격적으로 값을 내려 불렀다. 스님들이 왜 이리 싸냐고 물어도 "받을 것 다 받았다"며 손사래를 친다. 가끔 스님들이 더 많은 값을 쳐 줄 때도 있고, 장씨 부부가 사찰을 찾으면 시주할 때도 있으니 '부처님 계산법'으로는 다 맞았다는 설명이다.

장씨 부부의 한결같은 태도와 진실한 마음가짐은 자장면의 깔끔하고 담백한 맛과 어우러져 스님들 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인기다. 게다가 요즘은 해물과 자극적인 재료를 뺀 '스님짬뽕'과 약초와 버섯으로 국물 맛을 낸 '스님냉면', 고기대신 버섯을 튀겨 만든 '스님탕수이' 등 메뉴도 다양하다.

중국음식에 한하여 '배달'은 상식이지만 '출장'은 흔치 않은 일. 장씨 부부는 전국의 사찰에서 쇄도하는 요청을 거절할 수 없어 출장도 나간다.

아무리 멀어도 사찰에서 요청만 하면 어디든 달려갈 준비가 돼 있는 강남반점이다. 그래서 반점 한켠에 놓인 화이트보드에는 사찰출장요리계획이 빼곡히 적혀있다. 전날 기본재료를 준비하고 새벽에 출발하는데 아무리 멀어도 오전 11시 스님들의 공양시간을 어겨본 적이 없다.

스님을 위한 특별한 자장면은 1991년 4월 장씨 부부가 동곡리에서 강남반점을 처음 열 때 평소 인연 있는 스님들에게 공양을 대접하기 위해 만들기 시작하면서 비롯됐다. 그러나 스님자장면이 알려진 것은 유홍준 문화재청장 때문. 1993년, 유홍준 청장이 영남대 교수로 재직할 당시 스님들이 자장면을 먹는 것을 보고 저서 <나의문화유산답사기>에 소개하면서 알려졌다.

"아이는 내가 낳았는데 이름은 다른 사람이 지어 준 셈 입니다" 장기철씨는 애써 호탕한 우음을 짓지만 내심 '스님자장면'이라는 이름이 마음에 안 든다. 혹 스님들에게 누를 끼칠까 저어돼서다.

장기철씨가 스님들을 지극히 공양하는 것은 단순히 직업 때문일까? 뭔가 별난 인연이 있을 것 같다.

"스님에게 돈을 빌려 썼습니다."

장기철씨는 어렵게 말문을 열었다. 스물여섯쯤 때였다. 장씨는 버스터미널 뒤쪽의 논을 사서 포장마차를 운영할 생각으로, 어떤 스님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그것도 터미널에서 겨우 서너 번 마주쳤을 뿐인 스님에게.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수행자가 속인과 돈거래를 한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인데 말입니다. 큰 기대는 안했는데 스님은 '강가에 논을 사서 다 떠내려 보내느니 젊은 사람에게 빌려줘 뜯기는 것이 낫겠다'며 두 말 없이 빌려줬습니다."

장기철씨는 스님에게 고개숙여 감사했고, 스님의 큰마음을 가늠할 길이 없어 놀랐다. 이후 스님과의 인연은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그렇다고 스님이 특별한 요구를 한 적도 없다.

장기철씨는 깊은 산중에는 공양 한 끼 해결하기조차 힘겨운 선방이 있다는 것을 잘 알기에 일년에 두어 번 깊은 산중 선방을 찾아다니며 스님들께 무료공양을 올린다. 대신 시주가 많이 들어오는 큰 사찰에서는 자장면 값을 다 쳐서 받으니 특별할 것도 없다. 오히려 여러 산사를 찾아다니고 스님을 만나면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있으니 더 감사할 뿐이다.

장씨는 늘 기도하며 마음을 닦는 불자가 못돼서 스스로를 '돌팔이 불자'라고 말한다.

이제 돌팔이 불자생활을 청산할 때가 된 듯 장기철씨는 시간이 나는 대로 교리공부에 매진해 포교사고시에 도전해 볼 생각이다.

물 맑고 산 푸른 청도에서 산사의 출장요리를 서두르는 장씨 부부의 꿈은, 두 아들 결혼만 치르면 절에 들어가 수행하는 스님께 공양 올리며 사는 것이다.

청도/글=배지선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고기 대신 버섯, 오신채 사용 안해
담백한 맛·싼 가격에 인기 만점
사찰출장주문 쇄도, 시간은 엄수
"스님들께 공양 올릴수 있어 행복"

梵魚寺 간화선 대중화를 위한 10대 선사 초청
범어사 설선대법회 법문세트
문 없는 문을 열다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10대 선사의
간화선 수행에 대한 상세한 법문을 만나보세요.



■ 30,000원 (무료배송)

범어사와 현대불교신문사가 공동주최한
'범어사 설선대법회'의 열분의
법주스님들의 법문

■ 카세트테이프 10개 1세트

※ 설선대법회 CD, Video도 있습니다.
(각10,000원)

說禪

체계적인
불교공부를
원하는분들께
최고의 법보시
(도반선물로 최상의 선택)



빛고을 불교아카데미
부처님 10대 제자와
행복한 삶에 대한 이야기
법문세트

이 법문 세트는 광주 동구불교협의회와 현대불교신문사가 공동주최한
'빛고을 불교아카데미' –
'부처님 10대 제자와 행복한 삶에 대한 이야기'의
열분의 법주(미산 정무 현봉 혜거 자광 지운 재연 호진 도법 철우)
스님들이 2005년 10월 5일부터 12월 7일까지
광주광역시동구KT정보센터대강당에서 설법한 것입니다.



■ 카세트테이프 10개 1세트 30,000원 (무료배송) 낱개 3천원

■ 판매처 : 여시아문 www.yosiamun.com 02)737-0695, 02)2004-8219, 8220 [입금계좌 : 국민은행 023-25-0007-617 / 농 협 053-01-265785 (예금주:현대불교신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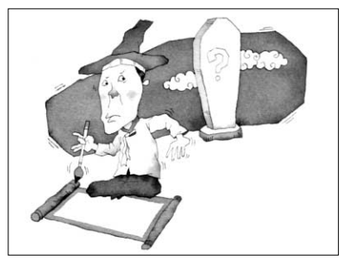


할로 죽이고 방으로 살리고

〈68〉 소동파(하)

소동파가 대각회련(1009~1090)선사의 비문을 지을 일이 생겼다. 비문을 쓰려면 그 사람의 행장을 잘 알아야 한다. 드러난 공식적인 행적 말고도 비하인드 스토리를 수집할 수만 있으면 내용이 훨씬 짬지게 된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는 남의 입을 통해야만 알 수 있다. 더구나 회련 선사는 입이 매우 무거웠다. 영종임금이 선사에게 손수 조서를 내 어떤 절이건 골라서 마음대로 주지를 하라고 했으나 사양하고서 작은 절에서 살았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그런데 참요(參寥 ?~1106)라고 하는 운문종 승려가 그 일을 동파에게 귀띔해 주었다. 하지만 남의 말만 믿고 함부로 비문에 다가 올릴 수는 없는 일이다. 직접 찾아가서 "정말 그런 일이 있으면 비문에 한 구절 넣고 싶다"고 확인을 요구했으나 돌아온 대답은 "그런 사실이 없다" 였다.



선사 입적후 유품을 정리하던 중 편지함 속에서 그 조서가 나왔다. 동파는 이렇게 탄식했다. "도를 얻은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덕을 간직할 수가 있겠는가?"

동파 역시 늘 수행인으로서 절제된 삶을 살았다. 배가 고파야만 밥을 먹었고 배 부르기 전에 숟가락을 놓았다. 더불어 수식관(數息觀)수행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산보를 한 후 속이 어느 정도 비게 되면 방에 들어가 단정히 앉아 생각을 고요하게 하였다. 그리고 나서 내쉬고 들이쉬는 숨을 셌다. 하나에서 열까지, 열에서 백까지를 세 수백에 이르게 되면 이 몸은 우뚝해지고 이 마음은 고요해서 허공과 같아져 번거롭게 금기하고 다스릴 일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이렇게 오래오래 하다가보면 한 숨이 스스로 머물러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않을 때가 나타난다고 기술했다. 이때 이 숨이 팔만사천 털구멍을 통해 구름이 뭉치듯 안개가 일 듯하는 경지가 나타나면 무시이래 모든 병이 저절로 없어지고 모든 업장이 소멸된다고 했다. 마치 눈 먼 사람이 홀연히 눈을 뜨듯 저절로 밝게 깨달아, 이때가 되면 남에게 물을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다. 그는 늘 일과 수행을 함께 한 재가의 선지식이었던 것이다.

그는 우리나라 금강산을 그렇게도 애타게 그리워했다고 한다.

"원컨대 고려국에 태어나 한번이라도 금강산을 보았으면…"하는 발원을 했다고 하니 지금쯤은 금강산 관광단에 끼어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아니, 이미 다녀갔을까?

그의 남동생인 소철(蘇轍)과 여동생인 소소매(蘇小妹)의 한 마디도 귀담아 들을 것이 있다. 불인선사가 금산사에 살면서 두 형제와 서로 자주 왕래하였는데 동생 소철이 선사에게 이런 시를 보내왔다.

굵은 모래를 시주해도 부처님은 기꺼이 받으시고/ 돌멩이를 공양해도 스님은 싫어하지 않는구나.

늘 절제된 생활하며 수식관 수행에 몰두
누이동생 소소매의 '관음예문' 유명

빈손으로 멀리서 오니 무엇을 요구하시겠는가/ 아무 것도 더하거나 보탤 것이 없구나.

철저한 무소유의 공(空)의 정신을 표현한 이 시를 받고서 불인선사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일단 공부경지에 대해선 높은 점수를 주었을 것 같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론 쓸쓸함을 숨기지 못했을 것이다. 재가자가 미리 알아서 무소유를 외치니 장맛비에 금산사의 기왓장이 무너져 혹여 큰 시주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 집에 가서 화주하겠다는 마음은 싹 사라졌을 것 같다.

난형난제인 반면 누이동생 소소매는 가슴이 아릴 정도로 아름답고 신심있는 글인 〈관음예문〉의 저자로 익히 알려져 있다. 그녀는 관세음보살을 이렇게 찬탄했다.

헤매는 고해중생 건져주시려
연붉은 옷자락 무지개로 주옵시고
애욕으로 두 눈 어둔 중생 건져주시려
하늘여인 몸으로 바람처럼 오시는….

■ 원철 스님(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고정관념 비우는 것이 참선"

대효 스님에게 듣는 생활선

"오늘날의 사회 갈등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선(禪)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갈등의 원인이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선은 나를 바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대효 스님(제주 원명선원장)이 질문을 던지자 법회 참석자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선을 묻고 답하다'를 주제로 6월 15일 조계사에서 열린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종무원들의 모임인 '원우회'의 대효 스님 초청법회. 이 자리에서 대효 스님은 생활선에 대해 법문을 했다. 생활선에 대한 궁금한 내용을 질의응답식으로 정리했다.



대효 스님이 '원우회' 회원들에게 법문을 하고 있다.

▲요즘 '웰빙 라이프'가 확산됨에 따라 참선을 웰빙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행하려는 경우는 많은데 바람직한 것인가?

-잘 살려고 한다면 그 자리에는 잘못 살고 있는 '나'가 전제돼 있는 것이다. 잘못 사는 나, 불만족의 나, 한을 품은 나를 고정해 놓고 참선을 하는 것이 아니다. 생사에서 벗어나지 못한 불완전한 그런 나를 자신이라고 단정하고 또 다른 나를 찾는 꼴이 된다. 그런 것은 참선이 아니다. 깨닫겠다고 하는 생각도 이는 자신의 가슴에 미혹한 사람이라는 것을 못 박는 것이 된다. 자신을 깨달아 있는 존재로 보는 것이 선의 세계다.

▲'나'를 버리라는 말 속에는 욕심을 버리라는 의미도 들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생활인이 욕심을 버리고 살 수는 없지 않은가?

-'나'라고 하는 것은 관념이고 속는 것이다. 순간적인 허상을 '나'라고 보고 살기 때문에 삶 자체는 잠재된 위기심리에서 재물과 권력 보잘것없는 명성에 목말라하고 이를 의지처로 삼게 되는 것이다.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 잘사는 것은 아니다. 생활에서도 마찬가지다. 왜 일해야 하고, 누굴 위해 사느냐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면 거기에는 늘 '나'라는 존재가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된다. 이것을 놓으라는 것이다. '나'에서 벗어나 일하고 생활하는 것 자체가 수행이요 참선이다.

▲길을 갈 때 간다는 생각마저도 놓으라 하는데, 그러면 목표의식 없이 현실에 만족하고 살라는 것인가?

-간다는 것 자체가 목표고 작용이다. 독서할 때 다른 생각없이 글을 읽는다. 책을 잘 읽어야겠다는 생각 자체가 독서삼매를 방해한다. 읽고 있다는 생각조차 없을 때 제대로 읽고 있는 것이다. 가되 간다는 생각이 없는 것이 책을 읽되 읽는다는 생각이 없는 것과 같다. 이렇게 되면 갈등이 없어지며, 생활과 공부가 나누어지지 않고 하나가 된다.

▲생활에서 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는데, 생활 속에서 효과적인 참선수행 방법은 무엇인가?

-참선은 긴장하고 무엇인가를 특별히 준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잠 안 자고 먹지 않고 참고 견디며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나, 용맹정진으로만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크게 잘못된 생각이다. 불교를 잘 알고 경전을 많이 읽고 외우고

무엇을 하든 '나'에서 벗어나는 것이 수행
편안하고 홀가분하게 '내려놓는' 연습을
철저하게 '실리적'…생활과 하나돼야

지식이 뛰어나야 깨닫는 것이 아니다. 그와 정반대다. 선입관이나 기존관념, 알고 있는 것을 떨쳐버리는 것이 참선이다. 법문을 들으면서 머릿속에 담고 있는 고정관념을 비우는 것이 참선이다. 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지니고 있던 관념을 버리는 것이 바로 생활선이다.

자기 것을 지키는 것은 어렵다. 그런데 왜 지키려고만 하나. 사람들은 천근을 지고 산다.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 눈을 빼앗긴다. 참선은 천근 짐을 내려놓는 것이다. 어렵게 생각할 이유가 없다. 편안하고 홀가분하게 내려놓는 연습을 하면 된다. 참선은 철저하게 실리적인 것이다.

▲참선은 철저하게 실리적인 것이라고 했는데, 그 뜻은 무엇인가. 참선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효과를 말하는 것인가?

-참선을 스트레스 해소와 욕구 성취를 위해 하는 경향이 적지 않다. 이것은 지극히 바람직하지 않다. 참선은 자신을 바로 보기 위한 노력이다. 경제적으로 보면 이만큼 값진 투자도 없다.

하루에 5분 10분 참선을 해서 자기를 바로 보게 된다면 이보다 더한 가치를 어디에서 찾겠는가. 그렇기에 참선은 가장 실리적인 것이다. 스트레스나 정신적 고통은 정진하는 가운데 저절로 벗어나게 되는 것이지 참선의 궁극이 아니다.

▲불자들이 참구하기에 좋은 화두가 있다면?

-'부모에게 생기기 이전의 본래 나는 무엇인가'라는 화두를 권한다. 이 화두는 발심을 배가시키고 신심을 굳게 한다. '본래 나'를 찾는 것은 순간순간으로 바뀌고 실재하지 않는 허망한 나를 벗어나 '부모에게 생기기전 본래 나는 무엇인가'를 참구하는 것이다.

이를 '무엇인가'라고 줄여서 화두로 삼아도 된다. 진지하게 의문을 품고 의심해 나가되 간절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무엇인가'를 외는 앵무새가 되고 만다.

▲관세음보살을 찾는 것도 화두 참선인가?

-일반적으로 이것을 염불선이라고 하며, 화두 참선은 아니다. 화두참선은 활구(活句)참선이라고 한다. 활구참선은 출발과 배경이 전혀 다르다. 참선을 통해 화두의심을 하면 할수록 잘못에 대한 올바른 판단이 생기고 여기서 발심과 신심이 생긴다. 화두의심만 바로 하면 잡다한 길은 저절로 정리된다. 염불선은 참선으로 나아가는 방편선이다.

▲짧은 기간 안에 화두의심을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데 가능한가?

-화두참선이 화두를 의심해서 마지막에 깨달음을 얻는 것으로 아는 사람이 많은데,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화두를 의심하기 시작할 때가 곧 깨달음의 출발이다. 이 화두를 의심하는 것은 '순간순간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허망한 나'를 자신으로 보고 속고 착각하는 것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이다. 즉, 순간순간이 어두움에서 밝음으로 바뀌는 것이다.

정리 · 사진=한명우 기자

아봐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봐타 센터
아봐타 마스터 김희균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154-1
전화 010-6230-2113 · ☎ 02)396-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부처님 당시 제자
500나한 불사 겸 1000일 기도
오백나한 겸 천일기도를 불사 받아 수도권 최고의 나한전(羅漢殿)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아라한은 응공(應供), 응진(應眞), 무학(無學), 이악(離惡), 불생(不生)등으로 불리우며 성문(聲聞)들 가운데 최고의 성자 욕계 색계 무색계의 모든 번뇌를 완전히 끊어 열반을 성취한 성자를 일컬으며 복덕이 구족하고 신통 자재하여 모시는 것만으로도 큰 공덕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네 인생, 사람 몸 받기 힘들고, 부처님 법 만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나한 불사도 이 생에 한번 인연 닿기 힘든 불사입니다. 어렵게 만난 인연들 소중이 성취 하시고 그 공덕으로 가정의 화목과 건강, 사업성취, 소원성취, 학업성취 나아가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군하얀마음선원 덕봉 합장
031)707-0108
분당선 이매역 1번출구 SK주유소 옆 도보로 5분거리

삼사순례 및 소원성취
기도도량 동해사
매년 10월 12일부터 11월 20일까지 밤, 낮없이 사리탑위에 법비가 내려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해있어 중생들의 어떤 소원도 이루어 지는 곳
기도영험도량인 동해사에 오시어
기도의 참 맛을 느껴 보세요

법비오는곳 사리보탑
※ 대형주차장, 방생기도 5분 소요
낙산사 10분소요
후휴암 15분소요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학포리
법비오는 곳 동 해 사
033)672-2900

사암침술과 맥을 알면 불치병은 없다
국내 어느곳에서도 배울수 없는 내용과 비법을 3개월만 배우면 초보자도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때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속성비결!! 책임지도!!
사암침술 강좌
▶ 과정 : ● 기 초 과 정
● 전문가과정 ❶ 맥진반 ❷ 사암침술반 ❸ 즉효요법반
▶ 내용 : 12경락과 경근, 사암도인침술법, 장부의 허실증 판단, 황제내경맥진법, 맥조절방법, 오행처방법, 침술즉효요법(一鍼法), 뼈교정법, 실습 위주 강좌
▶ 개강 : 2006. 7. 5 (수 · 목요일 주 · 야간반)
토 · 일요일 : 사암도인 맥진법 강좌 (1개월 완성)
※침술사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매화역수 강좌
간단한 수리학(1~9)만으로 운명을 판단하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쉽고 간단하고 재미나며, 명리수준을 최고위 과정까지 높여 드리는 국내유일의 강좌로 년운과 월운은 물론 일운까지 정확하게 적중시키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 개강 : 매주 수시접수
명리전문가과정 맥진전문가과정
사 암 침 술 학 회
● 서 울 : 종로 3가 국민은행 4층(지하철1호선 1번 출구)
문의 : 02)747-9136. 011-307-2975

소중한 인연을 위한 정성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몸에 좋은 조청으로 심신을 새롭게 한다
전통 비법으로 산사에서 스님께서 직접 만드신… 山寺 조청
♣ 山寺조청 은 공해시대, 무엇을 먹어야 안심할까 고민하는 당신에게 참 좋은 인연입니다.
♣ 山寺조청 은 산천 초목의 뿌리 잎, 줄기, 열매의 영양소를 고스란히 뽑아내어 우리전통의 조청으로 고아낸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입니다.
♣ 山寺조청 은 비구니 스님들의 청정심과 지극한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옻이 오르지 않는 山寺 참옻 조청 1.2kg
어혈, 냉증, 위장장애, 피로 독소, 적체의 해소, 신경조율, 항암, 원기회복등에 기여
山寺 약도라지조청 1.2kg
기관지, 천식, 기침, 거담, 배농작용, 폐기능, 호흡기질환, 피로회복등에 기여
국민건강을 생각하며 100% 천연으로 만들었습니다
山寺조청 웰빙 자연당
● 각종 요리, 무침, 조림 등 반찬 만드실 때
● 떡, 빵, 과일 드실 때 ● 고추장, 김치 담그실 때
1100g×2병 = 18,000원
옛날 방법 그대로 만든 순수한 맛,
이제는 물엿 대신 산사조청 웰빙 자연당을 쓰십시오.
● 주문 및 문의 : 대한불교조계종 금융사
054)372-3166
● 입 금 처 : 농협 727077-52-056761(현순희)
맑은 마음 깊은 정성 山寺 조청원

직장신행단체

여름휴가를 해외성지순례로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알차게



그림=박구원

"여행 아닌 구도입니다 공부하세요!"

순례노트 만들고 정보 수집 · 기록
방문지 풍습 · 역사 · 문화 알고 가야
단기 수행프로그램 참가 뜻깊어

직장신행단체들의 해외성지순례가 늘고 있다. 7월부터 시작되는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을 맞아 단체들은 각자 '맞춤형' 순례를 준비하고 있다.

실크로드여행사 이상원 사장은 "5~6년 전에 비하면 직장불자들의 해외성지순례가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전한다.

사실 직장신행단체들의 해외성지순례 초기만 하더라도 성지순례보다는 여행이 주 목적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지금같이 여행이 일반화되지 않았고, 성지 자체가 하나의 관광코스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이다.

7월 30일~8월 5일 중국 보타산과 황산, 구타산 등지로 다섯 번째 해외성지순례를 떠나는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성윤갑, 이하 공불련) 박현남 간사는 직장불자들의 의식이 많이 변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박 간사는 "직장불자단체들의 경우 조직이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일과 신행을 병행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며 "회원들이 먼저 내실 있는 성지순례 프로그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대한불교청년회(회장 김익석)는 8월초 베트남과 캄보디아의 불교문화유적을 돌아볼 예정이며,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신보라)는 이에 앞선 6월 30일~7월 5일 태국과 캄보디아의 성지를 찾을 계획이다.

소중한 시간과 돈을 들여 진행하는 직장신행단체들의 해외성지순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 아는 만큼 보인다

건설교통부 불자회에서 활동하는 이형 과장. 이 과장은 공불련이 개최하는 해외성지순례에 매년 빠지지 않고 참가하고 있다.

이형 과장은 처음에는 주위 도반들과 함께 떠난다는 기쁨에 별다른 준비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순례 노트'를 만들어 성지에 대한 기록을 만들고 있다.

이 과장은 "공무원 불자들은 여러 차례 성지순례를 같이 하면서 이에 대한 노하우를 많이 쌓았다"며 "노트를 통해 성지에 대한 지식을 미리 습득하고 또 순례가 끝난 뒤에 보충을 하면서 성과를 얻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말한다.

이 과장은 또 방문지의 풍습이나 역사, 문화 등에 대해서도 미리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 선지식이나 지도법사와 함께 하자

조계종 교육원 박희승 불학연구팀장은 해외성지순례는 선지식이나 지도법사와 함께 가야한다고 말한다. 5년 전 동료들과 함께 미얀마와 캄보디아의 성지를 찾았던 박 팀장은 관광외의 실질적 '소득'은 챙기지 못했다고 한다. 현지에 대한 설명이나 수행법에 대해 설명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박 팀장은 "직장신행단체들은 보통 스님이나 재가자를 지도 법사로 모시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해외성지순례에서도 지도 법사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래서 지난해 9월 전국선원장 스님들과 함께한 중국성지순례는 중국 조사(祖師)들의 숨결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회고했다.

올해 1월 정토회가 실시한 '법륜 스님과 함께 하는 인도성지순례' 프로그램에 직장동료들과 함께 참가했던 우정현(26 · 경기도 안양시 석수동)씨도 "법륜 스님의 상세한 설명 덕분에 부처님의 삶을 직접 체험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 수행법 체험할 수 있으면 금상첨화

서울 보리수선원에 다니고 있는 이승란씨는 지난해 2~4월 3개월간 미얀마로 가서 위빠사나 체험을 하고 왔다. 동작구 실버타운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이씨는 "3개월간 수행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회고한다. 이씨는 "현실적으로 직장불자들이 몇 개월씩 시간을 내서 성지순례와 체험을 할 수는 없지만 하루나 일주일단위의 프로그램은 충분히 경험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추천한다. 그래서 올 여름에는 몇몇 동료들과 함께 단기 프로그램을 체험할 계획이다.

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원철 스님도 "성지순례에서 수행이라는 알맹이가 빠져서는 곤란하다"며 "특히 남방이든 북방이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순례를 떠나면 금상첨화"라고 말했다.

 # 새롭게 발심하는 기회

내년 1월 보름 일정으로 인도성지순례를 준비하고 있는 전국교사불자연합회 신연섭 회장은 벌써 성지순례 이후를 준비하고 있다. 성지순례가 신행의 종점이 아닌 또다른 출발점이 돼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그래서 교사불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교리공부나 간화선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신 회장은 "해외성지를 돌아보며 다시 발심(發心)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며 "도반들과 함께 더 열심히 신행활동을 해야 성지순례의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철주 기자 ycj@buddhapia.com

해양경찰청불자회 27일 창립

해양경찰청에 불자회가 창립됐다.

해양경찰청 불자회는 6월 27일 인천 송도 해양경찰청 대강당에서 창립법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50여명의 회원으로 출발한 불자회는 김창권 해양경찰청 광역수사단장이 초대회장으로 취임하고 인천 수미정사 주지 종연 스님과 서울 원각사 주지 활중 스님이 경승을 맡아 회원들의 신행활동을 돕는다.

김창권 회장은 "앞으로 정기법회와 기초교리 강좌, 사찰순례 등을 통해 신행활동을 함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양경찰서에 불자회가 창립된 것은 지난 2004년 10월 인천해양경찰서 이후로 이번이 두 번째다.

유철주 기자

일터가 도량입니다

"자비실천은 내 인생의 목표"

은평구청 **최명숙** 가정복지과장


최명숙 과장은 불교와 문화, 복지를 접목한 일을 할 수 있기를 서원하고 있다.

불자라면 보통 한두 개, 많게는 몇 개씩의 법명(法名)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각자 쓰는 '대표' 법명은 따로 있다. 특별한 인연이 있는 스님에게서 받은 법명이나 왠지 자신과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법명을 쓰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은평구청 최명숙(53) 가정복지과장도 10여개에 이르는 법명을 가지고 있지만, '자비심'이라는 법명을 '대외적'으로 사용한다.

"제 인생의 목표가 바로 '자비'의 실천입니다. 간단한 듯 하면서도 수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이 말이 저의 평생 화두죠. 그래서 이 법명을 사용합니다."

그래서인지 가정복지과장이라는 소임이 최 과장에게는 '천직'과 같은 존재다.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에 있는 이웃들을 살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여성복지, 노인복지, 가정복지(유아 · 어린이 담당), 청소년복지 등 4개 팀 24명으로 구성된 가정복지과가 톱니바퀴처럼 부서가 운영되는 것도 최 과장의 이러한 '소명의식'에서 비롯됐다고 후배직원들은 귀띔한다.

"인구 47만명의 은평구는 사무공간보다 주거공간이 많다보니 복지 관련한 인프라는 비교적 잘 구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구축된 기반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복지행정을 실천할 수 있을지를 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불광3동 동장으로 재직하다 가정복지과에 온지 1년 남짓밖에 안됐지만 최 과장은 벌써 경로당 3곳과 어린이집 1곳을 신축했다.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쉬고 어린이들이 맘껏 뛰노는 것을 볼 때면 더 힘이 생기죠. 특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소외계층의 사람들을 만날 때는 좀 더 열심히 뛰어야 한다고 스스로를 채찍질합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지만 최 과장은 50여 은평구청 불심회 회원들과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신행활동에는 빠지지 않는다. 꼭 불심회 부회장이어서가 아니다. 은평구 사원연합회와 불심회가 6월 15일 공동으로 개최한 '제18회 호국영령과 은평구민을 위한 호국기원대법회'때도 최 과장은 아침부터 법회 준비를 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어릴 때 외할머니 손에 이끌려 절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숙명여중 · 고를 다녔는데, 당시에는 학교가 조계사 앞에 있었습니다. 조계사 범종소리를 들으며 불심(佛心)을 키워왔다고 할 수 있죠."

지금은 집에서 가까운 일산 여래사를 다니며 몸과 마음을 추스리는 최 과장은 항상 '관세음보살'을 염한다. 관세음보살이 바로 중생을 연민하며 이익을 가져다주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런 최 과장에게는 어떤 꿈이 있을까?

"불교와 복지, 문화를 접목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세 가지가 어우러진 일을 한다는 것, 상상만 해도 즐겁지 않으십니까? 또 개인적으로는 매일 108배를 하면서 스스로를 단련하려 합니다."

글 · 사진=유철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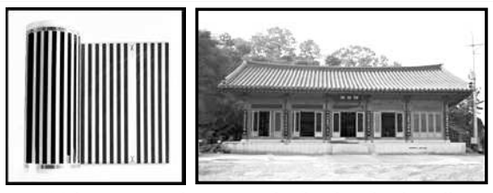
이화 청기와 공장

• KS S형 청기와
장당 3,500원 도착
(하차별도)

• 한식 검정 시멘트기와
장당 1,500원 도착
(하차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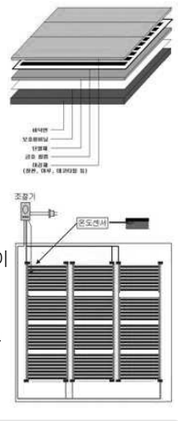
문의 041)554-0112(천안)
011-9820-0112(직)

배관과 보일러가 필요 없는
원적외선 필름난방 시스템



"월 5,000원으로 난방비 걱정 끝"

금호필름의 특징
- 한겨울 난방비가 전기열선타입의 30%, 기름보일러 대비 70%이상 절감됩니다.
- 간편하고 빠른 시공으로, 당일 시공이 가능합니다.
- 당일 시공하고 당일사용이 가능합니다.
- 두께가 얇고 경량이어서 건물의 하중에 영향이 없습니다.
- 보일러실이 필요 없으므로 공간절약이 되고, 관리 유지가 편리합니다.
- 기존 전기판넬의 단점을 100% 보완하였습니다.
-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므로 환경친화적인 제품입니다.
- 제품의 수명이 반 영구적입니다.
- 인체에 유해한 전자파보다는 건강에 좋은 원적외선이 다량방출됩니다.
- 원적외선 복사열로 인하여 방안 가득 훈기가 탁월합니다.
- 철저한 개별 난방 시스템으로, 필요한 부분만 제어가 가능합니다.
- 혹한에도 동파걱정이 없습니다.
- 필요할 때 잠깐 잠깐 사용이 가능합니다.



"원적외선 복사열 필름은 바닥만 따뜻한 일부 전기제품 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난방용 필름… 금호에너텍에서 설치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금호 에너텍 KUMHO Enertech co. 상담/문의 031)422-0467

하계 특별수련안내

참나의 지복을 체험하는 여정

7, 8월 기간에 하계 순일프로그램 4단계 전과정 24박25일 코스를 2차에 걸쳐 진행 합니다.

◆ 1차 : 7월 8일 - 8월 1일
◆ 2차 : 8월 2일 - 8월 26일

교육내용
- 무의식에 저장된 죄의식, 분노의 감정들을 녹임
- 미세한 감정들과 몸이 정화되는 과정
- 대상과 하나되어 기쁨과 희열을 느끼는 과정
- 대상을 넘어 무심(삼매)에 드는 과정

프로그램지도
- 순일 선생 : 현, 순일수련원장
  전, 정신세계원 '삼매교실' 강의
  전, 미내사 금강경 강의
  전, 부산 자광선원 금강경 강의
  저서 : 1.삼매 2. 방어할 두려움 없는 자유

◇ 수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순일명상 홈페이지 http://www.soonil.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수련문의 및 신청은 순일명상 홈페이지 "수련문의 및 신청"이나 전화 031)771-9765 로 하시기 바랍니다.

순일명상

기적의 치약 스님과 불자님!
지긋지긋한 치아
美國브라이트로
7일만 닦으시면 고생 끝!



스님?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럽고 참기 어려운것이 이가 아픈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지만 스님만은 믿으세요. 저는 대전에사는 보살입니다. 대전에 있는 사찰을 방문 하였을때 스님과 함께 공양을 하게 됐는데 1년전부터 치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다가 양쪽 어금니를 뽑고나니 다른이도 흔들리며 찬물도 못먹고 하루하루 진통제에 의존해 왔고 병원에 자주 가야만 했습니다. 스님과 공양중에 이가 아파 잘 먹지 못하는것을 본 스님께서 미국구강학회에서 추천한 브라이트치약을 주시면서 아침저녁 7일만 닦으면 이가 좋아진다고 해서 마음속으로 병원을 다녀도 효과가 없는데 치약가지고 될까 의심하면서 스님께서 주신거라 아침저녁 사용하면서 4일째 되는날부터 진통제를 먹지 않아도 돼고 찬물을 먹어도 이가 시렵지 않는 놀라운 효과를 보았습니다. 일반치약처럼 7일정도 사용하면 입냄세는 물론, 10일정도 사용하면 풍치, 잇몸무력, 잇몸농증, 찬음식과 뜨거운 음식을 드실때 통증이 깨끗이 없어지며 누런이가 하얀이로 美白도 됩니다.

스님? 7일만 닦으시면 고생 않하십니다.

※ 五福중의 으뜸가는 치아를 보존하는데 기적의 약초 치약으로 충분합니다.

가격은 50,000원입니다.

수입판매원 금강닥터사
TEL : (02)2271-1441 농협:360-12-046446 최능우

禪 수행의 길잡이

선가귀감



<27> 자신을 굽히지도 높이지도 말라

참마음이 곧 부처님인줄 알고 물러남 없이 공부에 전념해야

<선가귀감> 27장에서는 화두를 참구하는 사람은 '본디 자신한테 갖추어져 있는 참마음'을 믿고 공부해 나가야만 한다고 이른다. 참마음을 살피지 않고 경전에만 집착하여 공부하는 사람처럼 '바로 부처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여 자신을 중생이라 낮추어 물러나서는 안 된다고 한다. 그렇다고 참선이 최고라고 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무턱대고 자신을 부처님이라고 높여서도 안 된다고 한다.

願諸道者 深信自心 不自屈不自高

바라건대 공부하는 사람이면 모두 자신의 참마음만 깊이 믿을 뿐, 스스로 자신을 굽히지도 말고 높이지도 말지어다.

서산 스님은 이 단락을 다음과 같이 풀이한다.

"이 마음은 평등하여 본디 범부와 성인이 따로 없는 법이다. 이치가 그렇지만 사람 가운데에는 어리석은 범부도 있고 깨친 성인도 있다. 스승의 가르침에서 홀연 '참나'가 부처님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는 것을 깨치는 사람은 '단숨에 깨치는 사람[頓]'이니, 이것이 스스로 자신을 굽히지 말아야 할 까닭이다. 이는 마치 '본래 한 물건도 없다'라고 한 육조 스님의 말과 같은 뜻이다.

부처님의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난 뒤 나쁜 버릇을 없애가며 범부가 성인이 되는 것은 '차츰차츰 닦아 나아가는 법[漸]'이니, 이것이 스스로 자신을 높이지 말아야 할 까닭이다. 이는 '쉬지 말고 부지런히 번뇌를 없애라'고 한 신수 스님의 말과 같은 뜻이다. 자신을 굽힘은 경전을 보는 이들의 병통이고, 자신을 높임은 참선하는 사람들의 병통이다.

경전을 보는 이들은 선문(禪門)에 '부처님 세상을 깨달아서 들어가는 비결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방편에 깊이 빠져 '참 아니면 거짓'에 따로 집착하여 '자신의 마음을 바로 보는 수행'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보배만 헤아리고 있으므로 참 공부에서 스스로 뒷걸음질을 치고 있는 것이다.

참선하는 사람들은 '경전 속에 나쁜 버릇을 끊어가는 바른 길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으니, 나쁜 짓을 저질러놓고도 부끄러운 마음을 내지 못한다. 공부한 정도가 유치해도 '법에 대하여 공부했다는 오만한 마음'이 많으므로 입 밖에 내뱉는 말이 터무니없이 교만하기만 하다. 이 때문에 올바른 뜻을 알고 마음을 닦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굽히지도 않고 높이지도 않는다."

서산 스님은 다시 덧붙여 말한다.

"스스로를 굽히지도 않고 높이지도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공부를 시작하는 첫 마음에 바다처럼 넓고 큰 부처님의 세상이 들어있는 것'으로써 말하자면 모든 것이 '믿는 마음 한자리'이다. 그러나 '보살이 공부하여 성불(成佛)한 결과를 가져온 그 과정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살펴보는 것'으로써 폭넓게 말하자면 보살이 인(因)에서 과(果)로 가기까지 '55단계의 수행 과정'이 있다는 것이다."

'공부를 시작하는 첫 마음에 바다처럼 넓은 부처님의 세상이 들어있는 것'이라고 번역한 인해과해(因該果海)는 '인(因)에 과해(果海)가 갖추어져 있다'라고 직역할 수 있다. 인은 시작이고 과(果)는 결말인데, 처음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니, 작은 인속에는 드러날 많은 과가 이미 들어 있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복숭아씨를 심으면 나중에 씨앗이 커서 복숭아꽃이 피고 먹음직스러운 복숭아가 주렁주렁 달리는데, 시작은 작은 씨앗이었지만 이미 그 씨앗 속에는 해마다 많은 꽃을 피우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결과물이 들어있는 것과 같다. 이처럼 공부할 때도 자신의 참마음이 부처님인줄 알고 화두를 챙겨가다 보면, 이 공부 속에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부처님의 세상으로 들어갈 날이 있을 것이니, 굳이 자신을 중생이라고 낮추고 이 공부에서 물러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복숭아씨가 해마다 많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려면 오랜 시간에 걸쳐 적절한 양의 물과 태양의 빛이 필요하다. 꽃과 열매는 그 과를 가져오는 씨앗과 적절한 양의 물과 태양의 빛이란 인이 있어야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어떤 결과물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알고 보면 그 결과물을 가져오게 하는 원인이 반드시 있었다는 것을 철저히 살펴보는 것, 이것이 과철인원(果徹因源)이다.

보살이 공부하여 성불한 결과를 가져온 그 과정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살펴본다면 수없이 많은 단계가 있겠지만, 이것을 대략 정리하여 <능엄경>에서는 십신(十信), 십주(十住), 십행(十行), 십회향(十廻向), 사가행(四加行), 십지(十地) 55단계로 나누고 있다. 참선이 최고라고 하면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법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턱없이 높이지 말고 공부의 인과를 분명히 알고 공부해야 할 것이다.

참마음을 알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설하고 실천할 수 사람만이 훌륭한 선사이면서 참다운 법사가 될 수 있다.

■원순 스님(송광사 인월암)

한입에 쏘옥~ 불교 상식

삼매(三昧)

어떤 한 가지 일에 깊이 심취해 있는 상태를 일상에서 '삼매경에 빠졌다'고 하지요? 긍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말로, 상대를 칭찬할 때도 사용됩니다. 삼매(三昧)란 말은 불교용어 삼마지(三摩地)에서 유래합니다.

삼마지란 '마음을 한곳에 둔다' '마음을 한곳에 집중시켜 흐트러지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수행을 잘하면 마음이 분산되지 않고 어지러운 생각들이 사라져 편안하고 고요해짐을 삼매하고 하지요. 수행이 삼매의 단계에 이르면, 올바른 지혜가 생겨 진리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불교는 삼매를 중시하죠.

석가모니 부처님도 삼매를 통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법화경> 서품에는 "부처님이 무량의처삼매(無量依處三昧)에 들었을 때 여섯 가지의 상서로움이 있다"고 전합니다. <법화경>에서는 또 "부처님이 해인삼매 속에서 경전을 설했다"고 합니다. 해인삼매를 말 그대로 해석하면, '바다도장의 삼매'죠. "큰 바닷물이 모든 것을 포섭하는 것 같아서 해인이라고 한다"고 해석할 수 있지요.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행복동 사람들

웰다잉(well-dying)

배종훈 (bjh4372@hanmail.net)



cafe.buddhapia.com/community/happy dong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102)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2부 48강 경봉 스님의 금강경

산봉우리에 몸 숨긴 독수리

선지식들은 다들 나름의 색깔을 가지고 있다. 어떤 스님은 근엄하고, 어떤 스님은 소탈하며, 어떤 스님은 사교적이고, 어떤 스님은 늘 진지하다. 경봉 노사는 늘 웃고 있는데, 그것은 자기 안의 자신과 대면한 쑥스러움과 여유에 다름아니다.

"문(問): 뜻, 무정한 주인공아 이제사 만났으니, 왜 이렇게 늦었는고. 답(答): 허허, 내가 그대 집에 있었건만, 그대 눈이 밝지 못해 이처럼 늦었다네."

자신과 만나고 나면, 여시(如是)라,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향해 징징대지 않는다.

"영리한 주인공, 주인공아, 그대 말이 '이와 같고 이와 같으니', 오늘, 날씨는 따뜻하고 바람은 부드러우며, 산 층층(山層層) 수잔잔(水潺潺)하니, 산꽃은 웃고 들새는 노래 부르니, 손을 마주 잡고 태평가나 같이 불러보세."

야부도 <금강경> 6장에서 같은 노래를 불렀다. "내 집안의 보물을 얻고 나면, 지저귀는 새, 산에 핀 꽃들이 온통 봄의 찬양임을 알게 된다(治父: 若能信得家中寶, 啼鳥山花一樣春)." 내 손 안에 천하의 보물을 쥐었으니, 나는 더 이상 해야 할 일이 없다. 절학무위한도인(絶學無爲閒道人), 부제망상불구진(不除妄想不求眞: 證道歌)! "공부도 작파하고, 할 일도 없는 한가한 사람, 그는 망상을 제거하겠다고 부산떨지 않고, 진리를 구한답시고 용을 쓰지 않는다."

그는 어디 있는가

웃음은 대개 여유에서 온다. 그것은 "더 이상 추구할 목표도, 씨름해야할 문제도 없다"는 것의 증거이다. 아직 더 나아가야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얼굴은 긴장되어 있고, 때로 신경질적이다. 나는 스님들의 법력을 얼굴의 웃음기에서 찾는 고약한 버릇을 가지고 있다.

자신 속에 있는 무가보(無價寶)를 얻은 사람은, 두두 물물이 다 평등(平等)하고 원만(圓滿)하다는 것을 알기에, 더 이상 악착할 것이 없다. 그는 악인들을 비난하거나 중생들을 타박하지 않는다. 다만 그들에게 연민을 느끼고 어떡하든 도와주려고 애를 쓴다.

그러나 말이 자신과의 대면이지, 그 주인공에게는 얼굴이 없다. "법상(法相)은 없다!" 그 소식을 영축산(靈鷲山)에 빗댄, 스님의 절창을 보라.

"영축산이여, 유시(有時)에는 구름도 일고, 유시에는 안개도 끼고, 유시에는 비도 내리고, 하여도, 구름이 일어도 머무름이 없고, 유시에는 만화(萬花)가 방창(芳暢)하고 새들도 지저귀지만, 이것도 사라져 버린다. 이것이 영축산의 진상이다. 산도 이러한데 어떤 글이나, 말을 남겨둘 것도 없는 것이다. 말과 글을 남겨둔다는 것은 망정(妄情)이지 영축산의 진상이 아니다. 영축산의 진상이 아닌 것을 두려는 것이 망상이요, 어리석은 일이다."

'신령스런 독수리'는 자신의 얼굴을 산봉우리 저쪽에 숨기고 있다. 그러니 불응취법(不應取法), 작은 지식을 진리의 이름으로 행세하지 말라. 노사의 웃음과 관용은 "그러니 내 말을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방편의식에서 피어난다.

산대놀이에 담긴 불법(佛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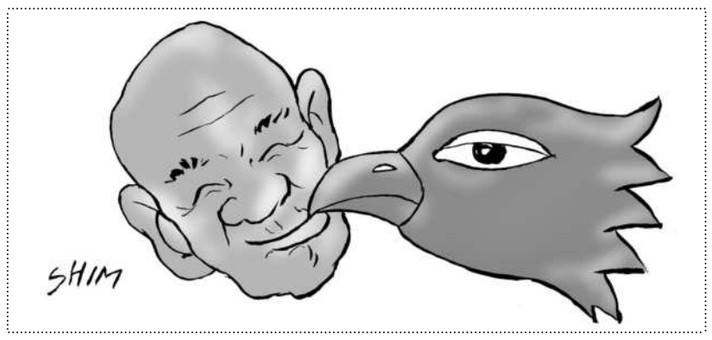
스님은 노장, 유교, 기독교 등의 근엄한 교설에도 능했지만, 일상의 연극이나 구전의 이야기에서 불교의 심오한 진리를 확인하고, 그것을 대중들에게 설득하는데 뛰어났다.

쉬운 이야기를 하기가 제일 어렵다. 이는 강의를 해 본 사람이면 누구나 느끼는 바다. 대학에서도 학부 초년생들을 두고 하는 <철학개론>은 원로 교수에게 맡긴다. 이제 갓 박사를 받고 강단에 선 사람은, 그동안 코를 박고 읽은 몇 줄의 텍스트를 새기는데 바빠, 지식들을 종합하고, 그것을 일상의 지혜로 전달하는 기술이 모자란다.

나는 불교든 유교든, 노장이든, 기독교든, 여타 서양철학이든, 심지어, 지금 뜨고 있는 분야인 IT나 등등에서, 선이해가 없는,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을, 근기와 눈높이에 맞게, 설해 주는 실력으로 그의 수준을 가늠하는 버릇이 있다.

스님의 법문에는 시정의 한담과 설화가 은하처럼 흐르다가, 유머와 예화가 어느덧 뒤섞인다. 놀라와라, 거기 소리소문 없이 삶과 불교에 대한 심오한 통찰이 담겨 있다. 스님의 법문 가운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하나를 소개한다.

"산두 박첨지라는 허수아비놀이가 있었다. 동네 한 복판에 기둥을 네개 세우고, 포장을 치고 나서, 그곳에서 수많은 허수아비들을 움직여, 탈바가지 뒤집어쓰고 놀게 한다. 처음 부채가 흔들흔들 지나가고, 다음 털보가 지나가면서, '어, 오늘 사람 많이 모였다'고 한다. 인간들이 입도 맞추고 노는 장면이 있고, 사자 호랑이가 놀다가, 스님네들이 나와서 절을 지어놓고 의젓하게 법상에 올라 법문을 하기도 한다. '다만 법부의 지혜만 지워라, 별로 성현의 지혜란게 없느니라.' 이렇게 온갖 장면들을 다 보여주다가 나중에 홍동지라는 어린아이가 발가벗고 나오는데, 자지가 어찌나 크던지, 제 키보다 큰 그것을 어깨에 을러메고 나와서 그것으로 이리치고 저리치면, 춤추고 놀던 놈들이 쫓겨 어디로든 숨고 사라진다. 법사고 사자고 간에, 이 물건으로 치면 다들 사라지니 사람들이 웃고 야단이다."



스님은 이것이 불법(佛法)의 심오한 법문 중의 법문이라고 찬탄한다. 여기 산대의 네 기둥은 인간과 세계를 구성하는 지수화풍(地水火風)을 상징하고, 거기 노는 허수아비들은 인생의 울고 웃는 모습들을 빗대고 있다.

이 허수아비들의 연출자는 그 장막 밑에 있다. 연출자가 주인공이라면 홍동지는 '벌거벗은(淨裸裸) 지혜'라 할 것인데, 이 지혜의 방망이 앞에 분별과 차별의 온갖 모습들은 지워지고, 온전한 순금의 당체(當體)만 오롯이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중국의 여배우 꽁리가 주연한 <인생>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그림자 놀이를 기억할지 모르겠다. 손가락 위에 올려진 다양한 인형들의 동작을 장막에 비추고, 거기다 변사의 입담을 곁들이면, 음모와 전쟁, 사랑과 이별의 드라마가 실감나게 펼쳐진다.

우리네 삶이 그렇다. 이렇게 책도 읽고 컴퓨터도 치고, 근엄하게 정치도 하고, 사기도 치고 당하기도 하고, 울기도 웃기도 하는 희노애락 중중무진의 꼭두각시가 동에 번쩍 서에 번쩍 하고 있다.

사람들은 대개 이들 꼭두각시들을 자신과 동일시한다. 자아(自我) 혹은 페르소나(persona)에 익숙하다 보면, 문득 "나는 어디 있지"하고 돌아보는 때가 온다. 자기 아닌 것에 자신을 맡겨버린 이 일상화된 비극을 현대철학과 종교는 '소외'라는 이름으로 부른다. 그럼 주인공은 어디 있는가. 불교는 이 물음을 끌어안고 해결을 모색하는 개인화(individuation)의 순례요 등정이라고 할 수 있다.

책을 덮고 길을 나서라

책을 열어야 길을 확인할 수 있지만, 책을 덮어야 길을 나설 수 있다. "말이 너무 길고 많으면 재미가 없다... 능금이나 배를 한 개 다 먹어야 맛을 아는 것이 아닌 것처럼…."

관건은 역시 삶이고 경험이다. 말을 이해하고, 소식을 접하려면 직접 격외(格外)의 실참을 해 나가는 수밖에 없다. 스님은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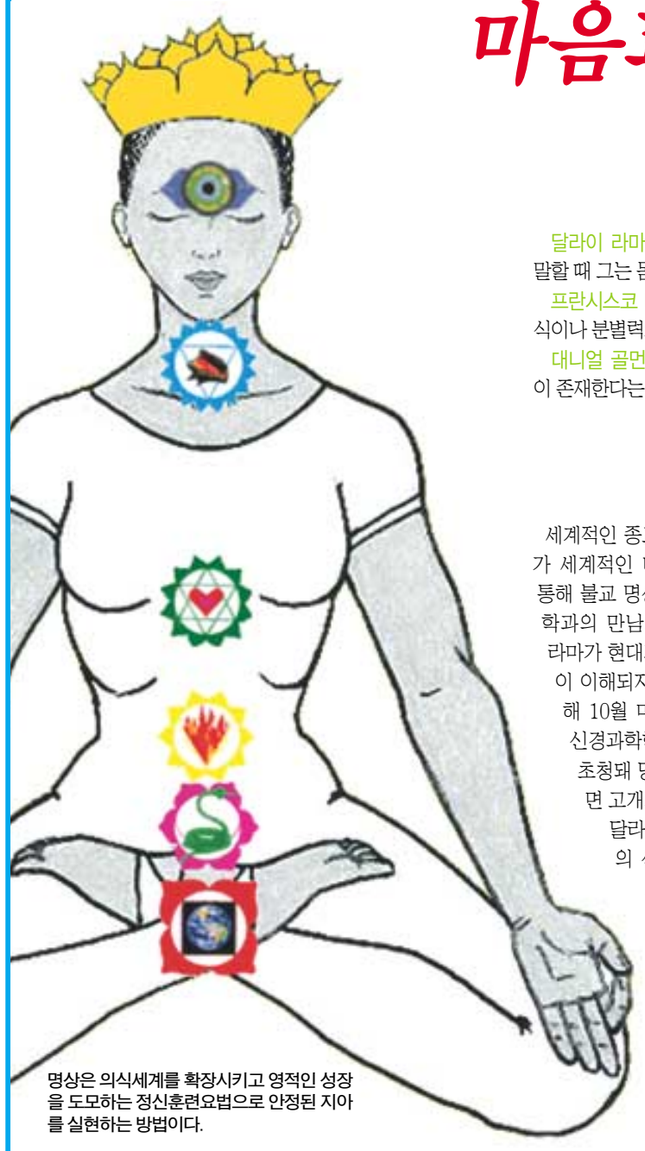
"과수원의 과목 키우는 법을 배우는데, 칠판 강의를 듣거나, 말과 글로써 배우더라도 자기가 직접 과수원에서 이삼십년간 과목을 키워보면 선생에게 배운 그 이상의 것을 자기도 모르게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된다."

수처작주(隨處作主, 立處皆眞)! 우리는 각자의 보고서를 준비해야 한다. 때가 되면, 우리 자신이나 혹, 저 위의 누군가가 틀림없이 보자고 손을 내밀 것인 즉….

■한국학중앙연구원

cafe.buddhapia.com/community/plan_14

마음과 몸 그 치유의 비밀



명상은 의식세계를 확장시키고 영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정신훈련요법으로 안정된 지아를 실현하는 방법이다.

달라이 라마 기쁨처럼 육체적인 감각을 느낄 때, 면역계가 개입할까요? 불자가 몸의 자각에 대해 말할 때 그는 몸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프란시스코 바렐라 저는 불교전통에서 말하는 몸의 자각을 어떤 사상, 즉 몸에 대해 작동하는 의식이나 분별력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역계는 어떤 의미에서 바로 '나' 입니다.

대니얼 골먼 우리 세포들이 행동하는 방식으로부터 배운 불완전하나 다르마(Dharma)와 같은 것이 존재한다는 결론에 이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윤리체계를 위한 생물학적 근거가 될 수 있죠.

세계적인 종교지도자 달라이 라마가 세계적인 대석학들과의 대화를 통해 불교 명상수행과 현대 신경과학과의 만남을 시도한다. 달라이 라마가 현대과학을 얘기한다는 것이 이해되지는 않지만 이미 지난 해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신경과학학회 연례회의에 특별 초청돼 당당히 강연한 것을 알면 고개가 끄덕여 질 것이다.

달라이 라마는 1만4000명의 신경과학자들과 두뇌와 면역계의 연관성에 대해 강의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 책 <마음이란 무엇인가>는 1990년 EQ의 제창자인 심리학자 대니얼 골먼을 비롯한 신경과학, 생리학, 행동의학, 심리학, 철학 분야의 저명한 서양학자들과 정신과 신체, 감정과 건강의 상호연관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론한 내용이다. 여러분야의 세계적인 석학들과의 대담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대화는 과학, 철학, 심리학 등 다양한 영역을 넘나든다.

책에서는 질병을 치료하는 데 시술과정과 결과를 명료하게 확인할 수 있는 치료법만이 아닌 인간의 정신과 의식도 중요하다고 말한다. 따라서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돌보는 것이 신체적 ·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 달라이 라마, 세계 신경학계 석학들과 만나
- 과학 철학 심리학 등 다양한 영역 넘나들며
- 열띤 토론 통해 '마음과 몸' 상호연관성 찾아

1부 '몸의 윤리학: 몸이 가르치는 것'에서는 마음을 바라보는 동서양의 각기 다른 관점이 인류의 보편적 윤리 기반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진다. 고통을 주고 기운을 돋우는 감정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얘기한 부분은 흥미롭다.

2부 '생물학적 근거: 마음이 몸을 치유한다'는 두뇌로부터 독립된 의식이란 과연 존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달라이 라마와 신경과학자들 사이에 팽팽한 논쟁이 이어진다.

3부 '의학과 효과적인 방법: 현대 과학으로 정념의 효과를 밝힌다'에서는 의술로써 정념의 효과에 대한 분석도 등장한다.

4부 '감정과 문화: 동서양의 비교'에서는 동양문화와 서양문화는 감정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집중적인 토론이 진행된다. 기독교와 불교전통에서의 미덕은 무엇이며, 자존감의 뿌리에 대한 동서양의 차이를 알아본다.

5부 '의식의 본질'은 두뇌로부터 독립된 의식은 존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6부 '보편적인 윤리'에서는 자비와 애정이 인류 보편의 윤리기반임을 설명한다.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주제가 등장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기조발제를 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장 전체의 주제를 명확히 하고 있다. 가히 최신과학과 인문학 사이의 지식경연장을 방불케 하는 것이다.

중요한 내용은 '마음이 몸은 물론 세상 모든 것들과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불교의 주장에 대해 서양에서도 동의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밝혀낸 것이다. 서구의 최신과학이 마음과 몸의 긴밀한 상관관계를 발견했다는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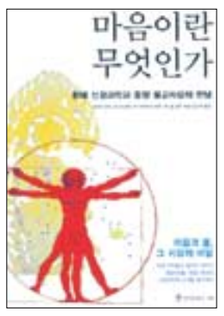
이들은 실험을 통해 그것을 증명하기도 했다.

미국 듀크대 메디컬 센터에서 노인 4000명을 대상으로 6년간 벌였던 조사의 결과는 참으로 놀랍다. 한달에 한 번 이상 기도나 명상을 한 노인들이 수행을 하지 않는 노인들에 비해 더 오래 살 확률이 50%나 높았다.

그런가 하면 UCLA 등이 목 부분에 동맥경화가 있는 이들 60명을 7개월간 관찰한 결과, 하루 2번씩 명상을 한 환자들은 동맥 속의 혈전이 뚜렷하게 줄어들었고 그렇지 않은 환자들은 동맥경화가 심화됐다고 한다.

그간 신비스럽고 모호한 것으로만 여겨졌던 동양의 수행법들이 점차 과학적으로도 그 효과를 명백하게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마음이란 무엇인가
달라이라마 외 지음
씨앗을뿌리는사람
1만2800원

네티즌 강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나는 왜 자꾸 짜증만 낼까



식구생각(가장 사랑했을때는 차마 사랑한다 말하지못한)
세종서적, 윤문원 지음

부모님의 곁을 떠나 타지에서 생활한지도 이제 10년을 가까워지고 있다. 막상 그리울 때는 전화기를 들어보지만 막상 통화가 되면 순간순간 짜증을 내기도 하면서 가족들을 대해왔다.

결국 마지막에 돌아갈 곳은 가족의 품이다. 즐거울 때, 힘겨울 때, 답답할 때 등 세상의 거의 대부분의 일들을 가족과 함께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막상 일상에서는 쉽게, 가장 내 기분대로 대하는 존재가 가족이 아닌가 싶다. 누군가 그랬던가.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존재를 잊기 쉽다고.

이 책을 읽으며 때로는 눈물짓기도 하고, 입가에 미소를 머금게 되는 나를 발견함과 동시에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새롭게 느끼게 되는 것 같다.

가장 쉽게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이지만 가장 아련하게 가슴속으로 다가오는 이야기들이 가득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가족들에게 안부전화 한통화라도 소중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주변에 책을 선물해주고 싶은 기분이 든다.

(hamin2000, book.naver.com/bookdb)

수녀원에서 나온 그녀, 새 종교와 만나다



마음의 진보 교양인, 카렌 암스트롱 지음

이 책의 저자인 카렌 암스트롱은 지금보다도 더 보수적이었을 1960년대, 다른 이들처럼(?) 수녀원에서 온 마음을 바쳐 기도를 해야만 했다.

수녀원을 벗어나 대학에 진학했을 때, 그녀는 '전직수녀'라는 이름으로 과대 포장되었고, 세상 어느 곳에도 자신이 속할 수 없다는 사실을 느꼈다. 또 그 어떤 아름다운 시에도 반응할 줄 몰랐다.

그녀의 삶은 되돌릴 수 없이 파괴된 듯했다. 하지만 어이없이 박사학위를 상실하고 간질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그녀가 살기 위해 버둥거리면서 접한 또 다른 종교들이 그녀를 크게 만들었다.

그녀의 글은 그녀의 삶을 담고 있다. 억지로 공감대를 이끌어내려 들지 않았기에 오히려 마음에 와 닿는다. 하지만 이 책을 통해 그녀의 깨달음까지 모두 내 것으로 만들 순 없다. 마음을 움직여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은 전적으로 내 몫이니 말이다.

명백한 것은 누군가의 삶을 답보로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면 그것은 이미 종교가 아니라는 것이다. (평범한 여대생, aladdin.co.kr/blog/mylibrary)

책속의 밑줄긋기



○… 농촌 살리기' 및 생협물품 유통회사 설립 및 다양한 지역 문화활동을 통한 조합원의 '일자리 만들기 · 나누기'의 구체적 실천 방안은 'Pal(동료) System(제도)'이다. 'Pal System'이란 각 개인의 상황에 대응해서 언제 어디서건 대응할 수 있는 사업 형태에 도전해 가는 무점포를 말한다.

Pal System은 '직거래'와 '환경' 사업의 실천이 가장 큰 특징으로, 먹거리와 농촌을 지탱하는 '직거래'와 순환형 사회를 추구하는 '환경'이 Pal System의 출발점이다.

두 번째는 '생활과제 해결' 사업이다. 생협 구성원의 생활을 직시하고 생활 과제를 정확히 발굴하여 필요로 하는 조합원에게 '생활과제 해결'을 지원 혹은 구체화한다. 세 번째는 '함께 창조하는' 것을 중시하는 조합원 참가와 '도전정신'이다. -<생협 인프라의 사회적 활용과 그 미래> 본문 156쪽에서, 푸른나무, 일본 21세기코프연구회 엮음

불서구입은 www.yosiamun.com

바로보인의 책을
대원 문재현 선사님 역저 / 저서
전강 대선사님의 인가계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억겁의 무명을 일깨우는 통쾌한 선서(禪書)!

바로보인 전등록 전5권
바로보인 무문관
바로보인 벽암록
바로보인 천부경
바로보인 금강경
바로보인 신심명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5권
바로보인 증도가
바로보인 반야심경
바로보인 선가귀감
영원한현실
선을 묻는 그대에게 (10권 중 2권까지)
바로보인 선문염송 (30권 중 7권까지)
세월을 북채로 세상을 북삼아
앞뜰에 국화꽃 곱고 북산에 첫눈 희다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선(禪) 법문 안내>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전면목을 엿볼 수 있는 선가귀감
서울법회가 6월 4일 일요일 오전 11시에 열립니다.
매월 첫째주 일요일 정기법회입니다. ☎02-522-0122
전국 대원 문재현 선사님 법회
•광주선원
선문염송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후 2시 ☎062-944-4088
•부산선원
금강경 / 매월 넷째주 일요일 오후 3시 ☎051-545-2460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하세요
☎02-522-0122 www.zenparadise.com

수제화로 제작
상표등록 : 614981호
滿 가득할 만 行 행 靴 화
■ 소재특징 : 방수 극세사 원단. 논스립 미끄럼 방지. 특수 우레탄 소재
사계절 단화

지압식 깔창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흑
(키높이 특수제작)
망사 단화

콜크 中창
• 가격 : 6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흑
(키높이 특수제작)
기능성 지압 깔창

(중) 발냄새 무좀방지
• 규격 : 215-290mm
(크기에 따라 조절가능)
• 가격 : 20,000원
좋은점
만행 포행시 단정함 유지, 색상에 따라 사부대중의 선택, 발 건강을 위한 3cm 굽 높이로 만들어져 발로 인한 몸 건강에 도움을 주며 특히 지압식 '발바바' 깔창은 특수 항균 실리콘 고무로 만들어져 불교의 예절에 절을 많이 하시는 사부대중님의 발관절에 도움주는 특수 지압식 인솔입니다. 어떠한 신발에도 지압 인솔을 착화하시고 걷는 것만으로도 발바닥을 지압하여 운동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 및 주문전화 : 02)927-5715
011-9000-5715
■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자민) ※ 보시 하실 분 상담 환영
전국매장
•부산 : 원광사 051)636-7019 •대구 : 연꽃세상 053)426-7300
•광주 : 불교서원 062)226-6056 / 화신승복 062)228-2870
•대전 : 불교백화점 042)274-3727 •서울 : 부산승복 02)738-8407



복달마! 돈달마!
무엇이 잘 안 풀리십니까??
가정에 평안과 행복을 안겨주는 친필달마도
황금돈이 수없이 모아드는 행운과 영험을
외면 하시렵니까??
신중기도 100일 후 출시합니다. ₩300,000원
미타정사 성각 합장
02)389-5991,2088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 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창고, 공장, 가정집 (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바로공사)
서울 · 경기도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7638-1117
전라도 : 010-2311-0157
현대칼라지붕공사

선지식의 삶과 사상 만나자

한 시대를 살다간 스님들의 생애와 교훈, 그리고 독특한 시각에서 들춰보는 이야기등을 엮은 책이 연이어 발간되고 있다. 최근에 나온 책은 〈일연을 묻는다(현암사)〉 〈서산– 조선을 뒤엎으려 하다(정보와 사람)〉 〈사명대사 난중어록(무이정사)〉 〈동쪽 산이 물 위로 간다–영암스님 이야기(화남)〉 등이다. 이에앞서 올 상반기 원효 스님의 삶을 그린 한승원의 장편소설 〈원효1, 2, 3〉, 춘원 이광수의 장편소설 〈원효대사1, 2〉, 한암 스님 회상에서 수행했던 25명의 이야기인 〈그리운 스승 한암 스님〉 등이 발간됐다. 이밖에도 〈한용운 채근담–마음의 사색〉, 〈퇴옹성철의 깨달음과 수행〉, 〈숭산 스님의 선학강좌〉등도 나왔다.

일연 스님

'삼국유사' 행간에 숨은 의미 샅샅이 파헤쳐



〈삼국유사〉를 쓴 일연 스님(1206~1289). 일연 스님은 다양한 사회적 관심을 표명하고 있고, 걸어간 사상의 궤적도 복잡하다. 무인정권의 혼란, 몽골과의 전쟁, 몽골을 대리해서 치러야 했던 일본 정벌등 그 고난의 시대인 13세기의 중심에 일연 스님이 서있다.

이번 현암사에서 출간한 〈일연을 묻는다〉는 일연 스님의 행적을 뒤쫓아가 삼국유사의 행간에 숨은 의미를 샅샅이 파헤친 13세기 여행 보고서다.

삼국유사 전문가 고운기(연세대 국학연구원) 교수가 일연비문에 남아 있는 기록과 삼국유사 이야기를 토대로 일연의 일대기를 선보이고 있다.

이 책의 책장을 넘기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13세기의 시간과 공간' 지도. 고려 무인정권과 새로운 질서 속의 몽골을 비교하면서 13세기의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또 스님의 행적을 따라 글 중간중간에 눈길을 사로잡는 현장 사진을 수록했다. 강화 강화산성및 선원사터, 경산 도동재, 경주 감은사터 · 계림 · 남산, 대왕암 · 분황사 · 서출지 · 앙압지 · 원정교지, 김해 수로왕릉, 남해 대사리, 달성 남평문씨세거지, 밀양 민어산, 창녕 우포늪, 포항 오어사등의 사진이 그것이다.

특히 일연의 탄생과 입적까지의 생애와 사건을 연표로 만들어 학생들이 쉽고 재미있게 역사 공부를 할 수 있다.

한편 일연 스님은 9세에 고향 경산을 떠나 광주 무등산 무량사에서 출가했으며, 22세에는 승과에 수석합격한다. 51세에 남해의 정림사를 떠나 길상암으로 옮긴 후 〈중편조동오위〉의 편찬에 들어가, 5년 만에 찬술을 끝낸다.

이후 스님은 폐주였던 충렬왕을 가까이서 1년간 위로할 책임을 맡게 된다. 충렬왕은 그후 복귀하여 스님이 일흔여덟 되던 해에 국사로 책봉한다. 국사의 소임을 마치고 하산소로 정한 인각사에서 스님은 〈삼국유사〉를 썼다.



일연을 묻는다
고운기 지음 | 현암사 | 1만5000원

서산 대사

암호바위 해독 바탕 스님의 궁극적 이상 추적



사람들이 쉽게 드나들 수 없었던 지리산 깊은 골짜기 계곡 한가운데 위치한 바위에 암호화 된 문자 도형이 새겨져 있다. 이곳에서 가까운 곳에는 서산대사(1520~1604)가 〈삼가귀감〉을 썼던 내은적암터가 있다.

암호문자인 새김글자 네자는 한자이름 최흥명(崔興命)에서 나왔으며, 서산대사를 가리키는 비밀이름이었다.

그렇다면 금강산과 함께 조선시대 당취(땡초)의 양대 본거지였던 지리산 속의 암호문자가 갖는 당취와의 역사적 관련성은 무엇인가?

손병욱 교수(경상대 윤리교육과)가 지은 〈서산, 조선을 뒤엎으려 하다〉는 지리산 첩첩산중에 자리잡은 마을 '단천'에서 발견한 글자가 새겨진 바위를 모티브로 서산 대사를 중심으로 한 조선조 반체제 승려집단인 '당취(땡초)'의 역사를 추적한다. 암호바위의 해독을 바탕으로 서산 대사의 밝혀지지 않은 면모, 역성혁명을 통해 그가 이루고자 했던 궁극적인 이상 등을 살펴본다.

모두 7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책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암호문자의 주인공이 역성혁명을 도모할 것임을 나타내고, 그 준비로 당취 조직으로 볼 수 있는 승병을 조직, 관리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이는 임진왜란시에 서산 대사가 역성혁명을 준비했으며, 조직이 있었기에 승병장으로 활약하게된 기반이 되었다는 것이다.

또 저자는 서산 대사가 당시에 단군으로 자처한 당취계열의 신불승(神佛僧)이었다고 주장한다.

특히 서산 대사가 왕조자체를 바꾸어 온 땅을 청학동으로 만들고자 했음을 들춰내고 있다.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조선 4대 서예가인 봉래 양사언과의 교분, 그와 나눈 서간 속에서 정교하게 숨겨진 증거를 끄집어내고 있다.

저자인 손병욱 교수는 "서산 대사는 역성혁명으로 기본이 바로 잡힌 사회, 백성들이 살기좋은 세상을 만들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서산, 조선을 뒤엎으려 하다
손병욱 지음 | 정보와사람 | 1만2000원

사명 대사

선봉에 선 의승의 모습 수행자의 풍모 등 그려



왜군을 무찌른 승병장이며, 문무를 겸비한 걸출한 선승이자 고승인 사명대사(1544~1610)의 어록을 엮은 〈사명대사 난중어록〉이 나왔다.

이 책은 경남 밀양 표충사 소장 〈사명대사집〉 목판본 중 임진왜란 당시의 난중일기와 임금 선조에게 올린 상소문, 재상들과 주고받은 서간과 전별시, 왜장들과 주고받은 서찰 등이 실려 있는 〈분충서난록〉을 역주한 것.

내용은 조선시대의 대표적 고승인 사명 대사의 생애는 물론, 한국 불교사상의 흐름, 임진년 당시의 사회상이 수록돼 있다.

생애 부분에서는 1592년 4월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전국 각지의 의승(義僧)들과 함께 왜적을 물리치는 호국전쟁의 선봉에 서게 된 사명 대사의 모습이 그려진다.

서산 대사의 천거로 선조 임금으로부터 '선교양종 팔도도총섭'을 제수받은 사명 대사는 오랜 세월을 전장에서 보내게 된다. 1597년 선조의 명령을 받고 일본으로 건너갔을 때 왜장이 조선에 보배가 있느냐고 묻자 "우리나라에는 없고 오직당신의 머리가 바로 조선 민족의 보배"라고 대답해 적장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일화도 소개된다.

또 승병으로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느낀 여러 가지 소회와 충정, 도반들과의 애틋한 마음, 세월에 대한 무상함이 잘나타나 있다.

저자인 무이 거부 스님은 "표충사에 주석하면서 사명 대사의 유품을 열람하다가 목판본 판각을 발견했었다"며 "대사의 어록이 세상에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 〈사명대사집〉을 그대로 옮기면서 정리하여 주해를 달아 발간하게 됐다"고 밝혔다.

무이 거부 스님은 또 "현재 일반 학계에서 사명대사의 이름을 '泗溟'으로 쓰고 있으나, 이는 목판 원문을 확인한 결과 오기임이 명백하고 '四溟'이 옳다"고 주장했다.

무이 거부 스님은 지난해 3월 〈사명대사어록〉을 발간한 바 있다.



사명대사 난중어록
무이 거부 지음 | 무이정사 펴냄
1만8000원

영암 스님

근대 불교계의 거봉이 '금강경'으로 푼 지혜의 삶



운문선사에게 누군가가, "부처님은 어디서 생겼습니까? 모든 부처님이 어디서부터 생겼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 대답이 "동쪽산이 물 위로 간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 공부를 해서 부처님이 나온 곳을 알아 맞춰 보라는 말입니다. 그것만 알면 그만입니다.

근대 불교계를 대표하는 스님중 한명이며 조계종단의 어른으로 부처님의 말씀과 믿음을 그대로 간직한 채 실천행을 보여준 영암 스님(1907~1987).

스님은 경을 읽으면 부처님이 어디서 생겼는지 알 수 있다고 말한다. 영암 스님이 〈금강경〉을 재미있고 쉽게 설법한 내용을 묶은 열반 19주기 기념집으로 〈동쪽 산이 물위로 간다〉라는 책이 발간됐다.

이 책은 총 24부에 걸쳐 욕심 버리기, 자기 안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기 등 깨달음을 얻기 위한 원리와 수행법을 알려준다.

스님은 밝은 마음을 갖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달라지고, 보살이 되기위해서는 욕망을 버려야 한다고 설명한다.

또 마음을 비우고 자비스럽게 행하는 모든 일상의 행동들이 곧 부처에 이르는 길이며 육바라밀을 잘 닦아야 해탈을 이루고, 중생이 참된 상을 보려면 지혜를 길러야 한다고 설한다. 우리나라 불교의 발자취를 소개하고, 계정혜 삼학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길도 제시하고 있다.



동쪽 산이 물 위로 간다
원혜 스님 옮김 | 화남출판사 | 1만2000원

yosiamun.com 추천도서

· 기도	명진출판사, 틱낫한, 9000원
· 티벳 사자의 서	정신세계사, 파드마삼바바, 2만원
· 마음 탓이다	시공사, 지수스님, 9500원
· 꿈 미래의 열쇠	대유학당, 현오스님, 2만원
· 선, 침묵의 천둥소리 1	김영사, 김시행, 1만900원

도서주문 (02)2004–8220

인생에 단 한 번 만날 수 있는 경전!

삶의 지침서 〈인생경〉이 오랜 침묵을 깨고 드디어 새롭 게 창간 탄생되다!

우리의 인생을 행복으로 인도하는 〈인생경〉!
〈인생경〉을 접하는 날로부터 인생이 달라진다!
〈인생경〉을 읽으면 운명이 바뀐다!
자녀들에게 사람답게 사는 길, 미래의 꿈을 심어주는
인생 지침서 〈인생경〉!
가정, 일터, 열심히 살아가는 삶의 현장마다 한 권씩
평생 지혜의 보감으로 대물림할 수 있는 책 〈인생경〉!

김기상 지음 / 704쪽 / 양장 / 4×6배판 변형 / 32,000원

- 동서고금 여러 성현들의 말씀 중 삶에 직결되는 말씀만 골라서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저자가 21년 동안 평범한 인생의 언어로 풀어쓴 인생의 경전!
- 하루에 한 번 아무 곳이나 펴서 읽으면 남녀노소 누구나 특정 종교나 사상, 이념에 구애받지 않고 살아가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5,457구절의 주옥같은 명언, 명구!
- 논술, 글쓰기 교육이 따로 필요 없다! 우리 겨레 고유의 베갯머리 교육, 무릎 위 교육 부활 선언!

주문처 서울(본사) 02-373-8184, 010-2246-8184/종로 010-7143-8325/보문동 010-2241-3661/수색 010-5561-1071/남가좌 011-270-6356
서초 010-4232-8833/목동 010-2241-6151/동작 010-5500-6646/신림 016-781-5917/서울대 011-9711-1554/낙성대 011-9998-8832
안양 011-249-3499/인천 010-2415-7500/인천 019-362-2913/부천 010-6484-4944/부천(박세기) 011-736-4948/안산 011-9784-4432
대구 010-7323-9900/인덕원 011-227-2421/의왕 010-8008-2857/부산 010-8629-1839/울산 010-4200-5723
총판 및 대리점 모집 문의 02-373-8184/010-2246-81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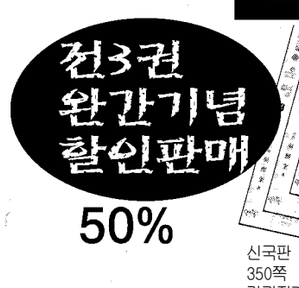
도서출판 백교 전화 02-373-8184 / 팩스 02-302-4818 baikkyo@dreamwiz.com / http://blog.naver.com/baikkyo

"운명"을 읽고 나면 대운(大運)이 성공이 보인다!!!

마음과 운명을 바꾸어 주는 책 ○ 오희규 실화소설 운명

■주요수록내용■
궁합이야기
성기가 말을 안들어요
딸이 미쳐가고 있어요
의처증 이야기
바꿔 놓고 생각하기
실수의 흔적
처제와의 불륜
육체란 무엇인가?
입시이야기
성형수술이야기
제발 시집가고 싶어요
세번 결혼한 검사님
잉태와 섹스의 비밀
남편과 제발 헤어지게 해 주세요
두번 태어난 보일러공의 행복
성공하는 사람은 다르다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노처녀의 사랑이야기
넘치는 정력을 주체할 수 없어요
자신의 처지를 겸허히 인정하라
운명을 바꾸는 법

■책속 부록■
▶생일로 알수 있는 내 몸의 건강
▶꿈 해몽 비법 ▶띠로 보는 궁합
▶달로 보는 궁합 ▶시(時)로 보는 궁합
▶날짜로 손(살성) 보는 법 ▶삼재법



건3권 완간기념 할인판매
50%
신국판
350쪽
각권정가 10,000원

소설<운명>은
50%의 중간이익금을
독자에게 직접드리기위하여
서점을 통하지 않고
통신판매를 하고 있으며
책값은 책을 받으신 후
입금하시면 됩니다

전집구입시 15,000원 후불제!
(062)266-1083, 266-6693
으로 전화주시면 책 먼저 보내드립니다
입금계좌:(예금주:오희규)
농협 601175-52-016521

서울 · 마포구 아현3동 618-22
전 화 (02)365-8172
팩 스 (02)365-8173
홈페이지:www.indeenet.co.kr

연락처(우편번호 500-500)
광주광역시 북구 청옥(망월)등374-2번지
전화: 062-266-6693

■ 윤범모 교수의 '평양 국보전'을 보고




왼쪽부터 평양 진파리 7호 무덤에서 나온 금동 맞뚫음 장식, 신계사 향완, 태조 왕건상.

'금동 맞뚫음 장식' 걸작 중 걸작

실물크기 '고려 태조상' 하이라이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 '평양국보전'에서 조선시대 금동보살상을 살펴보는 관람객. 사진=고영배 기자

서울에서 평양의 국보들을 본다. 이는 분단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실로 경하할 일이 아닌가. 남북 교류의 본격적 서막은 바로 국보의 교환전시에서 상징성을 찾을 수 있다. 냉전시대를 마감하면서 미국과 소련이 처음으로 실시한 사업은 바로 미술품 교환전시였다. 이번 평양에서 온 진귀한 문화유산은 우리가 한민족 공동체임을 한눈에 알려준다.

특히 실체를 확실히 알 수 없었던 북녘의 국보급 문화재와 미술품을 한자리에서 음미할 수 있는 자리여서 의의는 더욱 깊다. 이번 출품작은 평양 조선미술박물관 소장 회화작품 20점을 포함, 평양 조선중앙력사박물관 소장품 등 90점이다. 나의 평양 방문시 이들 박물관에서 상당수는 이미 감상한 작품들이나, 또 상당수는 처음 보는 작품이기도 하다. 어떻든 감회가 깊다. 서울에서 평양의 국보들을 보다니!

전시의 명칭은 '북녘의 문화유산 평양에서 온 국보들'(국립중앙박물관, 8월 16일까지)이다. 전시는 구석기시대에 해당하는 평양 검은 모루 유물부터 고조선시대의 토기, 칼, 거울, 구슬 등으로 이어진다. 고구려와 발해의 미술품은 우리 민족의 기상을 힘껏 자랑한다.

평양 진파리 7호 무덤에서 수습된 '금동맞뚫음 장식'(5~6세기)은 걸작 중의 걸작이다. 고구려의 대표적 금속공예품으로 칭송을 받고 있는 이 미술품은 짜임새 있는 디자인 감각과 세련된 금속 주물기술로 우리를 감탄하게 한다. 중앙의 삼족오(三足烏)를 비롯 용과 봉황의 역동적인 자태는 너무나 아름답다.

'영강(永康)7년명 금동 광배'(551년)는 비록 불신(佛身)을 잃었지만 불꽃과 연꽃무늬의 아름다움이 돋보인다. 특히 광배 뒷면의 명문은 제작연대와 본존상이 미륵상임을 알게 한다.

고려시대의 미술품은 각별하다. 하기야 세계적 명성의 고려불화, 고려청자의 시대가 아니었던가. 이번 출품작 가운데도 뛰어난 작품이 여러 점 있었는데, 예컨대 정교한 은입사 기법의 문양이 새겨진 '신계사 향완'(1352년), 쇠북(靑銅金鼓), 화로, 범종, 지팡이 장식, 금동소탑, 사리함 같은 공예품을 들 수 있다.

특히 불상에서 '개성 관음사 관음보살'은 특이하게도 대리석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보살의 전신에 화려한 장식을 이루어 관음의 자비심과 아름다움을 듬뿍 자아냈다.

그외 '금동구면(九面)관음보살'은 11면관음과 연계된 특이한 작품이다. 2종류의 '금동아미타삼존불'이라든가 '금동보살상' 등 평양소장의 불상도 눈길을 끈다.

이번 전시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고려 태조상'이다. 1992년 개성의 왕건릉 개건공사 당시 발굴된 작품이다. 처음에는 청동불상으로 오인했지만 이내 왕건 태조의 동상으로 수정되었다. 실물대 크기의 이 동상은 나신(裸身)이지만 원래 비단옷을 입었으며 사실적 묘사로 희귀한 작품이다. 통천관(通天冠)을 쓰는 등 왕건을 황제로 추앙한 매우 이례적인 작품이지 않을 수 없다. 고려의 불상과도 연계할 수 있는 작품으로 고려인의 추앙을 받다가 조선 세종시대에 매장되었다 근래 햇빛을 본 작품이다.



■ 경원대 · 미술평론가

국보 보물 60점 한눈에

호림박물관 소장 국보展
'현재의 국보, 미래의 국보'
6월 23일~8월 31일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독특한 '청동소탑', 한질이 온전하게 남아있는 고려시대 〈백지묵서묘법연화경〉(국보 제211호), 현존 사경 가운데 가장 화려한 〈감지금대방광불화엄경보현행원품〉(보물 제752호), 고려시대 불교문화의 진수로 평가받는 '금동대세지보살좌상(보물 제1047호)' 등 평소 접할 기회가 없었던 문화재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6월 23일~8월 31일 서울 호림박물관(관장 오윤선)에서 열리는 '호림박물관 소장 국보전'에는 〈초조본아비담비파사론〉권제11 • 17(국보 제268호) 등 국보 8건 16점, 지장시왕도(보물 제1048호) 등 보물 44건 49점, 청자상감국화문표형병(서울시유형문화재 제194호) 등 서울시유형문화재 6건 6점이 관람객들을 만난다.

특별전의 주제는 '현재의 국보' '미래의 국보'. '현재의 국보'에는 국가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65점의 유물을, '미래의 국보'에는 지정가치가 높은 비지정 문화재들을 중심으로 60여 점의 유물을 소개한다.

호림박물관은 전시 기간 중 매일 오전 11시, 오후 3시에 학예연구원이 전시 유물을 설명하는 특별전 설명회를 개최해 관람객들의 이해를 돕는다.


〈감지금니대방광불화엄경보현행원품〉 권34(보물 제752호).


백자청화매죽문호(국보 제222호).


금동대세지보살좌상(보물 제1047호).

고려시대 청동소탑, 구성 독특
금동대세지보살좌상, 장식 화려

이번 전시에서 처음 공개되는 명품은 무엇일까?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청동소탑(靑銅小塔)'이 처음 그 자태를 드러낸다. 파손된 부분이 거의 없이 보관된 청동소탑은 탑의 각 부분이 정교하게 묘사된 것이 특징이다. 탑 앞에 탑과 불상이 배열됐고 탑신에도 공양상이 서 있는 등 구조의 특별함을 자랑한다. 이 같은 구성은 현존하는 다른 소탑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구성이다.

사례가 매우 드문 조선 후기 사경 〈감지금니묘법연화경〉卷1~7의 완질이 첫 선을 보인다. 이 사경작품은 1764년 당시 유명한 화승(畵僧) 신겸의 작품이다. 조선 후기 불교미술의 한 획을 긋는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첫 선을 보이는 이들 '명품' 외에도 원삼국시대 토기에서부터 청자 분청사기 등 도자기, 지장시왕도 등 불교미술품, 초조대장경 등 전적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화재들이 자리한다.

■ 전시되는 국보들

국보 제179호	분청사기박지연어문편병
국보 제211호	〈백지묵서묘법연화경〉권1~7
국보 제222호	백자청화매죽문호
국보 제266호	〈초조본대방광불화엄경주본〉권2 • 75
국보 제267호	〈초조본아비달마식신족론〉권12
국보 제268호	〈초조본아비담비파사론〉권11 • 17
국보 제269호	〈초조본불설최상근본대락금강불공삼매대교왕경〉권6
국보 제281호	백자주자


〈초조본아비달마식신족론〉 권21(국보 제267호).

'금동탄생불(보물 제808호)'과 '금동대세지보살좌상(보물 제1047호)'은 전시 불상 가운데 대표적인 작품이다. 금동대세지보살좌상은 적당한 비례와 단아한 몸매, 화려한 장식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고려시대 불교문화의 진수로 평가되고 있다.

〈백지묵서묘법연화경〉 권1~7은 한 질이 완전하게 남아 있는 보기 드문 고려시대 사경작품이다. 〈감지금니대방광불화엄경보현행원품〉 권34는 현존 사경 가운데 가장 화려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내에 200여 축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초조대장경〉 가운데 〈초조본대방광불화엄경〉권2 · 75(국보 제266호), 〈초조본아비달마식신족론〉권12(국보 제267호) 등이 공개된다.

〈초조대장경〉은 12세기 고려 인쇄문화의 수준과 불교계 동향을 한 눈에 알 수 있는 사료로도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곡선미가 일품인 '청자음각연화문팔각장경병(보물 제1454호)', 철화청자(鐵畵靑磁)로는 유일하게 남아있는 '청자철채박지퇴화연당초문장고', 분청사기의 백미로 꼽히는 '분청사기박지연어문편병(국보 제179호)', '분청사기철화당초문장군(보물 제1062호)', 조선시대 청화백자 가운데 최고 걸작으로 꼽히는 '백자청화매죽문호(국보 제222호)' 등도 주목받는 '명품'들이다. (02)858-2500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이번에 처음 공개된 '미래의 국보' 청동소탑(고려시대).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와 현대불교신문 공동 캠페인

'2006 군포교 합시다'

찬불가 반주기 군법당에 보내기

우리의 불자 장병들이 활력 있고, 보람찬 병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후원합시다!!!
군대에서 불교를 처음 접하는 장병들이 "찬불가-하나로반주기"로
찬불가를 배워 신행생활의 기쁨과 성불의 연을 맺게 합시다.

KY Kumyoung Life is Entertainment
세계최초 육성 코러스 기술개발하여 노래방기기에 도입
고객맞춤형 제품출시로 노래방문화 정착 일등공신
고객만족도 · 판매율 선두주자 '금영'



언제 어디서나 "찬불가-하나로반주기"면 OK!
세련되고 깔끔한 디자인과 이동이 간편합니다.
법회의 설법용 앰프로 사용이 가능하며,
군부대 위문 공연과 경로위안잔치 등
각종 사찰행사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포교도 "찬불가-하나로반주기"면 OK!
어린이도 찬불가 동요와 법회 의식곡 등을 쉽게
배울 수 있고 신도님들도 찬불가 가요를 송년회, 친목회,
지역법회 등의 다양한 포교활동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야외행사에서도 "찬불가-하나로반주기"면 OK!
간편한 이동과 고출력의 웅장한 사운드로 군법당이나
사찰의 야외 법회나 행사용으로 제격입니다.

■ 제품사양
• 출력 : 100W+100W . 소비전력 : 350W
• 입력전압 : AC 220V 전용 50/60Hz
• 사이즈 : 64.5(가로) × 67(세로) × 150(높이)Cm
※모니터포함
• 모니터 21인치(완전 평면)
마이크 2개(5m), 리모콘 포함
• 일반곡 23,000곡 이상 내장 ※ 찬불가 120여곡 내장

현대불교와 풍경소리가 함께하는 "찬불가 -하나로반주기" 보급 캠페인에 참여합시다.
풍경소리에서 제작한 법회 의식곡 / 찬불가 가요 / 찬불가 동요 120여곡 추가 내장

찬불가 하나로반주기 구입 및 문의 02)737-0695(직), 2004-8219(현대불교 영업1팀)


혜향 스님은 '하루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는 백장 스님의 가르침을 평생 실천하고 있다.

일하며 드는 화두 '꿀맛'

큰스님 편안하십니까

혜향 스님 (구미 문수사 주지)

양봉·과수원 일구며 항상 '이뭣고'
주민 대부분이 신도, 애경사 직접 챙겨
"시줏물 귀한줄 알아야"…자활 강조

때이른 장마를 시샘이라도 하듯 불쑥 찾아온 무더위가 한창인 6월 19일. 100호 정도가 옹기종기 모여 사는 경북 구미시 도개면 신곡리 부락에 도착하자 산 중턱에 어렴풋이 문수사가 모습을 드러냈다. 한국의 '백장 스님'이라고 불리는 혜향 스님이 선농일치를 실천하는 도량이 저기구나 하는 마음에 발걸음이 가벼워진다.

마을을 지나자 정겹게만 느껴지는 오솔길이 나타난다. 주변에는 벼포기가 실팍한 논과 사과밭이 즐비하고 아카시아 향이 가득했다. 경내에 도착하자 우리를 반기는 것은 스님이 아닌 바로 꿀벌들. 혜향 스님이 아들같이 키우고 있는 벌들이 산사를 찾아온 손님을 아는지 반갑게 인사를 한다. 경내 여기저기 피어있는 꽃들을 오가며 부지런히 꿀을 따고 있는 벌이 스님의 하루 일상을 말하는 것 같았다.

혜향 스님은 한국전쟁이 끝난 1950년대 후반 강원도 영월 법흥사에서 수행하던 중 우연한 기회에 사하촌 주민에게 양봉 기술을 배웠다. 1962년 만행으로 지금의 문수사에 잠시 머물렀을때 신곡리 주민들이 먹을 것이 없어 끼니를 거르는 현실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그래서 스님은 직접 뒷산을 일구어 밭을 만들었고 주민들을 설득해 양봉을 시작했다. 선방에 앉아 참선을 하는 것도 수행이지만 중생들과 함께 땀을 흘리며 더불어 사는 것도 수행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때부터 혜향 스님은 중국의 백장회해(百丈懷海, 769~814) 스님이 가르친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도 말라(一日不作 一日不食)'는 법어를 가슴 깊이 새기고 살았다.

"주민들이 너무 어렵게 살아서 시작한 일이 이렇게 한 평생의 살림살이가 됐어요. 몸뚱아리 놀려서 뭐 하겠어요, 죽으면 썩어 문드러질게 분명한데…. 가부좌를 틀고 화두를 드는 일이나 농사일을 하며 화두를 드는 것이 다를 바가 없어요. 모두 마음의 문제니깐."

혜향 스님의 일과는 여느 스님들과 마찬가지로 새벽 3시에 일어나 상좌 월담 스님과 함께 예불을 올리는 것으로 시작한다. 예불과 함께 잠시 참선을 한 이후 스님은 바로 양봉통을 찾아가 꿀벌들의 상태를 확인한다.

아침 공양을 하고나면 과수원에 가서 사과나무가 잘 크고 있는지 살핀다. 경내 한 모퉁이에 텃밭을 일구어 상추, 고추 등 먹을거리를 재배하며 하루를 보낸다. 먹물옷을 입었지만 장갑을 끼고 한손에는 호미를 들고 있는 모습은 영락없는 농사꾼이다. 스님은 경을 보거나 염불을 하지는 않지만 마음속으로 항상 '이뭣고' 화두를 든다. 젊은 시절 일을 하다가 화두를 놓치고 밤에 자려고 하면 큰스님들이 '오늘 하루도 헛살았구나' 하는 말이 생생했다는 혜향 스님. 몸이 피곤해 육체의 한계를 느낄때일수록 화두가 더 성성하게 살아있다고 말한다. 최근 당뇨 합병증으로 심장의 혈관이 막혀 여섯번이나 대수술을 했지만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스님은 하루도 농사일을 거르는 법이 없다.

"육체는 부지런히 움직여야 합니다. 너무 편안하니깐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다 잠시 쉴 때 번쩍 빛나는 화두의 참맛이 농사일을 수행으로 살게 하는 것 같습니다."

혜향 스님은 가끔 시간을 내 신곡리 마을 경로당을 찾는다. 같이 농사일을 하는 '도반들'을 만나기 위해서다. 스님은 주민들의 살아가는 이야기를 직접 들으며 간간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곤 한다.

신곡리 주민들은 나이를 불문하고 스님을 마을의 어른으로 생각한다. 스님이 가르쳐준 양봉을 통해 자식들을 대학에 보냈다. 스님은 지금도 마을 행사나 주민들의 애경사를 직접 챙긴다. 또한 인근 초·중등학교 학생들에게 매년 장학금을 주며 지역 사회에 봉사하고 있다. 이에 보답하듯 주민들도 부처님오신날 등 사찰에 큰 행사가 있으면 내집 일처럼 돕는다. 신곡리 마을 한 가운데 커다란 교회가 있지만 100호 가운데 문수사 신도가 97호에 이른다고 하니 신곡리 주민들과 스님간의 각별함을 쉽게 알 수 있다.

혜향 스님은 요즘 요사채 불사를 마무리 하느라 분주하다. 지난 겨울 농한기를 틈타 시작한 불사가 이제야 마무리 공사를 남겨두고 있다. 불사가 다소 늦어진 이유는 다름 아닌 예산 부족. 다른 사찰에서는 신도들의 모연을 통해 불사를 진행하지만 문수사는 오지라 스님이 직접 농사일과 양봉을 통해 얻은 수익으로 불사를 진행해왔다.

혜향 스님은 스님들도 자활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중생이 얼마나 고생을 해서 돈을 벌고 있고 그 돈으로 시주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중생구제는 모두 '공염불'이라는 것. 선방에서 수행을 하더라도 하루 한 두 시간 정도는 노동을 통해 진정한 땀의 의미를 알아야 중생의 아픔도 알 수 있고 깨달음의 길에도 빨리 도달할 수 있다고 말한다.

"평생 노동을 하며 수행해 왔지만 이제야 부처님의 법을 조금 알 것 같아요. 빨리 깨치겠다고 자신을 다그치지 말고 고목나무처럼 한자리만 지키며 열심히 정진하다보면 깨달음은 어느새 내 안에 들어와 있으니 열심히 정진하세요."

글=김두식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40년 넘는 세월 농사지으며 수행

혜향 스님은 | 1937년 경북 칠곡에서 태어난 혜향 스님은 15세에 합천 해인사로 출가했다. 16세에 상주 남장사에서 동산 스님의 6번째 상좌인 화엄 스님을 은사로 계를 받고 부산 범어사 강원에서 5년간 수학했다. 이후 직지사 강원, 조계사 강원, 영월 법흥사 등에서 경학과 참선 수행을 병행했다. 1962년 구미 문수사에 주석하면서 현재까지 '농사꾼'으로 수행하고 있다.



수행은 자기와의 철저한 약속'

혜향 스님의 가르침



몸에 대한 지나친 애착 버려야
매일 참선하면 인생 달라지고
자신의 삶 지배하는 주인공 돼



상좌 월담 스님과 담소를 나누는 혜향 스님(왼쪽).

초발심시변정각(初發心是便正覺)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 발심했을 때가 곧 깨달음을 이룬 때라는 말입니다. 그 만큼 초발심이 중요하다는 뜻이지요.

출가한 사미가 지켜야 할 덕목을 적은 경전이 바로 <초발심자경문(初發心自警文)>입니다. 신라 원효 스님이 지은 <발심수행장(發心修行章)>과 고려 중기 지눌 스님이 지은 <계초심학인문(誡初心學人文)>, 고려 후기 야운(野雲)이 지은 <자경문(自警文)>을 하나로 역은 책이지요. 오늘은 그 가운데 원효 스님의 <발심수행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출가 수행자를 위해 지은 내용이지만 재가 수행자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법화경>에는 유명한 '화택(火宅)의 비유'가 나옵니다. 늙은 부자가 어느날 밖에 나갔다고 돌아오는 길에 자신의 집이 불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달려가서 보니 아들들이 노는데 정신이 팔려 불타고 있는 집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늙은 부자가 아무리 나오라고 소리쳐도 아들들은 듣지 않았고 집이 불타고 있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결국 부자는 아들에게 온갖 보물을 주겠다고 하여 집밖으로 나오게 합니다. 여기서 불타는 집, 화택(火宅)은 생로병사(生老病死)와 우비고뇌(憂悲苦惱)로 점철된 세상을 뜻합니다.

다시말하면 중생이 사는 세상이란 불타고 있는 집이나 마찬가지며 번뇌 망상이 자신을 파멸시키리라는 지엄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불이 시시각각 다가옴을 모르는채 놀이에 몰두하는 아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중생은 평생동안 자신의 몸에 대한 애착과 온갖 욕심에 휩싸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한 몸의 욕심과 쾌락을 버리면 부처의 삶을 살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효 스님은 "이 몸뚱이는 허망한 것이고 곧 무너질 것이므로 아무리 아끼고 보호해도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세속에 대한 미련을 끊고 계행을 철저히 지켜 조사가 되고 부처가 될 목표를 세워 정진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도를 닦는 수행자가 호화스러운 비단옷을 입고 많은 것을 소유한다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좋은 음식을 먹고 애지중지 보살피더라도 이 몸은 반드시 사라질 것이며 비단옷을 입어 보호하더라도 이 목숨은 반드시 마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흙·물·불·바람의 사대(四大)로 구성된 몸은 곧 흩어지므로 오래 살 수 없습니다. 오늘도 벌써 저녁이 되고 내일이면 또 다른 해가 뜹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하루가 지나가고 하루하루가 흘러 어느덧 한달이 되며 한달이 지나서 어느덧 한해가 되고 한해 한해가 바뀌어서 잠깐 사이에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됩니다. 얼마나 시간이 빨리 흘러갑니까. 그러니 지금부터 서둘러야 합니다. 세상의 향락 뒤에는 고통이 따르게 마련이고 한번 참으면 오랜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찌 도를 닦는데 게을리 할 수 있겠습니까?

망가진 수레가 굴러갈 수 없듯이 사람도 늙으면 수행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수행을 해 보니 늙으면 기력이 쇠해서 마음먹은 만큼 몸이 따라 주지 않더군요. 한살이라도 젊었을 때 일념으로 정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재가자의 경우도 수행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생활 자체가 곧 수행입니다. 저도 한평생 농사를 짓고 살았지만 한순간도 '이뭣고'를 놓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에 화두가 잡혀 있는 것을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옛날 큰스님들이 편하면 공부가 안 된다고 했듯이 일상 생활이 바로 경계입니다. 그 경계가 있기에 화두를 더 성성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평상심시도(平常心是道)라는 유명한 법어를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문제는 바로 실천입니다. 아무리 세상사를 많이 알고 부처님 법을 많이 배웠다고 해도 실천하지 않으면 한낱 휴지 조각에 불과 합니다. 그러니 젊었을 때 발심을 하고 부지런히 노력하십시오.

수행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나와의 약속이라고 생각하고 시간을 정해 놓고 참선을 해 보십시오. 보통 내가 6시에 기상한다면 내일부터는 5시 50분에 기상하세요. 10분 일찍 일어나면 하루가 10분 더 길어지는 것입니다. 늘어난 10분동안 매일 참선을 해 보세요. 인생전체를 놓고 보았을때 엄청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매일 매일 시간을 정해 놓고 나와의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 6시부터 5분간 참선을 한다고 칩시다. 이를 지키기 위해서 저녁에 조금 일찍 잠을 청해야 하고 곡차도 덜 마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생활 속에서 약간의 변화가 나타날 것이며 결국에는 그 작은 변화가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 정진을 계속해 가다보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지배하는 주인공이 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배움이 조금 모자라도 뒤돌아보지 않고 정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 당시에 쥬리반트카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하도 어리석어 제대로 배우지를 못하자 부처님께서 너는 쓸고 닦는 일만 생각하고 실천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어리석은 쥬리반트카를 손가락질 했지만 매일 쓸고 닦던 어느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수행은 단기전이 아니라 장기전입니다. 몇 생을 걸고 하는 것이지 이 한생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급한 마음 가지지 말고 매일 매일 규칙적인 생활과 반복을 통해서 몸에 습을 들이고 평생을 정진해 나간다면 누구나 성불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열심히 수행정진 하세요.

정리=김두식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 <71>



가장 빨리 행복해질 수 있는 법

어느 해 봄날 모처럼 큰맘을 먹었습니다. 베란다에서 꽃을 한번 키워보기로 말입니다. 처음에는 거푸 실패하였습니다. 아침저녁으로 물을 줘야 하는 꽃이 있는가 하면 여름 내내 거의 물을 주지 않아도 되는 꽃이 있고, 직사광선 아래에서 화려한 꽃을 피우는 녀석이 있기도 하고 그늘에 두어야 향기로운 꽃을 피우는 녀석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몇 번의 실패 끝에 마침내 화분 하나도 죽이지 않고 꽃을 피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5백 원, 1천 원짜리의 비싸지 않은 꽃을 날마다 사들여서 베란다에 가득 채워 넣고 여름 내내 화분을 돌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서늘한 가을바람이 불어올 무렵 정작 여름 내내 피어난 꽃을 제대로 보지 못했음을 문득 깨닫게 되었습니다.

화분 하나에 막 꽃봉오리가 맺히면 빨리 꽃 피우기를 기다리며 조바심을 쳤습니다. 그러다가 그 봉오리가 화려하게 만개하면 어느 사이 나는 그 옆의 화분을 바라보며 생각하였습니다.

'이 녀석은 언제나 꽃을 피우려나?'

그 화분이 꽃을 피우기가 무섭게 내 시선은 또 다른 화분으로 옮겨졌습니다.

'아니, 다른 꽃들은 다 피었는데 이 화분은 뭐가 잘못되었나?'

예쁜 꽃을 보고 싶다던 나의 바람은 일찌감치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꽃 한 송이가 피는 순간 그 꽃의 자태를 감상하지 못하고 서둘러 그 옆의 꽃가지를 바라보며 '이 꽃은 언제 필까?'라고 조바심을 내기만 하였으니 결국 나는 내 소망이 이루어졌는데도 여름이 다 가도록 만족스럽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99마리의 소를 가지고 있는 부자가 가난한 사람이 소유한 단 한 마리의 소를 보면서 1백 마리를 채우지 못한 자신의 부족함을 한탄한다고 하지요? 그리하여 기필코 그것을 빼앗아서 1백 마리를 채워야 성이 찹니다. 하지만 1백 마리를 채우는 순간 150마리, 2백 마리…하는 식으로 욕구는 점점 커져갑니다. 결국 그 부자는 죽을 때까지 원하는 것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자신의 삶은 불행하다고 느끼며 일생을 살아갑니다. 여름 내내 베란다에서 꽃을 기다리던 내가 그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마지 않는 행복은 대체 어디에 숨어 있는 것일까요?

따지고 보면 '얼마를 벌어야 행복할 것이다'라며 기대치를 안고 있는 사람보다 지금 이 순간 '이제 됐다. 이것으로 족하다'라는 생각을 내리는 사람이 지금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사실 말이야 쉽지 행동으로 옮기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살림살이는 대대로 물려서 사용해도 못다 쓸 판인데 새록새록 쏟아지는 신제품들은 여지없이 나를 유혹합니다. 하다못해 술자리에서도 "됐습니다. 딱 한 잔으로 족합니다"라며 정중하게 거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족하다' 쉽지 않은 일
소욕지족 못하면 천당서도 불행
행복은 내 마음먹기에 달려 있어

소욕지족(少欲知足)

'욕심을 줄이고 만족할 줄 알아라.'

이 말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성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안겨주는 교훈입니다.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더 욕심내지 말라는 뜻이지요.

그렇다면 욕심을 줄여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욕심을 줄이지 않고 만족할 줄 모르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행복하지 못하고 괴롭기 때문입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땅 위에 누워 지내도 편안하고 즐겁지만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천당에 살아도 성에 차지 못하고,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부유해도 가난하지만,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가난해도 부유하기 때문"입니다(유교경).

천당에 살아도 성에 차지 않는다면 결국 행복의 여부는 바깥 대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는 말이 됩니다.

게다가 "욕심 많은 사람은 이익을 구하는 일이 많기에 괴로움 또한 많고, 욕심이 적은 사람은 바라는 것이 없기에 이런 재앙이 없다. 그러므로 괴롭지 않으려거든 먼저 욕심이 적은 사람이 되도록 수양해야 한다. 욕심이 적은 것은 온갖 공덕을 낳고, 남의 비위를 맞추느라 아첨하지 않아도 되고 감각기관에 끌려 다니지 않는다. 그러므로 욕심이 적은 사람은 마음이 언제나 평탄하여 근심과 공포가 없으며 무슨 일을 하건 여유가 있게 마련이다. 욕심이 적은 사람에게만 열반은 약속되어 있다."(유교경)

행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행복해질 것이라는 희망보다 더 분명하게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지금 '이제 됐다. 이것으로 족하다'라고 마음먹는 일이라고 <유교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 이미령(동국역경원 역경위원)


혜광스님

스님만의 특유한 자연건강 비법과
약사여래 부처님의 원력으로 마음과
육신의 고통에서 벗어 나십시요.

난치병 불치병 등 병고에 시달리는 사람이라면
혜광(慧廣)스님을 아십니까?

KBS, MBC, 연합불교방송 등 방송매체와 35회 이상
언론에 보도된 **혜광스님 (필명 李海堂)**

성공한 사업가(전직 무역회사 회장, 수출탑 수상), 자연건강 연구가(자연건강 1급 지도사, 자연건강 연구 15년), 소설가, 투병생활 9년, 불가에 귀의(1989년,1996년 법사계 전법), 외국(티벳,태국)사원 자연건강 비법 전수, 한국 인물사(대한민국 역사편찬위 발행 1990)수록.


황토굴


약사암 전경


약사암의 일몰

KBS 방영 - 이제는 중생 구제다 -

KBS의 "혜광스님의 자연건강 행복한 삶" 프로(2005.7.10 방영)에 특별 출연하여 병고에 시달리는 모든 중생들에게 새 삶의 희망을 주고자 70노구를 바치겠노라 다짐하며 자신의 투병생활 장소이자 바닷가 자신의 별장에 약사여래 부처님을 모신 약사암(藥師庵)을 창건하다

손꼽히는 한려수도
관광과 방생지

거제도 바닷가 황토굴에서 새 생명을!
- 몸속에 가득 채워진 독소 (오염된 물, 공기, 중금속 오염, 약품과용, 가공식품) 을천연 황토동굴에서 제거 해야 한다 -
스님 자신이 투병생활에서 얻은 결론이다.

(스님과 친견을 원하시는 분은 반드시 사전에 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시는 길
경남 거제시 동부면 오송리 산 1-3 약 사 암
(동부면 면사무소에서 1Km 거리, 면사무소 - 오송리 중간 우측)
전화 : 055)632-2483 / 휴대폰 : 018-591-13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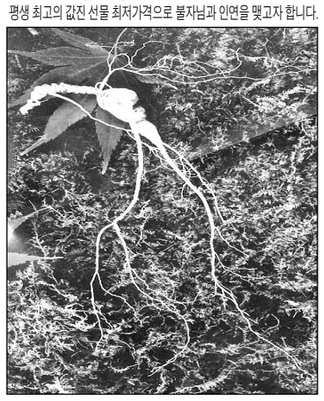
• 인터넷 검색(혜광스님 관련)
http://www.cafe.daum.net/yaksaam
http://www.cafe.daum.net/Osongwon
http://www.cafe.naver.com/leehaedang
E-mail: lom1209@hanmail.net

元·氣·回·復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발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실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주문처 서울(02)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국립농산물품질관리검정필(분석 51160-150)
심 마 당 長腦山蔘

서울·부산 찍고 茶茶茶

서울 티월드 페스티벌, 부산국제차문화대전 행사 다채



올해로 4회를 맞은 티월드 페스티벌에서는 지방자치단체들의 특별부스가 눈에 띄었다. 보성군이 마련한 '보성관'에서 보향차인회 회원들이 무료 차 시음행사를 펼치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기획전시 풍성, 지자체들 참여도 높아
지나친 영리추구·진행 미숙은 역효과



부산국제차문화대전 기간동안 한국국제차엽연구소가 개최한 '세계 명차 800선전' 전시 부스.

차문화가 고즈넉한 차실을 넘어 대규모 컨벤션(Convention) 센터로 모여들고 있다.

6월 14~18일 부산 벡스코에서 '제1회 부산국제차문화대전(Korea Busan-World Cha Festival 2006, 이하 부산차문화대전)'이 열렸고, 21~25일 서울 코엑스에서는 '제4회 국제차문화대전(Tea World Festival, 이하 티월드)'이 펼쳐졌다.

오는 12월 8~11일 부산 벡스코에서는 '제1회 국제음료박람회'가 열릴 예정이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부산차문화대전(공동대회장 여연·홍소술)은 전국의 차문화 단체와 생산자연합회, 학술단체 등 차와 관련된 분야를 망라하는 대동한마당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개최됐다. 120여개 부스에서 100여 업체들이 내놓은 차와 다구, 도자기, 제다 기구 등이 판매됐고 부산대 다석화연구소(회장 허충순)의 '찻자리꽃전', 숙우회(회장 강수길)의 '차테이블전', 한국국제차엽연구소(소장 정인오)의 '세계 명차 800선전' 등 다양한 기획전시도 열려 참가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현채 부산차문화대전 총괄본부장은 "5일간의 행사 기간 동안 1만5000여 명이 전시장을 찾았다"며 "첫 번째 행사라 홍보도 부족하고 미흡한 점도 많았지만 차에 대한 부산 시민과 일반인들의 관심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올해로 4회를 맞은 티월드에는 7개국 124개사가 참가해 220여 부스를 가득 채웠다. 티월드에 대한 차인 및 일반인들의 인지도가 높아짐에 따라 보성이나 하동, 구례, 무안 등 차를 지역 특산물로 육성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참여도 적극적이라는 점이 눈에 띄었다.

21일 티월드 개막식에서 만난 한국차문화협회 이귀례 이사장은 "행사장을 둘러보니 우리 차문화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음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며 "이런 전시회가 알차게 열린다면 차문화가 국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순 티월드 추진위원장은 "전시박람회는 차문화와 산업의 발전상을 집약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라며 "차 단체나 수입·판매업체는 소비자들을 직접 만날 수 있고, 소비자들은 한자리에서 다양한 차문화를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 전시박람회 시장은 더욱 커질 것이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올해 처음 열린 부산차문화대전의 경우 문제점도 적지 않게 지적됐다. 해운대 차밭 찻잎따기 및 차 만들기, 차음식 공모전 등의 행사는 참가자 부족으로 행사를 며칠 앞두고 돌연 취소됐다. 차행례 예연 겨루기 대회 참가자들은 시상식 당일 '상금은 없다'는 주최측의 일방적인 통보를 들어야 했다. 부산차문화대전 홈페이지(www.국제차문화대전.com) 자유게시판에는 "전시회가 대중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다(김재혁)"거나 "차와 관계없는 건강 제품 부스들이 눈에 거슬렸다(조경희)"는 등의 의견도 올라왔다.

정인오 교수(한서대 차학전공)는 "차 전시박람회는 젊은층과 차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에게 차문화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임에도 지나치게 영리를 추구하거나 안일한 진행으로 오히려 차문화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다"며 "행사 주최자들이 건전하고 올바른 차문화 보급의 장을 만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전시박람회를 개최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본토 보이차 정보 가득

<운남보이차> 한국어판 발행

중국의 보이차 전문 계간지 <운남보이차> 한국어판이 나왔다. 2006년 봄호를 시작으로 국내에 발행되는 <운남보이차>는 운남성 정부가 운영하는 운남과기출판사(云南科技出版社)가 2005년 창간한 잡지다.

필진으로는 주유용(朱有勇) 운남농업대학총장, 리더주(李德朱) 중국과학원 쿤밍식물연구소 소장, 마순유(馬順友) 운남성차엽상회 회장 등 3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국내 발행처는 주식회사 포랑(회장 장영섭). 포랑은 중국 운남성에 100만평 규모의 차밭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

2006년 봄호에는 '기업의 대표들이 말하는 보이차' '보이차 감관(感官) 심사평가 방법' '하관(下關) 타차의 시초와 발전' 등이 특집으로 다뤄졌다.

창간호인 2005년 봄호도 '소장본'으로 발간됐다. 이 책에서는 2004년 12월 운남성차상회와 운남과기출판사가 개최한 '보이차는 무엇인가' 주제의 전문가 좌담회 내용이 커버스토리로 다뤄졌다. '다마고도(茶馬古道)에 얽힌 이야기들' '육대다산(六大茶山)의 내력과 외연' 등도 실려 있다. 각권 1만2천원.



瑞榮普洱
진년보이·진년오룡·철관음·오룡차
대홍포·화차·인삼오룡 外 40여가지의 茶
보이차 전문점
■ 조계사 건너편 TEL 02)722-0855
H.P 017-411-0882

짱유화(姜育發) 교수의 보이차 이야기



20. 보이차의 발효

보이차를 이야기할 때 흔히 듣는 용어가 미생물발효와 자연발효다. 미생물발효와 자연발효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

보이차라는 상품이 학문의 영역에 등장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차의 발효'에 관한 정의는 미생물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래서인지 오늘날 차의 과학 즉 차의 제조법에서 말하는 '발효'란 일반적으로 말하는 미생물에 의한 발효가 아니라, 찻잎 속에 함유된 주성분인 폴리페놀(Tea polyphenols)이 폴리페놀옥시다젠(Polyphenoloxidase)이란 산화효소에 의해 산화되어 황색을 나타내는 데아플라빈(Theaflavin)과 적색의 데아루비긴(Thearubigin) 등으로 변함과 동시에 여러 가지 성분의 복합적인 변화에 의해 독특한 향기와 맛, 수색(水色)을 나타내는 작용을 말한다. 즉 찻잎을 가공할 때 카테킨을 위시한 여러 종류의 화학성분의 산화과정을 말하는 것이다.

미생물발효와 자연발효 상부상조 관계
가공공정 주체가 누구냐 따라 이름 달라

그러나 근대에 들어 차의 발효에 미생물이 관여하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이것을 기존의 제조법에서 말하는 발효와 구별할 필요가 있어 이를 '미생물발효차'라 명명하게 된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보이차다.

문제는 보이차 시장에서 청병과 숙병이라는 두 가지 상품을 우리가 접하고 있다는 것이다. 발효에 대한 이해부족의 상태에서 보이차를 접근하다보니 자연히 미생물발효와 자연발효의 의미를 헷갈려 하는 것이 보통이다.

미생물이란 눈으로는 볼 수 없을 만큼 미세한 생물의 총칭으로 세균, 곰팡이, 효모, 남조류, 바이러스 등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찻잎은 차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미생물로부터 오염되는 것이 보통이며, 고온을 통한 살청공정에서 대부분 소멸되나 비비기의 유념공정에서 또 다시 오염되는 것이 미생물의 실체다. 이후 여러 차례의 열처리 공정을 거쳐 찻잎이 완전히 건조되었을 때 비로소 대부분의 미생물들이 찻잎에서 사라진다. 이는 곧 어느 차류의 가공이든 미생물의 관여가 불가피하며, 그 관여의 정도가 주류가 아닐 경우 우리는 이를 '미생물발효'라 부르지 않는다는 것이 차의 과학이다.

이와 반대로 숙병보이차의 발효는 인위적인 방법으로 미생물을 대량 키워 차의 산화를 가속화시키는 방법이므로, 차의 가공과정에서 주된 역할이 미생물이었기에 이를 '미생물발효'라고 한다.

그렇다면 차의 미생물발효 과정 중에는 자연발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가? '자연발효'란 산화효소가 전혀 참여하지 않는 상태에서 오직 산소를 통해 이루어진 차의 산화를 말한다. 공기 중에는 늘 20% 가량의 산소가 존재한다. 산소는 다른 원소와 친화력이 강하여, 비활성기체를 제외한 거의 모든 원소와 반응을 일으켜 산화물을 만든다.

차의 화학물질 중 폴리페놀, 아스코르빈산(비타민C), 알데히드, 케톤, 유지질 등 화학물들이 모두 산소를 통해 자연 산화될 수가 있다. 물론 온도, 습도, 광선, 산소 등 산화인자의 폭에 따라 자연산화의 진행도 정비례로 빠를 수가 있다.

정상적인 차의 가공에서 미생물이 참여할 수 있듯이 미생물발효 공정에서도 산소가 참여할 수가 있다. 미생물발효와 자연발효는 서로 상부상조하는 관계로, 차의 발효에서 누가 가공공정의 주체이냐에 따라 이름을 달리 부르게 된 것이다.

그리고 산화효소로 인한 발효와 산소를 통한 발효가 함께 진행되는 것도 '보이차의 발효과학'이며, 이러한 발효이론의 연장선에서 청병과 숙병을 논해야 비로소 보이차 발효에 대한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 한서대학교



청병의 자연발효.

법회 참석 대중의 일체감과 효율성을 높이는 필수 교보재
법요집·기초교리집 괘도 특별한정 보급!!



정기법회, 수련대회, 불교대학, 불교학교 등
법당에 걸어 비치만하셔도 법회의 원활한 진행은
물론 신도님들의 불교기초공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법요집
·삼귀의 ·정근
·찬양합니다 ·발원 및 축원
·반야심경 ·사홍서원
·입정 ·산회가
·청법가 ·기타찬불가
·법문

● 기초교리
1. 불교란? 8. 예불문 15. 사성제
2. 부처란? 9. 삼보 16. 사섭법
3. 대승과 소승의 차이 10. 삼귀의 17. 십이인연
4. 사찰에서 쓰는 도구 11. 삼법인 18. 육바라밀
5. 사찰경내 예법 12. 삼업 19. 팔정도
6. 합장과 반배 13. 삼학 20. 보왕삼매론
7. 고두례 14. 신도오계

법회의 일반적인 순서와 불자라면 꼭 알아야 할 기초교리가 암도 큰스님의 감수로 알차게 꾸며져 있습니다.

· 특별보급가 : 140,000원 (한정수량판매)
40쪽, 아이보리색 레자크지
· 구성 : 괘도(법요집, 기초교리, 양면인쇄) 1개
걸이대, 지시봉

인터넷 불교 종합 서점
여시아문 02)737-0695 02)2004-8219,8220
국내·해외불교서적, 교양도서 http://www.yosiamun.com

교보문고 비소설부분 베스트셀러 선정
중국차의 이해!

차문화가 급속하게 보급되고 있는 가운데 이미 우리 국내는 상당부분 중국차가 보급되어져 있다. 또한 우리가 중국을 여행 하면서 차를 구입하거나 아니면 선물을 받아 집에는 한두 종류의 중국차는 누구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정작 선물을 받았으나 이 차가 무슨 차인지 어떻게 우려 마시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이 책에서 소개되는 내용들은 필자가 현장을 직접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내용을 정리 하여 중국차가 만들어지는 과정, 자사호 제작과정, 차를 판매하는 시장 등을 소개하여 쉽게 중국차를 이해 할수 있는 책이다.



중국차가 어떻게 만들어 지는지 알고 싶으세요?
자사호(紫沙壺)에 대해 알고 싶다고요?
중국차 우리기에 대해 알고 싶다고요?

중국차의 이해를 보시면 이 모두를 알 수 있습니다.
중국차의 현장을 현재 진행형으로 생생하게 기록한 중국차 지침서



• 컬러(183×235), 288페이지 • 저자 : 김경우 • 가격 : 24,000원

구입문의 : 월간 다도 Tel : 02)722-7777



“소중한 인연, 아끼고 이해하세요”

가사상담원 담교 스님에게 듣는 행복한 가정생활과 이혼예방법

12만8천건. 지난 한해 국내 이혼 건수다. 세계에서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이혼율을 낮추기 위해 서울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회는 지난해 2월부터 ‘이혼숙려제도’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이혼숙려제도란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나 ‘결혼한 지 1년 이내의 부부’가 협의 이혼을 신청할 경우 상담을 거쳐야 하는 제도다. 협의이혼 대상자들을 상담하는 가사상담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담교 스님에게 행복한 가정생활과 이혼 예방법을 들어봤다. **여수령 기자**



삽화=박구원

‘서로 부처되기 돕는 관계’가 부부

Q 불자로서 결혼과 이혼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A 부처님께서는 부부를 인생의 길을 함께 가는 도반(道伴)으로서, ‘서로 부처되는 일을 돕는 관계’라 말씀하셨습니다.

부부의 연을 맺기 위해서는 전생에서부터 지중한 인연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겠죠. 하지만 부부가 현실적으로 더 이상 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가 되더라도 ‘악연(惡緣)’이라는 관계를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인연법을 통해 업의 고리를 풀어야지, 이혼을 한다고 해서 상대방과의 인연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른 점 인정하면 오해 사라져요

Q 남편(아내)의 성격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A 이혼을 원하는 부부 대부분이 ‘상대방의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사람마다 성격은 다르게 마련입니다. 성격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가 시작되고, 다른 점을 인정한다면 오해는 사라집니다. 보통 남녀는 자신과 상반된 성격의 사람에 끌립니다.

예를 들어 활발한 성격의 여자가 자신과 다른 조용한 성격의 남자에 반해 결혼했다고 칩니다. 상대의 다른 성격을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지 못한다면 여자는 종일 바가지를 긁고 남편은 그에 대해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전문가들이 행복한 가정의 조건으로 ‘서로 깊이 이해하고 현실에 만족할 줄 아는 태도’를 꼽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아이 앞에서 배우자 비난 마세요

Q 이혼을 고려중인데 아이들 문제가….

A 일단 자신의 격렬한 감정을 가라앉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장은 힘들고 괴로워서 이혼이 최선책이라 생각하겠지만, 5년 후나 10년 후 내 모습이 어떨지, 아이들은 어떻게 생활하지를 고민해 보십시오. 부부는 헤어지면 남남이 되고 말지만 공동의 책임인 아이의 양육은 함께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부간의 사이가 나쁠 지라도 아이에게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헐뜯지 말아야 합니다. 자칫 아이의 성장과정에서 부정적인 엄마상(像), 아빠상을 정립하게 돼 자녀의 결혼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일시적 감정으로 이혼하면 후회

Q 이혼을 할 때도 상담을 받아야 하나요?

A 이혼상담은 단순히 이혼을 못 하게 막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이해의 기회를 마련해주는 것입니다.

서울가정법원이 이혼상담을 실시한 후 이혼취하율이 높아진 것에서도 볼 수 있듯, 많은 부부들이 일시적인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이혼을 결심합니다. 물론 상습적인 폭력이나 견딜 수 없는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중에는 차라리 이혼으로 새로운 생활을 찾는 것이 더 나을 때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상담을 통해 상대방을 조금 더 이해하고 자신이 한 발 양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본다면 성급한 이혼으로 후회하는 일은 줄어들 것입니다.

결혼에 대한 막연한 환상 깨야

Q 이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이혼을 예방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신중한 결혼’입니다. 최근 결혼에 대한 막연한 환상을 가지고 있거나 상대방을 제대로 알기도 전에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결혼 전 예비 신랑, 신부는 상대방에 대한 충분히 이해하고 현실로서의 결혼을 이해해야 합니다.

결혼 후에는 상대를 자기 방식으로 바꾸고 해석하려 해서는 안됩니다. 상대가 나와는 다른 인격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해의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기분만 강요하지 말고 대화를 통해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부부관계도 결국 인연법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부부는 그 어떤 인연보다 소중한 인연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더 행복한 가정을 가꾸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 **상담 할수 있는 곳**

불교상담개발원 (02)737-8803
한국여성불자연합회 행복한 가정상담소 (02)738-5586
한국가정법률상담소 (02)780-5688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02)2697-0155

5000원으로 만드는 사찰음식 <23>

사찰식 백김치와 배추우거지볶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사찰음식연구원은 ‘공양간’이라 불리는 작은 쉼터입니다.

이곳에서 우리 회원님들은 사찰음식도 배우고 이야기꽃도 피우고 때론 아픈 사연도 나누며 삶의 여정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처음 공양간 문을 열었을 땐, 그저 서로 모여 사찰음식을 나눠 먹으며 이야기나 나누자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명 두 명 회원들이 모여가면서 공양간에는 새로운 음식이 가득해지면서 ‘건강을 찾는 공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곳에서는 알게 모르게 부처님 말씀과 사찰음식의 전통이 이어지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지요.

물론 회원 중에는 성당이나 교회에 다니는 분도 계십니다. 이렇게 종교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 음식을 매개로 이야기를 나누고 고민을 나누어 가질 수 있게 된 것도 다 부처님의 뜻이 아닐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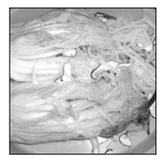
한번은 교회에 다니는 분이 몸이 안 좋아서 공양간을 찾아오셨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점심때가 되어 함께 공양을 했습니다. 집 밖에서는 별로 밥을 먹어 본 적이 없다는 그 분 얼굴에 환한 미소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찰식 백김치 맛에 푹 빠져 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만들었길래 이렇게 맛있냐”는 질문에 “마늘이나 파를 넣지 않고 만들어요. 많이 드세요”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점심 공양을 일찍 끝내고 백김치를 담갔습니다.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을 그냥 보내드리기 아쉬워 배추 몇 포기를 사왔거든요. 그날 담근 백김치를 품에 안고 가면서 “불자는 아니지만 사찰식 백김치에 담긴 불가의 지혜를 기억하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제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 ‘사찰음식을 사랑한 사람들’에 가입한 것은 물론이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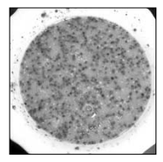
부처님은 제가 참 많은 것을 주십니다. 사찰음식은 물론 이렇게 좋은 벗도 보내주시다니요.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 **만드는 법**



<사찰식 백김치> 재료: 절인 배추 1/2포기, 무 1/5쪽, 표고버섯 1개, 청·홍고추 1개씩, 양념물(다시마 우린 물 5컵, 사과 1/4쪽, 양파즙 1작은술, 매실엑기스 1작은술, 생강즙 약간, 죽염 약간, 다진 대파 약간)

①무는 채 썰어 소금에 절인 후 흐르는 물에 세척해 꼭 짠다. ②표고버섯과 청·홍고추는 채 썬다. ③사과는 강판에 갈아 다른 양념과 섞어준다. ④표고버섯과 무, 청·홍고추를 무 사이사이에 끼워 넣는다. ⑤분량의 재료로 양념물을 만들어 부어준다.



<배추 우거지 볶음> 재료: 배추우거지 1줌, 다진 청고추 1큰술, 다진 홍고추 1작은술, 양념(된장 1작은술, 채수 1컵, 들깨 약간, 죽염 약간, 들기름 약간)

①배추 우거지는 흐르는 물에 헹궈 꼭 짠다. ②분량의 재료로 양념을 만든다. ③양념에 우거지를 버무려 준 후 프라이팬에 볶는다. ④다진 청고추와 홍고추를 넣어 마무리한다.

▶다음 주에는 감잎 팥양갱을 만들어 봅니다.

■ 박상혜(사찰음식연구가)

역학(사주명리, 사주추명)의 시청각 교재 DVD 출시 - 궁중비법-
- 비매품 책자, 요점자료 동봉 -

어렵다는 역학을 누구나 쉽고 빠르게 한달 공부하면 완성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하면서 보고 듣고 이해하며 필기하고 보충자료와 책자를 숙지하면 됩니다.
15만원 정도의 DVD 재생 기계를 구입하여 TV에 연결하여 보시면 됩니다.
역학(사주, 신수, 궁합, 택일, 애정, 재운, 관재, 자녀운, 기타 모든것)은 실제로 어려운 것이 아닌데
스승이나 책을 잘못 만나면 중도에 암흑의 망망 대해에 빠져서 평생 완성되지 않습니다.
순간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이 DVD에는 필자가 20여년간 국내외 수백명의 제자를
역학에 도통하도록 철저하게 개인지도 해온 그대로를 총 26부(26시간)에 가감없이 실전
사주풀이 다수와 함께 담았습니다. 그동안 배움의 뜻은 있었으나 국내외 원거리사정, 수강순서
늦어짐, 고액의 수강료, 기존 업을 하는 관계로 알려짐이 부끄러움, 등으로 기회를 기다리던 분들에겐
최고의 기회와 광명이 될 것입니다. 불교 교리로 부터 시작되는 이론의 장엄한 전개는
당신을 견성에 이르는 기쁨을 맛보게하고 스스로와 친지들의 사주를 감정하면서
그 적중됨에 탄성을 발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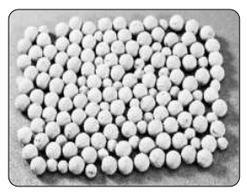
- 남몰래 한달 공부하여 혜성과 같이 나타나십시오 -

사주통달책임지도
- 교육기간 : **누구나 한달완성** (국내외 제자 300명 왕성히 활동중)
- 완전초보자도, 해도 해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
- 한달만에 모든 것 완전 통달됨 교육이수후 월 250만원 보장
- 전화감정 대환영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 (회원은 특혜있음) 전국 최대 회원양성 교육기관임

◆ 구입금액 : 추명사 건립 보시금 120만원
◆ 계좌번호 농협 704-02-341067 (예금주 : 김금란), 대구은행 018-08-388350-001 (예금주 : 이하림)

사단법인 대한불교 사주명리 연구학회 총재 : 백운 성수, 부회장 도영(성수철학원장)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721-16 전화 053)255-4784, 256-4784 / 휴대폰 018-531-2237, 011-9583-6161

베개속에 넣고 평생 사용 늘~건강하고 편안한 잠자리
상쾌한숙면 건강한하루 신비의은행석



“부모님께 최고의 효도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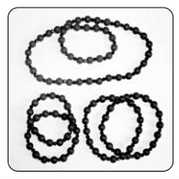
베개속에 은행석을 넣고 주무시면 평생 뇌졸중, 중풍, 치매, 고혈압 천식등이 치유됩니다. 그리고 기억력이 살아나고 혈압이 떨어지며 기미가 줄고 하얀 얼굴로 미백효과도 뛰어나요. 하루에 5시간만 주무셔도 8시간 잔것과 같은 효과가 있어 머리가 맑고 상쾌하며 아침에 가볍게 일어납니다.

죽어가는 것도 살리는 은행석
북한에서온 은행석은 죽어가는 것도 살린다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야에다 수돗물을 받아 붕어를 넣으면 붕어는 배를 뒤집고 헐떡이며 죽어갑니다. 이때 은행석을 넣으면 붕어는 씽씽하게 살아납니다. 고급난, 분재 등 죽어가는 것도 살릴 수 있어요.

생명의 빛! 생명의 기!
북한 일부 고위층만 사용하며 저를 믿고 주무시며 건강하게 장수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의심이 많아요. 심하게 코를 골거나 기침을 하시는 분에게 적극 권장합니다. 손발이 자주 붓거나 저린 분은 은행석 목걸이, 팔찌와 같이 사용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음이온을 첨가하여 어깨 통증완화 및 각세포의 기능 향상

건강도 지켜주고 젊음을 유지하는
은행석 안심목걸이, 팔찌



◆**목걸이,팔찌 :** 머리를 맑게 함, 손발저림, 어깨결림해소, 혈압조절, 혈압상승억제, 전신에 氣를 고루 전달 기력회복, 심장박동이 원활하여 마음을 안정 시킴,신진대사촉진, 피가 맑게 하며, 다이어트에도 효과

은행석 108염주, 손목압장주도 제조 판매합니다
금강닥터 문의전화 (02)723-9184 www.dk21.net
◆ 입금계좌:농협 1143-12-049474 송명화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푼수 엄마' 타이틀 달고 제2 전성기
불교 색채 띤 영화 '가족의 탄생' 서
여주인공들 정점에 있다 평 받기도
부처님 말씀 따르면 행복해져요

밝은 표정 지으면 좋은 일 생겨요

불교방송 '아름다운 초대' 진행자 김혜옥씨

"제가 제일 어려웠던 시기에 불교방송과 인연을 맺게 됐어요. '아름다운 초대'(매일 오전 11시)를 하면서 자꾸 밝아지고 웃게 되니까 하고 싶었던 역할들만 들어오는 거예요. 부처님께 감사드립니다."

불교방송 '아름다운 초대'를 1년이 넘도록 맡아 진행하고 있는 배우 김혜옥씨. 최근 드라마 '별난여자 별난남자'(KBS), 'DR.깽'(MBC), '진짜진짜 좋아해'(MBC) 등에서 사랑스러운 푼수 엄마 역을 해내며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요즘 저에게 '푼수엄마'라는 타이틀을 달아주는데 사는 게 다 그런 것 아닌가요? 평소 심각하고 진중하게 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약간은 모르는 게 사는데 편해요."

세 드라마에서 맡은 역 중 DR.깽의 '달고엄마' 역을 으뜸으로 꼽는다. "두 번째 화살에 맞지 말라는 부처님 말씀이 있는데 달고엄마는 이 말을 터득한 것 같다"는 김혜옥씨는 나쁜 말을 해도 좋은 뜻으로 해석하고 모든 것을 선하게 바라보는 달고엄마를 닮고 싶다고 말한다.

얼마 전 개봉한 영화 '가족의 탄생'에서는 "정에 헤픈 여주인공들의 정점에 김혜옥(매자 역)이 있다"는 평을 받으며 주목받기도 했다.

"'가족의 탄생'은 불교적 색채가 굉장히 강한데 그 주제도 인연"이라고 영화를 소개하는 김혜옥씨는 영화 개봉 후 쉬고 싶어 하는 김태용 감독과 프로듀서에게 쌍계사 국사암을 소개해 머무르게도 했다.

"솔직히 영화가 흥행이 잘 안됐잖아요. 감독과 프로듀서 모두 실망하고 있던 차에 국사암에 갔어요. 그런데 국사암에서 며칠 머무르며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나니 장기상영이 결정됐어요. 이게 바로 부처님 가피가 아니고 뭐겠어요."

김혜옥씨는 스스로 내가 불자구나 하고 생각했던 때가 나이 40 될 때였다고 고백한다. 어머니를 따라 절에 다니는 일 말고 종교로서의 불교를 진지하게 생각해 본적이 없었던 김혜옥씨가 불교와 깊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동생 때문이었다. 동생은, 당시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몸도 마음도 피폐해져 시름시름 앓고 있던 김혜옥씨를 마곡사로 데려갔다.

"이름도 잊혀지지 않아요. 저를 처음 봤는데도 불구하고 진경 스님이 책을 한 보따리 선물해 주시더군요. 주지 진허 스님은 매일 108배 하면서 염불하라고 말씀해주셔서 뭔지도 모르고 따라했죠."

그렇게 매일 108배를 하며 부처님 말씀에 빠져 들었다. 법정 스님 책에서부터 죽음에 관련된 책까지 불서도 많이 봤다. 몇 년 후 김혜옥씨를 불교로 이끌었던 동생마저 떠나보냈다. 동생이 남긴 유품 속에는 절 입장권, 여러 경전을 사경한 공책 등이 꼼꼼하게 정리돼 있었다. 그것들을 보면서 좀더 불교에 대해 생각하게 됐다.

"동생 덕분에 불교공부하게 된 거에요. 공부라고 해봐야 책 읽고 마음 깊이 부처님 말씀을 지키려고 따르는 것뿐이지만요."

불교방송 진행자를 맡기 전 김혜옥씨는 세종문화회관 소속 시립극단 단원이었다. 중간에 공백기가 있었지만 당시 방송과 연극을 병행하며 한창 바쁠 때였다. 불교방송에서 진행자를 맡아달라는 요청에 김혜옥씨는 시립극단 단원을 포기했다. 꼭 불교방송 일을 해야 할 것 같아서다.

"이젠 나눔의 삶을 살아야죠. 내가 행복하니까 이 행복을 더 많은 사람에게 나눠줘야 하지 않겠어요?"라고 평소 말하던 김혜옥씨는 불교방송 '거룩한 만남'에 사용해 달라고 500만원을 선뜻 성금으로 내놓기도 했다.

"불자님들, 제가 불교를 이론적으로 깊이 알지는 못하지만 열심히 부처님 말씀 따르면 복 받고 사랑도 생기고 행복해져요. 제가 그 증인이니까요. 제가 지금 행복하잖아요. 부처님 말씀 잘 실천하시고 행복해지세요."

글=강지연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삶과 죽음의 경계에선!

창작 이미지극 '두 문 사이'

사다리아트센터 네모극장, 7월 2일까지

이승과 저승의 경계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일제시대부터 현대까지 한국 근대사의 모습을 전통악기와 음악의 변형, 영상의 표현과 움직임의 새로운 해석을 통해 표현해낸 창작 이미지극 '두 문 사이'가 7월 2일까지 관객들과 소통한다.

일제에 징용되어 죽은 군인의 그리움은 천둥이 되고 벼락이 된다. 그 소리는 망자를 깨우고 죽은 병사는 열려진 사문으로 들어온다. 희화된 잡종군인들을 만난 한 여인은


돌아온 병사의 뼛가루가 폭포처럼 흩날린다.

8개 장면으로 구성, 한국적 마임

군인들에게 육신과 오장육부를 수탈당한채 그리움 슬픔 원망 아픔을 자궁 속에 담아 잉태한다.

부풍(잡종) 군인과 영매 술사들이 등장해 잉태된 영의 이야기를 듣고 천도에 나서고 망자들의 살판 죽을판 놀음은 병주고 약주는 꼭두놀음 춤판으로 이어진다. 기다림에서부터 회귀까지 총 8개의 장면으로 이루어진 '두 문 사이'는 한국적 무대언어를 개발해온 사다리움직임연구소가 만들어낸 작품이다.

한국적 죽음의 정서를 삼베로 표현한 한국적 마임극 '두 문 사이'는 움직임과 소리, 영상과 빛으로 죽음을 말한다. 죽장과 꼭두, 살풀이 등을 버무려 막힌 듯 열린 무대를 묘사해냈다.

거기에 폭포처럼 쏟아지는 뼛가루, 꼭두가 조종하는 꼭두, 뚜껑을 열면 수천 개의 영혼조각이 솟아오르는 상자 등 기발한 상상력이 만들어낸 환상적인 무대가 배우들이 온 몸으로 보여주는 몸 언어를 뒷받침한다.


다섯 번째 장 '부풍 군인과 수탈된 영'의 한 장면.

사다리아트센터 네모극장에서 공연하고 있는 '두문사이'는 2005년 춘천마임축제에서 기존의 한국적인 기법을 사용한 전통연극과 다른 방법으로 한국의 정서를 잘 표현해 낸 작품으로 인정받아 8월에 열리는 2006 프랑스 미모스 페스티벌에 공식 초청됐다. (02)744-0300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풍성함과 청아함… 二色? 異色?

'아미&유경의 이색화음'

국립국악원 우면당, 7월 6일

우리나라 전통 정가(正歌)로 조지훈의 시 '승무'를 감상해보자.

국립국악원 목요상설무대 제 275회 음악회는 우리나라 최초의 정가 여성 이중창 '아미&유경의 이색화음'을 선보인다. 현대 창작곡으로 구성된 이번 공연은 혼자서 부르던 정가의 노래형식에서 탈피해 처음부터 끝까지 둘이서 함께 화음을 맞춰가며 노래한다.

1978년 남성 독창곡으로 황의종 교수(부산대)가 작곡한 '승무'는 이번 무대에서 여성 이중창으로 새 모습을 드러낸다. 대금 피리 해금 가야금 거문고 등의 전통악기에 풍경 목탁 훈 자바라 등을 첨가해 불심을 담았다.

'승무' 외에도 박두진 시인의 '강강술래', 이동주 시인의 '청산도', 김춘수 시인의 '꽃', 문정희 시인의 '초여름 숲처럼'은 가사가 되고, 황병기(이화여대) 황의종(부산대) 임진옥(수원대) 이만방(숙명여대) 교수, 작곡가 안현정씨 등이 곡을 붙였다.



첫 정가 여성 이중창을 선보이는 이아미(왼쪽) · 이유경씨.

첫 여성 이중창을 시도하는 이아미 이유경씨는 중요무형문화재 제30호 가곡예능보유자 김영기 선생의 첫 전수 장학생이다.

시원하고 풍성한 음색을 가진 아미와 맑고 청아한 소리의 유경이 화합과 조화를 통해 '두 가지 색깔의 화음(二色和音)' '이색적인 화음(異色和音)'을 선사한다.

7월 6일 오후7시30분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열린다. (02)580-3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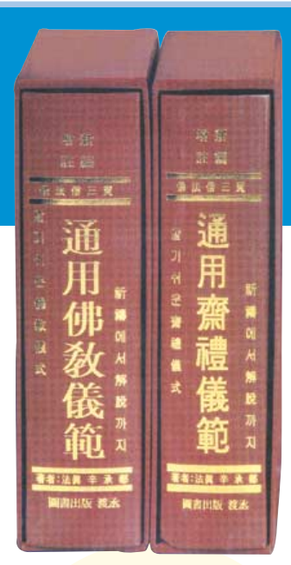
강지연 기자

알기쉬운 佛教 儀式
新刊 通用佛教儀範 案內



귀의삼보하옵고
불교란 어떤종교인가? 깨달음의 종교이다.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업과에 의한 윤회를 믿고 보살행을 실천하여 성불하기를 염원하는 종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봉하는 불제자로서 의식법전의 순서의 어려움이 많아 수행하는데 우왕좌왕 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는 것을 실감하고 모든 불교의식집을 참고로 하여 의식을 간편하게 편집하여습니다.
의식이란 보는 이에 따라 甲論乙駁이 있겠으나 수행 초심자가 어디서 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막막할 때 이 의식집을 펴면 딴 페이지를 찾지 아니하고 모든 의식을 집전할 수 있도록 편집되어 있습니다.

▶총 1099페이지 법보가 ₩45,000




編 · 著者
法眞 辛承都

대한민국 불교 교단에 계시는 모든 스님들께 소승 법진이 합장하고 고개 숙여 인사를 올립니다. 소승이 2년동안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2권의 불교의식집을 출간하여 모시오니 사용해 보시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나무 마하반야 바라밀

▣ 통용불교의범 특징
불보살 모든 불공의식은 불공의식 대로 편집되었으며 제목만 찾으면 모든 불공을 모실 수 있는 것이 이 책의 특징인 것입니다.

제1장 송 주 편 | 제2장 예 경 편 | 제3장 전각예경편 | 제4장 불 공 편
제5장 모든법회 | 제6장 방 생 | 제7장 제불보살복장단의식 | 제불보살 파불의식
제8장 점 안 편 | 제9장 이 운 편 | 제10장 수 계 편 | 제11장 고 사 편

알기쉬운 齋禮 儀範
新刊 通用齋禮儀範 案內



천지지간 만물지중에 유인이 최귀하고 유 만물지 중에 유인이 最上最貴하니 사람이 있으면 예(禮)가 있고 예(禮)가 있으면 의식(儀式)이 필요한 것입니다.
불교의 1700년 역사속에 祖師님께 집필하신 의식집이야 말로 참으로 고귀하고 완벽한 의식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한문으로 된 의식집을 가지고는 어느 것을 먼저하고 어느 것을 뒤에 하는지 순서를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때가 비일비재(非一非再)합니다.
또한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빠르게 변해가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제례의식을 현실에 맞도록 모든 불교의식집을 토대로하여 초보자라 하더라도 집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총 1180페이지 법보가 ₩45,000

제1장 시 식 편 | 제2장 장 의 편 | 제3장 다 비 편 | 매 장 埋 葬
제4장 四十九齋 입재(入齋) 삼우재(三虞齋) 초재(初齋) 이재(二齋) 삼재(三齋) 사재(四齋) 오재(五齋) 육재(六齋) 칠재(七齋)
제5장 재 공 편 상주권공 삼정례 천수다라니 지장청 영산대재 괘불이운 건회소 영산작법 영산각배 운수상단 운수중단 배송(拜送) 예수십왕생칠재(預修十王生七齋)
제6장 기 제 사 | 제7장 靈魂結婚埴

■ 주문처 : 호국불교효예종 총무원 출판부 ■ 발행처 : 도서출판 도 승 ■ 편 · 저자 : 법왕불교대학장 신 법진 합장
☎ 02) 963-0607, H.P:017-361-1131 ☎ 043) 264-3008, H.P:011-9607-2199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2동 421-3번지 ■ 국민은행 : 027701 - 04 - 060958 ■ 우체국 : 013409-01-001220 예금주 : 호국불교효예종 총무원



일심에서 나오는 그것을 일심에다 놔라!

부처님의 대원경지란

문 부처님의 대원경지에 대하여 확실하게 다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화통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답 사람이 닦지도 않고 그런 거부터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사람이라는 게, 내가 항상 얘기했듯이 모든 억겁 천 년 전서부터 자기 습을 짊어지고, 종문서를 짊어지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닿기만 하면 타 버리는 그런 이치에 도달해 있으면서, 그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것을 모르니까 그것을 되집어서 그 높은 경지가 따로 있는 것처럼 자꾸 묻는다 이겁니다. 자기가 알아야 할 거를 알아야 '아, 이거는 높게 있는 게 아니고 얕게 있는 것도 아니로구나. 이건 바로 나한테 있는 거로구나.' 하고 알 텐데 말입니다. 만약에 나한테 있는 걸 알게 되면 타의에도 내가 있는 걸 알고, 저 사람이 나 아님이 없다는 걸 알게 되고, 또 나와 더불어 같이 나투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런다면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말로 해서 아는 걸로 삼천대천세계의 근본, 그 본처를 갖다가 꿰뚫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게 물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님으로써 우리가 학식이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오로지 자기 주인공에서 만법이 나오는 것을 자기 주인공에 되놓는다, 맡겨 놓는다. 맡겨 놓지 않고는 도저히 그 습을 뗄 수가 없습니다. 또 그 습이 없다면 인간 자격이 없죠. 본래는 망상이 망상이 아니고 습이 습이 아니지만, 그 습이 있기 때문에 문이 가려졌고 눈도 가려지게 되고 자기 마음을 가리는 거예요. 본래 문은 없건만. 그러니까 일심에서 나오는 그것을 일심에다 놔라 이겁니다. 놓으면 홀연히 거기에서 다 알게 돼서 그때는 점검만 하고 돌아가면 될 걸 말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날까지 말이 필요 없으면서도 말이 필요하기 때문에 얘길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것쯤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살아가면서도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디서 이렇게 묘한 법이 나와서 내가 움죽거리고 있는지 그것을 모른다면, 항상 얘기했듯이 내 몸 하나도 이끌어 가지고 갈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물론 부처님 법은 그대로, 우리가 아픈 것도 법 안 아픈 것도 법, 죽는 것도 법 사는 것도 법이라고 해서 '이것이 진리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에서 깊숙하게 자기 주관을 세워서 지혜가 넓은 사람들은 좀 유유하게 살아나가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아주 마음이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납한테 항상 이렇게 밟히고 또는 거절당하고 또 화목하지 못하게 되고 또 상대방하고도 거리가 생기고, 이렇게 함으로써 적합하게 가정을 이끌어 나갈 수가 없는 그런 걸로 인해 자꾸 싸움이 생기고 가정파탄까지 되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들이 생기는 원인도 바로 자기거든요, 누구의 탓이 아니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픈 것도, 공부한 부처님께서도 아프셨으니까, 중생들을 위해서 그것을, 그대로가 법이라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보이셨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부처님께서는 '육신은 바로 내 주인의 거고 내 주인의 시자고, 내 주인으로 하여금 형성됐으니까 주인으로 하여금 이렇게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모든 일체 만물이 다 이렇게 변질되고 바숴지고 이러는 것이니라.' 하고 가르쳐 주기 위해서 방편을 써서 잠깐씩 이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건 방편으로 쓰신 거지 자기가 아파서 그런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몇 년씩 아프다가 고통을 받고 만약에 옷을 벗는다면 그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평화롭고 잠, 티끌 하나 묻지 않게, 내가 생동력 있게, 삶을 보람 있게 그렇게 살면서도 후딱 옷을 벗어 버려서, 잠시 잠깐 그것도 아프지 않게 아팠더라면 상대방들도 고통을 받게 하지 않고 나도 고통받지 않고, 이렇게 진리가 이러하다 하는 것만 가르쳐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들은 살아나가면서 야, 불법이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얘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것도 다 옳죠. 그런데 옳은 건 뭣 때문에 옳다고 하느냐. 이 세상엔 자라는 애들이 있고 지금 나온 애들이 있고 또 미생물에서부터 거쳐 오는 생물이 있고 동물이 있고, 무정물이 있고 식물이 있고, 모두가 천차만별로 그런 생명들이 있는 거예요. 그 생명들이 있어서 점차적으로 올라오는 그 뜻을 볼 때 우리가 언제 적의 부모고, 언제 적의 자식이고, 언제 적의 친척이고 그랬던가. 모두가 이럭해서 차원대로 모였다가 흩어지고 또 흩어졌다가 내가 깡통의 차원이라면 깡통끼리 모일 거고 넝마끼리 모이고 금대로 모이고 이렇게 모여서 살다가 또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졌다 모였다 흩어졌다 모였다 하는 것을 뭐 그렇게 잘됐다 못됐다, 이게 정법이니 사법이니 이거를 따지고 들어야만 하겠습니까.

어린애 적엔 모를 거고 좀 컸으면 철을 알 거고 더 어른이 됐으면 더 철이 나서 이 세상살이를 다 알 거고, 그것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이 늙었으면 애 노는 데서는 애가 돼 주고, 그럼 말썽이 없을 것 아닙니까? 젊은이들 노는 데는 젊은이가 노는 대로 젊은이가 돼 주고, 늙은이가 있으면 늙은이가 돼 준다면 얼마나 겸손하고 자비하고, 그 모두가 모르면 모르는 대로 나도 몰라준다면 얼마나 편리하겠습니까. 알면 아는 대로 나도 알아주고, 나 아님이 없는데 말입니다.

내가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법당에 올라가도 그 부처님 몸이 내 몸이요, 바로 부처님의 마음도 내 마음이니 둘이 아닌 고로 거기에서 절을 삼 배를 올려도 자삼보에 그대로 하는 것이다. 글로 한데 합쳐도 되고 일로 한데 합쳐도 되고, 이리 가도 하나고 저리 가도 하나다.'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그 하나마저도 내세울 게 없다는 걸 알게 되자 그것은 부처님의 뜻을 그대로 우리는 세존의 자리에 할 수 있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것이 자유인입니다. 그러니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문 모든 것이 다 과정이고 아픔이 있어야 큰 다고 하지만 아프지 않고 눈물 흘리지 않고 살아가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스님, 어떻게 공부를 해야만 이 시절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으며 마음에 끄달림 없이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 큰스님의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답 그러게 나같이 미련스럽게 사시란 말입니다, 나같이 미련스럽게. 너무 세상이 복잡하게 많으니까 그냥 복잡하게 많은 걸 그냥 하나로 둥글려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사실 게 없단 얘깁니다. 그리고 또 복잡하지 않게 살려면 그렇게라도 해야 복잡하지 않죠. 이거는 그냥 어중이떠중이 너무 일어나는 게 많아서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쩔쩔매니, 그냥 어디 서 있든 서 있는 것도 입선이고 앉아 있는 것은 좌선이고 드러누워도 와선이고 일을 해도 행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으로 둥글려서, 법당에 가면 한 번 이렇게 절을 할 때 내 자불이 있기 때문에 만 부처를 거기다 한데 합쳐도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만 부처를 한데 합치기보다도 더 정확한 것은 뭐냐 하면 일체를 다 그냥 빼놓은 사이 없이 해야 요만한 것 하나도 빠지지 않죠. 만약에 이것을 다 세어서 집어넣으려면 모르고 복잡한 놈은 못 살아요, 이거 이거 세어서 놓으려면. 셀 수도 없죠, 또. 그러니까 아주 나같이, 못난 나같이 그렇게 편안하게 사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죠. 법당에 올라가면 법당에 삼 배를 올리고, 또 급하면 일 배를 올릴 때에 둥글려서 올리고 둥글려서 또 여기다 놓고 나가라 이렇게 말하죠. 그걸 어떻게 들었습니까? 여러분이 5년이고 10년이고 됐다고 그래도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유를 모르고 다녀요. 왜 법당에 들어가면 저 부처님도 내 모습과 들이 아니라 하는지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라고 노래도 만들어 놓고 그랬는데,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내가 진정코 믿는 곳에 딱 집어야 결정나는 것이지, 딱 집지 않고 어떻게 결정이 납니까?

이게 보이는 데도 여러분이 계시고, 보이지 않는 데도 더 많다면 많죠. 그런데 그것을 양쪽 틈바구니에 이렇게 비싯비싯 다니면서 어떻게 사시렵니까? 내 주인공이라는 그 주장자 하나를 가지고서 살면 지나가다가도 좋은 일 해 주고 언짢은 일은 언짢은 일대로 좋게 펴 주고, 이렇게 그냥 살면 얼마나 편안해요? 세세생생, 아니 끝간 데 없이 가도 '저거 내게 원수야.' 이러지도 않을 거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이름해서 부처예요. 그러니까 너라고 하는 자체가 없다는, 그 자체가 바로 부처라 이런 말이에요. 너라는 게 영 없는, 그런 자체가 부처란 말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해 보세요. '왜 그렇게 주인공을 찾아도 볕 볼일 없나.'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요. 그리고 내 말을 편치 않게 해 놓으면 내 마음은 항상 편치 않아요. 그러니까 편치 않게 해 놓고 편치 않게 살지 마시고 편안하게 해 놓으세요. 이건 자기 죽을까 봐 미리 편안하게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죽으나 사나, 살다가 이따 죽는대도 편안하게 해라. 편안하게 말을 해라. 죽는 게 뭐 그리 아까우냐. 아, 사실이지 죽는 게 뭐가 그리 아깝습니까? 바로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이 모습 활짝 벗어 버리고선 내 갖고 싶은 대로 가질 텐데 뭐 걱정입니까? 하여튼 편안하게 거짓 없이, 큰 말이든지 작은 말이든지 야단을 맞든지 어떻게 되든지 죽게 되든지 그것을 생각지 말고 편안하게 거짓 없이 사시란 말입니다, 모두가. 이익하게 살릴 수 있는 거짓말이 있죠, 또. 그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금이라도 걸레처럼 짜서 이렇게 마루에다 놔두면 걸레로 그냥 쓰기 때문에 집어 가지 않습니다. 그걸 금이라고 갖다 감춰야 그게 집어 가지죠. 근데 감추지 않고 내놨으니까 즉, 금을 내놨으려니 이렇게 생각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두 편안하게 사시고 이 도리를 '아, 관하라는 게 다른 게 아니구나. 바로 내 원소로구나. 내 공체 원소구나. 그러니까 에너지 주장자구나. 내 자불성이구나. 내 자불성! 그러니까 꼭 나는 나를 믿어야 되겠구나. 누굴 믿겠느냐.' 이렇게 하세요. 이 세상에 누굴 믿을 게 있습니까? 자기밖에 믿을 게 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마음으로 자기를 이렇게 믿는다는 건 믿는 게 아니죠. 자기 진짜 원소 말입니다, 생명력을 그대로 자불이라고 생각하고 믿으세요, 그냥. 진짜로 믿고 어떠한 통탄한 일이 생겨도 '너만이 그걸 해결할 수 있어!' 하고 맡기세요.

마음을 나쁘게 하고 그걸 나쁘게 진행하려고 그런다면 막아 나가는 것도 부처님 법입니다. 잘못될 일이라면 막습니다. 잘못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막습니다. 근데 이걸 굳이 해야겠다 그러면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도 속이지 말고 그냥 그렇게 정성스럽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또 넘어가죠. 넘어가게 되게끔 되겠죠.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고통이 있다 없다, 뭐 그러고 그냥 애쓰지 마세요. 알고 보면 하나도 나를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나 아닌 나가 있으니까요. 나 아닌 나가 나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체 만법을 가지고 있고 일체 화현의 도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 나 아닌 나로 인해서 모든 것을 살게끔 하세요.

은산철벽을 뚫으려면

문 마음에는 문도 없고 벽도 없다고 했는데 왜 은산철벽을 뚫어야만 한다고 하시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답 우리가 꼭 이 공부를 해야겠다는 조건은 뭐냐. 우리는 회전을 못해요. 미지수의 세계의 그 뜻을, 무(無)의 세계의, 즉 말하자면 움죽거리지 않고 움죽거릴 수 있는, 손을 누르지 않고 손을 누를 수 있는 용(用)을 할 수 있어야만 되는데, 그래야만이 유(有)에, 무(無)에 이것이 걸리지 않을 텐데 우리는 유의 세계만 아니까 항상 벽이 있는 겁니다. 이 벽이 있는 것을 은산철벽이라고 해요. 말을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냥 사방이 탁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걸 뚫어야 하느냐 이겁니다. 본래 막힌 것도 아닌데, 왜 막혔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방이 다 막히지 않은 걸 알려면 네 마음부터 알아라 하는 겁니다. 네 마음을 내놔 봐라, 네 마음이 막혔나 안 막혔나. 네 마음을 내놔 보면 그것이 양쪽으로 막혔는지 두 쪽으로 났는지 알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런데 내놓을 수 없는 반면에 막히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내놓을 수 없기 때문에 막히지 않았다 이거죠. 맘대로다 이겁니다. 막히게 하는 것도 자기 마음이요, 막히지 않게 하는 것도 자기 마음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량으로만 그것을 알아서 아니 되니까, 살아나가면서 하루에 조용한 시간을 좀 갖는 것이 좋습니다. 때에 따라서 나는요, 언제나 이날까지 저녁에 12시가 되든 1시가 되든 그냥 눕는 법이 없어요. 왜? 나는 습관이 그렇게 됐어요. 늦든지 안 늦든지 그걸 상관할 것 없이 눕기 전에는 한번 음미해 볼 수 있는 생각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무슨 생각이냐. 그냥 조용히 앉아 있고 싶은 생각. 그래서 조용히 단 십 분이라도 앉아 있다 아주 홀가분한 그 마음으로다 눕거든요. 24시간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한 십 분 동안 앉아 있는 동안에 다 훨훨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24시간이 10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10분이 뭐냐. 10분이 또 1초도 안 되는 거예요. 홀가분하게 없어졌으니까. 하여튼 1초도 안 된 거죠, 24시간이.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초월하는 그런, 그것도 이름 없는 초월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 우리가 하루 동안 이렇게 지내는 것을 사량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걸 처음에 일차적으로 할 때는 항상 모든 걸 거기다 맡기고 맡겨 놓고 믿고…, 그렇게 해나가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영 안되니까 내가 이렇게도 가르쳐 줬거든요. 네가 만약에 남자라면 엄마를 생각하든지 즉, 사랑하는 사람을 찾든지, 하여튼 여보를 찾든지, 뭐 그래도 좋다 이겁니다. 그건 이름이니까요. 또 아버지 없는 사람은 아버지를 찾든지, 그게 제 애비니까. 자기 생기기 이전 자기 조상이니까 바로 제 애비죠, 뭐. 지금 여자들은 남편더러도 아빠라 그러죠? 애들도 '아빠' 하는 거보다 '아버님' 하면 정이 덜 드는가 봐요.

그래서 간절히, 여자나 남자나 아무 이름을 불러도 좋으니까, 그것을 좀 더 자기한테, 자기 마음에 진짜로 내가 아주 그리워하는 그것을 이름을 따서 자기, 참자기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서 불러라 이겁니다. 말로만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된다. 생각으로 항상 그것을 사모하고 관하면서 진짜 진실로써 사랑할 수 있다면 거기서 샘물 터지듯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모든 건 거기다 맡겨 놓는다. 모든 건 맡겨 놓는다는 얘기가 없어도 여러분이 지금 맡겨 놓고 가고 있어요. 맡겨 놓고 가고 있는데도 그걸 모르는 겁니다. 만날 여러분은 쳇

☞30면으로 계속







그림 · 최주현

자기 주인공에서 만법이 나오는 것을
자기 주인공에다 맡겨 놓아야 합니다
맡겨 놓지 않고는
도저히 그 습을 뗄 수가 없습니다

☞29면에서 계속

바퀴 돌듯 하면서 놓고 돌고, 놓고 돌고, 놓고 돌고…. 나갔다가 집으로 들어왔다, 또 아침에 나갔다가 또 집으로 들어왔다, 요것만 봐도 아시지 않아요? 고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부처님께서 연꽃을 들자 가섭이 웃었다잖아요? 그 웃은 것이, 우리가 만 가지 꽃이 피고 만 가지 향이 나고 만 가지 법을 우리가 그대로 응용하기 때문에 그대로라는 걸, 그대로 얼굴로써 그 꽃을 피운 거죠. 꽃을 든 분이나 꽃을 피운 분이나 똑같이 마음이 맞은 거죠. 그래서 제일착으로 그 법을 전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믿고 놓고 간다. 모든 걸 착을 두지 말고 거기에다가 매사 걸 다 놓는다. 나는 그저 내 주인에 의해서 오고 갈 뿐이다, 달팽이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를 해 가지고 나, 잠나가 탄생이 됐을 때 그때는 체험하면서 정말 미지의 그 모든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진짜 공부가 나오는 것입니다. 본래 탁 터져 있는 그 이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나와 근본으로서의 나

문 이 몸을 가지고 있는 이것이 '나'라고 생각하면서 수십 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 몸을 이끄는 '근본 나'가 있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습니다. 이 육신으로서의 '나'와 '근본 나'와의 관계는 어떠한 것이며 어째서 근본 나에 의지해서 살아야 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답 만약에 당신이 어느 길을 가다가 당신 친구와 몇 달 만에 만났어요. 만나니까 아주 반갑죠. 반가워서 손을 탁 잡는데 손이 가서 손을 잡는 겁니까, 마음이 가서 잡는 겁니까? 마음부터죠? 그러면 손은 저절로 갔죠? 그러니깐 이 육체가 움죽거리는 건 주인공이 있으니까 그냥 움죽거리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모든 전체 일거수일투족이 다 주인공에서 나오는 겁니다. 주인공이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거든요. 그러니깐 불성이다, 또 주인공이다 자불(自佛)이다 이러죠. 나라는 자체는 그저 응용하는 대로, 이 팔이 들리면 들리는 대로 들어 주고 다리가 들리면 들리는 대로 들어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홈빡 그냥 심부름꾼이에요, 그냥. 절에서 따진다면 시자라고 그러죠.

그런데 따지고 보세요. 심부름꾼을 바깥으로 두었다면 다 못합니다, 시자 노릇을. 보이는 걸로 자기가 시자를 두었기 때문에 그 안 보이는 자기의 심부름꾼으로 심부름을 다 하죠. 그래서 모두 안목이 있죠. '아, 이분은 정치에 나왔는데 좀 쓸 만해.'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누구나가 보면 '좀 가벼워서 좀 안됐어. 그 값어치는 좀 못돼.' 이렇게 말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여러분이 다 도인이에요. 그냥 부처예요.

먹는 것도 이게 내가 먹는다고 "아이, 맛있게 먹었어. 참 잘 먹었네." 이러지만요, 그게 내가 먹은 게 아니라 모두 자기 역량대로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먹으려고 생각을 해 놓고 먹는 게 아니라 반찬이 쭉 있으면 이게 여기서 먹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부터 집어 먹게 되죠. 그게 여러 가지 이렇게 집어 먹게 되면 여기서 소화 기능이 제대로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안에서는 좋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잘 먹었다고 그러는 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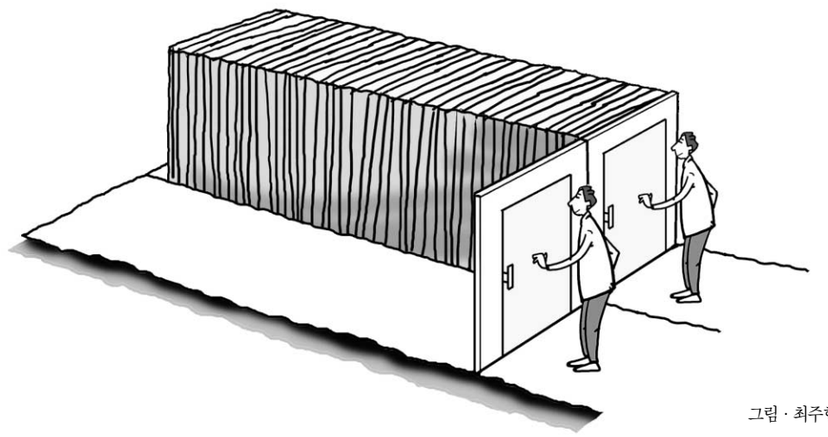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내 주인공이라는 주장자 하나를 가지고 살라!

그러니까 그냥 모두 할 말도 심부름해요. 말도 자기 말이 아니라 모두 거기의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살기 때문에 '참 귀하구나. 내가 이렇게 귀한 줄은 정말 몰랐구나. 내가 이렇게 귀하게 부모의 은덕으로서 몸을 빌어서 받고, 내가 이 귀한 원소 자체, 자불(自佛)이라는 원소 자체, 그것이 에너지인데 그 에너지를 알았다.' 그 에너지의 한 방울에 의해서 이 우주의 에너지를 다 같이 할 수가 있는 한 덩어리이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살면서 이제는 우리가 너무써서 에너지가 없어서 살 수가 없느니 뭐 어쩌느니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얼른 쉽게 말해서 나부터도 못나서 그런 거예요. 내가 보이지 않는 운전수로 산다면요, 보이는 차로만 살지 말고 운전수와 이 보이는 나와 같이 다니면서, 보이는 나는 모르는 사람에게 보이게끔 돼서 이익을 주고, 또 그 안 보이는 데서는 모르는 사람에게 이익을 주려면 안 보이게끔 해야만 하죠. 안 보이는 것이 절반 이상 넘는다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업을 짓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나는 '업이 없다' 이랬습니다. 업이 없다고 그런 것은 '컴퓨터에 업이 있어서 나오는 것을 거기다 그냥 놔라. 거기다 맡기고 그러면 그게 뒤집어져서 그 업이 없어진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기에 달린 거니까 업이 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이 한생각을 잘하면 업이라고 할까 고통이라 할까, 그 고가 그냥 흐스런히 풀어지는 거고요, 한생각을 잘못하면 그냥 오그라지는 거죠, 뭐. 사람이 펼 수가 없고요.

인생으로 태어나서 한번 한 철 이렇게 살아나가는데, 누구나가 다 한 철 살고 죽지 않아요? 누구나가 한 철 사는 것이 탤런트들이 역할 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막이 내리면 그건 다 지나간 과거가 되잖아요, 우리가 한 철 사는 게. 그러니까 그 한 철 살아서 어차피 죽고 어차피 남과 같이 똑같이 그렇게 할 거, 어차피 한 철인데 내가 열심히 해서 한번 뛰어넘어 보겠다, 그렇게 회향을 하겠다 한다면, 그렇게 결심만 한다면 그런 것들이 다 문제가 아니 될 겁니다.

한 번 죽을 때의 변화

문 스님께서는 저희에게 세 번 죽어야 하는 도리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한 번 죽을 때의 변화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주인공 공부를 하여 단계적으로 죽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그 단계 조차도 그냥 하나로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가르침 주십시오.

답 내가 항상 얘기하죠. 나를 발견할 양으로 모든 걸 거기다 놓고 들어가면서 하는 것이, 모든 걸 한군데다 놓고 내가 고정된 게 없이 그렇게 돌아가니깐, 내가 쑥 없어지죠? 생각을 해 보세요. 아버지로 남편으로, 뭐 이걸로 저걸로, 한마음의 심봉으로 모든 게 매사에 돌아가니까 그 심봉을 따진다면 어느 편에 설 수도 없으니까 없는 거죠. 아이, 심봉은 어느 편에 설 수도 없죠. 그냥 돌아가는 맷돌에 의해서 그냥 우뚝 섰으니까, 어느 편에 선 곳도 없잖아요? 그러니깐 바로 거기까지 침투할 때까지 죽어야 한다. 그 어떤 걸로 세울 수 없는 것이, 그 도리를 아는 것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서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 내가 죽어서 둘 아닌 도리를 알고. 세 번째, 내가 죽어서 둘 아니게 나투는 거를 알아야 합니다. 왜, 법신 · 보신 · 응신으로서 모든 그 나 아님이 없이 나투는 거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돼지를 건지시려니까 응신이 돼 가지고 돼지한테로 들어가서 너무 오래 있으면 물들까 봐 걱정이 된다는 그런 말도 있죠. 돼지를 건지려면 돼지가 돼서 들어가야 저항력을 느끼지 않지, 돼지가 아니라 사람이 들어가는 걸로 돼지가 알면 저항력을 느껴서 못 받아들이죠. 뱀도 그렇고 짐승도 그렇고, 곤충도 그렇고 저 목신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용신은 용신이 돼서 들어가야 용신이 깨깍 받아들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체 응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죽어서 나를 발견하고, 또 두 번 죽어서 둘 아닌 도리를, 모든 전체가 둘 아니게 돌아감을 알고, 세 번 죽어서 모두가 나 아님이 없이, 내 아픔 아님이 없이 나투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세 번 죽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이렇게 깨닫고 본다면, 이게 깨닫는 것도 수월합니다. 아주 편리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남들은 20년 30년 있어도 '이게 뭣고?' 하고서, 예를 들어 수박을 놓고서 '이게 뭣고?' 하고 의정을 내어 아무리 굴려 봐도 수박은 수박인데 맛을 모른다 이겁니다. 그냥 무조건 하고 죽고 사는 것을 버린 채 그냥 깨뜨려서 맛을 보는 것이 바로 일 단계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돈이 아니면 우리 전체 식구가 죽는다 하더라도 겁내지 않고, 돌 위에 세워놔도 살아요, 이 도리를 발견하면. 자기를 끌고 다니는 자기 주인공은 어떡하든지 먹이고 입히고 어떡하든지 자기 몸을 건강하게 이끌어서 끌고 가는 겁니다.

잠시 산다 하더라도 삶의 보람을 느끼게 하면서, 갈 때는 콩깍지가 익어서 '툭' 건드리기만 해도 '툭' 콩이 떨어지듯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 마음공부를 잘못해서 익지를 않으면 콩깍지가 익지 않은 것과 같아서 죽을 때도 그냥 병고에 시달리고, 그 콩깍지 속껍데기가 붙어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고생을 하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잘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 이 생에서 콩깍지가 툭 떨어지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각자가 다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1천원으로 부처님 말씀 전하세요"

최상의 보시인 법보시 공덕을 지으세요

● **참여방법**
- 현대불교 매월 '법보시 후원금' 1구좌 1,000원 이상
- 현대불교신문 보내는 곳 : 군부대, 교도소, 경찰서, 병원법당, 복지시설 등
- 후원 계좌 : 국민은행 006-01-0783-830 / 농협 053-01-236053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자동이체로 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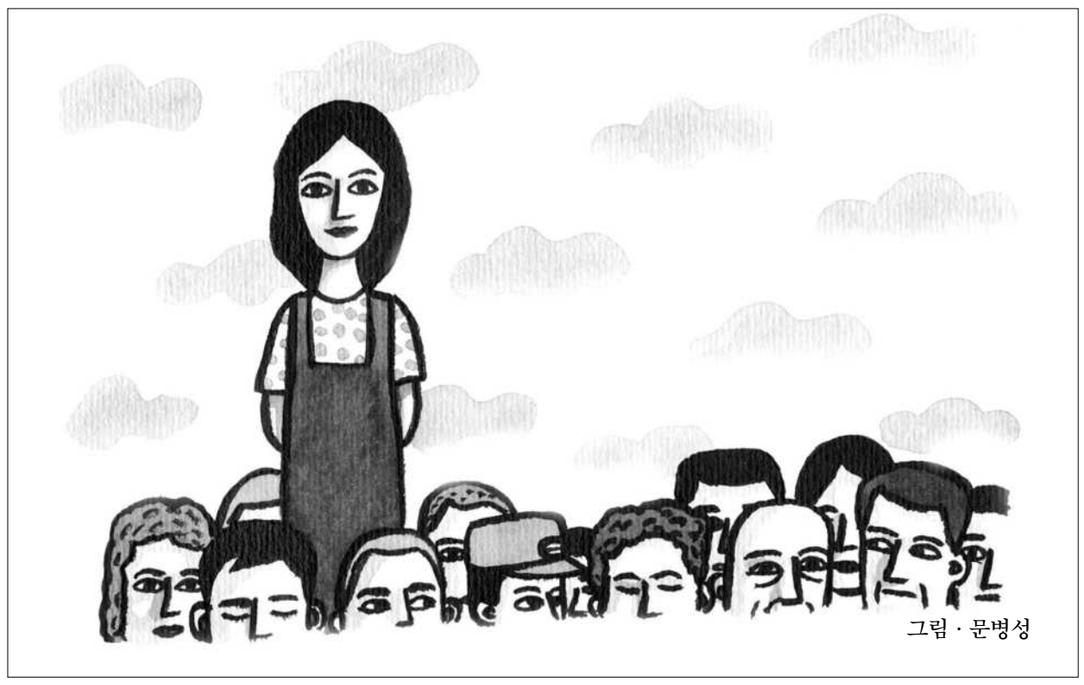
※자동이체 신청은 전화 한통화로 해결됩니다.

● 문의:현대불교신문사 고객부 (02)2004-8211, 8212 팩스(02)737-0697



마음 내려놓기 (상)

양경인 (서울시 중구 필동)


그림 · 문병성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조금 모자라고, 박지성 선수처럼 전 세계의 축구선수들에게 수비를 당할 만큼 뛰어난 축구실력을 지니진 못했지만, 나름대로 충분히 잘났다고 믿고 살아간다. 길거리를 지나는 수많은 사람들 중 아무나 붙들고 물어보아도 그건 변함없는 사실일 것이다. 혹자는 "무슨 말이냐, 너는 못나고, 어리석고, 뭐하나 잘 하는 것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다"라고 항의를 해올지 모르겠다. 물론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길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내게 돌을 던지며 손가락질하고 욕을 한다면 누가 그걸 고스란히 받아줄 수 있겠는가? "나는 저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아 마땅한 사람이며, 돌을 맞아도 싸다"라고 자위하겠는가? 가슴에 손을 얹고 아무리 되뇌어 봐도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을 것이다. 자신이 왜 저들의 손가락질을 받아야하는지, 왜 돌팔매질을 당해야하는지 도저히 이해는커녕 받아들일 수도 없을 것이다.

물론 나도 마찬가지이다. 고등학교 때부터 불교학생회 활동이며, 고등학교 불자 연합회, 파라미타 활동에 이어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졸업까지. 불자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감투는 다 써봤다고, 스스로가 엘리트 불자라 자부하며 살았다.

불교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고대 인도에서부터 유래된 종교, 깨달음의 종교, 여래장, 유식, 진리, 업과 윤회 등등 수많은 단편지식으로 짜깁기한 말들로 정의내리기 시작했다. '서당개 삼년이면 풍월을 읊는다'고 했던가? 이래저래 10년에 걸쳐 들은 말들은 청산유수처럼 흘러나왔다. 물론 얼마 지나지 않아 다 부질없는 허울이고, 껍데기라는 사실을 깨닫긴 했지만 말이다.

하루는 친구가 밥을 먹다가 머리가 아찔할 만큼 충격적인 한마디를 던졌다.

"넌 너무 아만이 가득해, 넌 지금 '감히 내가 누군데 날 함부로 대하냐'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

얼마나 청천벽력같은 말이었는지. 아니라고 대꾸하는 목소리가 나도 모르게 갈라져 나오고 있었다. 급기야 내가 언제 그랬냐고, 자기 합리화에 열을 올리고 있는 내 모습이 얼마나 처량하게 여겨지든지.

언젠가 지하철 계단을 오르며 내려가는 여학생들의 요란한 구두 뒷굽 소리와 분명히 어깨를 부딪치고 다른 사람의 발을 밟고도 무심히 지나치는 주변 사람들의 모습에 유독 맘이 많이 상해 있었다. 그럴 때마다 직접 그 사람에게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친구를 만날 때는 험한 표현을 써가며, 교양이 없다는 둥, 개념이 없다는 말을 무심히 내뱉었다. 그런 말을 거침없이 하는 내게, 항상 지켜봐온 친구가 정곡을 찌른 것이다.

"넌 아만으로 가득해" 친구 지적에 충격
지난날 행동 가식처럼 느껴져 마음 답답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다. 아니라고 부정하면서도 친구의 말을 딱 자르지 못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여겨졌다.

어린 시절 할아버지와 할머니, 고모들, 온 동네 친척들의 귀여움을 한 몸에 받고 자란 나는 세상에 무서울 것도 없고, 내 것이 아닌 게 없었다. 특히나 외아들을 두신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큰 손녀에 대한 사랑은 누가보아도 눈에 넣어도 아플 것이 없는 손녀라는 말이 절로 나올 만큼 대단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로 기억한다. 모내기 준비로 한참 분주하신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 새로 산 원피스를 자랑하기 위해 논두렁을 뛰어가고 있었다. 파릇파릇한 풀이 가득한 강가 논두렁에는 흑염소 무리가 열심히 풀을 뜯고 있었는데, 그 중 한 마리가 내가 몹시 거슬렸나보다. "할아버지 새 옷 입었어요!"라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염소 뿔에 받힌 나는 물이 질펀한 논에 곤두박질쳤다. 입이며, 코, 얼굴에 가득한 흙을 닦으며 고개를 들고 보니 진풍경이 펼쳐졌다. 저 멀리서 단걸음에 달려오신 할아버지가 염소 뿔을 양손으로 잡고는 논바닥에 내팽개 치시는 게 아닌가. 하도 놀라고 어안이 벙벙해서 아픔도 잊고,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그 염소는 그날이 제삿날이 되었고, 여동생의 배꼽을 쪼아서 할아버지의 눈 밖에 난 닭도 그날 밥상 위에 올랐다.

감히 나를 건드리는 건 동물이든 사람이든 할아버지가 가만히 두질 않으셨다. 세상에 거칠 것이 없었다. 그렇게 살았다.

그렇게 완전한 울타리 안에서 나밖에 모르며 자랐고, 내 가족, 내 사람들만 똘똘 묶어서 아무도 침범하지 못하는 성곽을 만들며 살아온 것이다. 마치 그 성의 주인인 양….

그런데 언제부턴가 나는 같은 학교를 다니는 돈각 스님을 찾아가 뵙고는 인사가 끝나기 무섭게 하루의 일과와 일상적인 생활이야기, 못마땅한 이야기, 화난 이야기를 두서없이 하고 있었다.

"아니, 스님이 왜 저래요?"

"절에 절하러 오지 자식 자랑하러 왔나요?"

"불교공부 얼마나 했다고 아는 척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곧 부처라는데 불상에 소원 빌기에 바쁜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하루에도 수 만 가지의 자만과 오만, 무시와 치부로 가득한 생각들이 머릿속, 마음속을 헤매고 돌아다녔다. 그 모든 말들을 여과 없이 스님께 전달하고 나면 일단 내가 편안해지니, 스님이 듣기에 불편하시지 않을까 헤아릴 틈도 없이 터져 나왔다.

스님은 과연 모르고 계셨을까? 어째서 한마디 말씀도 안 하시고 가만히 듣고만 계셨을까? 무엇보다 스님께 이 마음을 모두 들켰다는 게 더없이 부끄럽게 여겨졌다.

그러고 보니 나는 사소한 일에 너무도 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침 출근 시간 붐비는 지하철을 탈 때만 해도 그렇다. 콩나물시루처럼 빽빽한 지하철에서 어떻게든 그 지하철을 타야 출근을 하는 사람들은 온몸을 밀치고 타게 마련이고, 나도 그 틈에 섞일 수 밖에 없음에도 심한 불쾌감을 느낀다. 지하철을 내릴 때까지 양옆, 앞뒤로 달라붙는 다른 사람들의 체온, 짧은 소매 아래로 닿는 맨 살의 느낌, 숨소리 등등 심지어는 앞에 서있는 사람의 머리카락 스침마저도 뱀과 같은 소름이 끼치곤 했다. 피치 못할 사정에 어떤 의도도 없이 부대낄 수밖에 없는 다른 사람들의 심정은 아랑곳 하지 않고 나만의 공간을 확보하고자 애쓰고 있는 내 모습이 떠올라 가슴이 답답해져왔다.

도저히 참지 못해 나는 다시 돈각 스님을 찾아 상담실로 향했고, 내 어린 시절과 신경질적으로 예민해져 있는 내 모습이 친구의 말대로 아만 덩어리로 여겨지는 이 솔직한 심정도 맘속에서 봇물 터지듯 터져 나왔다.

내 모든 것이 가식처럼 느껴졌다. 영화 '홍반장'을 보면 주인공이 모든 마을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고, 안부를 물으며 마을 대로를 지나는 장면이 있다. 나 또한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인사는 잘해야 하는 것이며, 아침식사는 하셨는지, 날씨는 덥지 않은지, 일일이 여쭈어 가며 길을 지나간다. 이렇게 늘 해오는 인사는 나를 대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임에도 이제는 아만의 한 단면으로 여겨져, 더 이상 사람들과 눈도 마주칠 수 없고 대표로 앞에서 발표를 하는 일도 힘들어졌다. 어깨를 반듯이 하고,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걷는 것마저도, 큰 소리를 내어 웃는 것도 모두 조심스럽고, 맘 편히 숨쉬기도 힘들었다. (계속)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일상의 생활에서 또는 신행의 현장에서 자신의 가슴에 차곡차곡 담아두었던 체험을 수기로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귀중한 신행체험 수기는 많은 불자들의 신행생활에 좋은 지표가 될 것입니다.

- 주제: 일상속의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삶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장 안팎(A4용지 4장)
- 접수처: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2004-8241
- 인터넷 접수: bypark@buddhapia.com

2005년도 불교역사를 한눈으로 - 『현대불교신문 합본 11집』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를 지향하는 현대불교신문 2005년 합본집이 발간되었습니다.

2005년 한해 불교계가 지나온 발자취가 담겨진 현대불교신문 합본집은 상, 하 두권으로 나누어 불자님들께서 보다 쉽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깊이 있고 다양한 불교교리와 불교문화 관련 자료와 정보 등이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어 스님들께는 수행의 반려자가, 불자님들께는 더 없는 불교의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구입 안내
- 구성 : 상권 - 2005년 1월(507호) ~ 6월(532호)에 발행된 현대불교신문
  하권 - 2005년 7월(533호) ~ 12월(558호)에 발행된 현대불교신문
- 판형 : 신문원형 그대로 (40cm × 55cm) ● 절차 : 신청 → 입금확인 → 발송
- 가격 : 상하권 총 80,000원(낱권 판매 불가)
- 입금계좌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국민 245-25-0001-461 / 농협 053-01-236053

주문 및 문의
- 구성 : 전화 (02) 2004-8211, 2 / 팩스 02) 737-0697 / Email: cetana@buddhapia.com
  현대불교신문사 고객 1팀
- 과년호 한정판매
  2000년~2002년 (6집~8집) : 50,000원 / 2003년~2004년 (9집~10집: 상, 하권) 70,000원
  ※ 재고가 많지 않아 한정판매 합니다.

탈 종 공 고

- 사찰명 : 보화정사
- 회 주 : 탄공
- 주 소 : 인천 연수구 연수동 520-6호

- 사찰명 : 동원사
- 주 지 : 지각
- 주 소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 2동 1-6

- 사찰명 : 상선암
- 주 지 : 보성
- 주 소 : 경남 하동군 하개면 덕은리 515-2

- 사찰명 : 원묘사
- 주 지 : 영암
- 주 소 : 충남 예산군 응봉면 노화리 산 50-5

- 사찰명 : 보화정사
- 주 지 : 광진(대일)
- 주 소 : 인천 연수구 연수동 520-6

- 사찰명 : 관심사
- 주 지 : 법정
-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팔달면 가재 2리 8-1

- 사찰명 : 관음정사
- 주 지 : 혜능
- 주 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도동 578-1

- 사찰명 : 용마사
- 주 지 : 서광
- 주 소 : 충남 홍성군 금마면 죽림리 11

- 법 명 : 성오
- 주 소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개곡리 432

상기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와 종풍을 수행할 수 없어 이에 탈종을 공고합니다.

불기 2550년 6월 21일

(재)한국불교법륜종 총무원장 법하

단단히 무장하고 중생 구제 실현토록 수호

불화 속의 명장면 (11)

美 보스턴미술관 소장 '약사삼존십이신장도'



〈약사삼존십이신장도〉 미국 보스턴미술관 소장 조선전기(16세기). 십이신장: 오른쪽 밑에서부터 위로 궁비라(寅)·벌절라(卯)·미기라(辰)·안저라(巳)·알이라(午)·산저라(未), (왼쪽 위에서부터 아래로) 인달라(申)·파이라(酉)·마호라(戌)·진달라(亥)·초두라(子)·비갈라(丑) (필자추정)

높은 수미좌에 강건한 자태로 앉아 있는 약사유리광여래, 가녀린 긴 손가락을 모아 합장하는 아리따운 일광보살과 월광보살. 찬연한 금빛 육신의 이들 약사삼존은 주색 자색 청색의 명료한 채색과 다채롭고 풍부한 장식으로 단연 그 존재가 돋보이는데, 이들을 이렇게 돋보이게끔 하는 또 다른 것은 바로 이들을 주변에서 외호하는 십이신장(十二神將)의 존재.

약 3년 전 미국 보스턴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고려불화를 조사하던 중, 한국 작품이 한 점 더 있다며 우연찮게 소개받은 것이 이 '약사삼존십이신장도'였습니다. 정리 안 된 유물 창고 속에서도 이 작품에서 발산되는 서릿발 같은 기개는 도저히 감춰지지 않았습니다. 막 낚아 올린 물고기처럼, 마지막 터치 후 붓의 물감이 채 마르기도 전인 듯, 그렇게 작품의 색과 선은 광채를 내며 생생히 살아 있었습니다.

약사삼존의 주변으로는 진기한 모습의 십이신장이 서 있습니다. 이들의 검은 피부와 개성 강렬한 기괴스런 표정, 견갑의 무복 표현은, 견고한 포즈의 단아 근엄한 약사삼존과 절묘한 대비를 이루어, 금빛 육신의 삼존을 더욱 환하게 드러나게 합니다.

십이신장의 강렬한 표정
약사삼존과 대비 '압권'

일광보살과 월광보살의 옷에 가득 시문된 타원형 꽃문양은 거리를 두고 보면 마치 귀갑문(龜甲文) 같이 보이는 독특한 효과를 냅니다. 길게 뻗친 검은 머리 가닥과 경직된 듯 흐르는 옷자락과 더불어 강렬한 인상을 주는 양 협시보살은 무엇보다도 먼저 감상자의 눈에 포착되지만, 이에 못지않게 눈길을 사로잡는 것이 뒤에 가득 포진한 십이신장입니다. 보기 드문 회화적 완성도를 보이는 이들은 각양각색의 표정과 몸짓으로 그 활달한 개성이 넘칩니다.

이 작품 하단에 있는 붉은 구획 속 금글씨 화기에는 '대비전하(大妃殿下)가 주상전하(主上殿下)의 장수와 나라의 안녕을 위해 채색화 석가수도회도 2점, 채색화 약사도 1점 및 지장도 1점, 순금화 치성광회도 1점을 발원했다'라고 쓰여 있어 왕실의 대비마마가 의뢰한 총 5점의 작품 중 한 폭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작품의 화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 어휘와 문장 패턴 그리고 존상의 육계, 대좌, 인체 프로포전 등 작품의 형식적 특징을 고려해 볼 때, 16세기 조선왕실의 궁정양식이라고 일컬어지는 문정왕후 발원의 일련의 작품군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래서 본 작품 역시 16세기 조선전기로 추정해도 무리가 없겠습니다. 단 이들 문정왕후 관련 작품군의 필선과 화격을 비교해 볼 때, 본 작품의 명확하고도 날카로운 필력과 그 풍부한 회화적 묘사력은 월등해 16세기 궁정양식의 전범(典範, 모범적 모델)으로 당시 양식을 규정하는 기준이 되는 역작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소위 '인명 없는 미술사'라 여겨지는 전통 속에서, 통일신라시대 미술을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린 소조의 마술사 양지(良志)·고려불화의 신묘한 경지를 개척한 서구방(徐九方)·불화를 표현주의적 회화로 승화시킨 조선전기의 이자실(李自實)로 이어지는 맥락을 잇는 작품임에 틀림없습니다(개인적으로는 이 '약사삼존십이신장도' 역시 이자실의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본 작품은 '숭유억불'이라는 불교탄압의 먹구름을 한숨에 걷어버릴 듯한 밝고 명료한 필치로 그 바로크적 활달함이 매우 매력적입니다.

그런데 병을 고쳐준다는 약사여래가 그려진 불화에 각종 무기와 갑옷과 투구로 투철하게 무장한 십이신장이 등장하는 연유는 무엇일까요.

약사여래가 보살로서 수행할 때에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열두 가지의 큰 서원을 세웠다고 하는데, 그 12대원(十二大願)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원 광명보조(光明普照 스스로를 지혜의 빛으로 밝혀 가없는 세계를 비추리라), 제2원 수의성변(隨意成辦 드높고 빛나는 위덕으로 중생을 모두 비추어 깨우치리라), 제3원 시무진물(施無盡物 필요한 물건을 마음껏 얻게 하여 궁핍함이 없게 하리라), 제4원 안립대승(安立大乘 삿된 길에 빠져 있더라도 편안한 대승 깨달음의 길로 안내하리라), 제5원 구계청정(具戒淸淨 청정한 법을 닦아 삼취계를 갖추게 하리라), 제6원 제근구족(諸根具足 온전치 못한 몸과 정신을 가진 일체 불구자를 완전케 하리라), 제7원 제병안락(除病安樂 온갖 병을 없애어 몸과 마음을 안락케 하리라), 제8원 전녀득불(轉女得佛 여인의 몸으로 핍박받는 자 있으면 장부로 태어나 성불케 하리라), 제9원 안립정견(安立正見 모든 유정에서 비롯되는 악마의 그물과 구속에서 벗어나게 하여 바른 길로 이끌리라), 제10원 제난해탈(除難解脫 속박과 재난 능멸 등의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리라), 제11원 포식안락(飽食安樂 굶주림을 참지 못해 나쁜 짓을 한 자라도 배부르게 하리라), 제12원 미의만족(美衣滿足 헐벗은 이에게 좋은 옷을 주어 만족케 하리라).

십이신장은 이상의 12대원이 실현되도록 수호하는 호법신입니다. 〈약사본원경〉 12대원은 온전한 몸을 받지 못한 불구자들, 병을 앓아도 돌보아줄 이조차 없고 의사나 약은 물론이요 친지도 없고 머무를 집조차 없는 가난한 이들, 학대받는 여성, 감옥에 갇힌 재소자들, 당장 목마르고 헐벗고 굶주려 민생고에 시달리는 이들, 그래서 부처님께 귀의조차 할 수 없는 이들을 위한 거룩한 다짐입니다.

어둠 속 중생에 현실적 이익
베풀겠다는 직접적 단언 상징

즉 사회의 모든 약자와 은혜의 손길이 닿지 않은 극한 어둠 속의 중생들에게 지극히 현실적이고도 물질적인 이익을 베풀겠다는 직접적인 단언입니다. 이러한 대원을 실현시키려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단단히 무장하고 굳건히 추진시켜야 하겠지요.

설법을 듣고 있던 대중 가운데 십이야차신장이 있었답니다. 이 십이신장에게는 각각 7000명의 야차가 권속으로 딸려 있었는데, 이들은 함께 "저희들 권속이 맹세코 중생을 호위하여 이들이 온갖 재난에서 벗어나도록 하여 원하는 바를 남김없이 만족하게 이루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답니다. 이 약사신앙 유래의 십이신장은 중국 자생의 12지(十二支) 신앙과 습합되어 방위 및 시간을 관장하는 수호신으로 통일신라시대부터 능묘의 병풍, 석탑 기단부 등에 응용되어, 중생의 안녕뿐만 아니라 나라의 안위를 지키는 호법신으로서 상징적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본 작품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힘차고 강건한 십이신장이, 밤낮 12시를 차례로 지키고 또 열두 방향(동서남북 사방을 셋씩 나누어 세분화한 것)에서 시시각각으로 밀려드는 8만 4000의 번뇌를 막아주고 있다니, 오늘밤도 잠 못드는 고민의 심연 속에 괜스레 몸을 뒤척일 필요가 없을 듯합니다.

강소연(미술사학자 · 홍익대학교 겸임교수)



밀랍주조공법으로 제작된 강릉시민의 종
높이 3.15m, 직경 1.85m 중량 3000관

世界가 격찬한 聖鐘社 梵鐘

초대형범종의 밀랍주조공법 개발 성공

– 에밀레종, 상원사종을 초월하는 초정밀 범종 제작 실현 –

聖鐘社가 지난 2004년 중소기업청이 전개하는 기술혁신 개발사업을 통해 본사 전매특허인 蜜蠟鑄造工法으로 10,000관 이상의 초대형 범종까지 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법당종에서 입증된 성종사 작품종의 섬세한 문양과 부드러운 소리를 이제 大鐘에서도 만나보실수 있습니다.
聖鐘社는 최고의 범종 제작을 위해 항상 연구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종사가 보유하고 있는 4가지 신기술

1. 세계 유일의 밀랍주조공법 보유 업체
지난 97년 신라의 범종주조기법인 밀랍주조공법을 독자 재현하는데 성공, 인간문화재로 지정된 원광식대표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밀랍주조공법으로 범종을 제작하는 종장으로 세계에서 가장 표면이 깨끗하고 문양이 정교한범종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2. 세계 유일의 음향조율기술 보유 업체
성종사는 최첨단 음향측정장치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회사로범종의 음향 분석은 물론 음향조율 기술을 통해 완성된 범종의 소리를조율해 드리고 있습니다.

3. 세계 유일의 범종 열처리기술 보유 업체
성종사는 범종 열처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회사로 범종의 금속조직을 균일화시켜줌으로써 범종의 소리를 부드럽게 함과 동시에 수명을 연장시켜 주고 있습니다.

4. 국내 최고 착색기술 보유 업체
성종사는 기존의 착색방식에서 탈피, 한국 최초로 범종에 다양한 착색처리를 도입함으로써 갈색, 구리색, 녹청색, 금색 등 다양하면서 아름다운 색상의 범종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정교하고 아름다운 성종사 범종의 하대 문양 !

聖鐘社
● 본사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43 TEL : 02-733-6141 / FAX : 02-733-4840
● 공장 : 충북 진천군 덕산면 합목리 406-28 www.soungjoungsa.co.kr / E-MAIL : sungjongsa@hotmail.com
대표 : 범산 원 광 식(인간문화재 112호 • 대한민국 명장)